

2015

성북구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조사 보고서



목차

성북구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 보고서

I.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II. 조사 결과

1. 지역별 설문 응답 횟수	• • •	4
2. 보문동 설문 조사 결과	• • •	4
3. 종암동 설문 조사 결과	• • •	34
4. 장위1동 설문 조사 결과	• • •	66
5. 장위 2동 설문 조사 결과	• • •	99
6. 석관동 설문 조사 결과	• • •	130

1 조사목적 및 조사 방법

1. 조사 목적

○ 2015년부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동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에 있으며, 성북구는 동주민 복지센터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마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마을계획수립을 위해 동별로 주민들이 생활상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과 욕구조사를 통해 마을계획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방법

- 보문동, 종암동, 장위1동, 장위2동, 석관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을 조사원으로 선발하여 6월 한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원에게는 조사의 특성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 표본은 각 동별 연령별 인구분포를 파악하여 이에 비례하여 동별 표본수를 배정한 후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면대면 방식으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설문조사는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고, 보문동 468부, 종암동 530부, 장위1동 483부, 장위2동 469부, 석관동 526부를 회수하였다.
-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동별로 분석하였다.

2) 설문지 내용 구성

- 설문지의 내용은 성별, 연령, 가구원수 등 사회경제적 특면에 관한 일반사항, 거주지 선택이유, 생활 및 지역사회 만족도, 참여여부 등 4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생활상의 어려움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조사하는 항목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은 마을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행동틀킷¹⁾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제와 아이টে임을 성북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설계하였다. 주요 마을단위 필요 의제로 사회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노인서비스와 시설, 교육 서비스와 교육환경, 주택 및 주거환경, 보행 및 교통환경, 쓰레기 문제, 안전과 치안 등 8개 분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생각은 5점 리커르트 척도(1점=전혀 심각하지 않음, 2점=대체로 심각하지 않음, 3점=보통이다, 4점=대체로 심각함, 5점=매우심각함)로 측정하였다.

1)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개발한 마을단위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찾는 툴킷임.

<표 1> 설문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수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9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구형태, 거주기간, 주택형태, 거주형태
거주지 선택	4	거주지 선택이유, 타지역 이사계획, 이사계획 이유, 이사계획이 없는 이유
생활 및 지역사회 만족도와 필요	11	생활상의 어려움,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보육과 돌봄, 청소년, 노인, 교육서비스와 교육 환경, 주택 및 주거환경, 보행 및 교통 환경, 쓰레기 문제, 안전과 치안
참여에 대한 생각	4	참여여부, 참여방법,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예산제 참여내용

II. 조사 결과

1. 지역별 설문응답 횟수

설문지는 총 2,476부를 회수하였으며, 보문동 468부, 종암동 530부, 장위1동 483부, 장위2동 469부, 석관동 526부 설문에 응답하였다.

	빈도	퍼센트
보문동	468	18.9
종암동	530	21.4
장위1동	483	19.5
장위2동	469	18.9
석관동	526	21.2
합계	2476	100.0

2. 보문동 설문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68)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10	46.4	혼인여부	비혼	81	18.2
	여성	243	53.6		기혼	365	81.8
	무응답	15			무응답	22	
연령	20대	39	8.8	학력	무학	5	1.1
	30대	80	18.0		초졸	26	5.8
	40대	105	23.6		중졸	58	13.0
	50대	108	24.3		고졸	173	38.7
	60대	91	20.4		전문대(중퇴)졸	73	16.3
	70대 이상	22	4.9		대학(중퇴)졸	97	21.7
	무응답	23			대학원이상	15	3.4
					무응답	21	
가구원 수	1	33	7.1	가구특성	혼자사는 가구(독거가구)	33	7.4
	2	66	14.1		부부가정	76	17.1
	3	90	19.2		부부+자녀가정	280	62.9
	4	193	41.2		조부모+부부+자녀가정	19	4.3
	5	29	6.2		한부모+자녀 가정	27	6.1
	6	8	1.7		조부모+손자녀가정	5	1.1
	7	2	.4		기타	2	.4
	무응답	80	17.4		무응답	26	

2) 주거 및 거주 특성

(1)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자가 23.9%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중 10년 이상 거주자가 71.4%로 나타났다. 이는 보문동 지역이 10년 이상 오랫동안 거주하는 거주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6	1.3
3년 미만	57	12.2
5년 미만	55	11.8
10년 미만	96	20.5
20년 미만	112	23.9
30년 미만	71	15.2
30년 이상	53	11.3
무응답	18	3.8
합계	468	100.0

(2) 주택형태

주택형태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거주자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이 35.4%를 나타냈다. 이는 보문동의 특성이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위주의 주거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단독주택	158	35.4	자가	241	53.3
아파트	98	22.0	임대-전세	138	30.5
다세대/연립주택	164	36.8	임대-보증부 월세	16	3.5
상가주택	19	4.3	임대-월세	53	11.7
기타	4	0.9	임대아파트	1	0.2
무응답	25		기타	3	0.7
합계	468		무응답	16	
			합계	468	

3) 거주지 선택과 이사 계획

(1) 거주지 선택 이유

보문동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직장과 사업이 77%, 경제적 형편이 67%로 나타났다. 자녀육아와 양육은 1.5%, 교육환경은 0.2%로 낮게 나타났다. 보문동 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에 오래 살아온 지역이라는 것과 직장과 사업, 경제적 형편, 가족친지, 교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므로	168	36.2
경제적 형편에 적합하므로	67	14.4
임시거주지이므로	19	4.1
직장 또는 사업때문에	77	16.6
가족, 친지들이 있어서	49	10.6
교통이 편리해서	49	10.6
자녀육아, 양육 때문에	15	3.2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	10	2.2
자연환경이 좋아서	7	1.5
교육환경이 좋아서	1	0.2
기타	2	0.4
무응답	4	
합계	468	

(2) 타지역 이사계획

타지역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수가 327명으로 70.5%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없다	137	29.5
있다	327	70.5
무응답	4	
합계	468	

이사계획이 있는 이유로 사업장 또는 직장이 23.5%, 경제적 형편 23.2%, 생활편의시설 14.2%로 나타났다. 이사계획이 없는 이유로 직장과 사업장이 28.4%, 경제적 형편 22.3%, 가족, 친지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이사계획이 있는 이유	경제적 형편	72	23.2	이사계획이 없는 이유	경제적 형편	88	22.3
	생활편의 시설	44	14.2		생활편의 시설	33	8.4
	사업상 또는 직장	73	23.5		사업상 또는 직장	112	28.4
	의료시설	2	.6		의료시설	6	1.5
	자녀 육아, 양육	14	4.5		자녀 육아, 양육	25	6.3
	교육환경	13	4.2		교육환경	6	1.5
	자연환경	27	8.7		자연환경	7	1.8
	교통 및 이동	14	4.5		교통 및 이동	42	10.6
	가족, 친지	23	7.4		가족, 친지	54	13.7
	경제적 이익	3	1.0		경제적 이익	8	2.0
	기타	25	8.1		기타	1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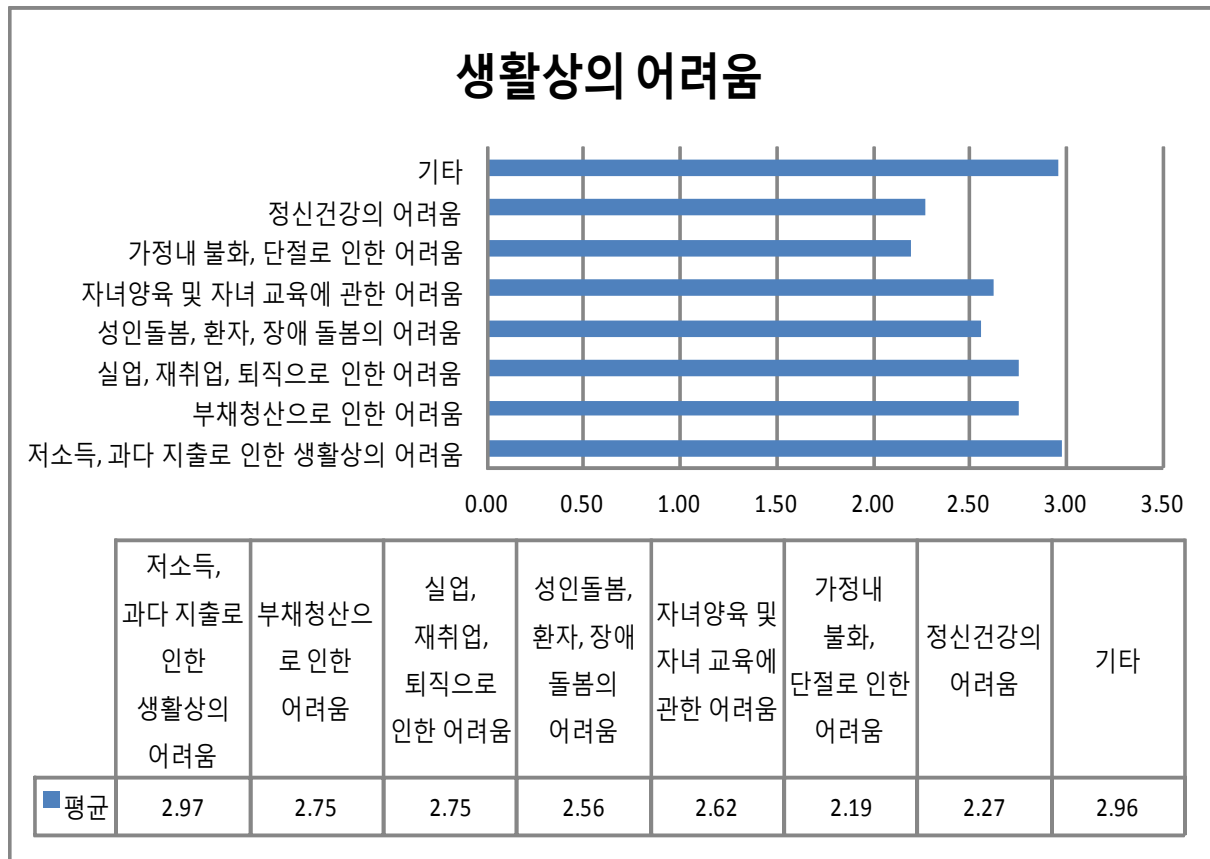
	무응답	158		무응답	73
	합계	468		합계	468

4)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필요

(1) 생활상의 어려움

생활상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평균 2.63으로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부채청산’, ‘실업, 재취업, 퇴직’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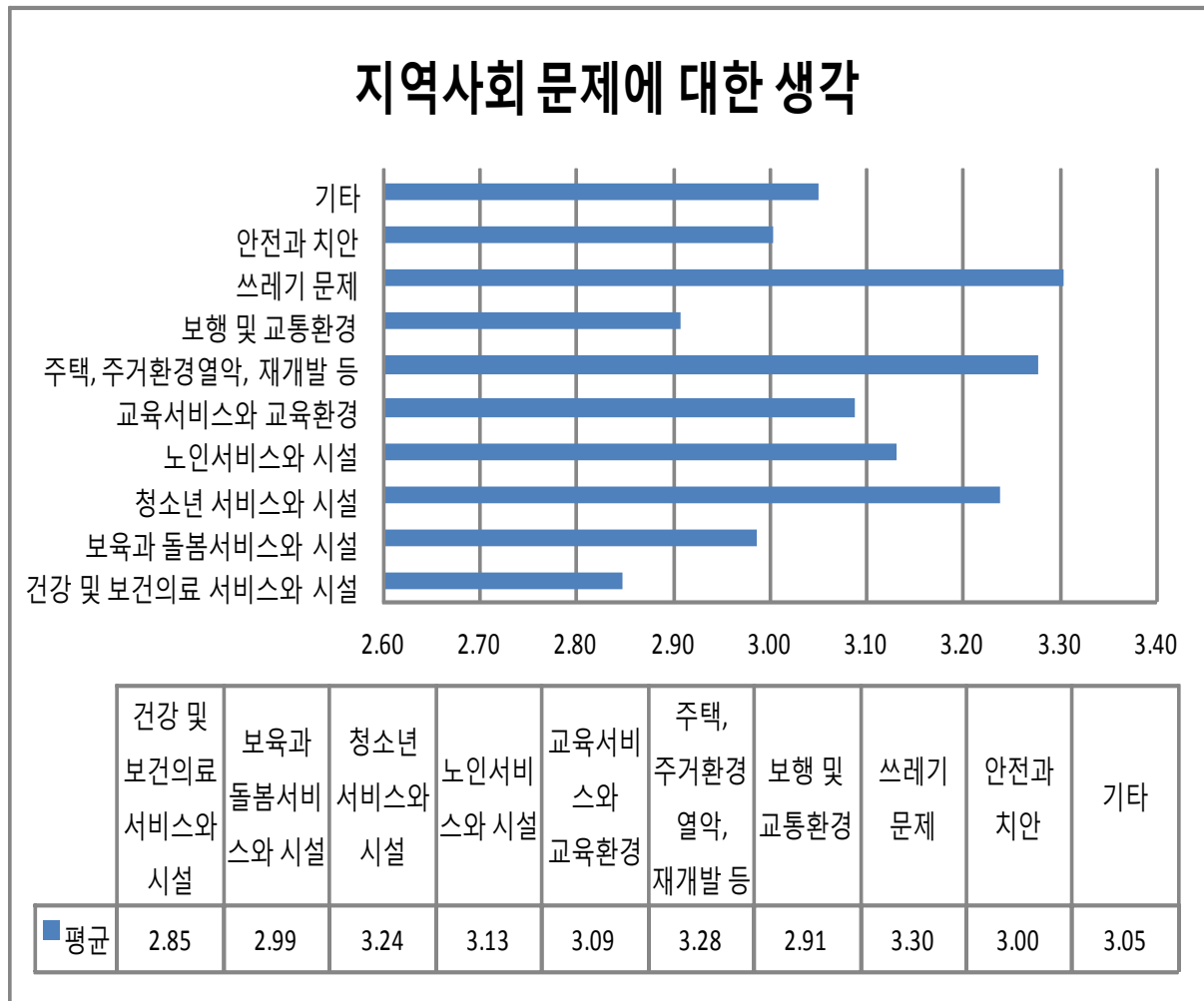
생활상의 어려움	N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452	2.97	0.865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440	2.75	1.041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443	2.75	1.125
성인돌봄, 환자, 장애 돌봄의 어려움	430	2.56	1.107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433	2.62	1.075
가정내 불화, 단절로 인한 어려움	437	2.19	1.031
정신건강의 어려움	437	2.27	1.037
기타	48	2.96	1.071



(2)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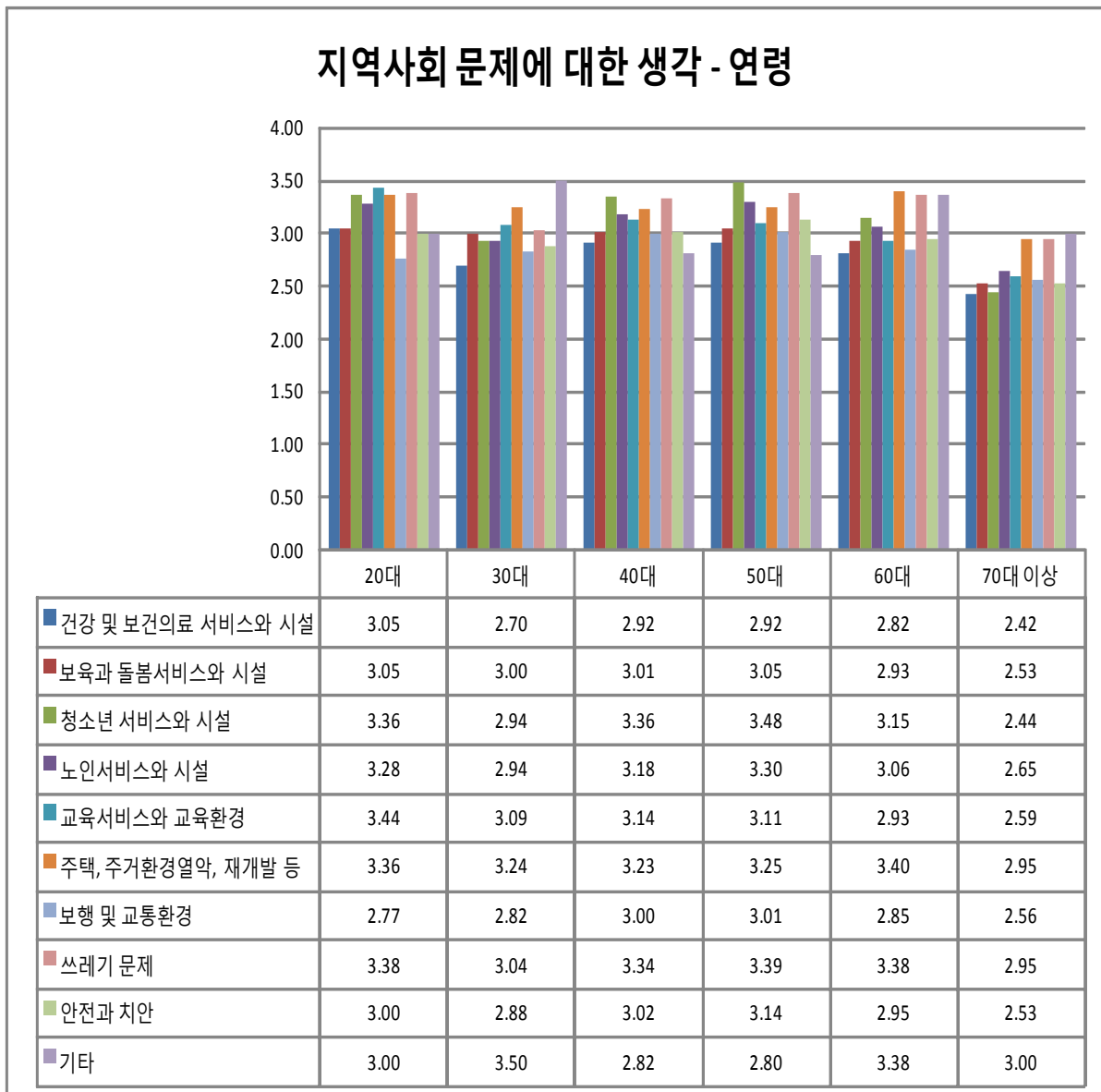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 ‘주택 및 주거환경’,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노인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N	평균	표준편차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447	2.85	0.814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432	2.99	0.878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439	3.24	0.923
노인서비스와 시설	446	3.13	0.895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436	3.09	0.864
주택, 주거 환경 열악, 재개발 등	443	3.28	1.017
보행 및 교통 환경	445	2.91	0.864
쓰레기 문제	449	3.30	1.040
안전과 치안	445	3.00	0.881
기타	40	3.05	1.037



① 연령대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연령대별로 20대부터 60대까지 보통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70대 이상은 2.66으로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70대 이상의 인구집단에서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생활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약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대는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3.44)’, 30대는 ‘주택 및 주거환경(3.36)’, 40대는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3.36)’, 50대는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3.48)’, 60대는 ‘쓰레기문제(3.38)’를 보통보다 심각한 부분으로 의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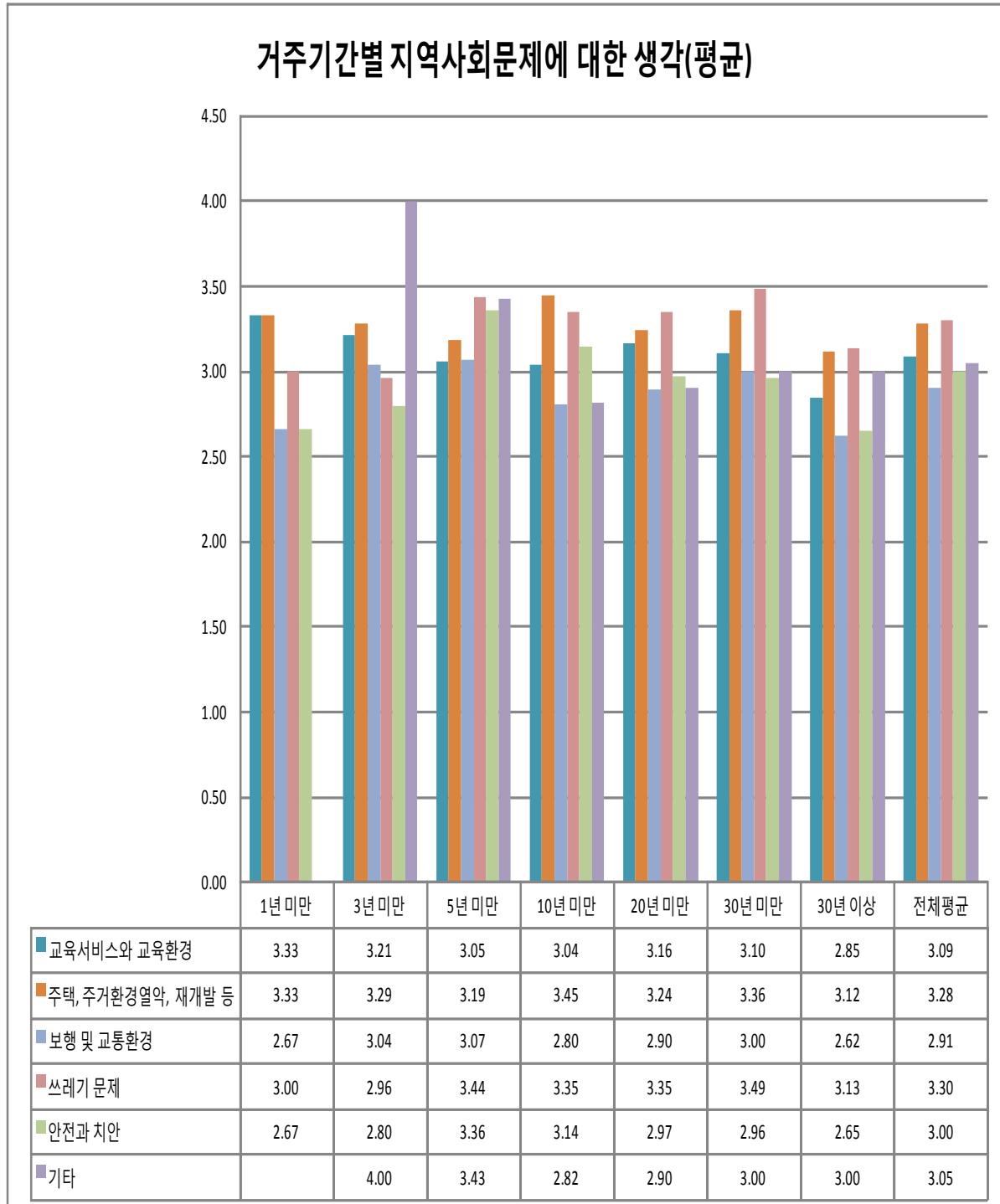


② 거주기간별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거주기간별로 살펴봤을 때, 보통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미만 거주자, 3년 미만 거주자들은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3.33)’, ‘주택 및 주거환경(3.33)’을 ‘보통보다 심각하다’

고 응답했다. 5년 미만 거주자들은 ‘쓰레기 문제(3.44)’, ‘안전과 치안(3.36)’, ‘주택 및 주거환경(3.19)’을 ‘보통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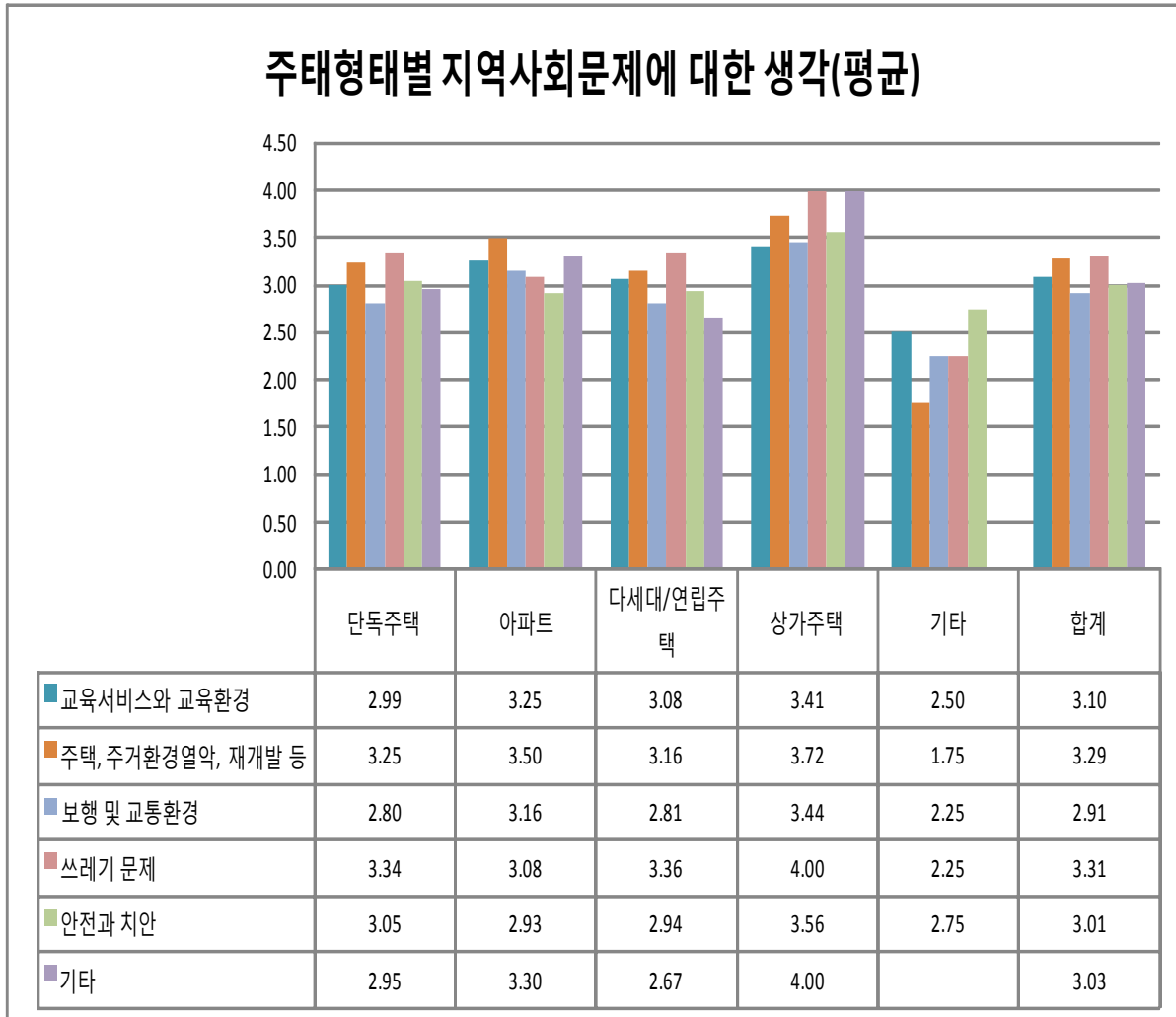
‘주택 및 주거환경’과 ‘쓰레기 문제’가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보다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③ 주택형태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주택형태별로 보면 상가주택 거주자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가주택 거주자들은 ‘쓰레기 문제(4.0)’와 관련하여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택 및 주거환경(3.72)’, ‘안전과 치안(3.56)’,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3.41)’, ‘보행 및 교통환경(3.36)’ 등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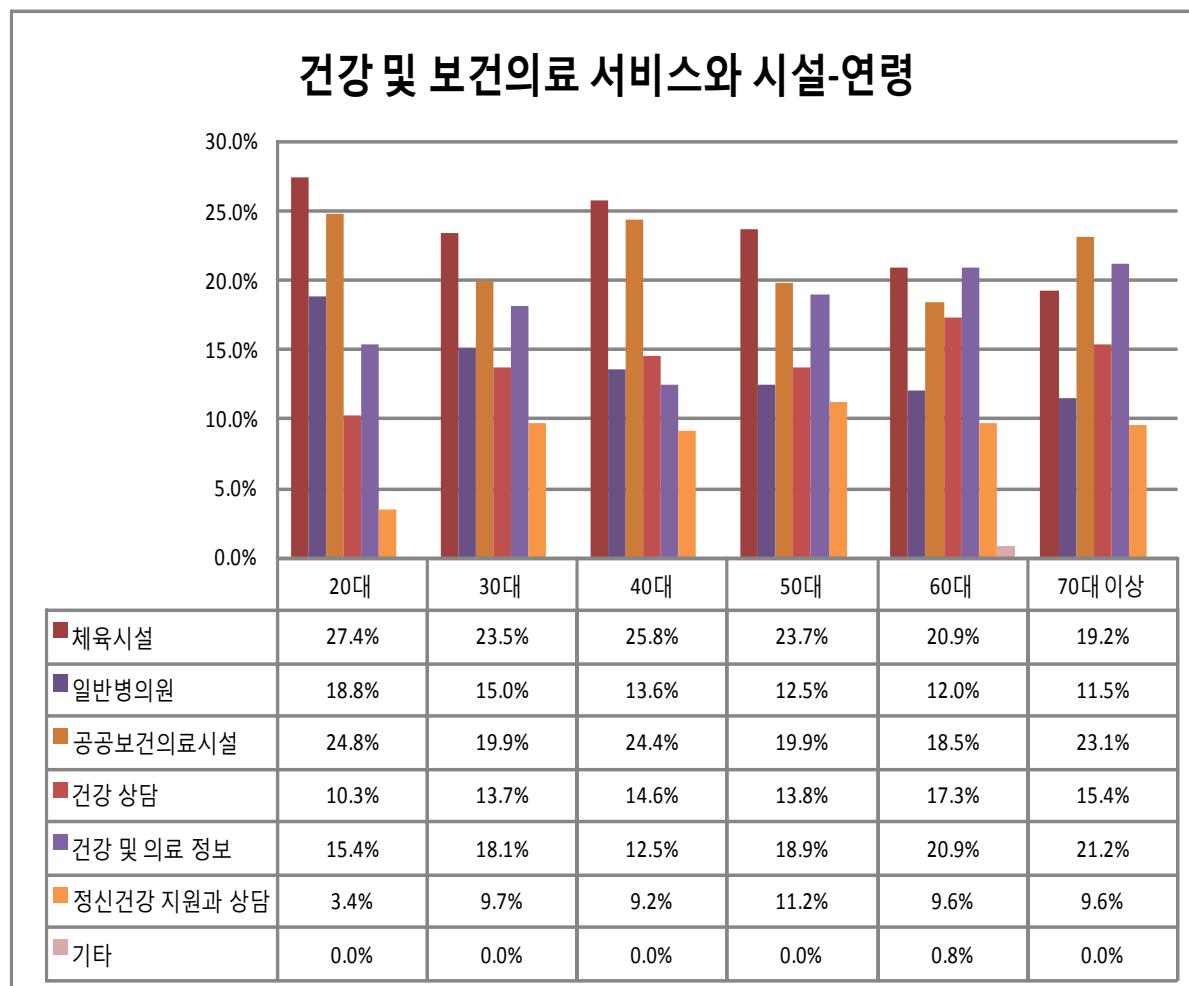
③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23.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21.2%),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문동 주민들은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빈도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체육시설	311	23.8%
일반 병원	182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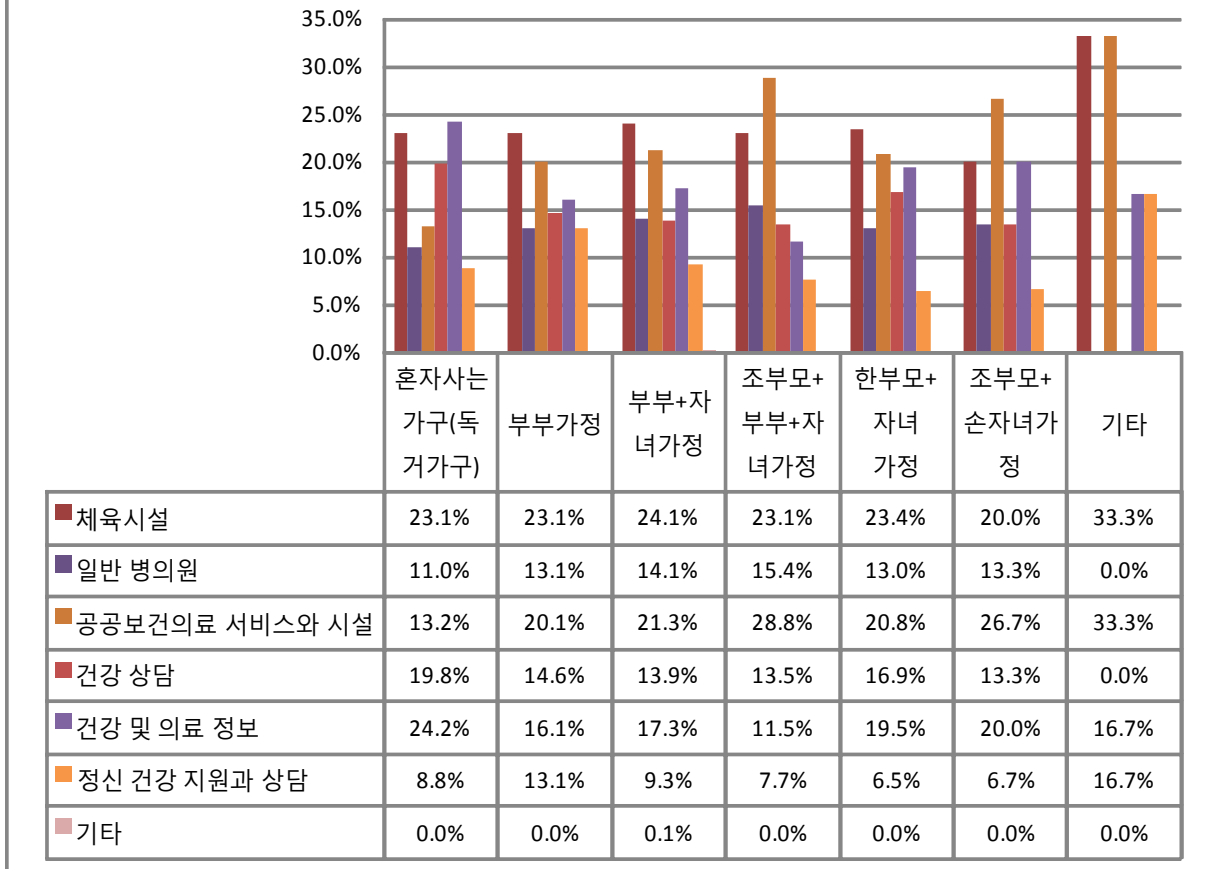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276	21.2%
건강 상담	183	14.0%
건강 및 의료정보	225	17.3%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	125	9.6%
기타	2	0.2%
합계	1304	100.0%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체육시설(27.4%)와 일반병의원(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40대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담은 60대(17.3%)와 70대 이상(15.5%)이 높게 나타났고, 건강 및 의료정보제공 역시 70대 이상 (21.2%), 60대 이상 (20.9%)에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상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가구형태에서 체육시설과 공공의료보건시설(보건지소)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왔다. 특히, 조부모가 있는 가정이 공공의료보건시설(보건지소)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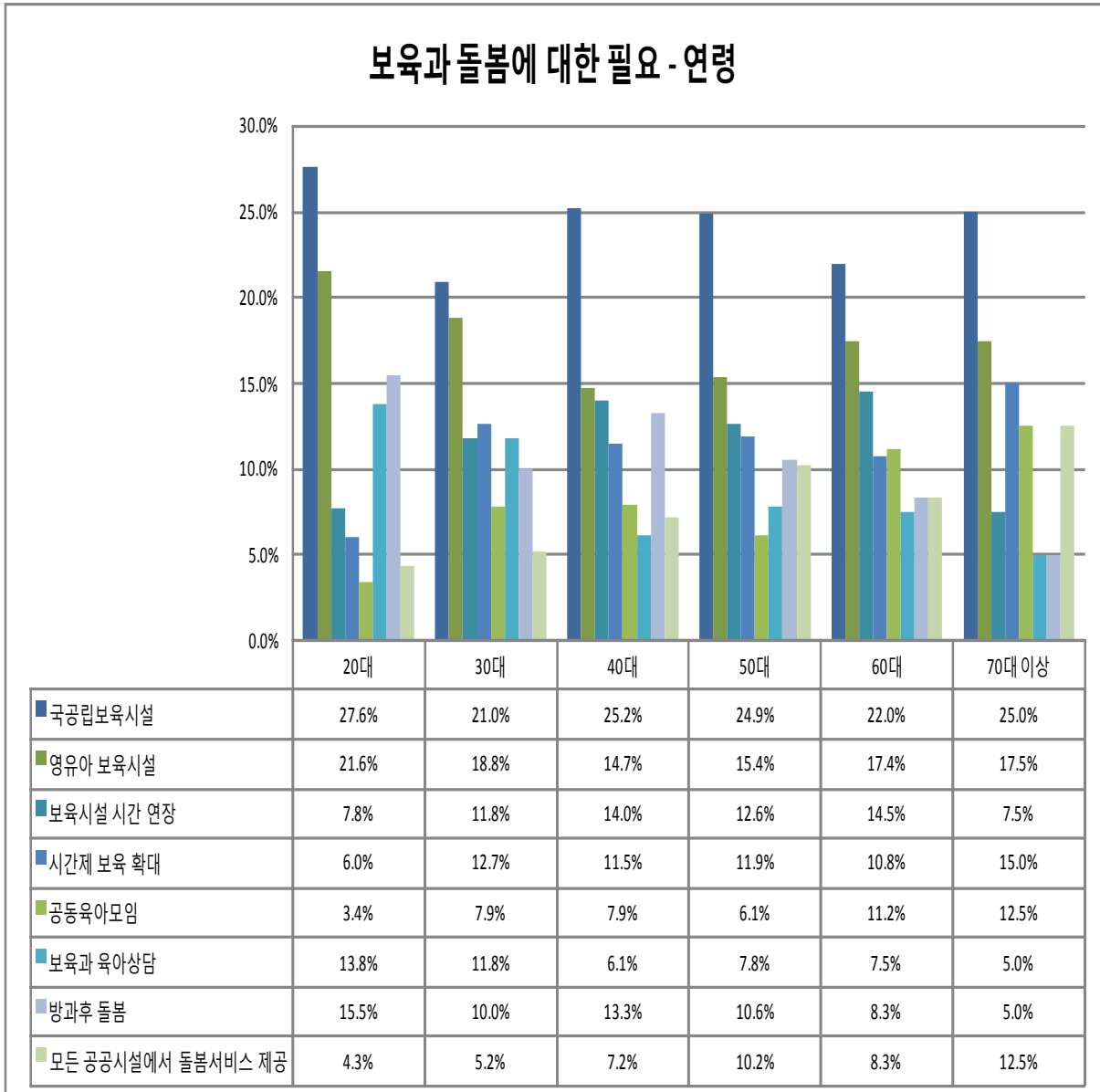
④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필요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24%)’, ‘영유아 보육시설(16.9%)’, ‘시간제 보육 확대(11.2%)’, ‘방과후 돌봄(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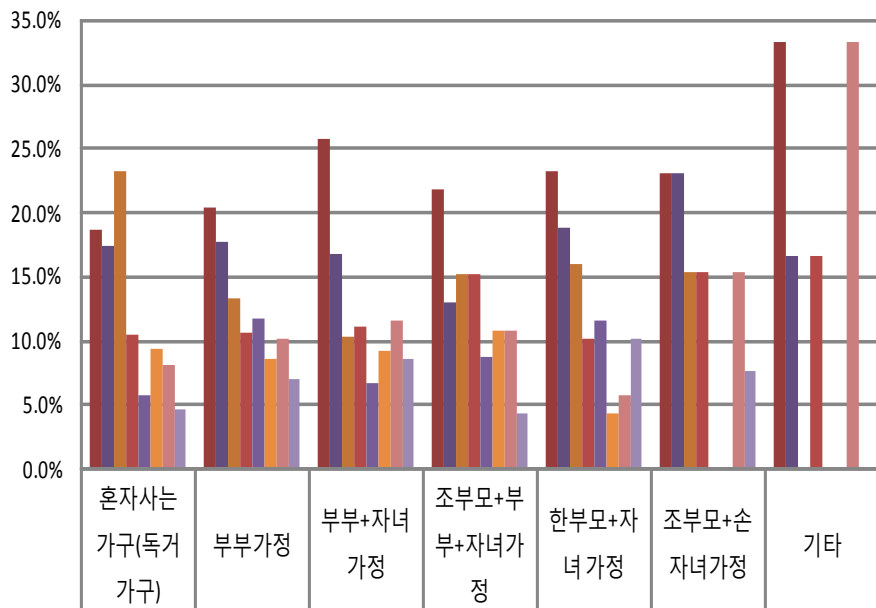
구분	응답	
	빈도	퍼센트
국공립보육시설	300	24.0%
영유아 보육시설	212	16.9%
보육시설 시간 연장	152	12.1%
시간제 보육 확대	140	11.2%
공동육아모임	97	7.7%
보육과 육아상담	108	8.6%
방과후 돌봄	138	11.0%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01	8.1%
기타	4	0.3%
합계	1252	100.0%

연령대별 보육과 돌봄에 대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응답률이 27.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응답률이 21.0%로 가장 낮았다. 영유아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20대가 21.6%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14.7%로 가장 낮았다. 보육시설 시간연장은 60대, 40대가 응답률이 높았으나, 20대 응답률이 7.8%로 낮았다. 공동육아모임은 70대 이상에서 12.5%로 응답률이 높았다. 보육과 육아상담은 20대와 30대에서 응답률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졌다. 방과후 돌봄은 20대와 40대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부부+자녀 가정(25.7%)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조부모+손자녀 가정(23.1%)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시간연장은 혼자사는 가구(23.3%)로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돌봄은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혼자사는 가구(독거 가구)	부부가정	부부+자녀 가정	조부모+부 부+자녀가 정	한부모+자 녀가정	조부모+손 자녀가정	기타
■ 국공립보육시설	18.6%	20.3%	25.7%	21.7%	23.2%	23.1%	33.3%
■ 영유아보육시설	17.4%	17.6%	16.8%	13.0%	18.8%	23.1%	16.7%
■ 보육시설 시간연장	23.3%	13.4%	10.3%	15.2%	15.9%	15.4%	0.0%
■ 시간제 보육 확대	10.5%	10.7%	11.1%	15.2%	10.1%	15.4%	16.7%
■ 공동육아모임	5.8%	11.8%	6.7%	8.7%	11.6%	0.0%	0.0%
■ 보육과 육아상담	9.3%	8.6%	9.2%	10.9%	4.3%	0.0%	0.0%
■ 방과후 돌봄	8.1%	10.2%	11.6%	10.9%	5.8%	15.4%	33.3%
■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4.7%	7.0%	8.5%	4.3%	10.1%	7.7%	0.0%

⑤ 청소년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24.5%), 청소년 여가시설(21.9%),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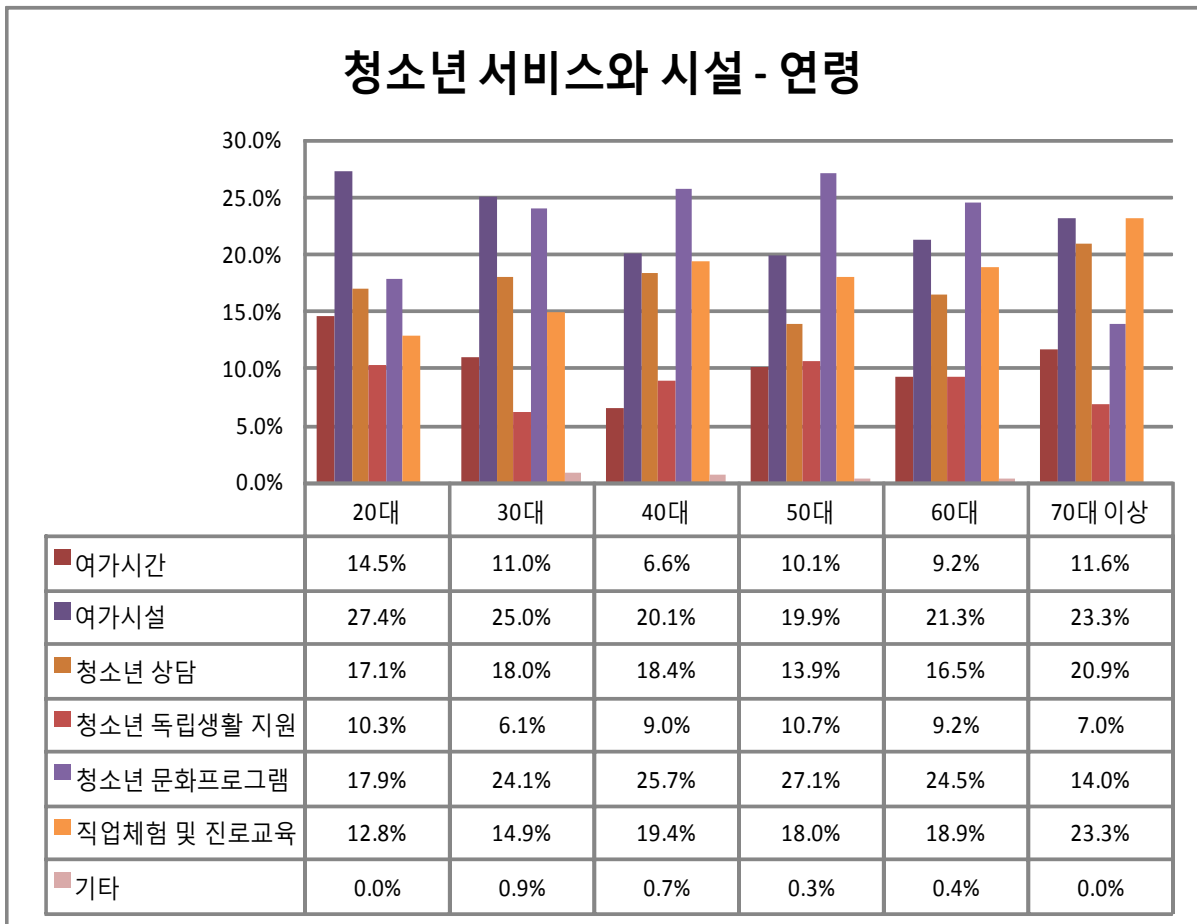
<표>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빈도

	응답	
	N	퍼센트
여가시간	126	9.7%
청소년 여가시설	284	21.9%
청소년 상담	215	16.6%
청소년 독립생활 지원	116	8.9%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318	24.5%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232	17.9%
기타	7	0.5%
합계	12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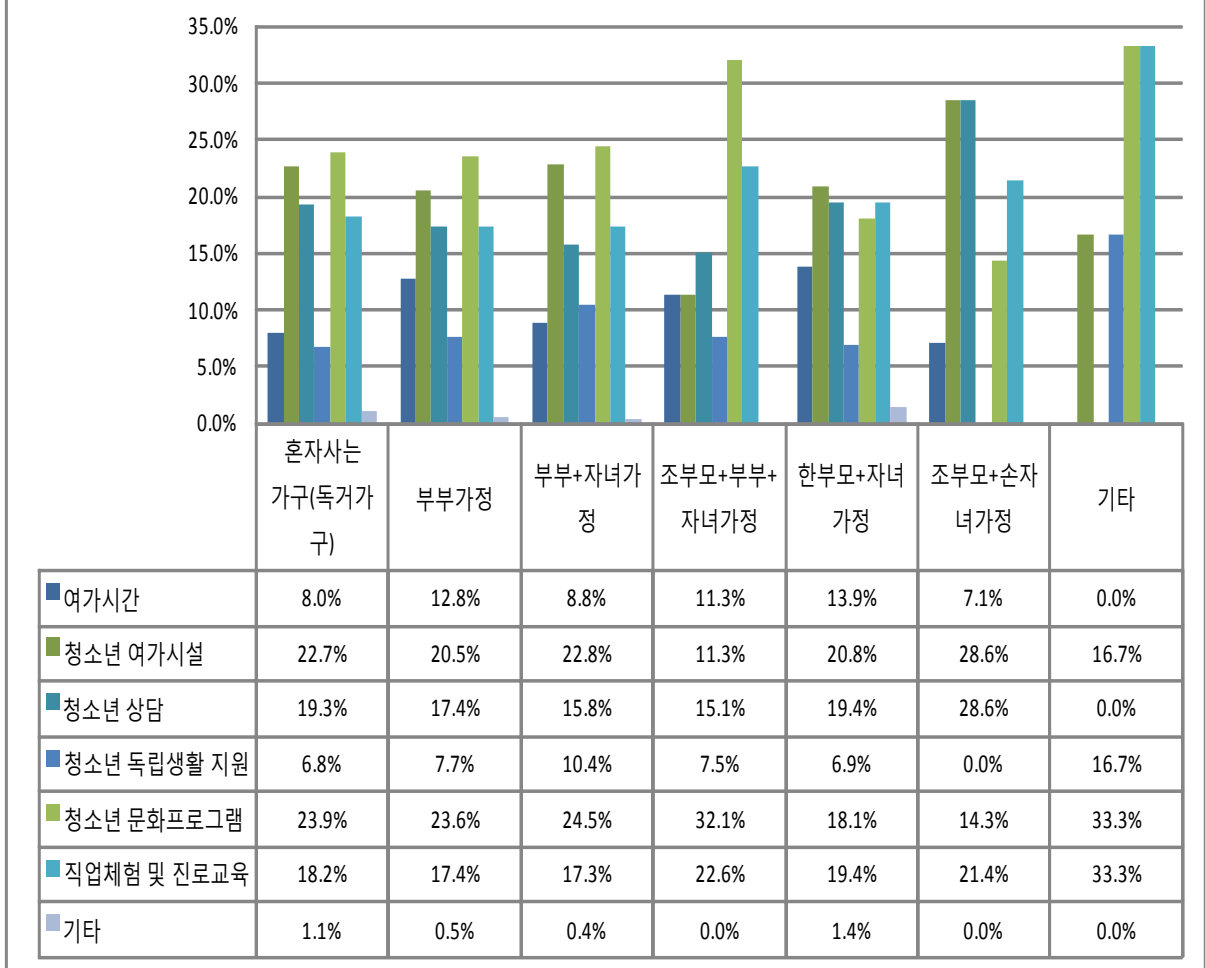
청소년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는 20대(27.4%), 30대(25.0%)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는 70대 이상이 (20.9%)로 높았으며,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는 50대(27.1%), 40대(25.7%), 60대(24.5%)가 높았으며, 직업 및 진로체험은 70대 이상(2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19.4%), 60대(18.9%)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는 청소년을 육아하는 연령대에서 욕구가 분명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조부모+손자녀가구가 청소년 여가시설(28.6%), 청소년 상담(28.6%),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21.4%)로 응답하였다. 부부+자녀가정의 경우 청소년 문화프로그램(24.5%), 청소년 여가시설(22.8%),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등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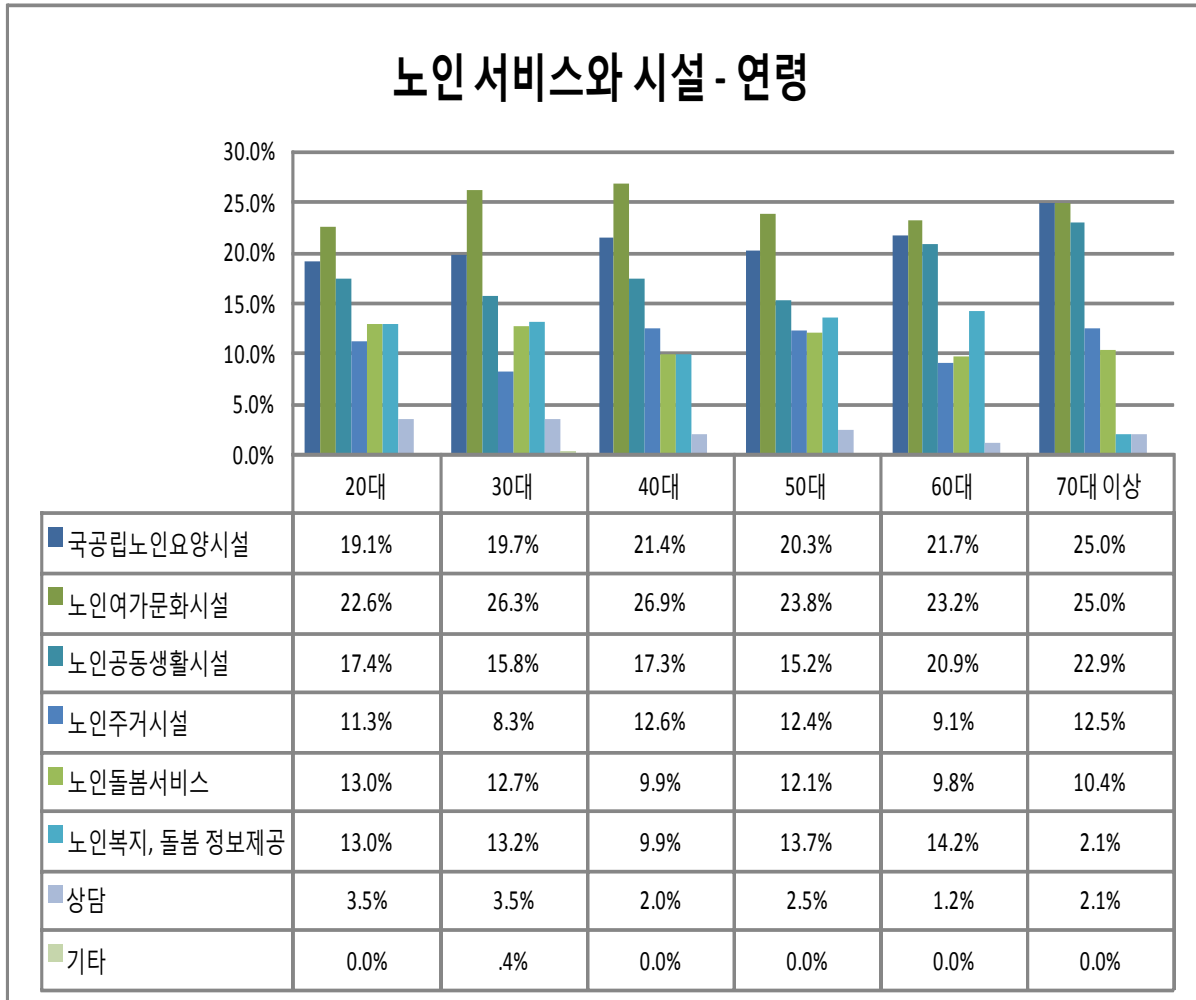


⑦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노인여가문화시설(25.3%), 국공립노인요양시설(20.7%), 노인 공동생활시설(17.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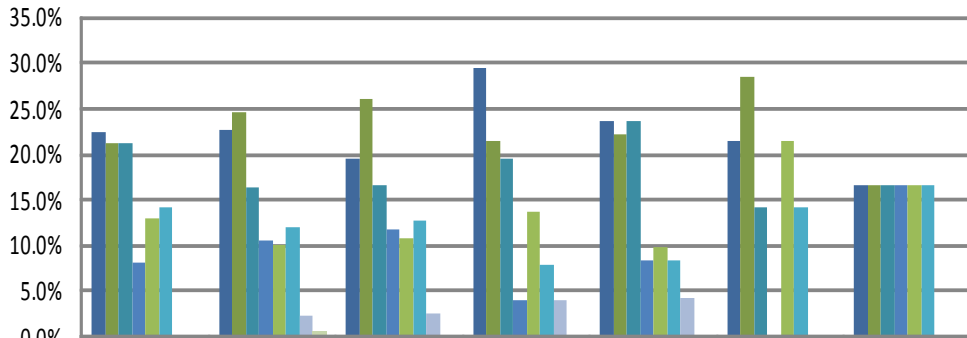
	응답	
	N	퍼센트
국공립노인요양시설	271	20.7%
노인여가문화시설	331	25.3%
노인공동생활시설	228	17.4%
노인주거시설	140	10.7%
노인돌봄서비스	147	11.2%
노인복지, 돌봄 정보제공	160	12.2%
상담	32	2.4%
기타	1	0.1%
합계	1310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70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25.0%)을 나타냈다. 노인여가시설은 40대(26.9%), 30대(26.3%)에서 높게 나타났다. 노인공동시설은 70대 이상(22.9%), 60대(20.9%)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조부모+부부+자녀가정이 국공립노인요양시설(29.4%)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여가시설은 조부모+손자녀 가정(28.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조부모+손자녀 가정(21.4%)로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이 '노인여가시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노인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혼자사는 가구(독거가 구)	부부가정	부부+자녀가 정	조부모+부부 +자녀가정	한부모+자녀 가정	조부모+손자 녀가정	기타
■ 국공립노인요양시설	22.4%	22.8%	19.6%	29.4%	23.6%	21.4%	16.7%
■ 노인여가문화시설	21.2%	24.8%	26.0%	21.6%	22.2%	28.6%	16.7%
■ 노인공동생활시설	21.2%	16.5%	16.6%	19.6%	23.6%	14.3%	16.7%
■ 노인주거시설	8.2%	10.7%	11.8%	3.9%	8.3%	0.0%	16.7%
■ 노인돌봄서비스	12.9%	10.2%	10.7%	13.7%	9.7%	21.4%	16.7%
■ 노인복지, 돌봄 정보제공	14.1%	12.1%	12.8%	7.8%	8.3%	14.3%	16.7%
■ 상담	0.0%	2.4%	2.5%	3.9%	4.2%	0.0%	0.0%
■ 기타	0.0%	0.5%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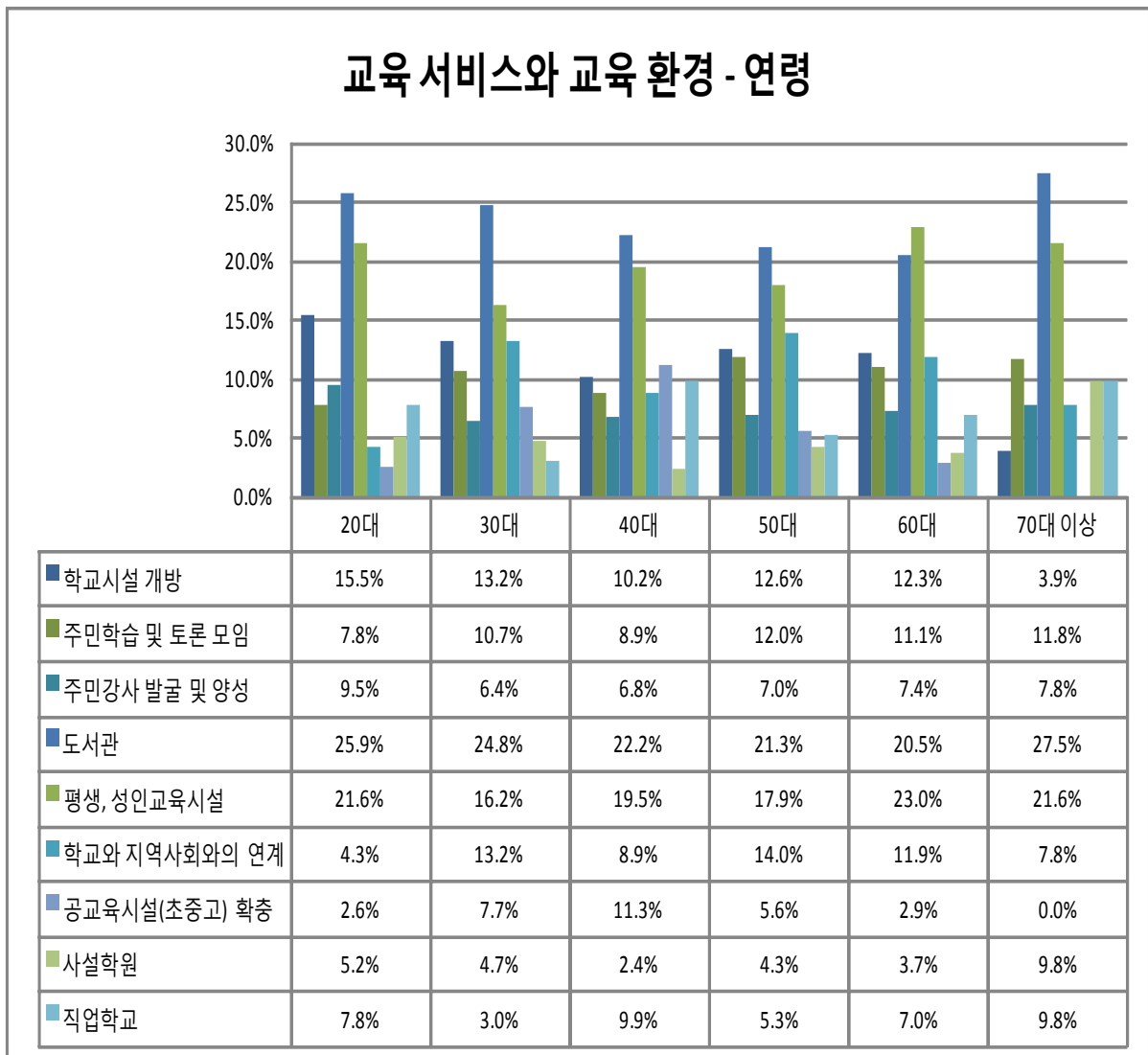
⑧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도서관(23.1%), 평생 및 성인교육시설(19.3%), 학교시설
개방(12.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N	퍼센트
학교시설 개방	158	12.2%
주민학습 및 토론 모임	134	10.4%
주민강사 발굴 및 양성	91	7.0%
도서관	299	23.1%
평생, 성인교육시설	250	19.3%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143	11.1%
공교육시설(초중고) 확충	81	6.3%
사설학원	53	4.1%
직업학교	83	6.4%

무응답	2	0.2%
합계	1294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욕구는 20대(15.5%)가 가장 높았다. 주민학습 및 토론모임은 50대(12.0%)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11.8%), 60대 이상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강사 발굴 및 양성은 20대가 9.5%로 가장 높았으며, 도서관은 70대 이상(27.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생, 성인교육 시설은 70대 이상, 60대, 20대의 순으로 욕구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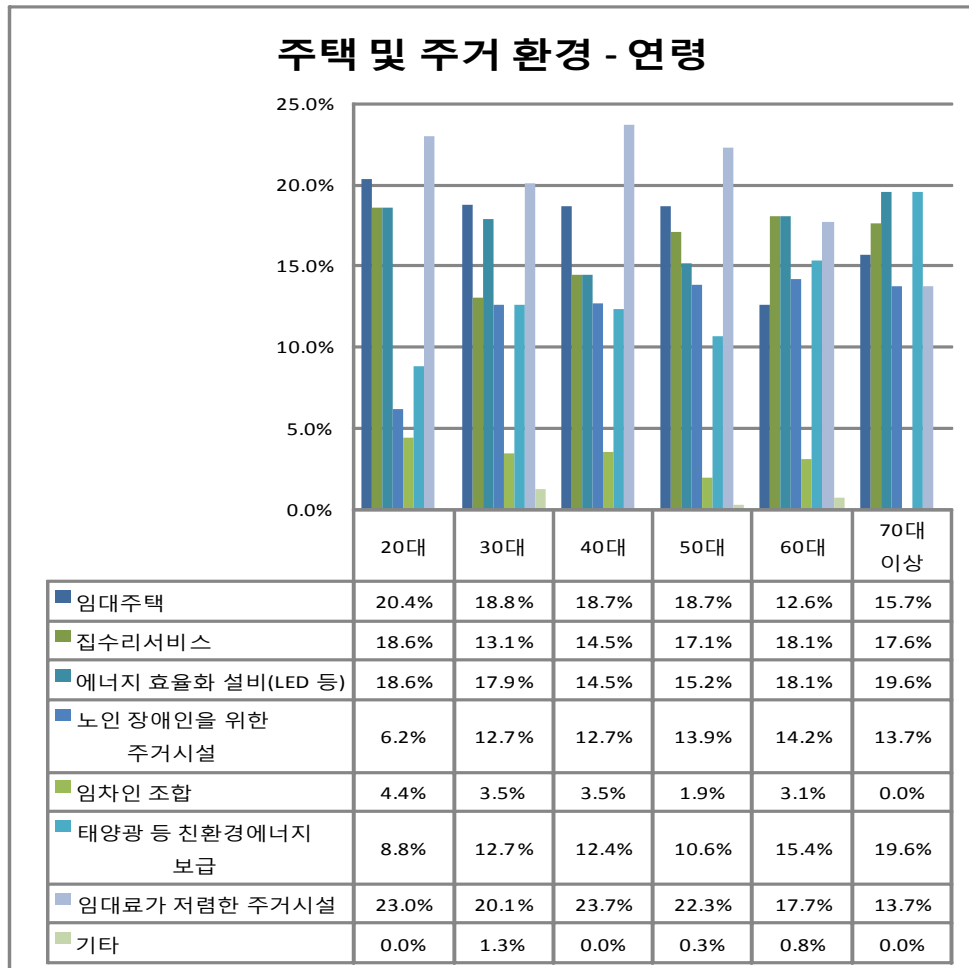


⑨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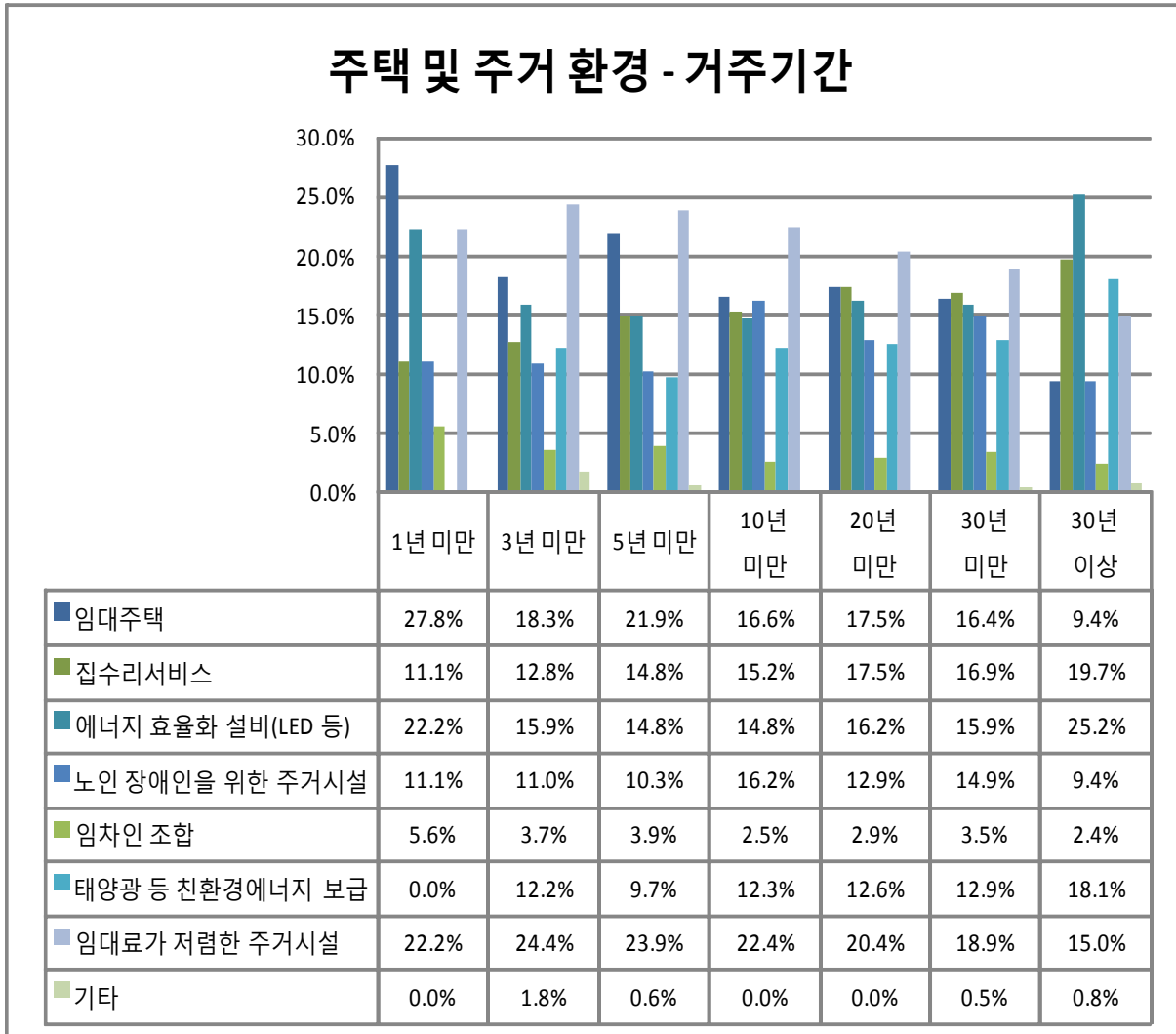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21.0%), 임대주택(17.0%), 에너지효율화설비(16.7%), 집수리서비스(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N	퍼센트
임대주택	220	17.0%
집수리서비스	211	16.3%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217	16.7%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168	13.0%
임차인 조합	39	3.0%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164	12.6%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272	21.0%
기타	6	0.5%
합계	1297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임대주택,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필요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60대, 70대 이상은 자가주택 경향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욕구는 20대(20.4%)에서 가장 높았으며,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은 40대(23.7%)와 20대(23.0%)에서 높게 나타났다. 집수리 서비스는 50대(17.1%) 60대(18.1%), 70대(17.6%)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13.1%), 40대(14.5%)로 낮게 나타났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도 70대 이상(19.6%)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나, 20대(8.8%)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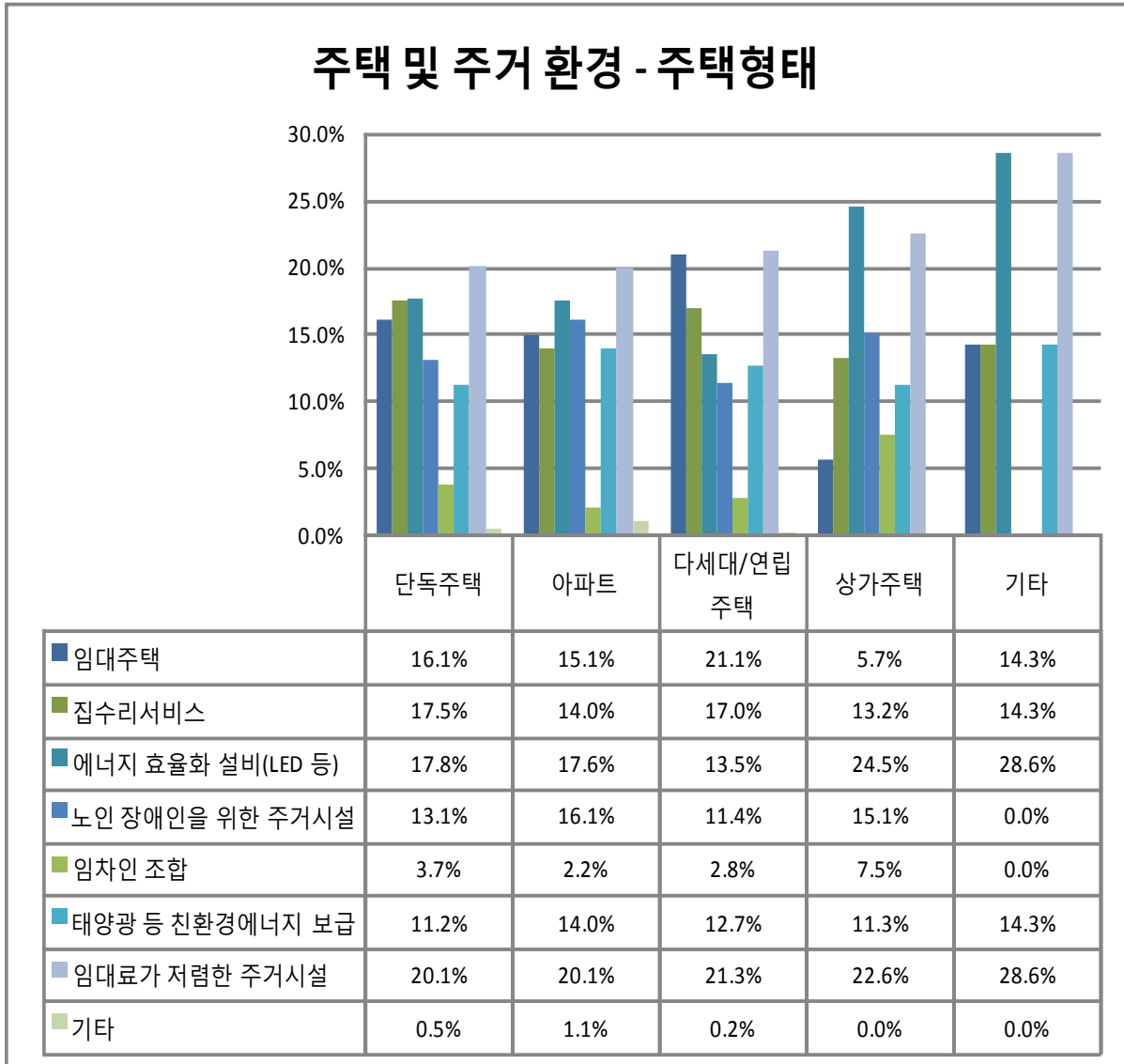


거주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거주자들이 임대주택과 에너지효율화설비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3년 미만 거주자와 5년 미만 거주자가 임대료가 저렴한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30년 이상 거주자는 에너지 효율화 시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보급,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는 3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자가인 경우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17.5%)과 다세대/연립주택(21.1%)에서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가주택이 에너지효율화설비(24.5%)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 거주자는 에너지효율화설비, 노인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임대주택과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주택 및 주거 환경 - 주택형태



⑩ 보행 및 교통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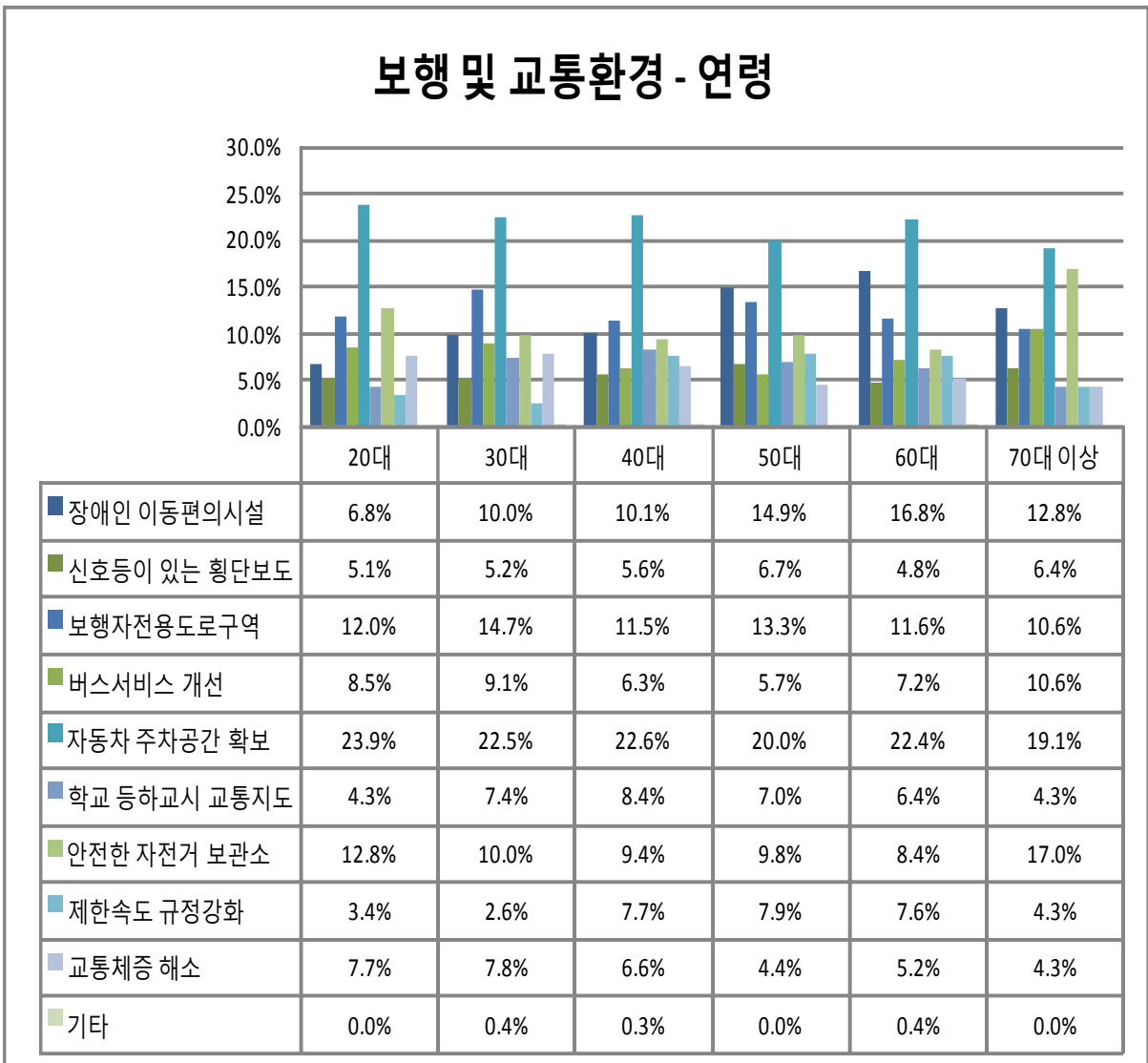
보행 및 교통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21.7%), 보행자전용도로구역(12.3%), 장애인 이동편의시설(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보행 및 교통환경

구 분	응답	
	N	퍼센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159	12.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73	5.6%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	140	10.7%
보행자전용도로구역	161	12.3%
버스서비스 개선	93	7.1%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	283	21.7%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	93	7.1%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	134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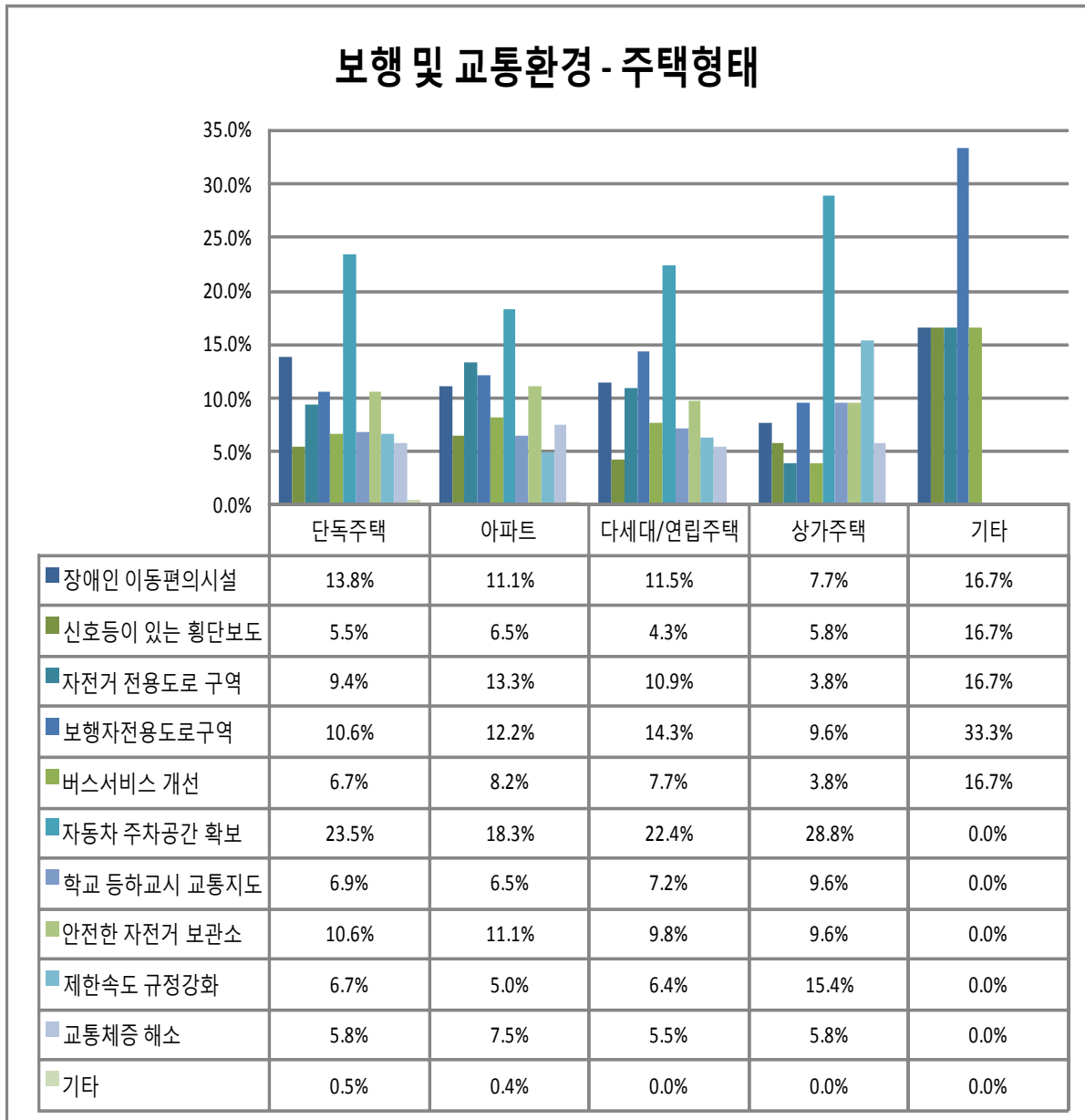
제한속도 규정강화	86	6.6%
교통체증 해소	79	6.1%
기타	3	0.2%
합계	1304	100.0%

연령대별 보행 및 교통환경에 욕구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연령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반면, 20대는 6.8%로 낮았다. 보행자전용도로는 30대와 50대에서 응답률이 높았으며, 버스서비스 개선,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는 70대 이상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는 30대, 40대, 50대가 응답률이 높았으며, 제한속도 규정강화는 40대, 50대, 60대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13.3%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상가주택 거주자들은 3.8%로 응답률이 낮았다.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는 상가주택(28.8%), 단독주택(23.5%)로 응답률이 높았지만, 아파트(1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세대/연립주택(14.3%)에

서 응답률이 높았으며, 상가주택(9.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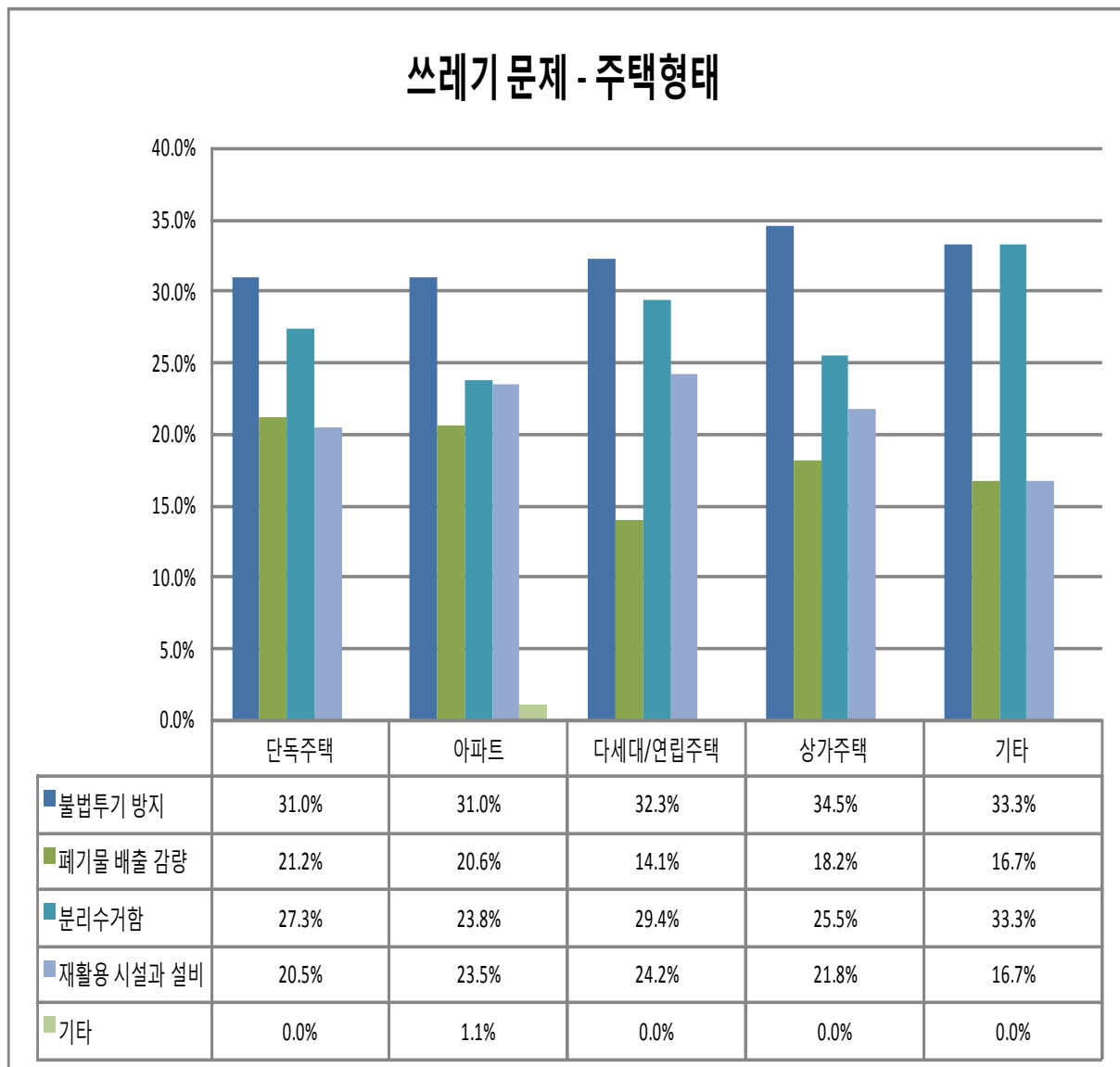
⑪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31.8%), 분리수거함 설치(26.6%), 재활용시설과 설비(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문제		
	응답	
	N	퍼센트
불법투기 방지	414	31.8%
폐기물 배출 감량	244	18.7%
분리수거함	350	26.9%

재활용 시설과 설비	292	22.4%
기타	3	0.2%
합계	1303	100.0%

불법투기 방지에 대해서는 상가주택(34.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폐기물 감량은 단독주택(21.2%), 아파트(20.6%)가 응답률이 높은 반면, 다세대 연립주택(14.1%)로 응답률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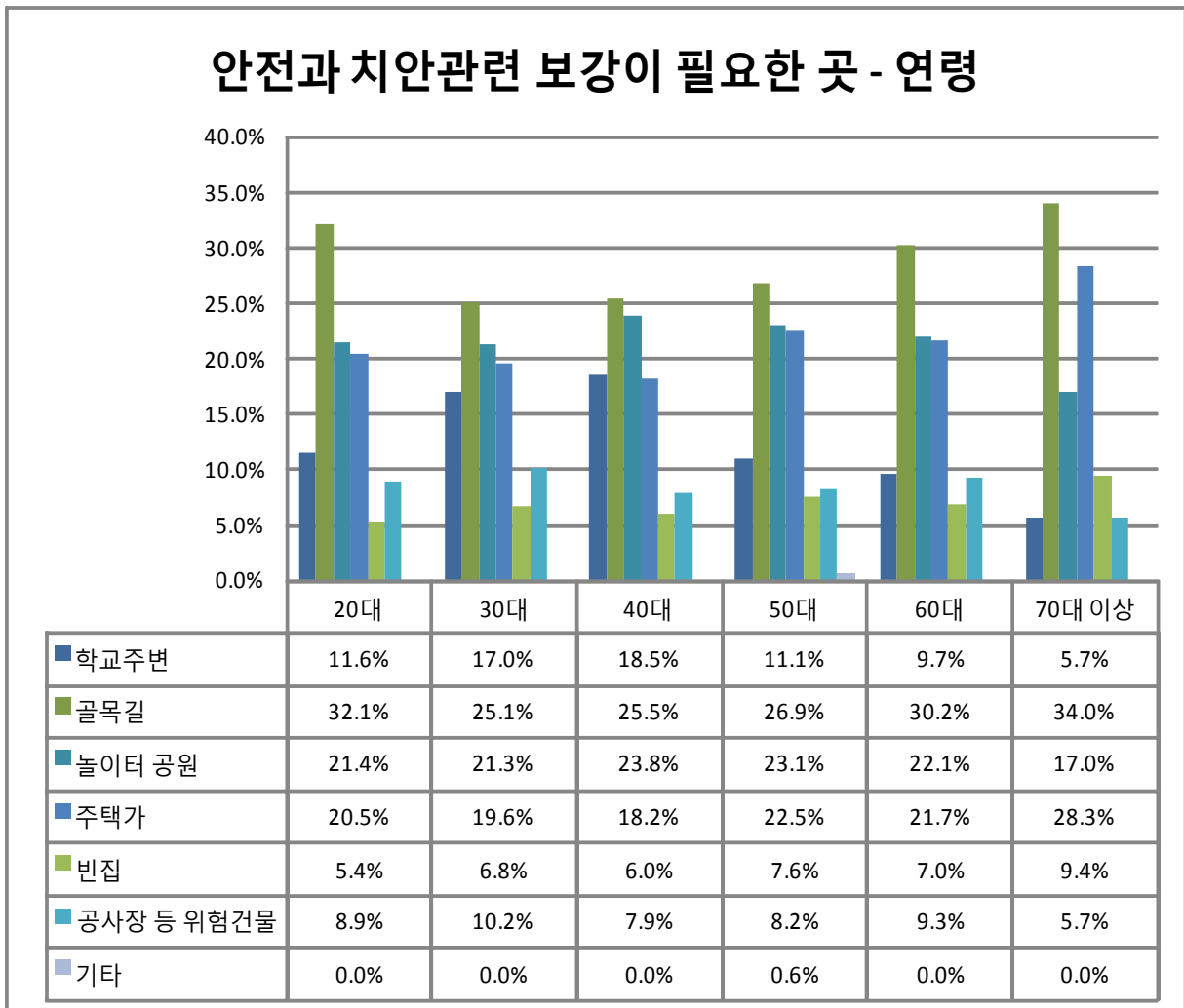


⑫ 안전과 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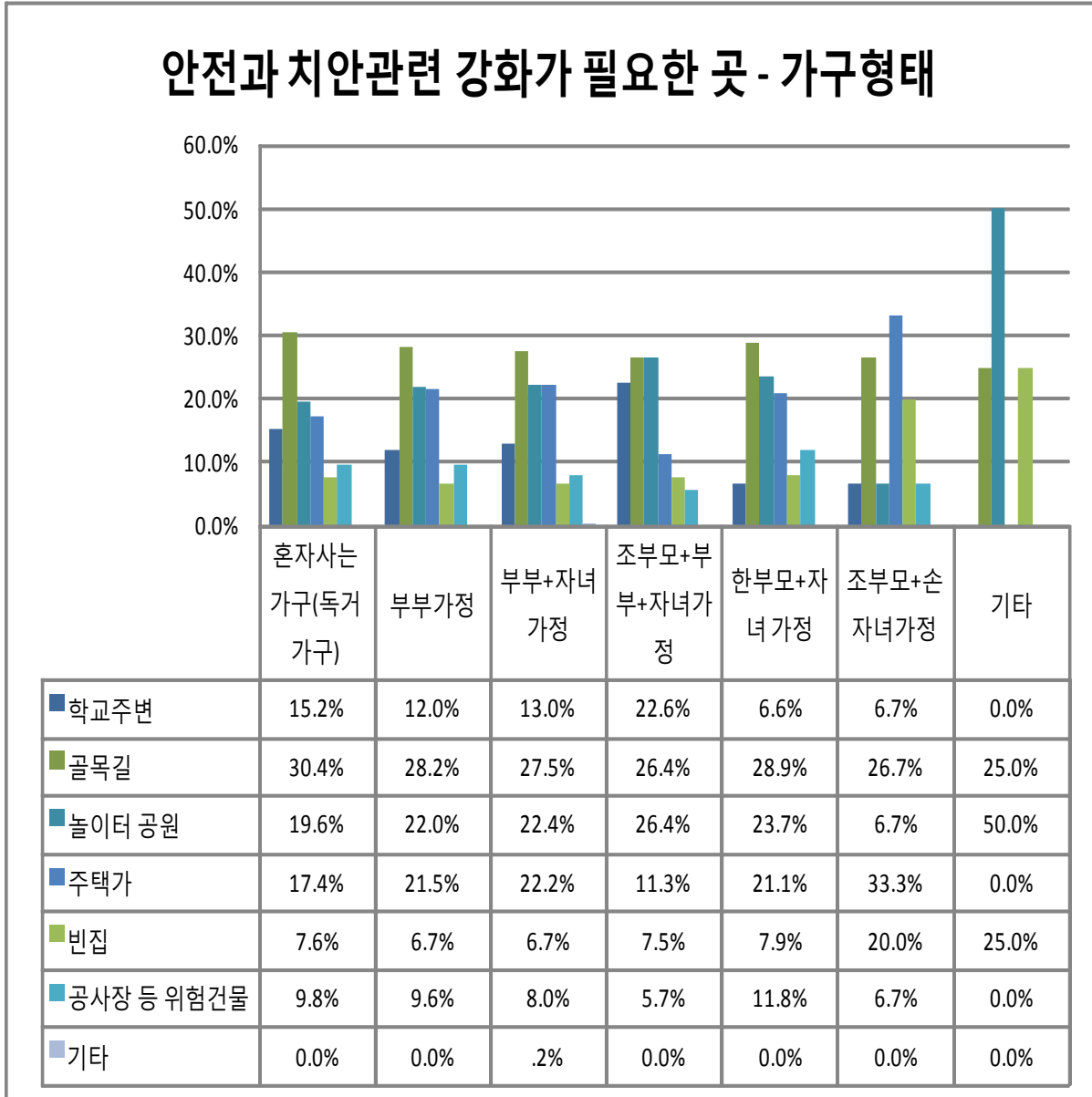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27.9%), 놀이터 공원(22.2%), 주택가(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치안 관련 보강이 필요한 곳		
구분	응답	
	N	퍼센트
학교주변	180	13.5%
골목길	371	27.9%
놀이터 공원	296	22.2%
주택가	278	20.9%
빈집	92	6.9%
공사장 등 위험건물	113	8.5%
기타	2	0.2%
합계	1332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학교주변’은 30대(17.0%), 40대(18.5%)로 높게 나타났으며, 골목길은 20대(32.1%), 60대(30.2%), 70대 이상(34.0%)가 응답률이 높았다. 놀이터 공원은 40대(23.8%), 50대(23.1%)가, 주택가는 70대 이상이 28.3%로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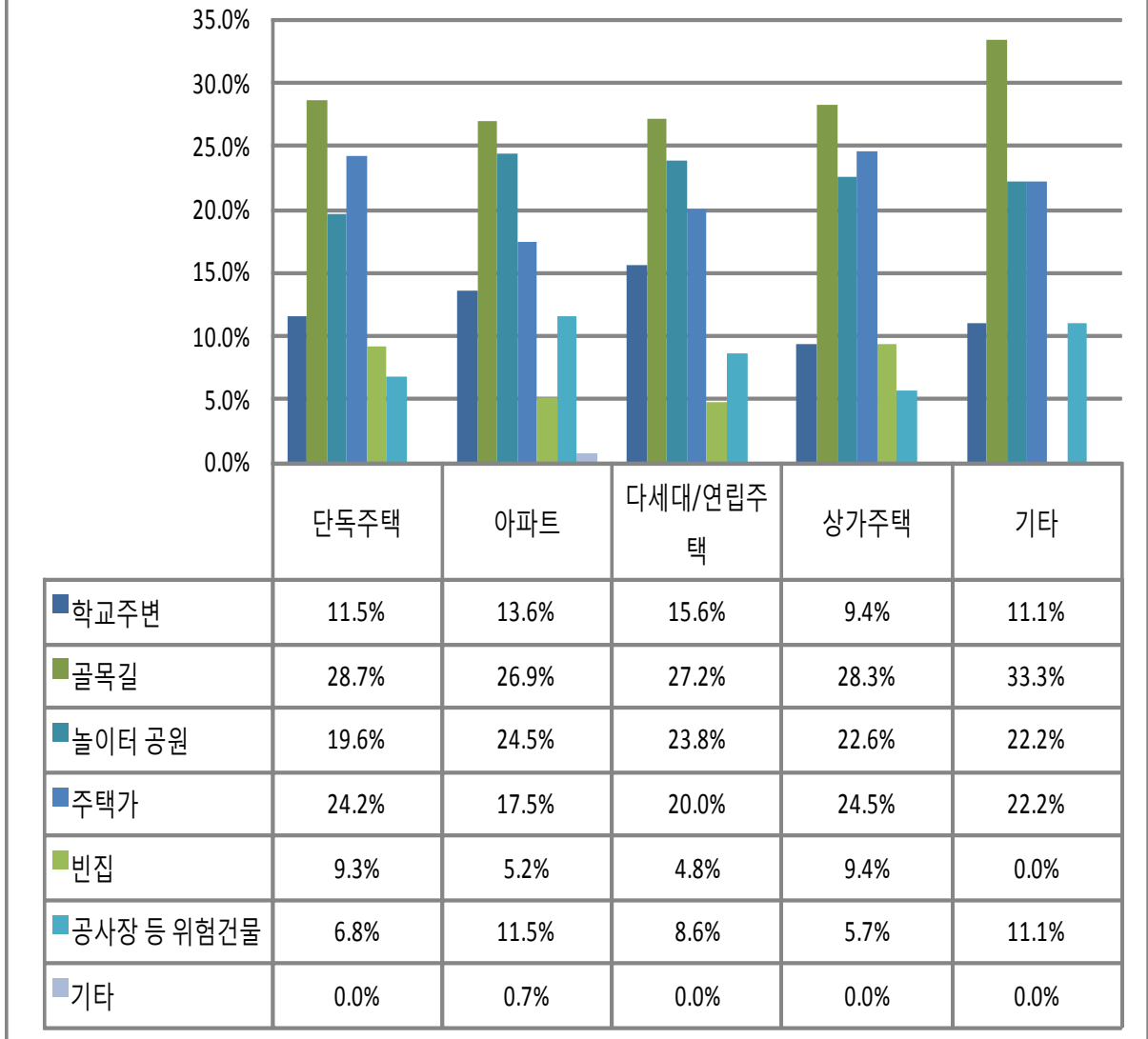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학교주변은 조부모+부부+자녀가정(22.6%)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골목길은 혼자 사는 가구(30.4%)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놀이터 공원은 조부모+부부+자녀 가정(26.4%)로 응답률이 높았고, 주택가는 조부모+손자녀가정(33.3%)로 응답률이 높았다.



주택형태별로 보면 학교 주변은 다세대/연립주택(15.6%) 거주자가 응답률이 높았으며, 골목길은 주택형태별로 유사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놀이터 공원은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주택가는 단독주택(24.2%), 상가주택(24.5%)로 응답률이 높은 반면, 아파트(17.5%) 거주자들의 응답률이 낮았다.

안전과 치안 관련 보강이 필요한 곳 -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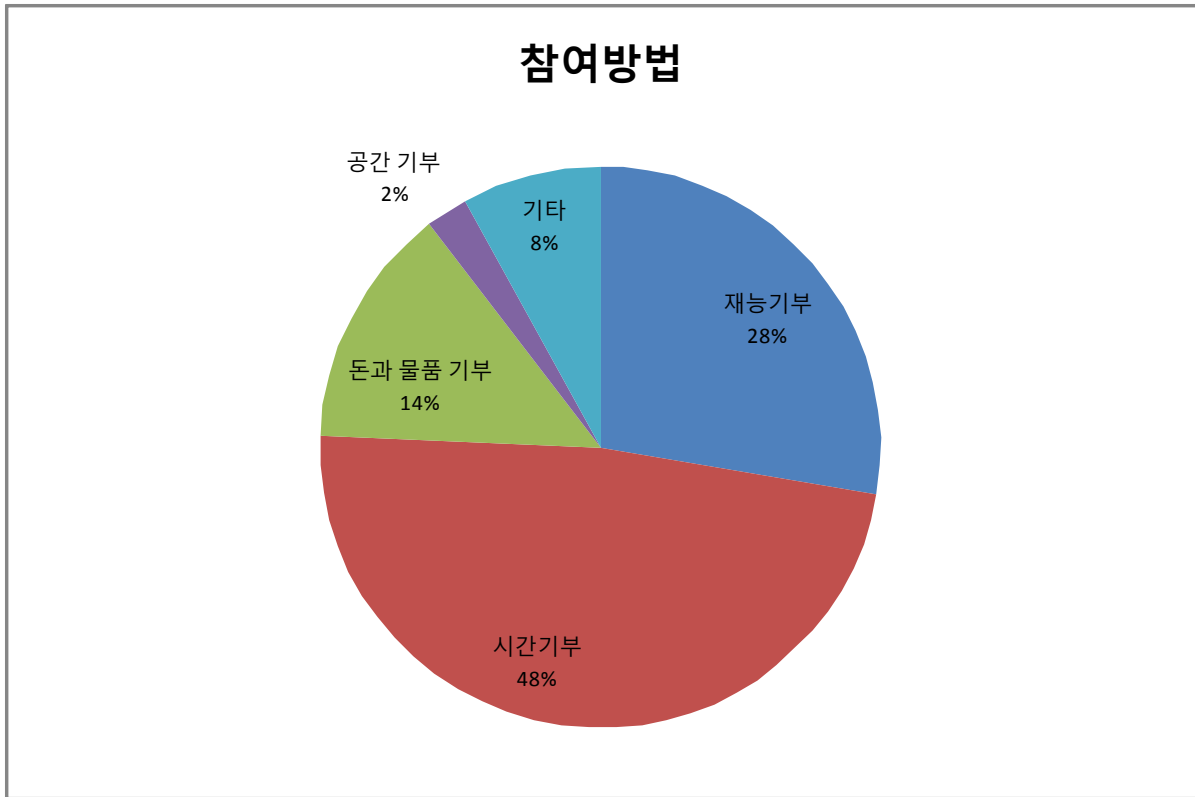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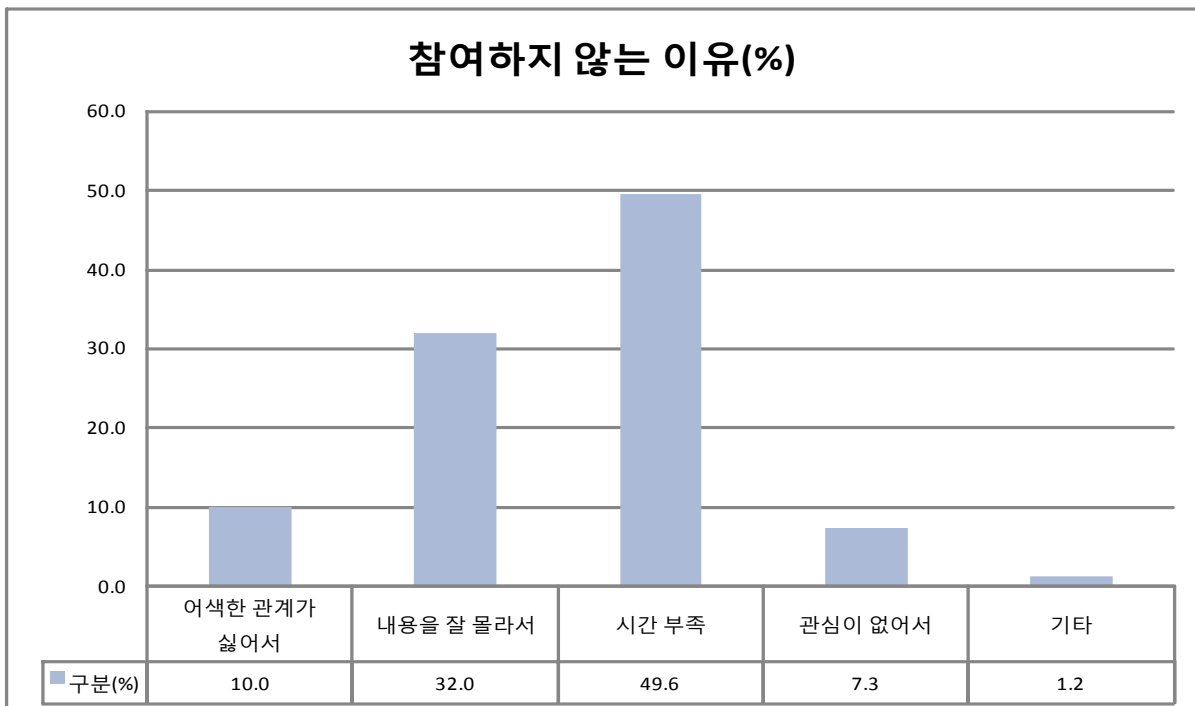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하겠다 (37.6%), 참여하지 않겠다(20.9%), 잘 모르겠다(39.7%)로 응답하였다.

참여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참여하겠다	176	37.6
참여하지 않겠다	98	20.9
잘 모르겠다	186	39.7
무응답	8	1.7
합계	4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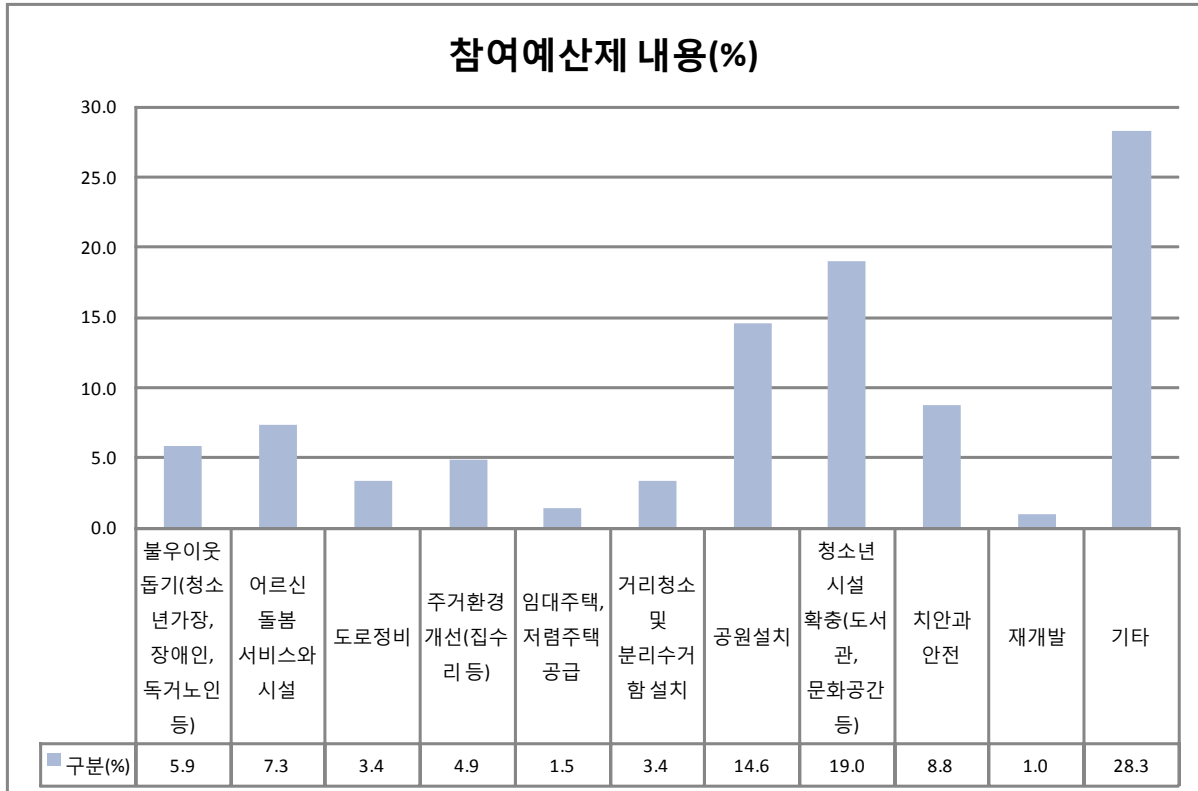
참여방법으로는 시간기부(48%), 재능기부(28%), 돈과 물품 기부(14%), 공간기부(2%)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 부족(49.6%), 내용을 잘 몰라서(32.0%),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10.0%), 관심이 없어서(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설 확충(도서관, 문화공간 등)이 19.0%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설치가 14.6%로 나타났다.



4) 소결 : 조사결과의 함의와 시사점

① 보문동 거주 이유로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 ‘직장과 사업’, ‘경제적 형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보문동 주민들은 보문동에 거주하는 이유로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직장과 사업이 16.6%, 경제적 형편이 14.4%로 나타났다. 자녀육아와 양육은 1.5%, 교육환경은 0.2%로 낮게 나타났다. 보문동 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에 오래 살아온 지역이라는 것과 직장과 사업, 경제적 형편, 가족친지, 교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생활상의 어려움은 ‘보통 이하의 심각함’,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심각’이라고 느끼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문제’, ‘주택 및 주거환경’, ‘청소년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 생활상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평균 2.63으로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부채청산’, ‘실업, 재취업, 퇴직’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보다 ‘쓰레기 문제’, ‘주택 및 주거환경’,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노인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쓰레기 문제’, ‘주택 및 주거환경’, ‘청소년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③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는 다음과 같다.

○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담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건강 및 의료정보제공 역시 60대와 7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상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문동 주민들은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가 높다.

○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 확대’, ‘방과 후 돌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조부모+손자녀가구가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상담,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70대 이상 연령에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등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노인여가문화시설,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40대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60대, 70대 이상은 노인공동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은 ‘국공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도서관’, ‘평생 및 성인교육시설’, ‘학교시설개방’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임대주택’, ‘에너지효율화설비’, ‘집수리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는 2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은 2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 70대 이상은 임대주택,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필요가 낮았다.

집수리 서비스는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40대에서 낮게 나타났다. 자가 거주자는 에너지효율화설비, 노인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임대주택과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보행 및 교통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보행자전용도로구역,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상가주택 거주자들은 응답률이 낮았다.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는 상가주택, 단독주택은 응답률이 높았지만,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시설과 설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투기 방지에 대해서는 상가주택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폐기물 감량은 단독주택, 아파트가 응답률이 높은 반면, 다세대 연립주택로 응답률이 낮았다.

○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 놀이터 공원, 주택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은 30대, 4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터 공원은 40대, 50대가, 주택가는 70대 이상이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 주변은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가 응답률이 높았으며, 골목길은 주택형태별로 유사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④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의지는 높으며,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문제에 대해 미리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 보문동 주민들은 지역문제 해결을 이해 참여하겠다(37.5%)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방법으로는 시간기부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재능기부(28%), 돈과 물품 기부(14%), 공간기부(2%)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 부족(49.6%), 내용을 잘 몰라서(32.0%),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10.0%), 관심이 없어서(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잘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32.0%로 높게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사전에 지역문제에 대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설 확충(도서관, 문화공간 등), 공원 설치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3. 종암동 설문 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530)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42	45.7	가구원 수	1인	41	7.7	
	여성	278	52.5		2인	86	16.2	
	무응답	10	1.9		3인	121	22.8	
연령	20대	54	10.2		4인	173	32.6	
	30대	145	27.4		5인	54	10.2	
	40대	103	19.4		6인 이상	13	2.5	
	50대	103	19.4		무응답	42	7.9	
	60대	88	16.6		가구형태	혼자사는 가구(독거가구)	32	6.0
	70대 이상	25	4.7			부부가정	98	18.5
	무응답	10	1.9			부부+자녀가정	316	59.6
학력	시스템 결측값	2	0.4	조부모+부부+자녀가정		19	3.6	
	무학	7	1.3	한부모+자녀 가정		17	3.2	
	초졸	27	5.1	조부모+손자녀가정		2	0.4	
	중졸	52	9.8	기타		7	1.3	
	고졸	173	32.6	무응답	39	7.4		
	전문대(중퇴)졸	56	10.6	혼인여부	비혼	92	17.4	
	대학(중퇴)졸	162	30.6		기혼	416	78.5	
	대학원이상	26	4.9		무응답	22	4.2	
	무응답	27	5.1					

2) 주거 및 거주 특성

(1) 거주기간

응답자들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55.9%였다.

거주기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12	2.3
3년 미만	40	7.5
5년 미만	74	14.0
10년 미만	93	17.5
20년 미만	168	31.7
30년 미만	62	11.7
30년 이상	66	12.5
무응답	15	2.8
합계	530	100.0

(2) 주택형태

주택형태는 아파트 거주자가 56.4%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20.0%, 다세대/연립주택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가 67.7%로 가장 많으며, 전세 18.5%이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주택 형태	단독주택	106	20.0	거주 형태	자가	359	67.7
	아파트	299	56.4		임대-전세	98	18.5
	다세대/연립주택	86	16.2		임대-보증부 월세	13	2.5
	상가주택	22	4.2		임대-월세	18	3.4
	기타	7	1.3		임대아파트	4	0.8
	무응답	10	1.9		기타	15	2.8
	합계	530	100.0		무응답	23	4.4
				합계	530	100.0	

3) 거주지 선택과 이사 계획

(1) 거주지 선택 이유

종암동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다. 직장 및 사업이 14.9%, 경제적 형편이 13.4%로 나타났다. 자녀육아와 양육은 3.4%, 교육환경은 1.5%, 생활시설은 0.4%로 낮게 나타났다. 종암동 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에 오래 살아온 지역이라는 것과 직장 및 사업, 경제적 형편, 가족친지, 교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선택이유		
	빈도	퍼센트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므로	205	38.7
경제적 형편에 적합하므로	71	13.4
임시거주지이므로	11	2.1
직장 또는 사업때문에	79	14.9
가족, 친지들이 있어서	62	11.7
교통이 편리해서	35	6.6
자녀육아, 양육때문에	18	3.4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6	1.1
자연환경이 좋아서	13	2.5
교육환경이 좋아서	8	1.5
생활시설(쇼핑/문화/의료시설)이 편리해서	2	0.4
기타	12	2.3
무응답	8	1.5
합계	530	100.0

(2) 타지역 이사계획

타지역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수가 369명으로 69.6%로 나타났다.

타지역 이사 계획		
	빈도	퍼센트
없다	151	28.5
있다	369	69.6
무응답	10	1.9
합계	530	100.0

이사계획 이유로 사업장 또는 직장이 16.6%, 경제적 형편 13.2%, 자녀, 육아, 양육 6.0, 생활편의 시설 5.72%로 나타났다. 이사계획이 없는 이유로 직장과 사업장이 18.5%, 경제적 형편 16.6%, 가족, 친지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이사계획이 있는 이유	경제적 형편	70	13.2	이사계획이 없는 이유	경제적 형편	88	16.6
	생활편의 시설	30	5.7		생활편의 시설	43	8.1
	사업장 또는 직장	88	16.6		사업장 또는 직장	98	18.5
	의료시설	1	0.2		의료시설	5	0.9
	자녀 육아, 양육	32	6.0		자녀 육아, 양육	24	4.5
	교육환경	11	2.1		교육환경	7	1.3
	자연환경	32	6.0		자연환경	30	5.7
	교통 및 이동	11	2.1		교통 및 이동	50	9.4
	가족, 친지	22	4.2		가족, 친지	58	10.9
	경제적 이익	20	3.8		경제적 이익	8	1.5
	기타	29	5.5		기타	21	4.0
	무응답	184	34.7		무응답	98	18.5
합계	530	100.0	합계	530	100.0		

4)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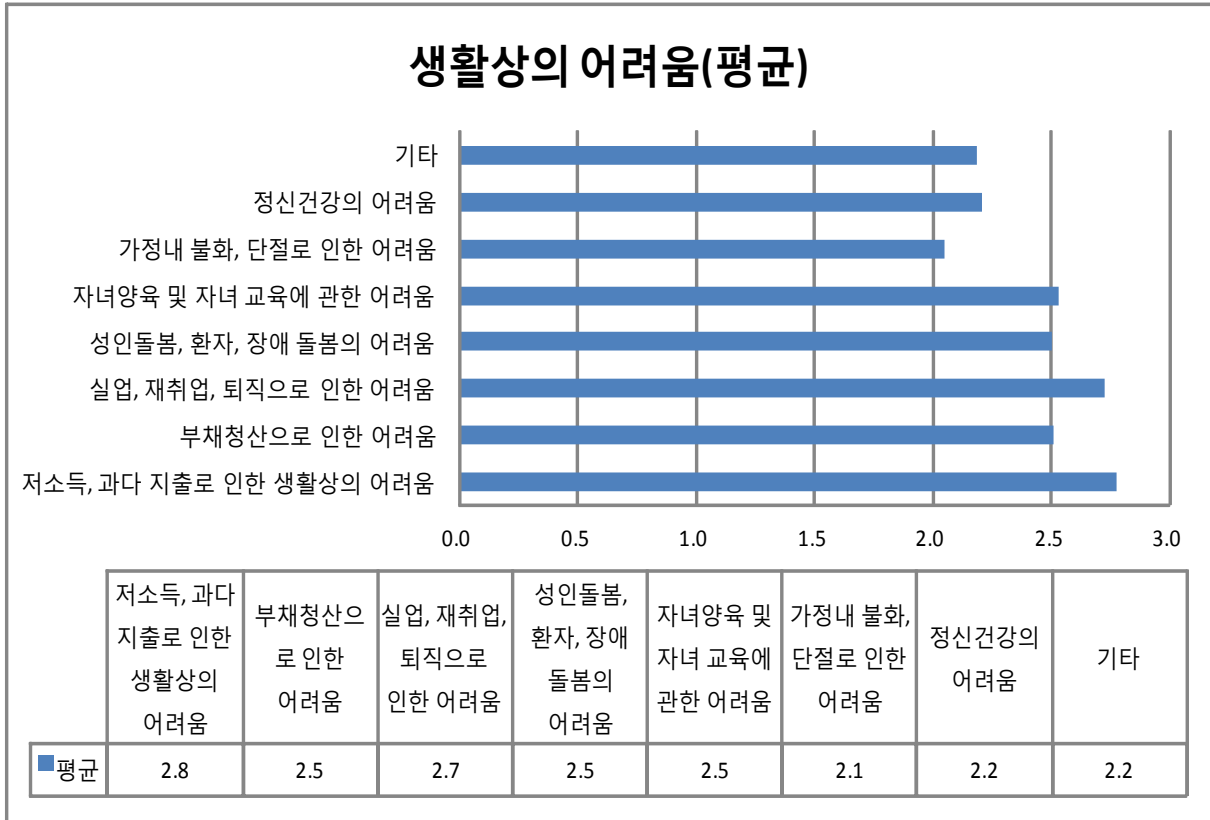
(1) 생활상의 어려움

생활상의 어려움은 2.44로 ‘보통 이하의 심각함’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부채청산’, ‘실업, 재취업, 퇴직’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생활상의 어려움

	N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511.0	2.8	0.9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505.0	2.5	1.1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497.0	2.7	1.2
성인돌봄, 환자, 장애 돌봄의 어려움	499.0	2.5	1.2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501.0	2.5	1.1
가정내 불화, 단절로 인한 어려움	504.0	2.1	1.0
정신건강의 어려움	502.0	2.2	1.1
기타	32.0	2.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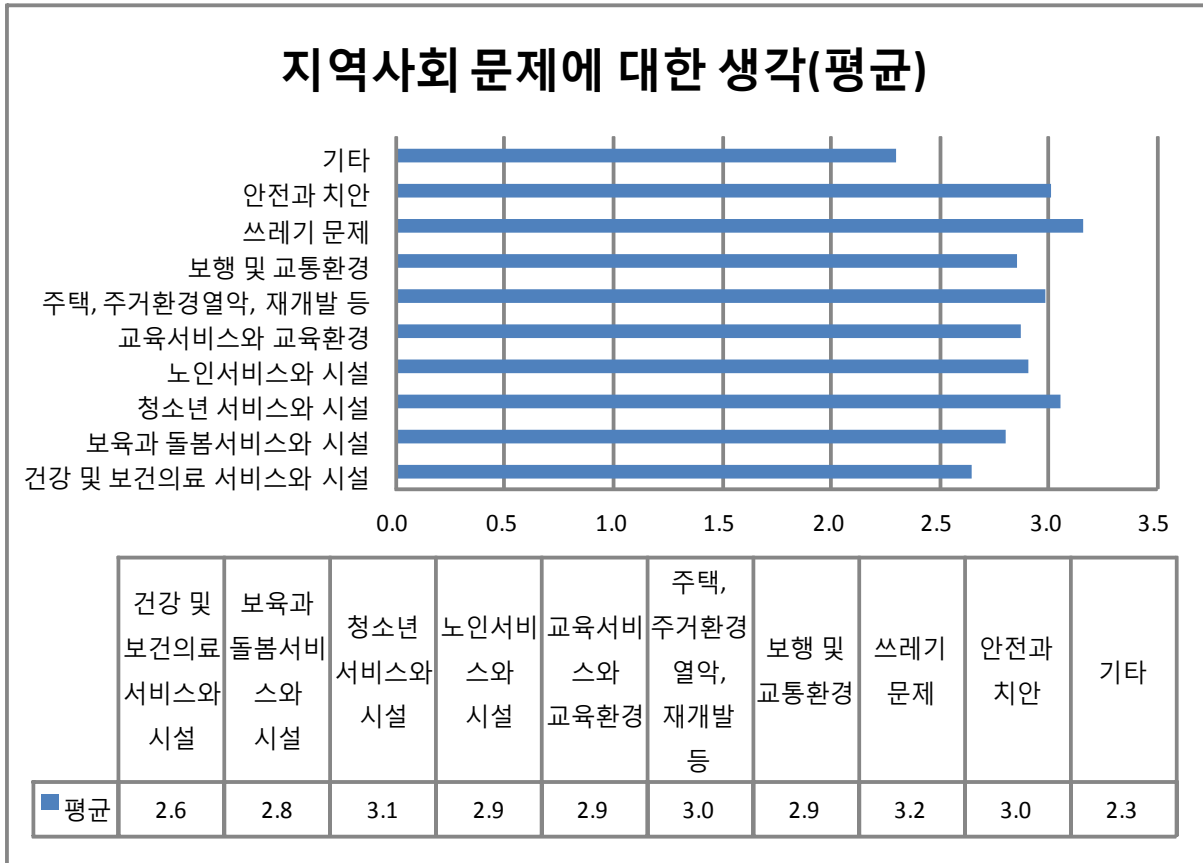
(2)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2.87로 ‘보통이하의 심각함’로 나타났다. 쓰레기 문제,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심각함’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N	평균	표준편차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507.0	2.6	0.7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496.0	2.8	0.8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494.0	3.1	0.9
노인서비스와 시설	501.0	2.9	0.9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495.0	2.9	0.9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 등	499.0	3.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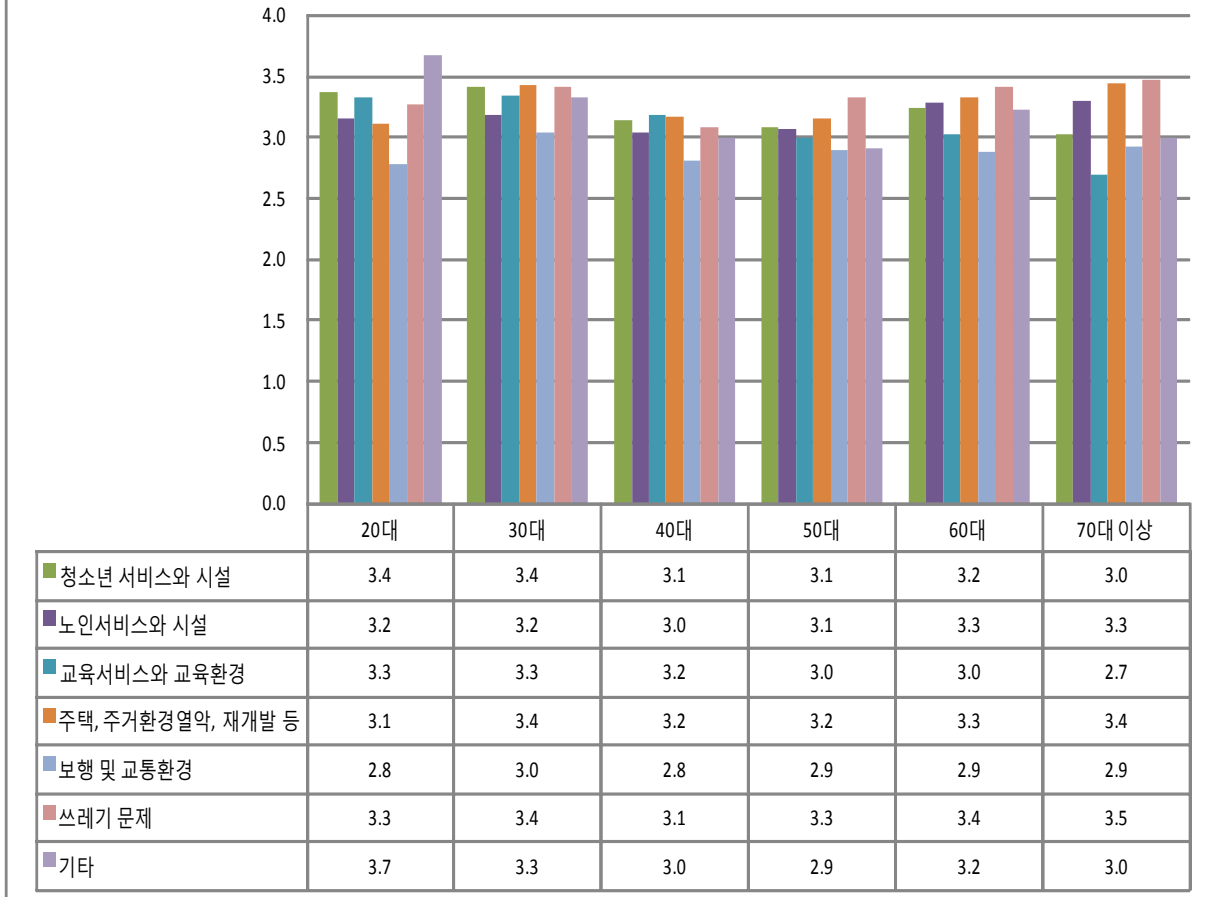
보행 및 교통환경	504.0	2.9	0.9
쓰레기 문제	507.0	3.2	1.1
안전과 치안	502.0	3.0	1.0
기타	30.0	2.3	1.6



① 연령대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청소년서비스와 시설(3.4)’,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3.3)’, ‘노인서비스와 시설(3.2)’, ‘주택 및 주거환경(3.1)’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모든 연령대에서 ‘보행 및 교통환경’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보다 심각함’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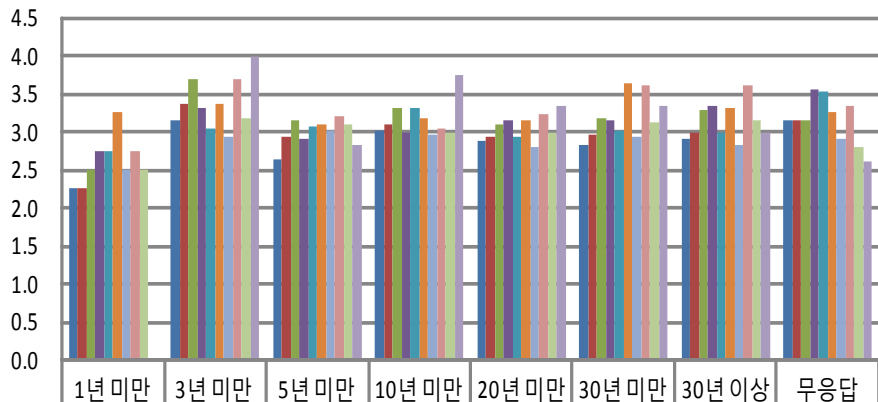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 연령



② 거주기간별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거주기간별로 살펴봤을 때, 1년 미만 거주자들은 ‘주택, 주거환경(3.3)’이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으며, 3년 미만 거주자들은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3.7)’, ‘쓰레기문제(3.7)’,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3.4)’, ‘주택 및 주거환경(3.3)’ 등 ‘보통 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거주기간별로 봤을 때 3년 미만 거주자들이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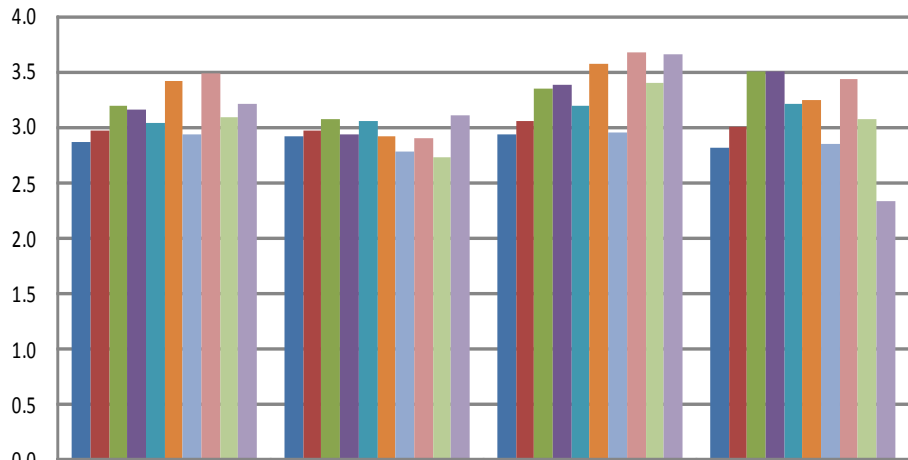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무응답
■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2.3	3.2	2.6	3.0	2.9	2.8	2.9	3.2
■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2.3	3.4	2.9	3.1	2.9	3.0	3.0	3.2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2.5	3.7	3.2	3.3	3.1	3.2	3.3	3.1
■ 노인서비스와 시설	2.8	3.3	2.9	3.0	3.1	3.2	3.4	3.6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2.8	3.1	3.1	3.3	2.9	3.0	3.0	3.5
■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 등	3.3	3.4	3.1	3.2	3.2	3.6	3.3	3.3
■ 보행 및 교통환경	2.5	2.9	3.0	3.0	2.8	2.9	2.8	2.9
■ 쓰레기 문제	2.8	3.7	3.2	3.0	3.2	3.6	3.6	3.3
■ 안전과 치안	2.5	3.2	3.1	3.0	3.0	3.1	3.1	2.8
■ 기타		4.0	2.8	3.8	3.4	3.3	3.0	2.6

③ 주택형태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주택형태별로 보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보육과 돌봄서비스(3.0)’,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3.1)’,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3.1)’로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각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아파트 거주자들이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쓰레기 문제(3.7)’, ‘주택 및 주거환경(3.6)’를 지역사회 문제 가운데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주택형태



주택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
■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2.9	2.9	2.9	2.8
■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3.0	3.0	3.1	3.0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3.2	3.1	3.4	3.5
■ 노인서비스와 시설	3.2	2.9	3.4	3.5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3.0	3.1	3.2	3.2
■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 등	3.4	2.9	3.6	3.3
■ 보행 및 교통환경	2.9	2.8	3.0	2.9
■ 쓰레기 문제	3.5	2.9	3.7	3.4
■ 안전과 치안	3.1	2.7	3.4	3.1
■ 기타	3.2	3.1	3.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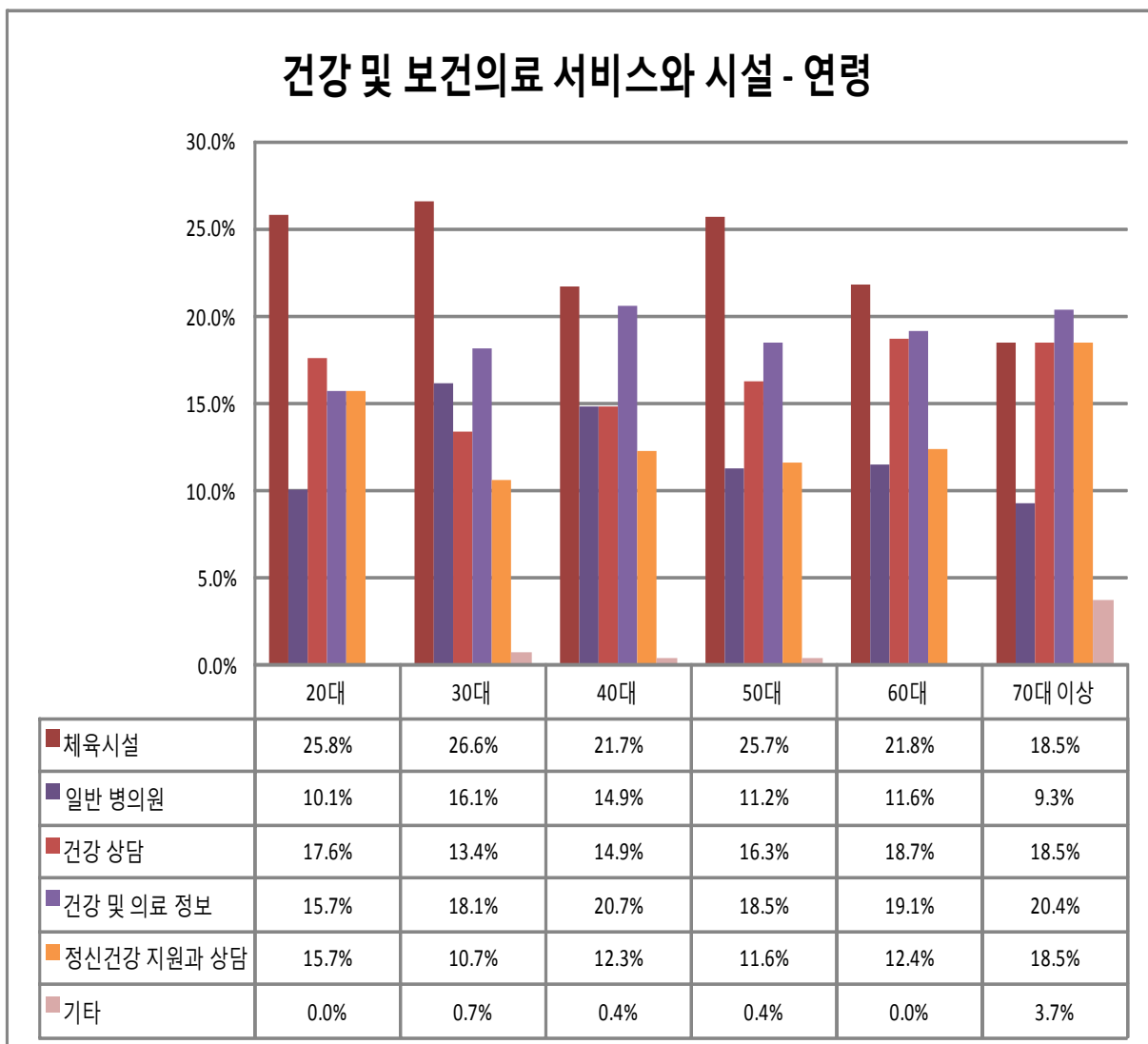
③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2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18.4%), 건강상담(15.9%),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15.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암동 주민들은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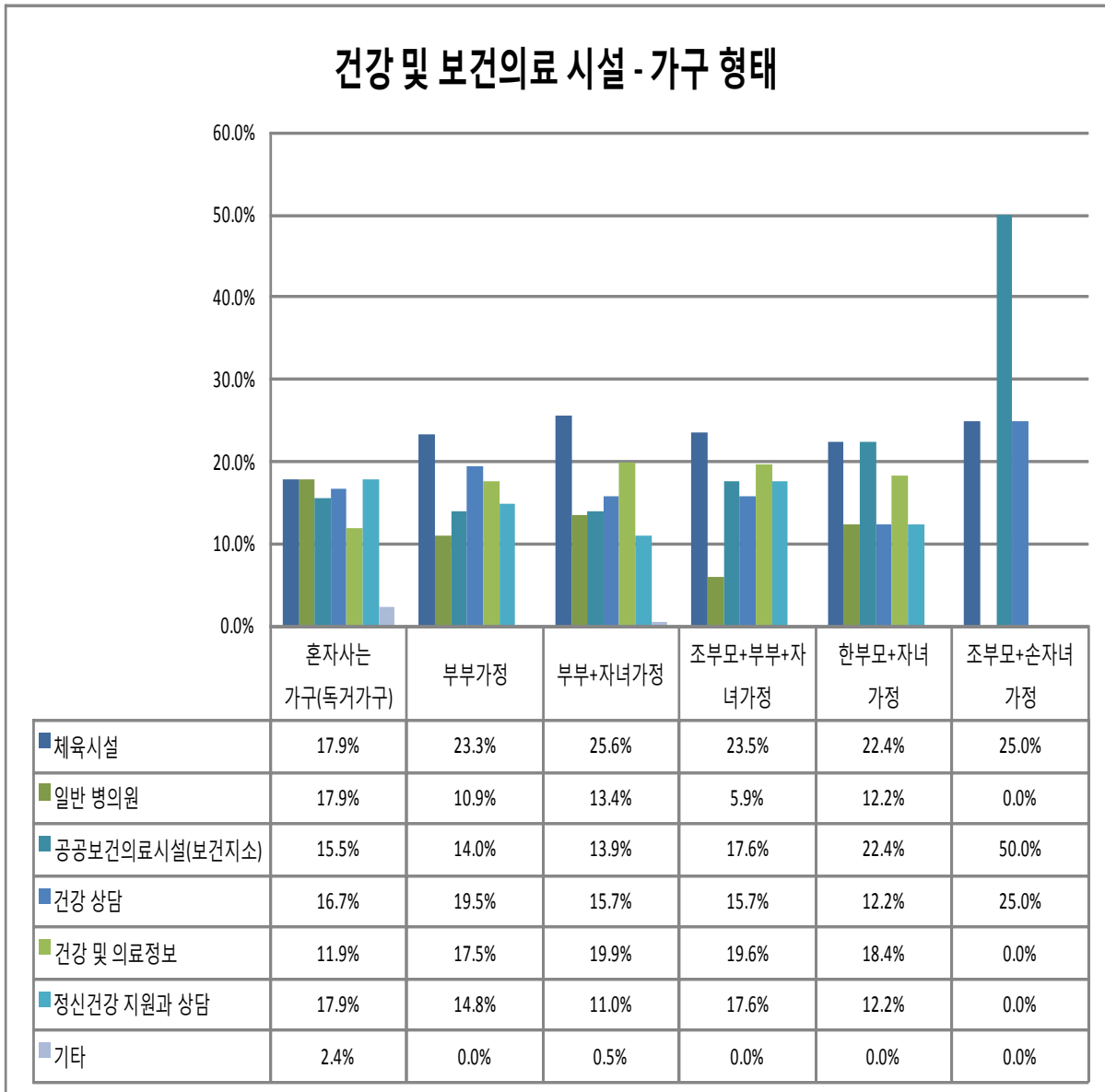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체육시설	345	24.4
일반 병원	187	13.2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216	15.3

건강 상담	225	15.9
건강 및 의료정보	261	18.4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	175	12.4
기타	7	0.5
합계	1416	100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체육시설(25.8%)과 건강상담(17.6%)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40대, 50대, 60대는 체육시설과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70대 이상은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모든 가구형태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 공공의료보건시설(보건지소)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④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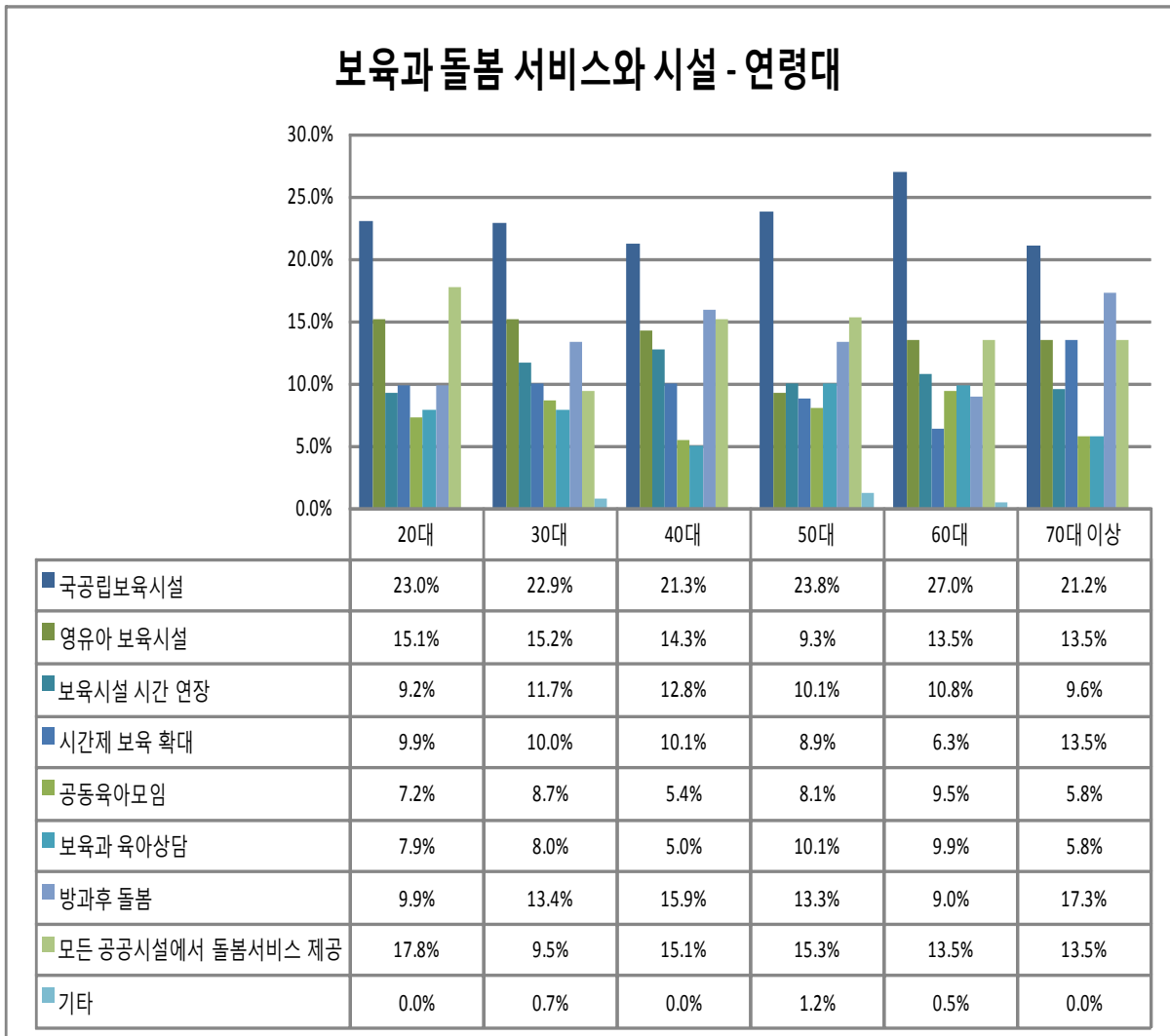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24%)’, ‘영유아 보육시설(16.9%)’, ‘시간제 보육 확대(11.2%)’, ‘방과후 돌봄(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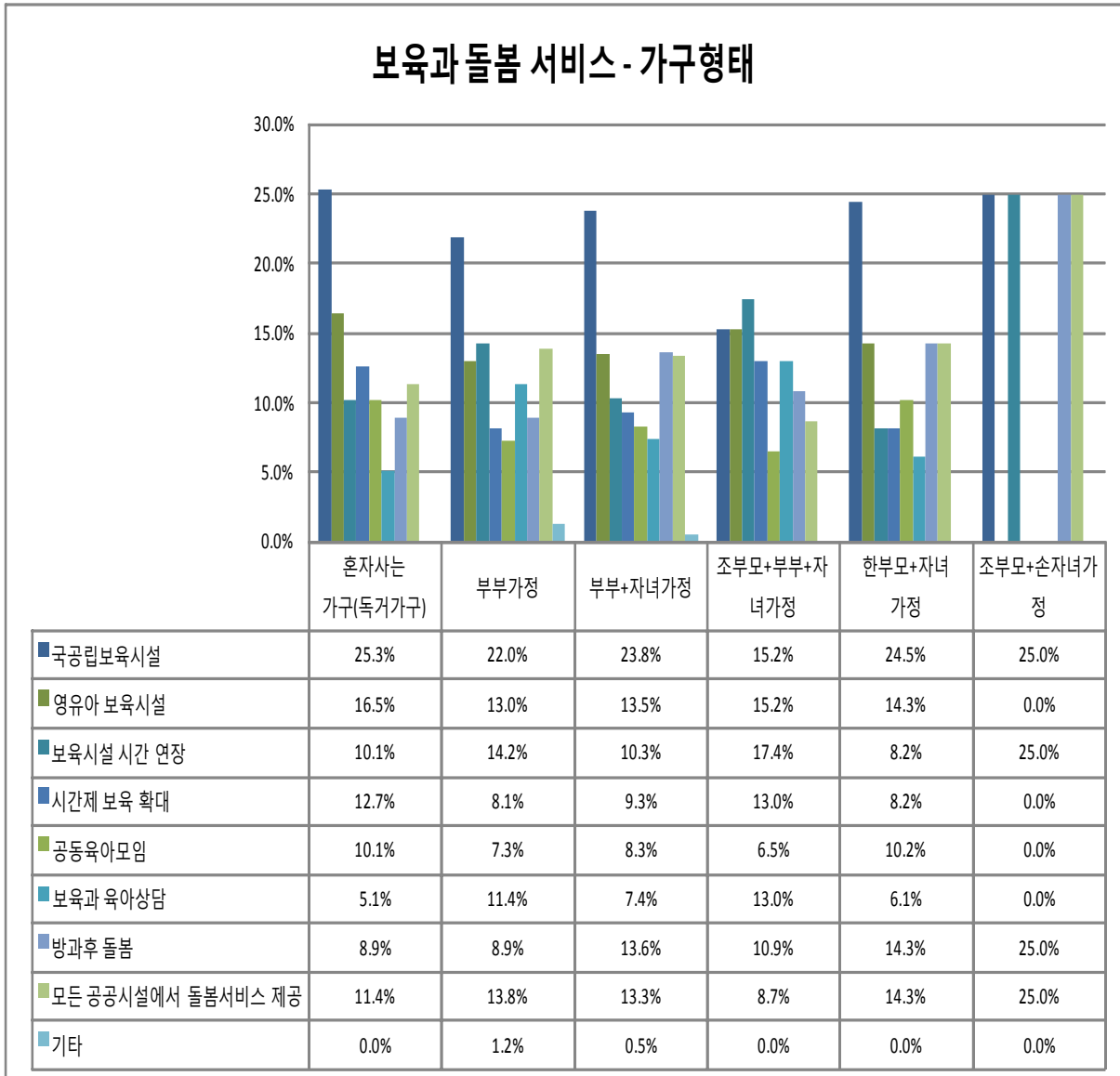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국공립보육시설	316	23.4

영유아 보육시설	183	13.5
보육시설 시간 연장	149	11.0
시간제 보육 확대	126	9.3
공동육아모임	107	7.9
보육과 육아상담	109	8.1
방과후 돌봄	174	12.9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82	13.5
기타	7	0.5
합계	1353	100.0

연령대별 보육과 돌봄에 대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20대는 국공립보육시설(23.0%),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17.8%), 영유아보육시설(15.1%)로 응답률이 높았다. 30대는 국공립보육시설(22.9%), 영유아보육시설(15.2%), 방과후 돌봄(13.4%)의 순이었으며, 40대는 국공립보육시설(21.3%), 방과후 돌봄(15.9%), 영유아보육시설(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부부+자녀 가정은 국공립보육시설(23.8%), 방과후 돌봄(13.6%)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고,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국공립보육시설(25.0%), 보육시설시간연장(25.0%), 방과후 돌봄(25.0%),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25.0%)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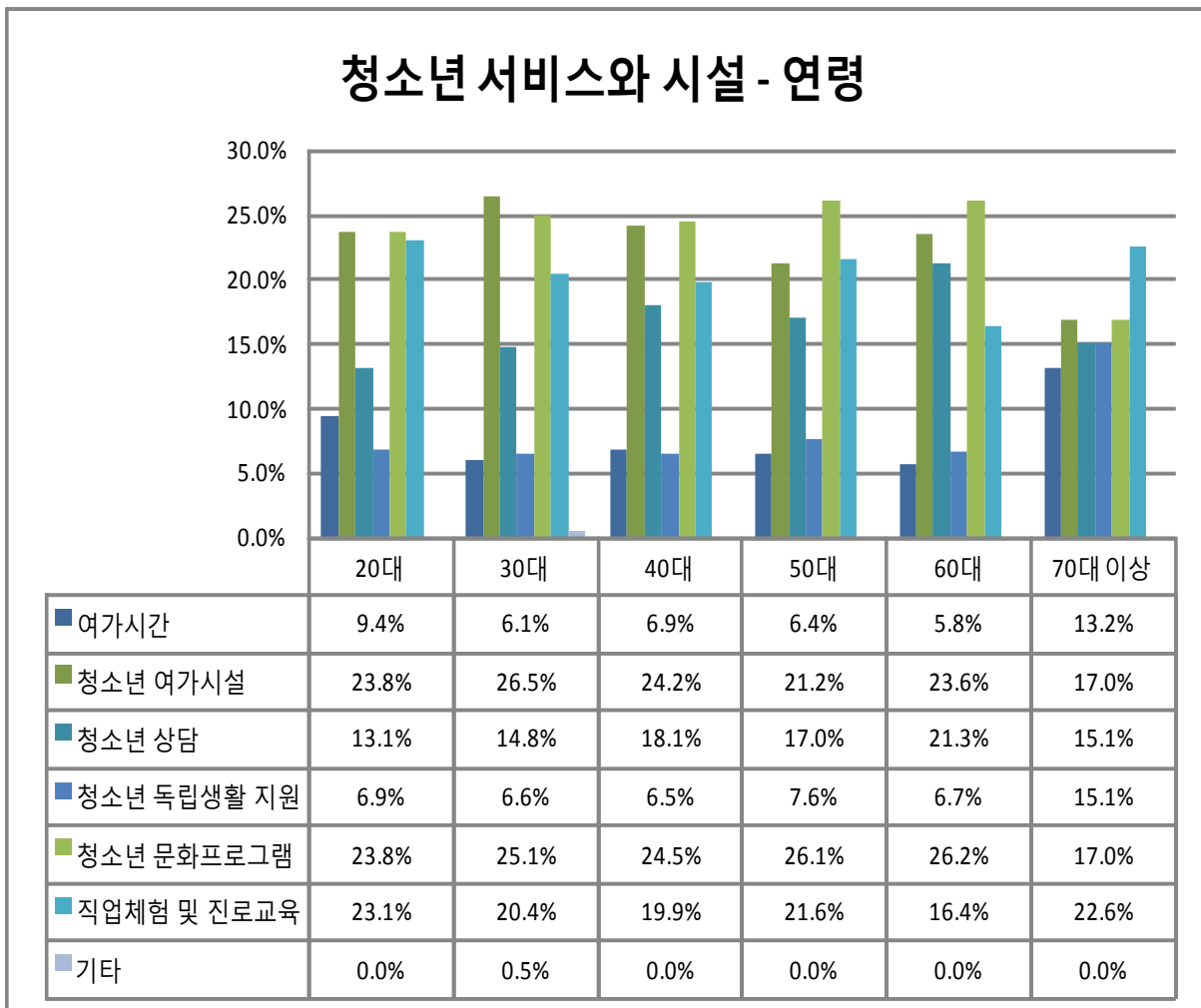
⑤ 청소년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24.8%), 청소년 여가시설(21.0%),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여가시간	98	7.0%
청소년 여가시설	338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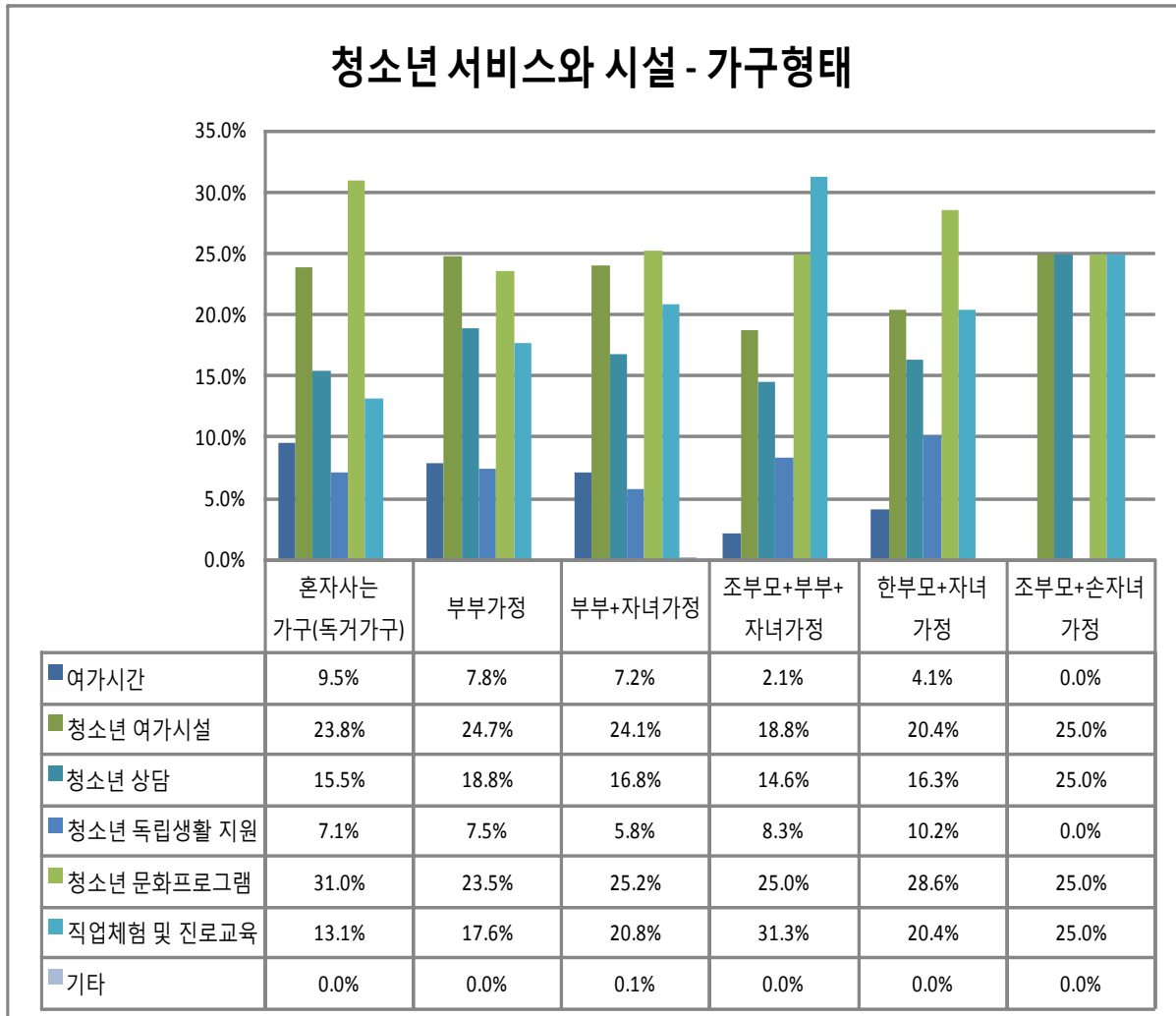
청소년 상담	234	16.6%
청소년 독립생활 지원	101	7.2%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349	24.8%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286	20.3%
기타	2	0.1%
합계	1408	100.0%

청소년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는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는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0대의 경우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부부+자녀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 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상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욕구를 살펴봤을 때 60대 이상에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과 비교했을 때, 종암동의 경우 조부모+손자녀 가정이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가 크

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⑦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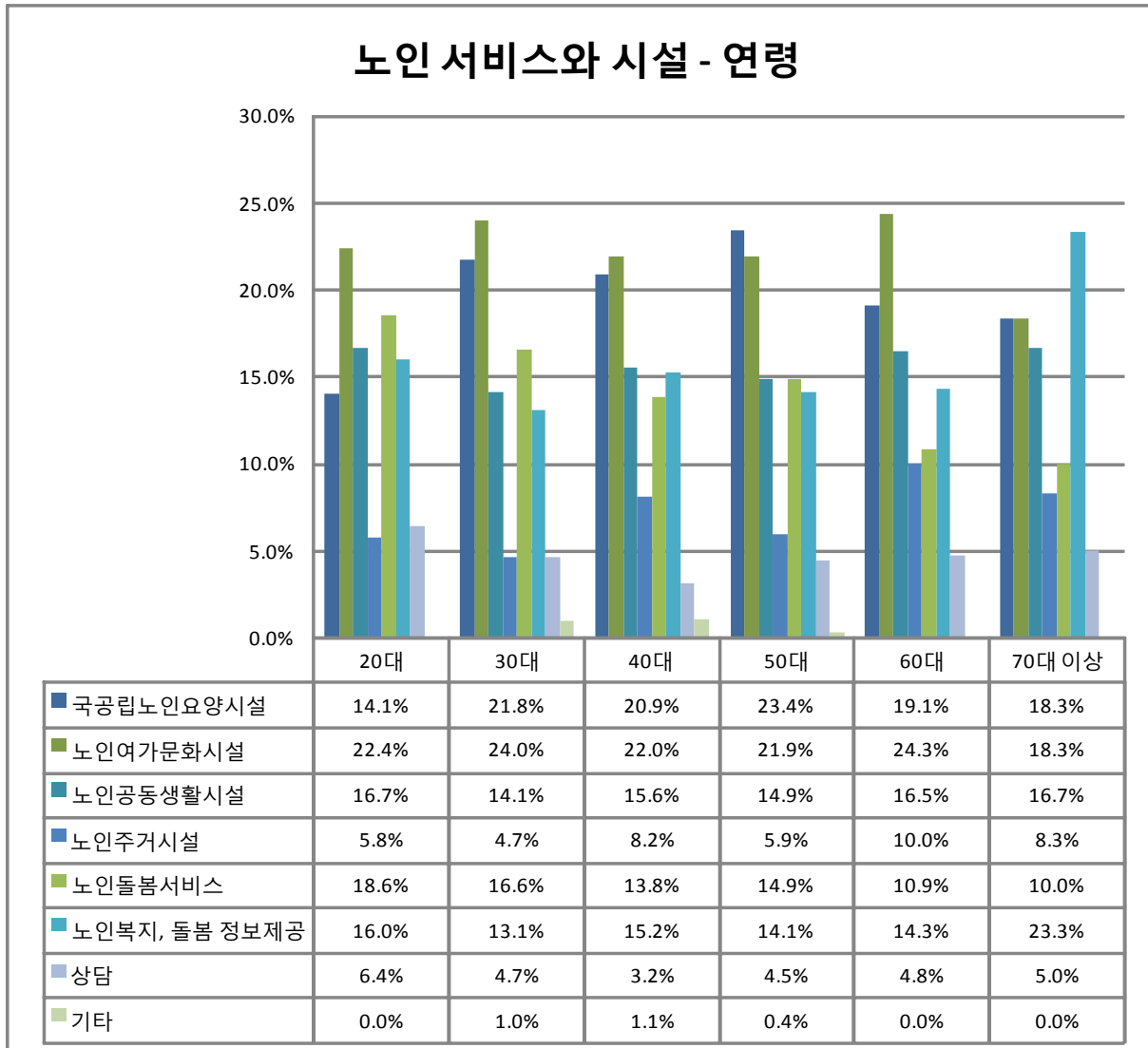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노인여가문화시설(22.93%), 국공립노인요양시설(20.5%), 노인공동생활시설(15.3%)로 나타났다.

<표> 노인 서비스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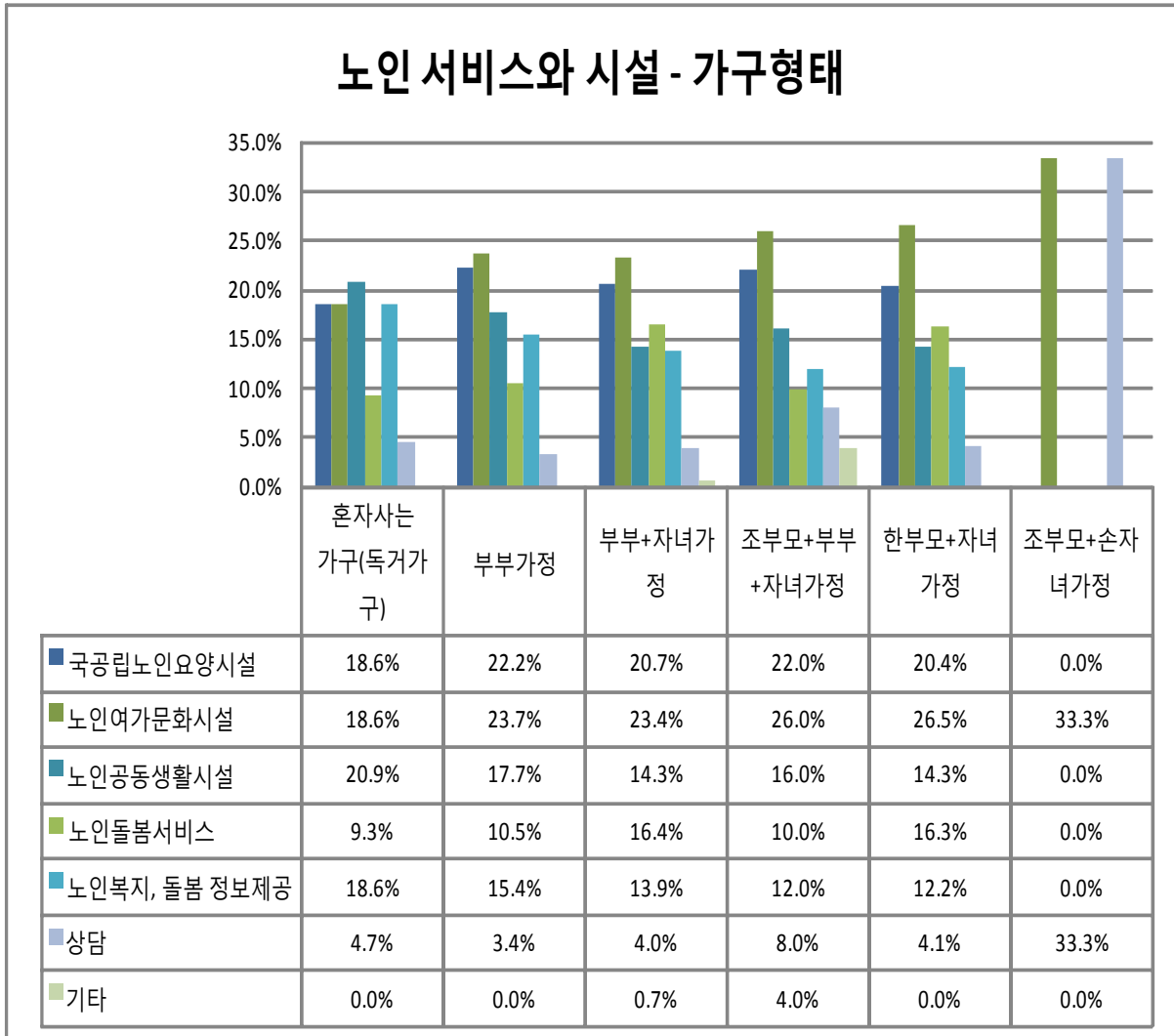
	응답	
	N	퍼센트
국공립노인요양시설	291	20.5%
노인여가문화시설	325	22.9%
노인공동생활시설	217	15.3%
노인주거시설	96	6.8%
노인돌봄서비스	208	14.6%
노인복지, 돌봄 정보제공	210	14.8%

상담	65	4.6%
기타	8	0.6%
합계	1420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30대, 40대, 50대, 60대는 국공립요양시설과 노인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의 경우 노인복지, 돌봄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요양시설,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 사는 가정은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부부가정,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 한부모 가정은 조부모+부부+자녀가정은 국공립노인요양시설과 노인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노인여가문화시설과 상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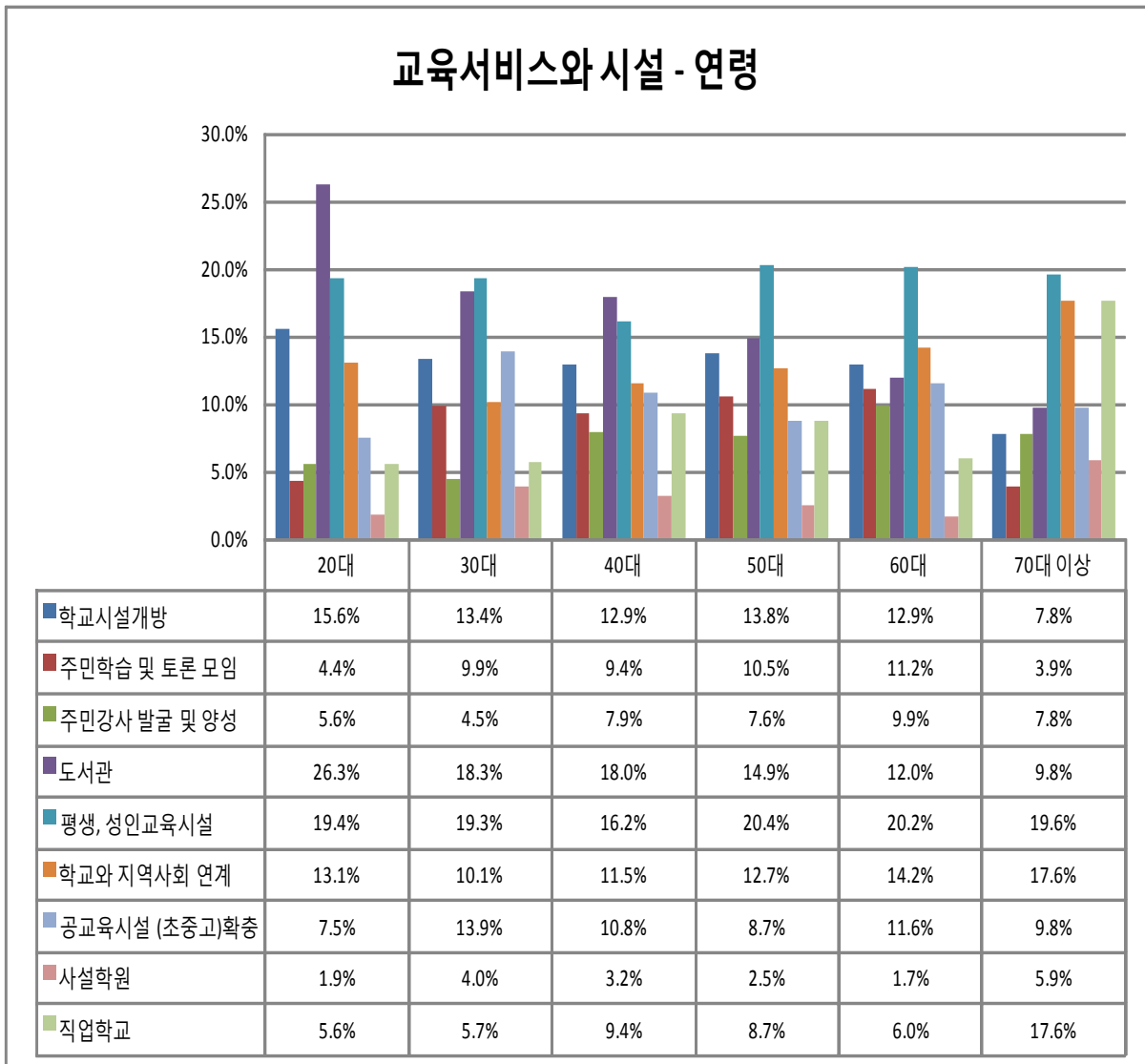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평생 성인교육(19.1%), 도서관(17.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응답	
	N	퍼센트
학교시설 개방	190	13.4%
주민학습 및 토론 모임	132	9.3%

주민강사 발굴 및 양성	100	7.0%
도서관	244	17.2%
평생, 성인교육시설	271	19.1%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173	12.2%
공교육시설(초중고) 확충	154	10.8%
사설학원	44	3.1%
직업학교	105	7.4%
기타	8	0.6%
합계	1421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40대는 도서관, 평생·성인교육시설,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30대는 평생·성인교육시설·학교시설개방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50대, 60대, 70대는 평생·성인교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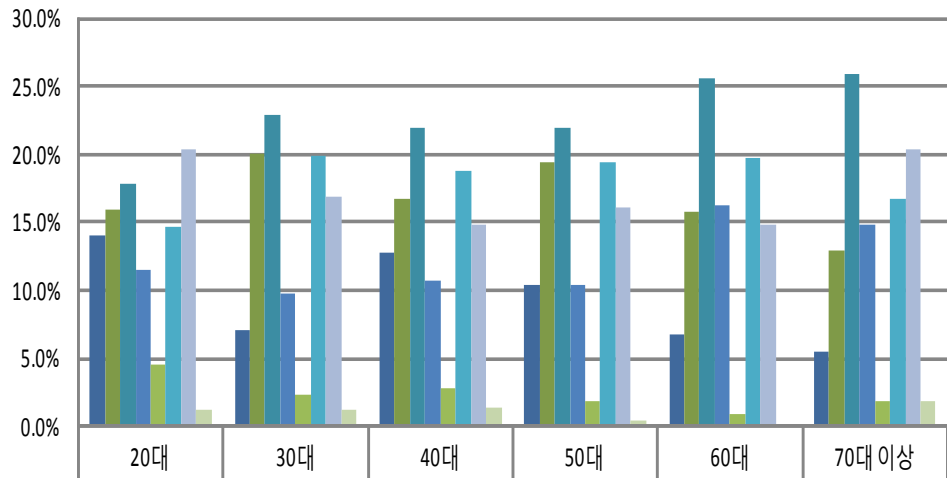
⑨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에너지효율화설비(22.4%),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18.9%), 집수리서비스(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 환경		
	응답	
	N	퍼센트
임대주택	135	9.6%
집수리서비스	249	17.8%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313	22.4%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160	11.4%
임차인 조합	33	2.4%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265	18.9%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231	16.5%
기타	13	0.9%
합계	1399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집수리서비스,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보급, 임대주택에 대한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40대, 50대, 60대는 에너지효율화설비, 집수리서비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70대 이상은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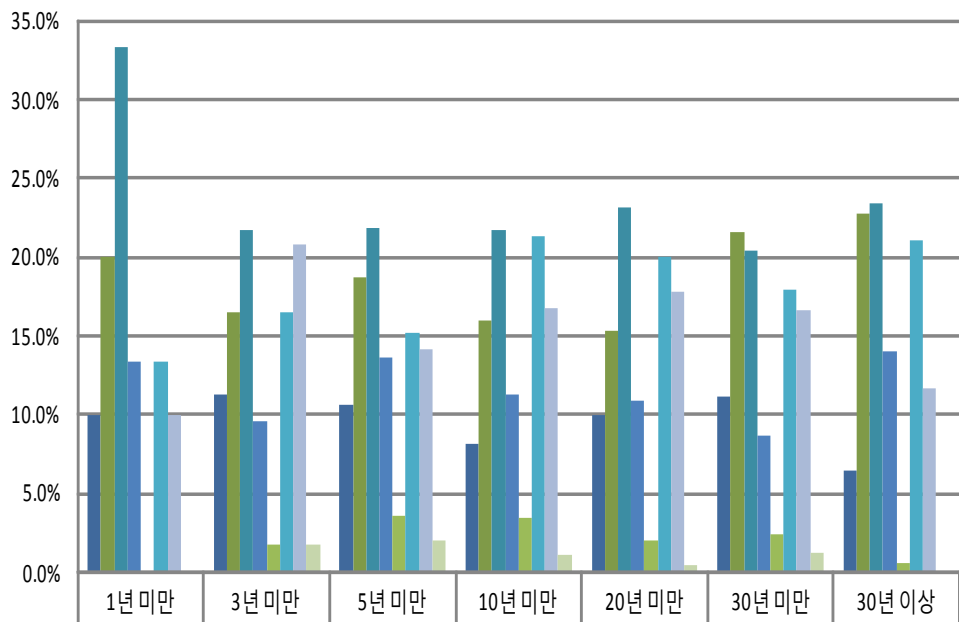
주택 및 주거환경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임대주택	14.0%	7.0%	12.8%	10.4%	6.8%	5.6%
■ 집수리서비스	15.9%	20.1%	16.7%	19.4%	15.8%	13.0%
■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17.8%	22.9%	22.0%	22.0%	25.7%	25.9%
■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11.5%	9.8%	10.6%	10.4%	16.2%	14.8%
■ 임차인 조합	4.5%	2.3%	2.8%	1.9%	0.9%	1.9%
■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14.6%	19.8%	18.8%	19.4%	19.8%	16.7%
■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20.4%	16.8%	14.9%	16.0%	14.9%	20.4%
■ 기타	1.3%	1.3%	1.4%	0.4%	0.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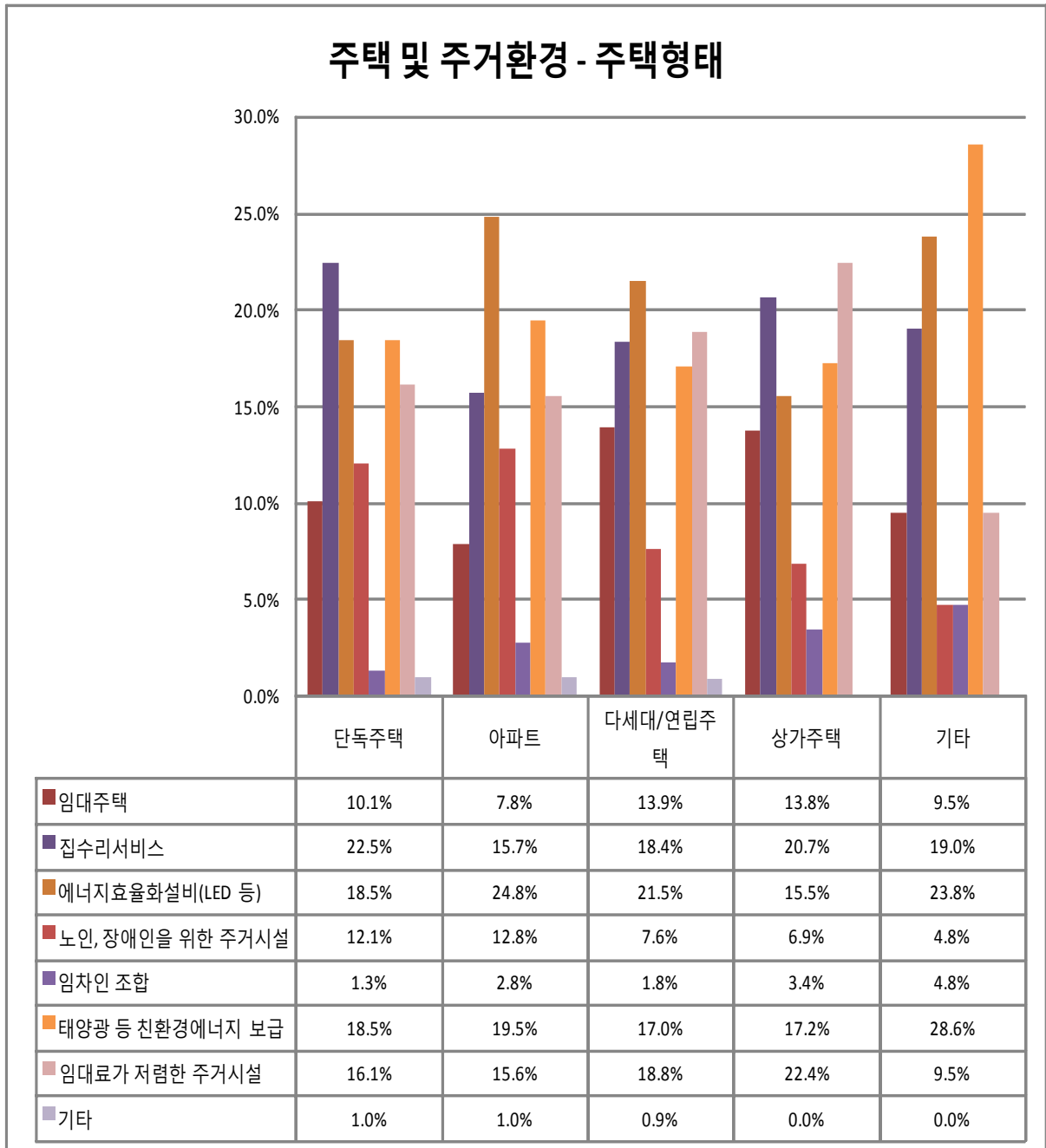
거주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거주자들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설비와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3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 설비와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10년 미만, 20년 미만 거주자들은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화 설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주택 및 주거환경 -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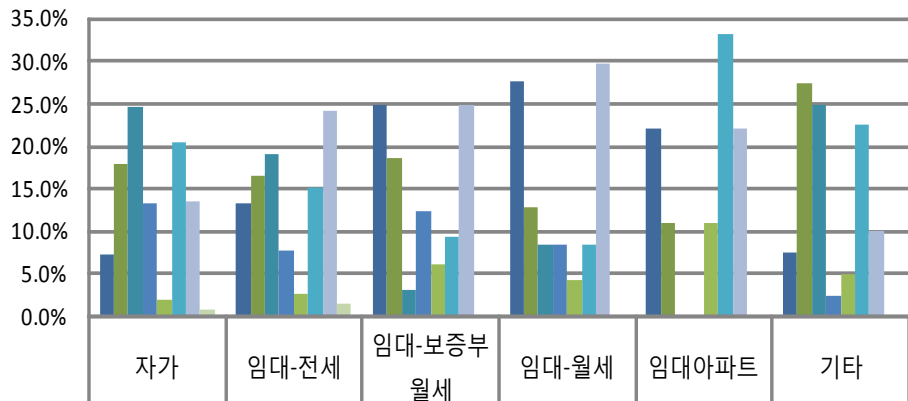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임대주택	10.0%	11.3%	10.7%	8.2%	10.0%	11.1%	6.4%
집수리서비스	20.0%	16.5%	18.8%	16.0%	15.4%	21.6%	22.8%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33.3%	21.7%	21.8%	21.8%	23.2%	20.4%	23.4%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13.3%	9.6%	13.7%	11.3%	10.9%	8.6%	14.0%
임차인 조합	0.0%	1.7%	3.6%	3.5%	2.0%	2.5%	0.6%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13.3%	16.5%	15.2%	21.4%	20.1%	17.9%	21.1%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10.0%	20.9%	14.2%	16.7%	17.9%	16.7%	11.7%
기타	0.0%	1.7%	2.0%	1.2%	0.4%	1.2%	0.0%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설비와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과 에너지효율화설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자가 거주자는 에너지효율화설비,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자가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점유형태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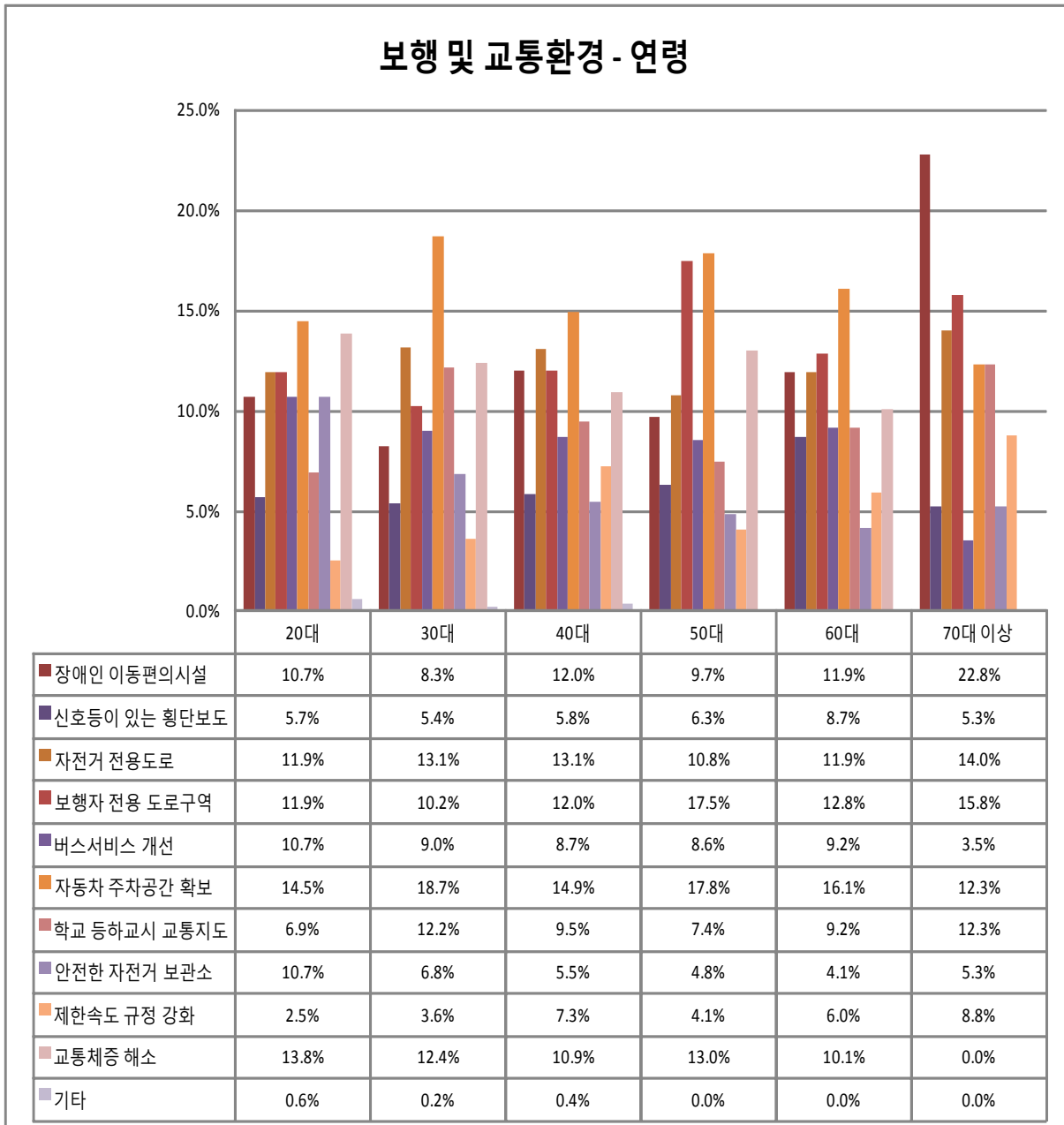
	자가	임대-전세	임대-보증부 월세	임대-월세	임대아파트	기타
■ 임대주택	7.4%	13.2%	25.0%	27.7%	22.2%	7.5%
■ 집수리서비스	17.9%	16.5%	18.8%	12.8%	11.1%	27.5%
■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24.7%	19.1%	3.1%	8.5%	0.0%	25.0%
■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13.3%	7.7%	12.5%	8.5%	0.0%	2.5%
■ 임차인 조합	1.9%	2.6%	6.3%	4.3%	11.1%	5.0%
■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20.5%	15.1%	9.4%	8.5%	33.3%	22.5%
■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13.5%	24.3%	25.0%	29.8%	22.2%	10.0%
■ 기타	0.8%	1.5%	0.0%	0.0%	0.0%	0.0%

⑩ 보행 및 교통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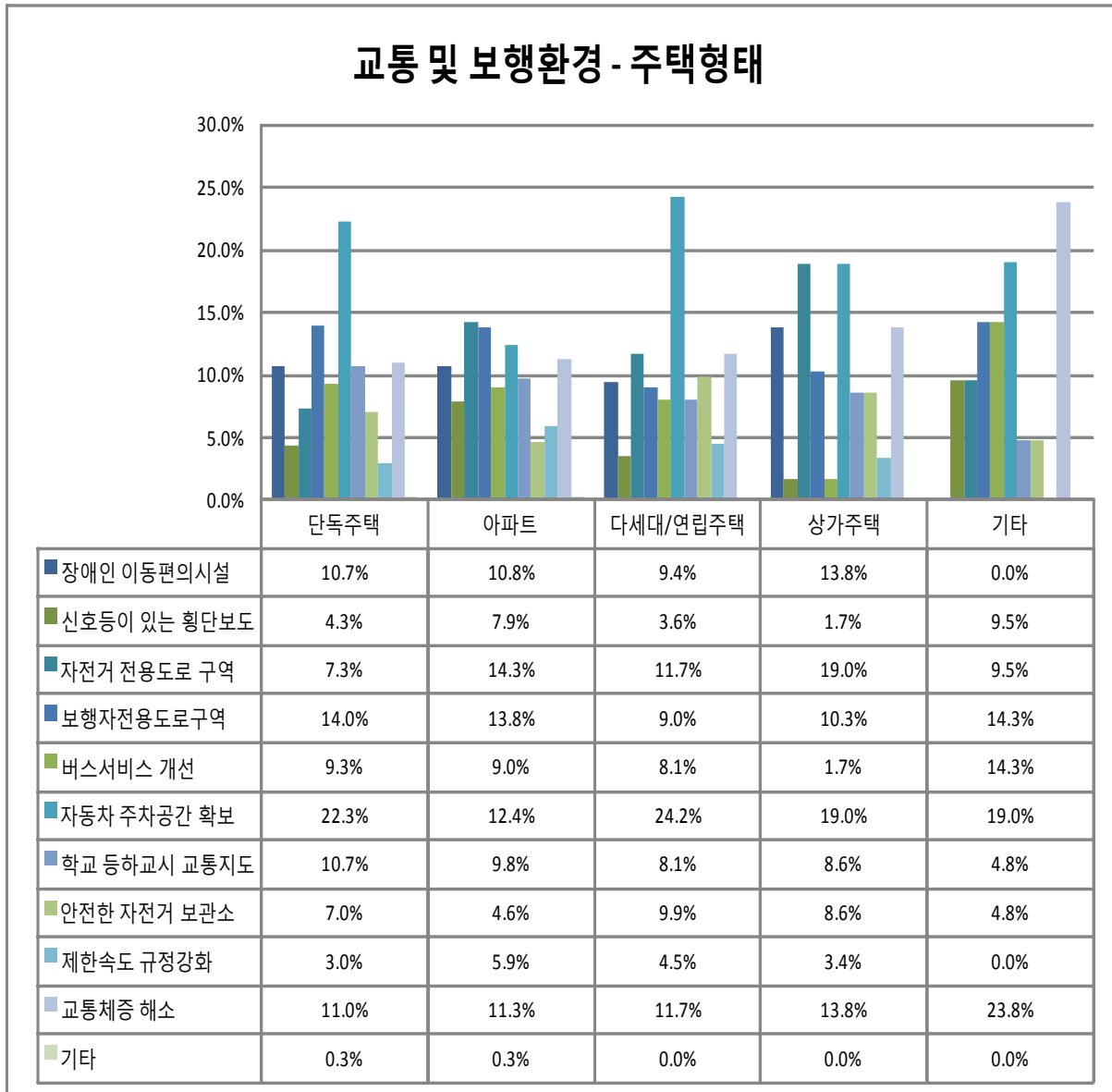
보행 및 교통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16.87%), 보행자전용도로구역(13.0%),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N	퍼센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150	10.6%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87	6.2%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	175	12.4%
보행자전용도로구역	183	13.0%
버스서비스 개선	123	8.7%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237	16.8%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	135	9.6%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	86	6.1%
제한속도 규정강화	68	4.8%
교통체증 해소	162	11.5%
기타	3	0.2%
합계	1409	100.0%

연령대별 보행 및 교통환경에 욕구를 살펴보면, 20대, 40대, 50대는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구역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30대는 자동차주타공간확도, 자전거전용도로, 학교등하교시 교통지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60대는 자동차주차공간확도, 보행자전용도로,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70대 이상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보행자전용도로 구역, 자적거 전용도로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은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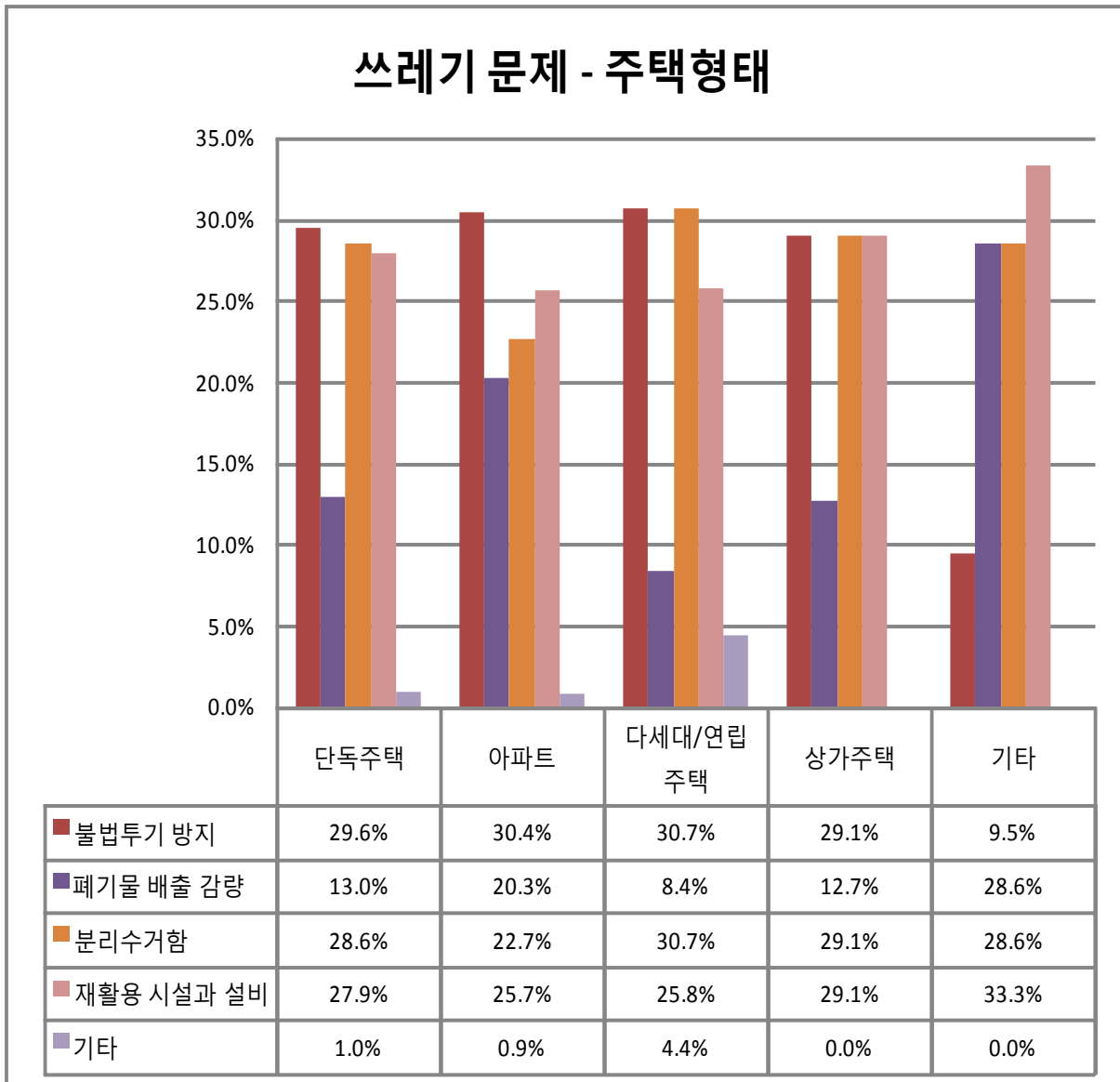
⑪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29.9%), 재활용시설과 설비(26.4%), 분리수거함 설치(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문제		
	응답	
	N	퍼센트
불법투기 방지	422	29.9%
폐기물 배출 감량	236	16.7%

분리수거함	362	25.6%
재활용 시설과 설비	373	26.4%
기타	20	1.4%
합계	1413	100.0%

모든 주택형태에서 불법투기 방지에 대해 높은 응답률은 나타났다. 아파트는 재활용시설과 설비, 분리수거함 순으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은 분리수거함, 재활용시설과 설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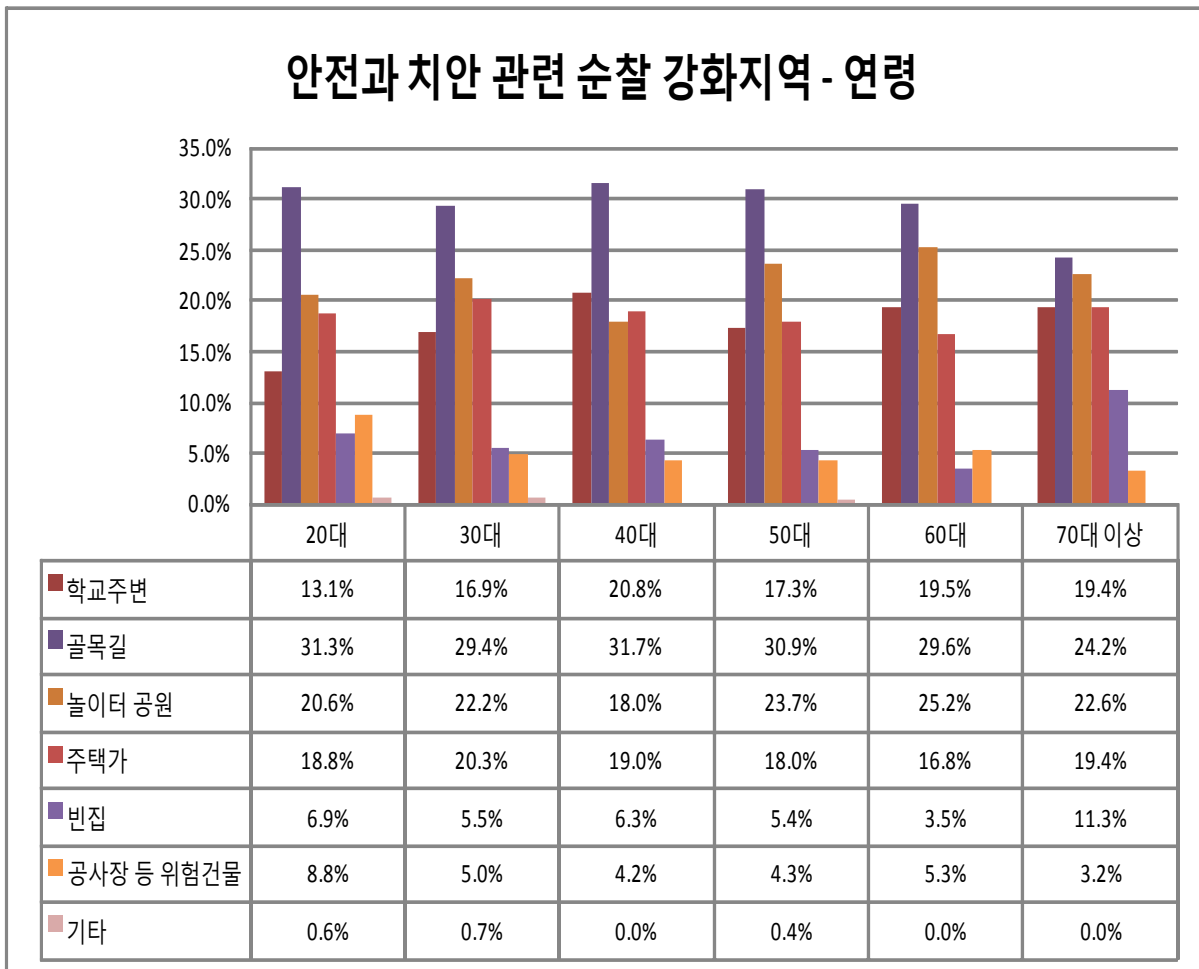


⑫ 안전과 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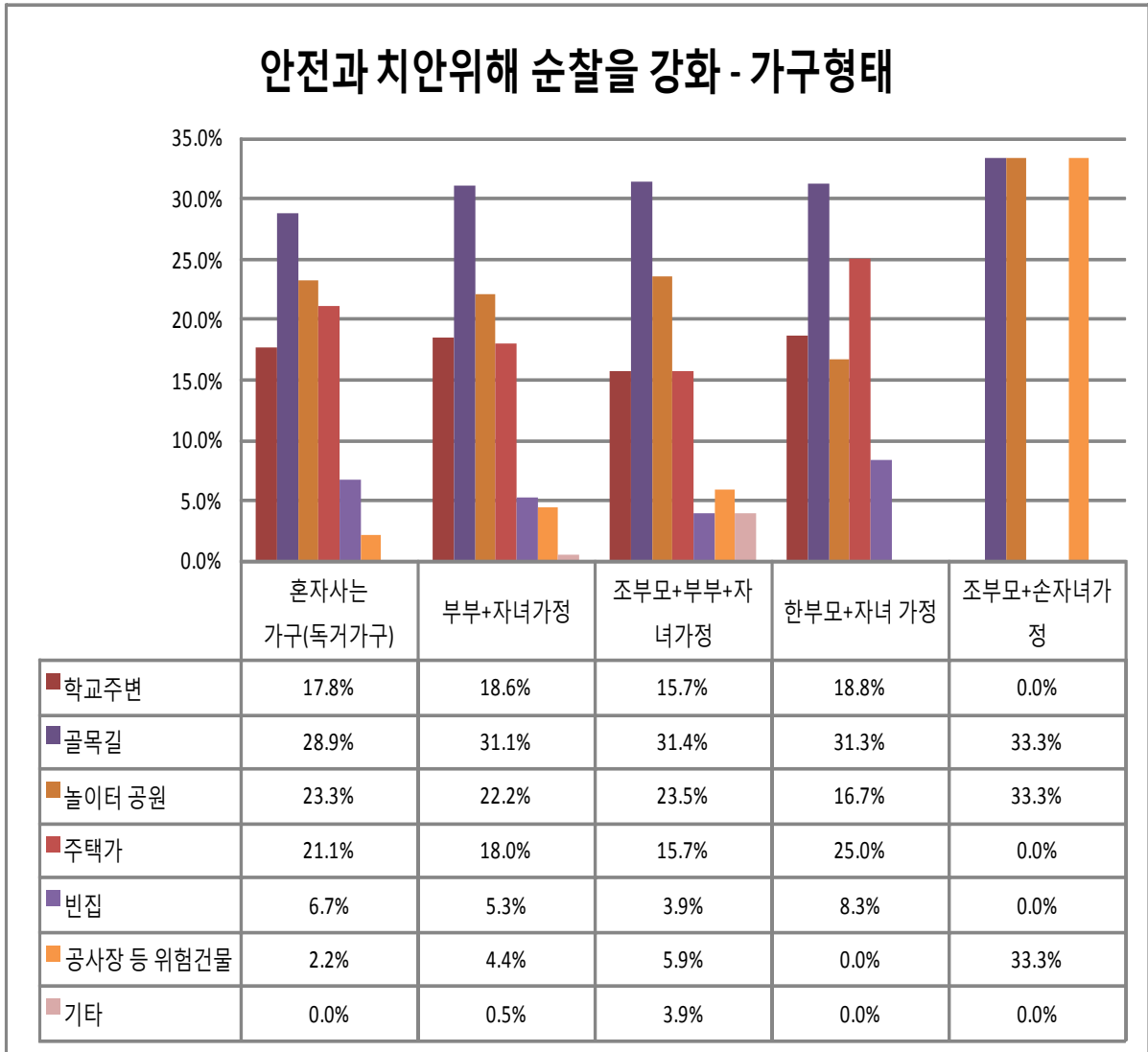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29.9%), 놀이터 공원(21.9%), 주택가(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치안 관련 순찰 강화		
	응답	
	N	퍼센트
학교주변	260	17.9%
골목길	434	29.9%
놀이터 공원	318	21.9%
주택가	276	19.0%
빈집	82	5.7%
공사장 등 위험건물	74	5.1%
기타	6	0.4%
합계	1450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30대, 50대는 골목길, 놀이터 공원, 주택가 순으로 순찰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0대는 골목길, 학교주변, 주택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0대는 골목길, 놀이터공원, 학교주변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70대 이상은 골목길, 놀이터공원, 주택가, 학교주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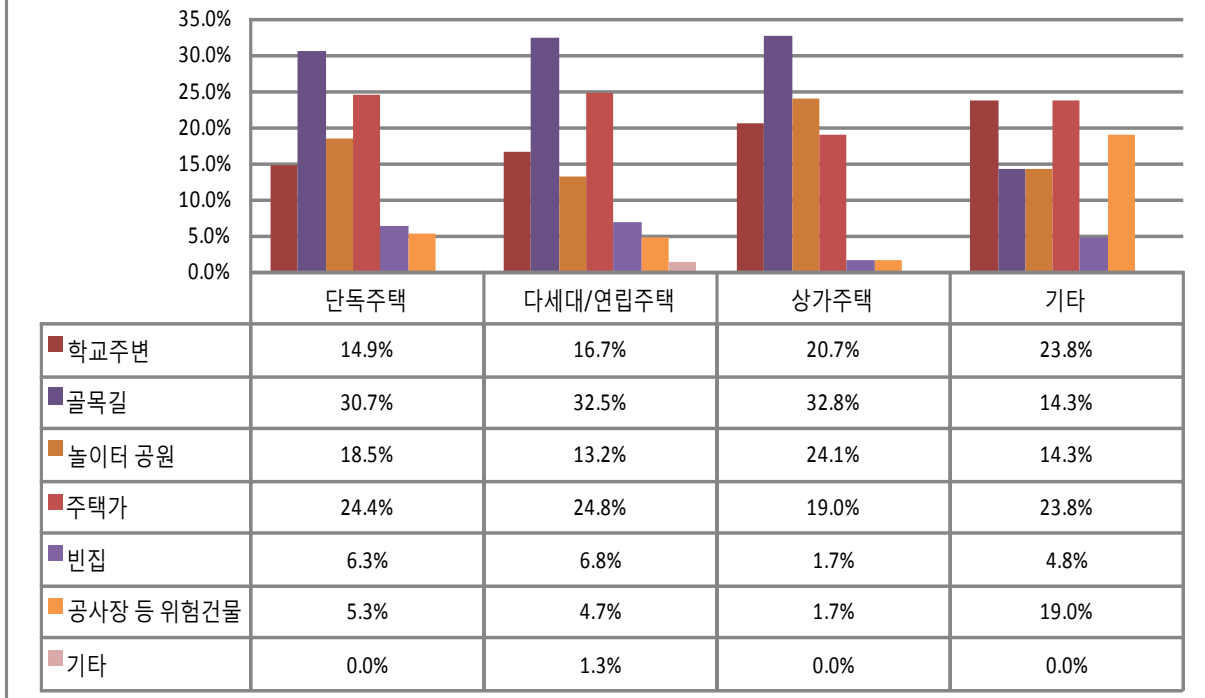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사는 가구는 골목길, 놀이터 공원, 주택가 순으로 응답한 반면, 부부+자녀가정은 골목길, 놀이터공원, 학교주변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부모 가정은 골목길, 주택가, 학교 주변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골목길, 놀이터 공원, 공사장 등 위험건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 거주자는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세대/연립주택거주자는 골목길, 주택가, 학교주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상가주택 거주자는 골목길,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안전과 치안 위해 순찰 강화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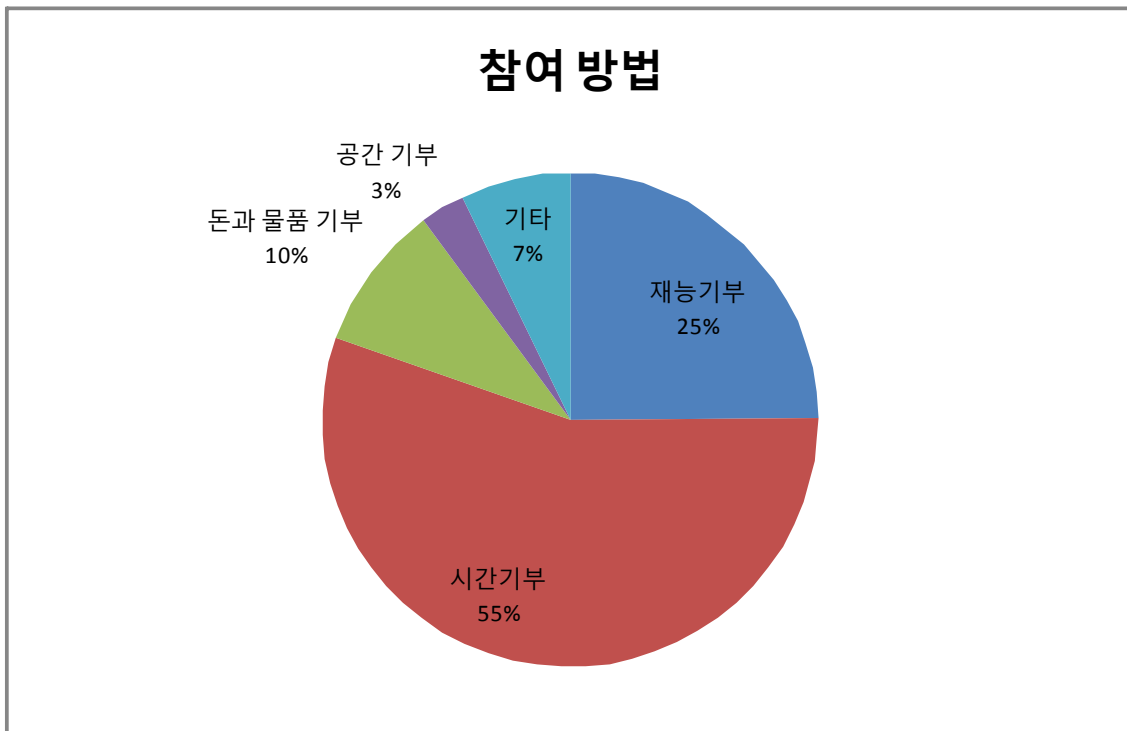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여부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하겠다 (53.2%), 참여하지 않겠다(14.9%), 잘 모르겠다(28.9%)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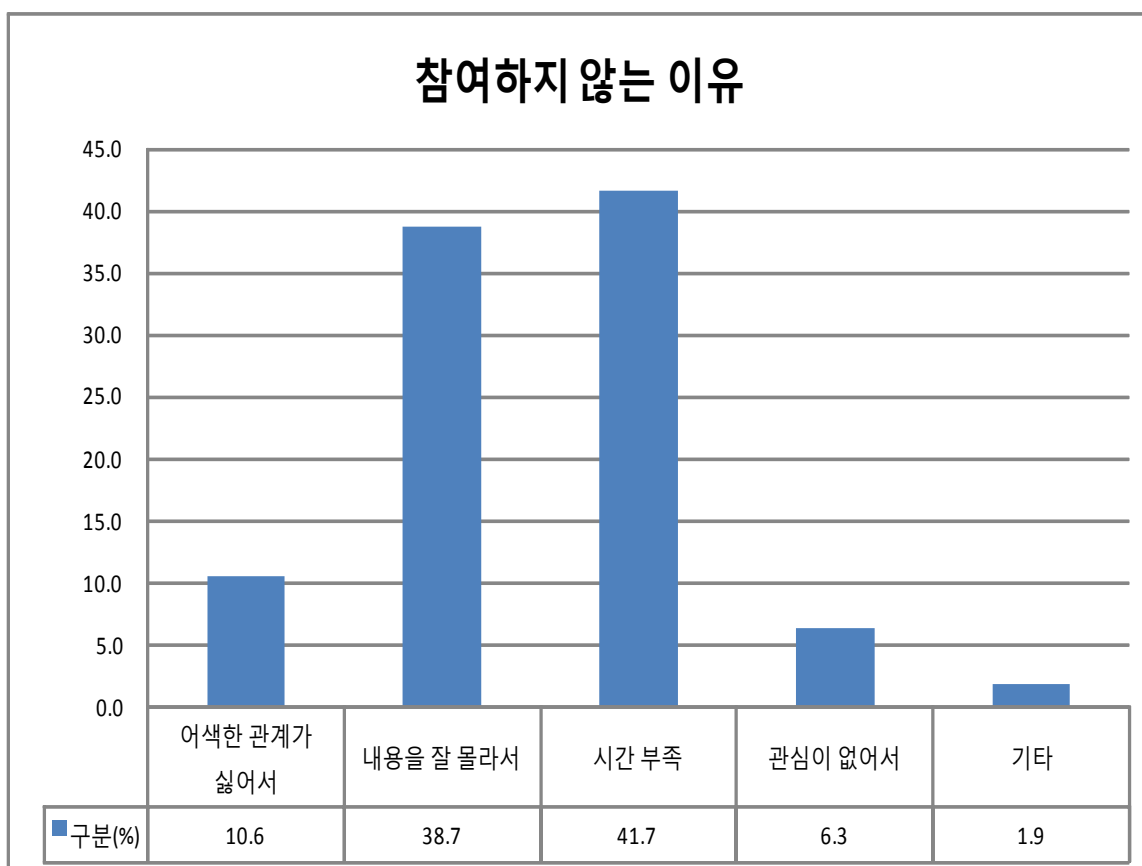
<표> 참여여부

	빈도	퍼센트
참여하겠다	282	53.2
참여하지 않겠다	75	14.2
잘모르겠다	153	28.9
무응답	20	3.8
합계	5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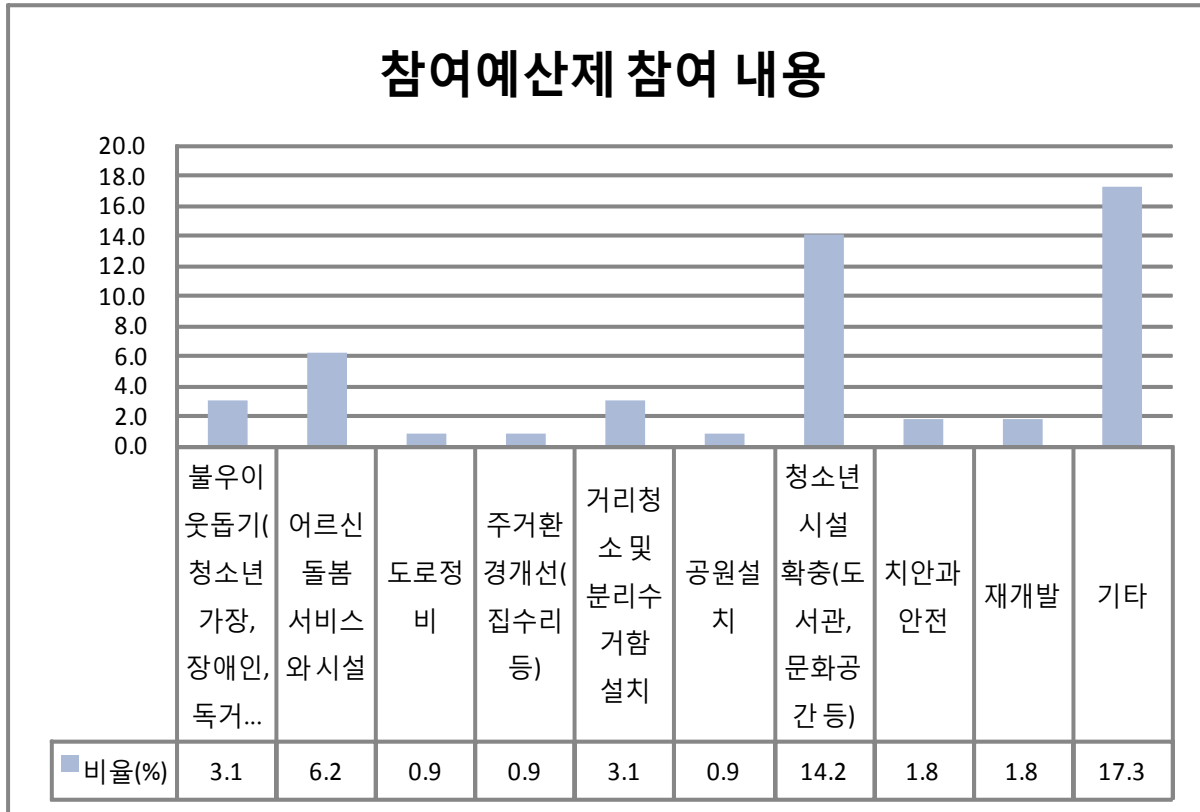
참여방법으로는 시간기부(55%), 재능기부(25%), 돈과 물품 기부(10%), 공간기부(3%)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41.7%), 내용을 잘 몰라서(38.7%),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설 확충(도서관, 문화공간 등)이 14.2%로 가장 많았으며,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시설이 6.2%로 나타났다.



4) 소결 : 조사 결과와 시사점

① 종암동 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에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 ‘직장과 사업’, ‘경제적 형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종암동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직장과 사업, 경제적 형편이 응답률이 높았으며, 자녀육아와 양육은, 교육환경, 생활시설은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종암동 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에 오래 살아온 지역이라는 것과 직장과 사업, 경제적 형편, 가족친지, 교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심각함’이라고 느끼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 가운데 쓰레기 문제,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느끼고 있다.

○ 생활상의 어려움은 2.44로 ‘보통 이하의 심각함’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부채청산’, ‘실업, 재취업, 퇴직’등의 어려움’ 등에 대해 생활

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2.87로 ‘보통이하의 심각함’로 나타났다. 쓰레기 문제,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심각함’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③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욕구와 필요는 다음과 같다.

○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 건강상담,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암동 주민들은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체육시설 외에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모든 가구형태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 공공의료보건시설(보건지소)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 확대’, ‘방과후 돌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는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는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0대의 경우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상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욕구를 살펴봤을 때 60대 이상에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종암동의 경우 조부모+손자녀 가정이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노인여가문화시설,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30대, 40대, 50대, 60대는 국공립요양시설과 노인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의 경우 노인복지, 돌봄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요양시설,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노인여가문화시설과 상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평생 성인교육, 도서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에너지효율화설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집수리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30대, 40대, 50대, 60대는 에너지효율화설비, 집수리서비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설비와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보행 및 교통 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보행자전용도로구,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은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 재활용시설과 설비, 분리수거함 설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택형태에서 불법투기 방지에 대해 높은 응답률은 나타냈다.

○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 놀이터 공원, 주택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자녀가정은 골목길, 놀이터공원, 학교주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은 골목길, 주택가, 학교주변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골목길, 놀이터 공원, 공사장 등 위험건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④ 종암동 주민들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의지(53.2%)가 매우 높으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문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개발이 필요하다.

○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하겠다(53.2%)는 응답이 매우 높아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방법으로는 시간기부(55%), 재능기부(25%), 돈과 물품 기부(10%), 공간기부(3%)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41.7%), 내용을 잘 몰라서(38.7%),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설 확충(도서관, 문화공간 등)이 14.2%로 가장 많았으며,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시설이 6.2%로 나타났다.

4. 장위1동 설문 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83)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07	42.9	혼인 여부	비혼	67	13.9
	여성	247	51.1		기혼	379	78.5
	무응답	31	5.6		무응답	36	7.5
	시스템 결측값	1	.2		시스템 결측값	1	0.2
연령	20대	28	5.8	가구 원수	1인	30	6.2
	30대	77	15.9		2인	73	15.1
	40대	82	17.0		3인	92	19.0
	50대	117	24.2		4인	150	31.1
	60대	78	16.1		5인	45	9.3
	70대 이상	48	9.9		6인 이상	26	5.4
	무응답	21	4.3		무응답	67	13.9
	시스템 결측값	32	6.6		혼자사는 가구(독거가구)	19	3.9
	학력	무학	7		1.4	가구 형태	부부가정
초졸		21	4.3	부부+자녀가정	279		57.8
중졸		64	13.3	조부모+부부+자녀가정	30		6.2
고졸		206	42.7	한부모+자녀 가정	20		4.1
전문대(중퇴)졸		54	11.2	조부모+손자녀가정	7		1.4
대학(중퇴)졸		81	16.8	기타	1		0.2
대학원이상		8	1.7	무응답	40		7.0
무응답		36	7.5	시스템 결측값	2		0.4
시스템 결측값		6	1.2				

2) 주거 및 거주 특성

(1)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자가 25.9%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 거주자도 25.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중 10년 이상 거주자가 64.5%로 나타났다.

<표> 거주기간

거주기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4	0.8
3년 미만	18	3.7
5년 미만	35	7.2
10년 미만	76	15.7
20년 미만	125	25.9
30년 미만	122	25.3
30년 이상	64	13.3
무응답	12	2.5
시스템 결측값	27	5.6
합계	483	100.0

(2) 주택형태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와 연립주택 거주자가 37.58%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는 3.5%로 낮은 비율이다. 이는 장위 1동의 주거 특성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위주의 주거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단독주택	230	47.6	자가	284	58.8
아파트	17	3.5	임대-전세	117	24.2
다세대/연립주택	181	37.5	임대-보증부 월세	17	3.5
상가주택	21	4.3	임대-월세	22	4.6
기타	2	.4	임대아파트	1	.2
무응답	31	6.4	기타	3	.6
시스템 결측값	1	.2	무응답	38	7.9
합계	483	100.0	시스템 결측값	1	.2
			합계	483	100.0

3) 거주지 선택과 이사 계획

(1) 거주지 선택 이유

장위1동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형편이 19.9%, 직장과의 사업이 11.0%로 나타났다. 자녀육아와 양육은 2.1%, 교육환경은 0.4%로 낮게 나타났다. 장위1동 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에 오래 살아온 지역이라는 것과 직장과의 사업, 경제적 형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거주지 선택 이유

거주지선택이유		
	빈도	퍼센트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므로	221	45.8
경제적 형편에 적합하므로	96	19.9
임시거주지이므로	13	2.7
직장 또는 사업때문에	53	11.0
가족, 친지들이 있어서	45	9.3
교통이 편리해서	5	1.0
자녀육아, 양육 때문에	10	2.1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8	1.7
자연환경이 좋아서	13	2.7
교육환경이 좋아서	2	0.4
생활시설(쇼핑/문화/의료시설)이 편리해서	2	0.4
기타	6	1.2
무응답	9	1.9
합계	483	100.0

(2) 타지역 이사계획

타지역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수가 295명으로 61.1%로 나타났다.

	빈도	퍼센트
없다	181	37.5
있다	295	61.1
무응답	7	1.4
합계	483	100.0

타지역 이사계획 이유로 경제적 형편 16.6%, 생활편의시설 16.4%, 사업장 또는 직장이 10.1%로 나타났다. 이사계획이 없는 이유로 경제적 형편 32.5%, 직장상 사업장이 13.5%, 가족, 친지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위1동 주민들은 타지역 이사계획에 경제적 형편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이사 계획이 있는 이유	경제적 형편	80	16.6	이사 계획이 없는 이유	경제적 형편	157	32.5
	생활편의 시설	79	16.4		생활편의 시설	20	4.1
	사업상 또는 직장	49	10.1		사업상 또는 직장	65	13.5
	의료시설	6	1.2		의료시설	3	0.6
	자녀 육아, 양육	22	4.6		자녀 육아, 양육	13	2.7
	교육환경	12	2.5		교육환경	7	1.4
	자연환경	15	3.1		자연환경	26	5.4
	교통 및 이동	24	5.0		교통 및 이동	15	3.1
	가족, 친지	16	3.3		가족, 친지	43	8.9

	경제적 이익	9	1.9		경제적 이익	9	1.9
	기타	17	3.5		기타	18	3.7
	무응답	154	31.9		무응답	107	22.2
	합계	483	100.0		합계	483	100.0

4)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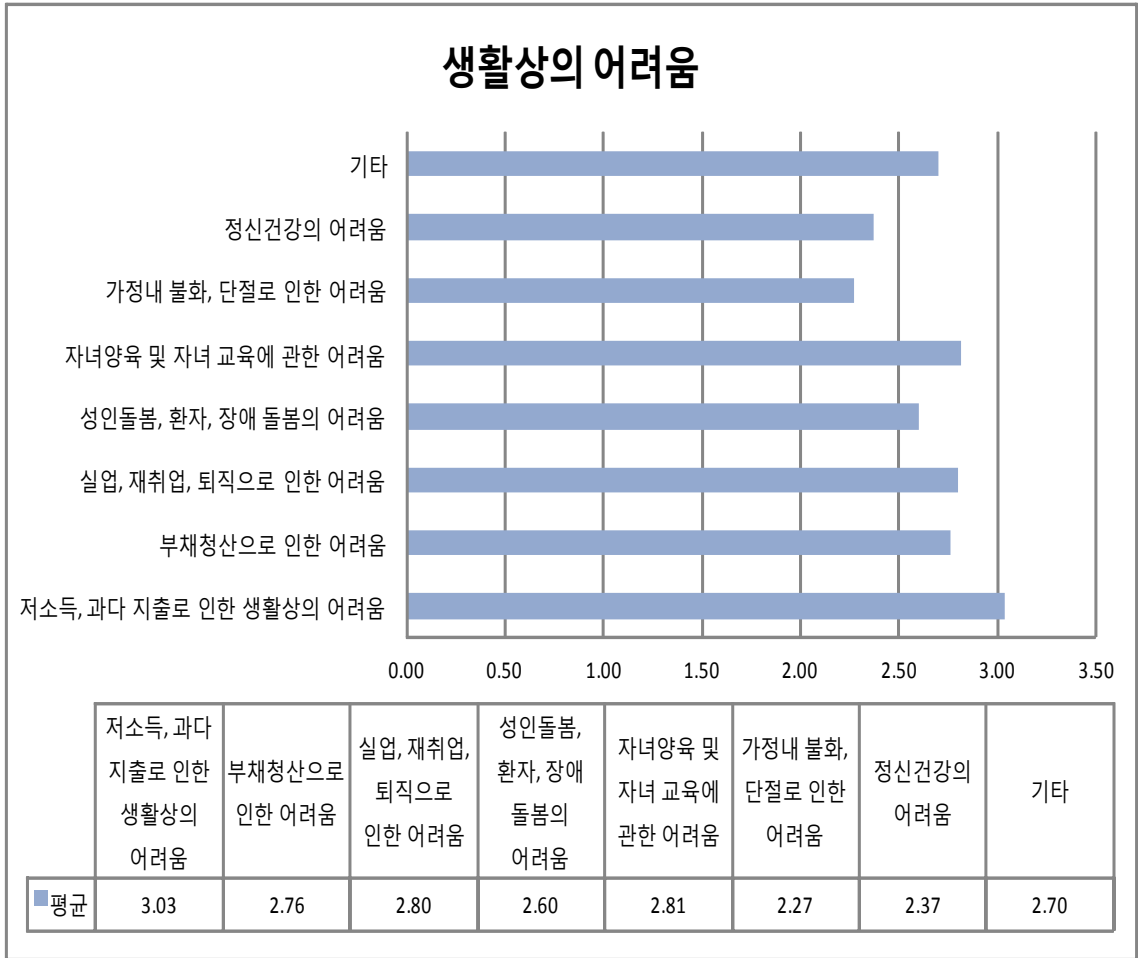
(1) 생활상의 어려움

생활상의 어려움은 평균 2.67로 ‘보통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평균 3.03으로 보통 정도의 심각함으로 생활상의 어려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다고 나타났다. 그 외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생활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생활상의 어려움

	N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451	3.03	1.001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448	2.76	1.141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439	2.80	1.147
성인돌봄, 환자, 장애 돌봄의 어려움	434	2.60	1.111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437	2.81	1.132
가정내 불화, 단절로 인한 어려움	437	2.27	1.037
정신건강의 어려움	443	2.37	1.105
기타	91	2.70	1.225

<그림> 생활상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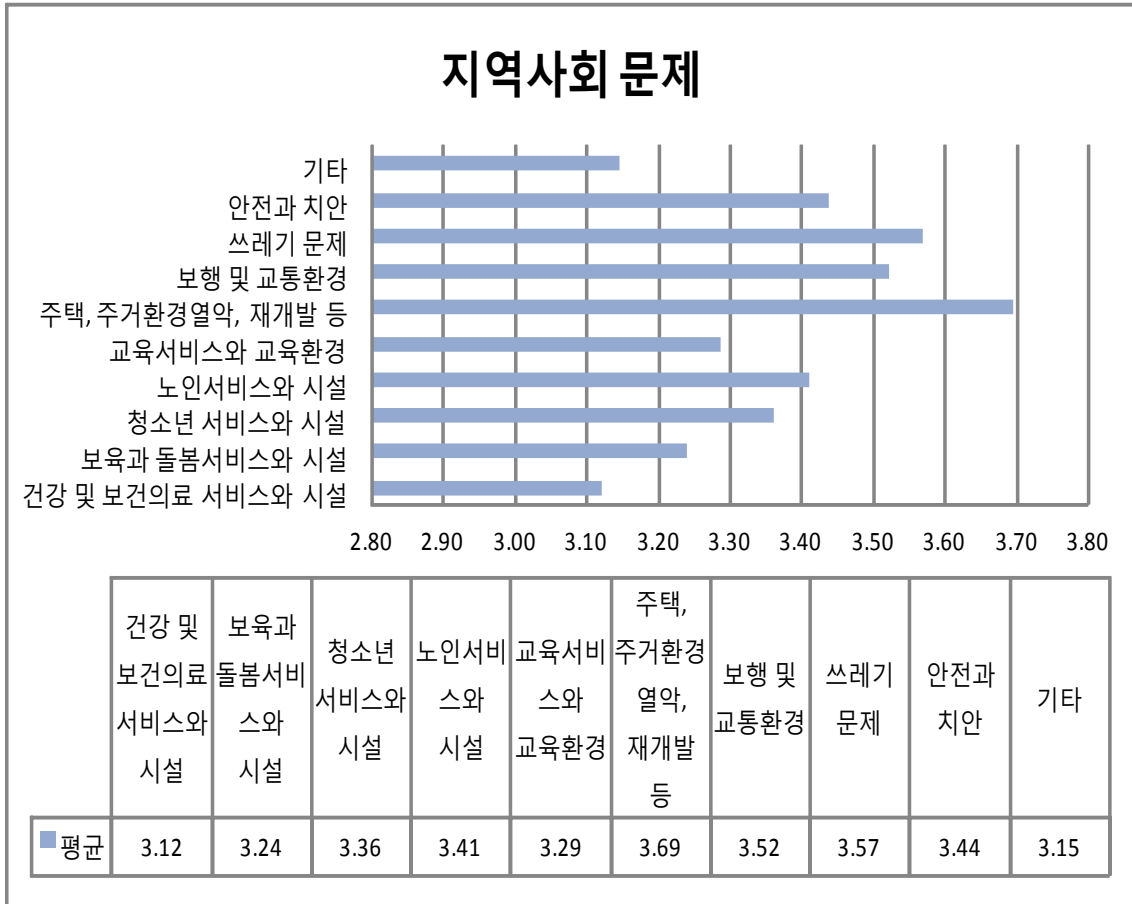
(2)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3.38로 ‘보통 보다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및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 보행 및 교통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N	평균	표준편차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448	3.12	0.917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432	3.24	0.876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442	3.36	0.947
노인서비스와 시설	440	3.41	0.938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435	3.29	0.930
주택, 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449	3.69	1.043
보행 및 교통환경	443	3.52	0.985
쓰레기 문제	447	3.57	0.986
안전과 치안	442	3.44	0.946
기타	62	3.15	1.114

<그림>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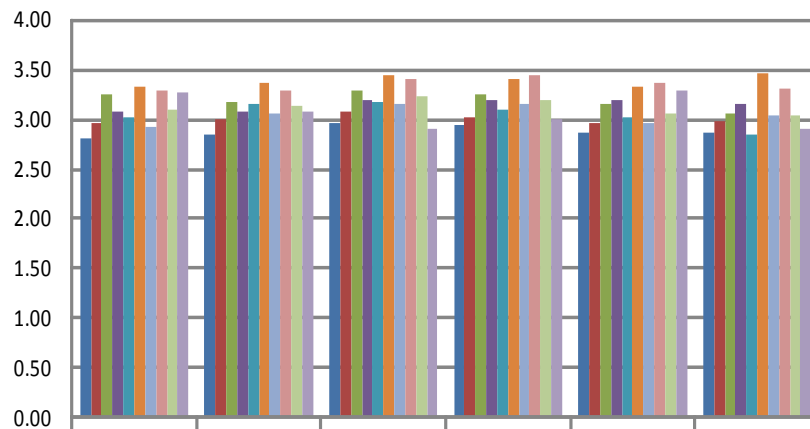


① 연령대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30대, 40대, 50대는 쓰레기문제와 청소년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쓰레기문제와 노인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 연령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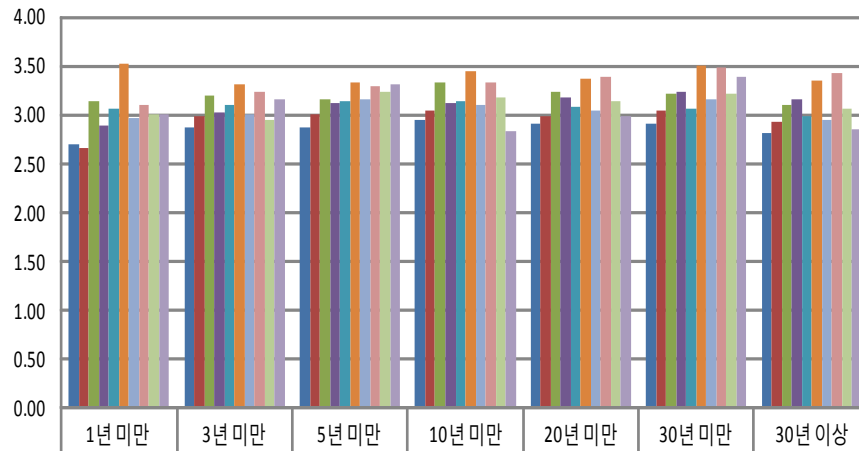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2.80	2.84	2.96	2.94	2.88	2.86
■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2.96	2.99	3.08	3.01	2.96	2.98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3.25	3.18	3.30	3.26	3.16	3.06
■ 노인서비스와 시설	3.08	3.07	3.19	3.20	3.20	3.15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3.03	3.16	3.18	3.10	3.03	2.85
■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 등	3.33	3.37	3.45	3.41	3.34	3.46
■ 보행 및 교통환경	2.93	3.06	3.15	3.15	2.96	3.05
■ 쓰레기 문제	3.29	3.29	3.41	3.45	3.36	3.32
■ 안전과 치안	3.10	3.13	3.24	3.19	3.06	3.03
■ 기타	3.27	3.08	2.91	3.00	3.29	2.91

② 거주기간별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거주기간별로 살펴봤을 때, 모든 거주기간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이 가장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는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타났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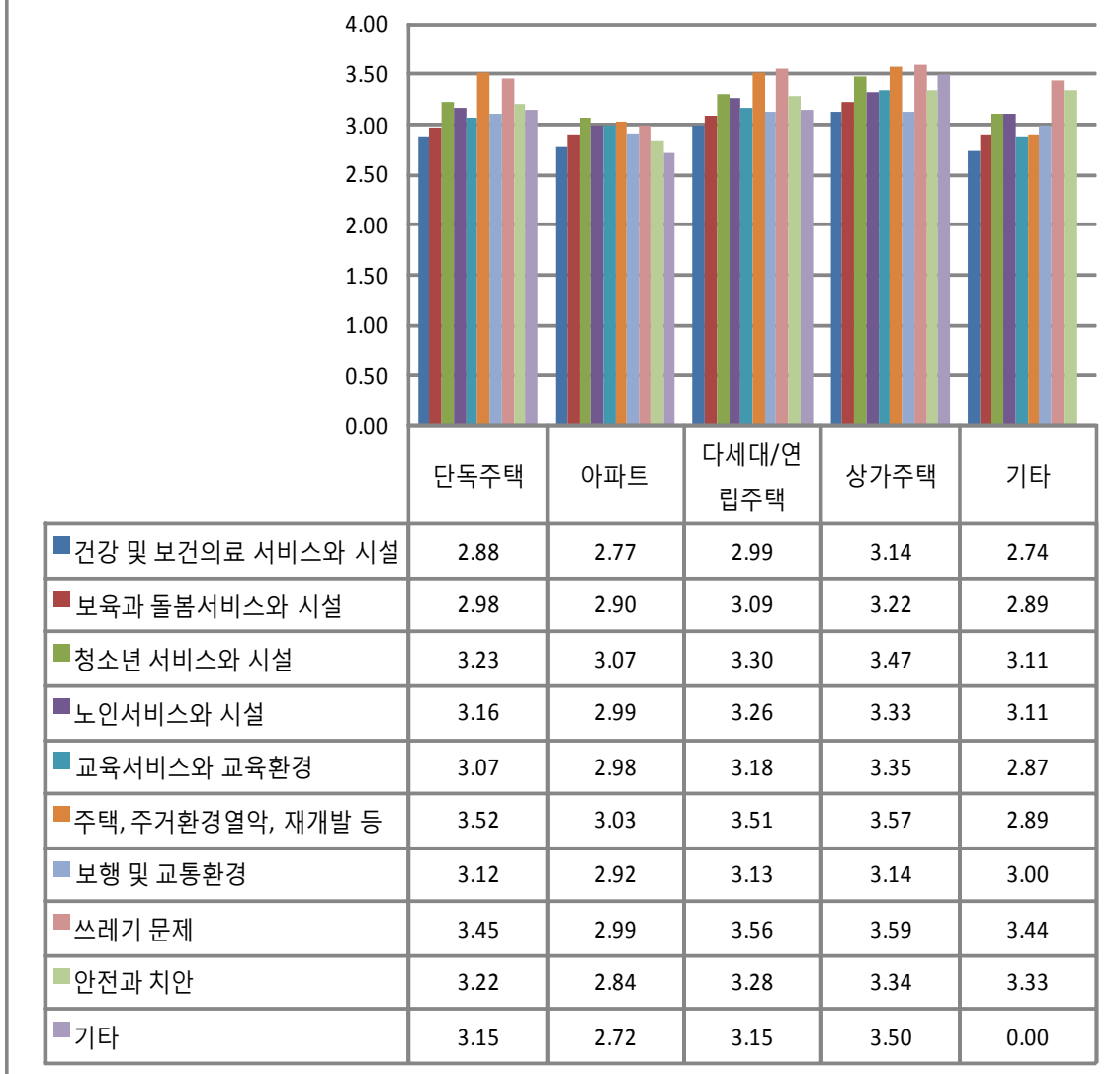


구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2.70	2.87	2.87	2.95	2.91	2.92	2.81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2.67	2.99	3.00	3.05	3.00	3.04	2.94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3.13	3.20	3.16	3.33	3.24	3.22	3.11
노인서비스와 시설	2.90	3.02	3.11	3.12	3.17	3.25	3.15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3.07	3.11	3.15	3.13	3.08	3.07	2.99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 등	3.53	3.30	3.33	3.45	3.36	3.51	3.35
보행 및 교통환경	2.97	3.01	3.17	3.10	3.05	3.16	2.94
쓰레기 문제	3.10	3.25	3.30	3.34	3.39	3.48	3.42
안전과 치안	3.00	2.96	3.24	3.19	3.14	3.22	3.07
기타	3.00	3.15	3.32	2.84	2.98	3.40	2.85

③ 주택형태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거주자들은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 ‘보육 돌봄서비스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지역사회 문제 가운데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만 보통보다 약간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을 제외하고는 보통보다 심 상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상 가주택 거주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주거형태



③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가 22.4%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체육시설(20.4%), 건강 및 의료정보(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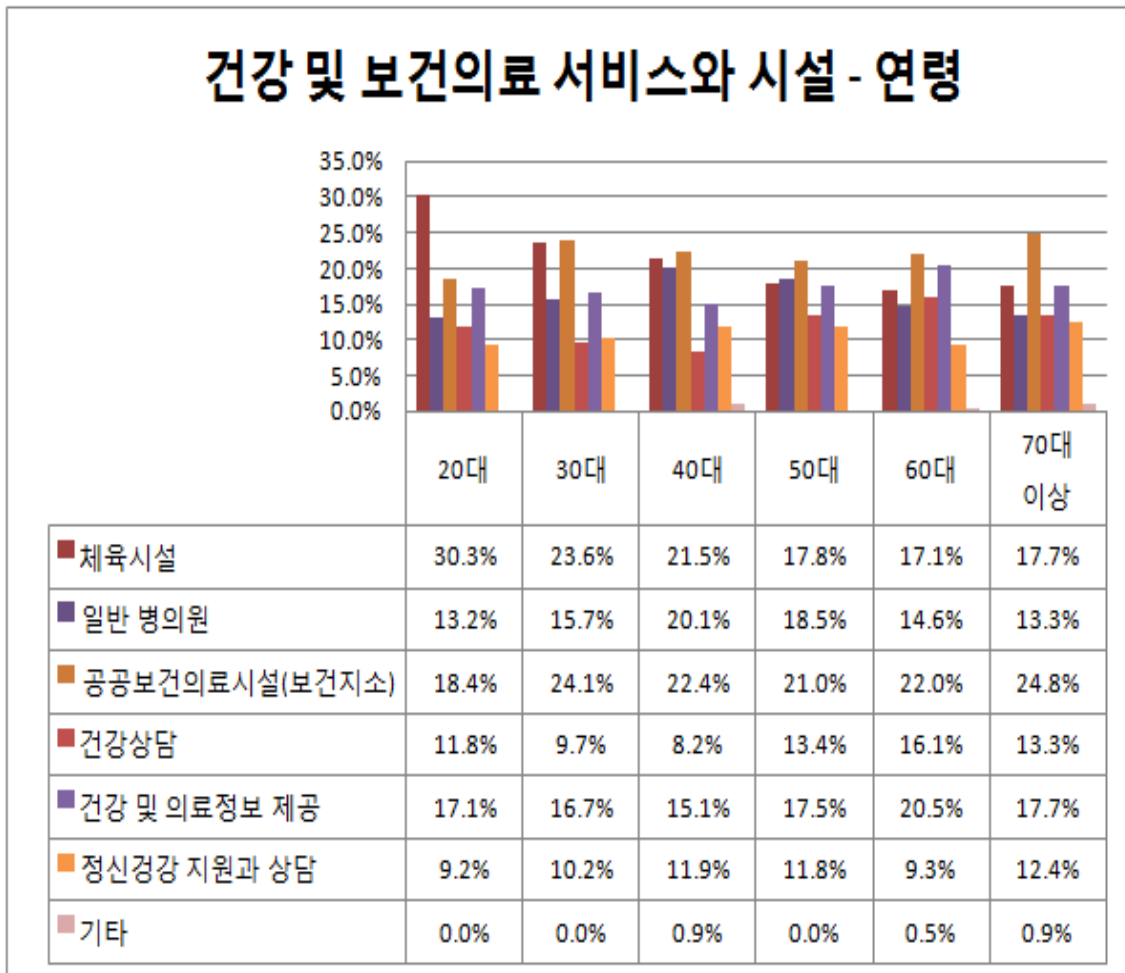
<표>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체육시설	259	20.4%
일반 병원	212	16.7%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284	22.4%
건강 상담	155	12.2%

건강 및 의료정보	216	17.0%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	137	10.8%
기타	4	0.3%
합계	12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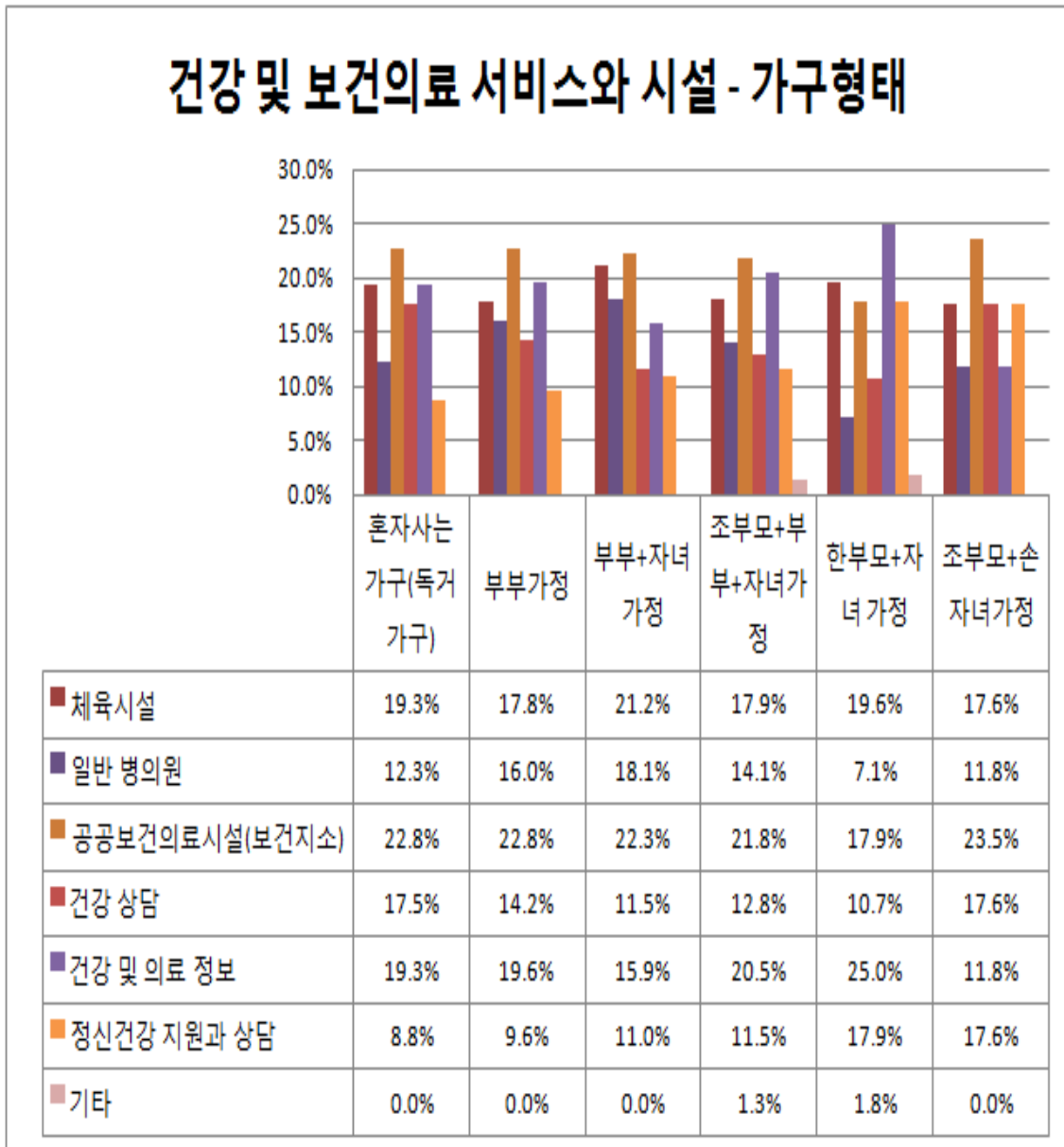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체육시설(30.3%)와 건강 및 의료정보제공(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24.1%), 체육시설(23.6%)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40대는 공공보건의료시설(22.4%), 체육시설(21.5%), 일반병의원(20.1%)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50대, 60대, 70대 이상은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체육시설, 건강 및 의료정보제공의 순을 나타냈다.

<그림> 연령대별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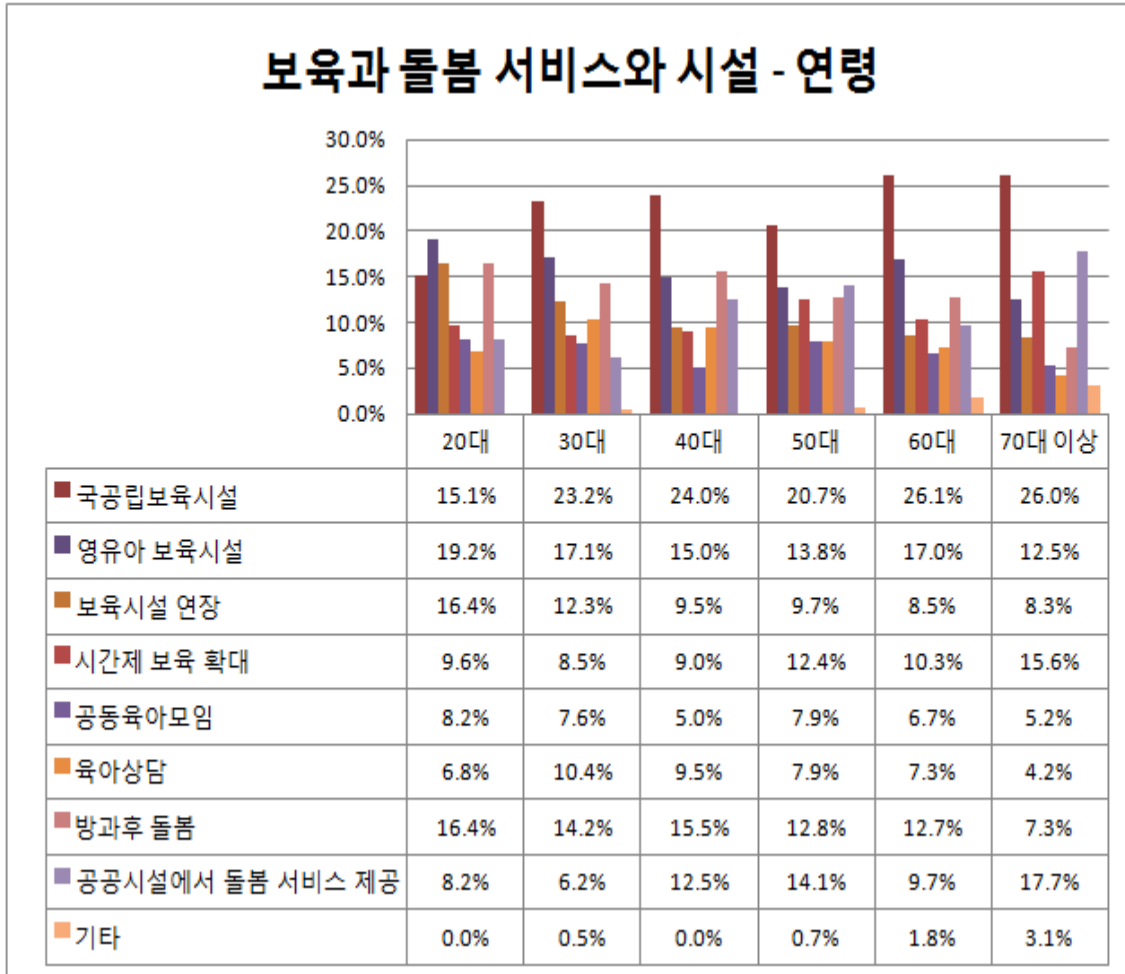
가구형태별로 보면, 혼자 사는 가구, 부부가정, 조부모+부부+자녀 가정은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부부+자녀가정은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한부모+자녀가정은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체육시설,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체육시설, 건강상담,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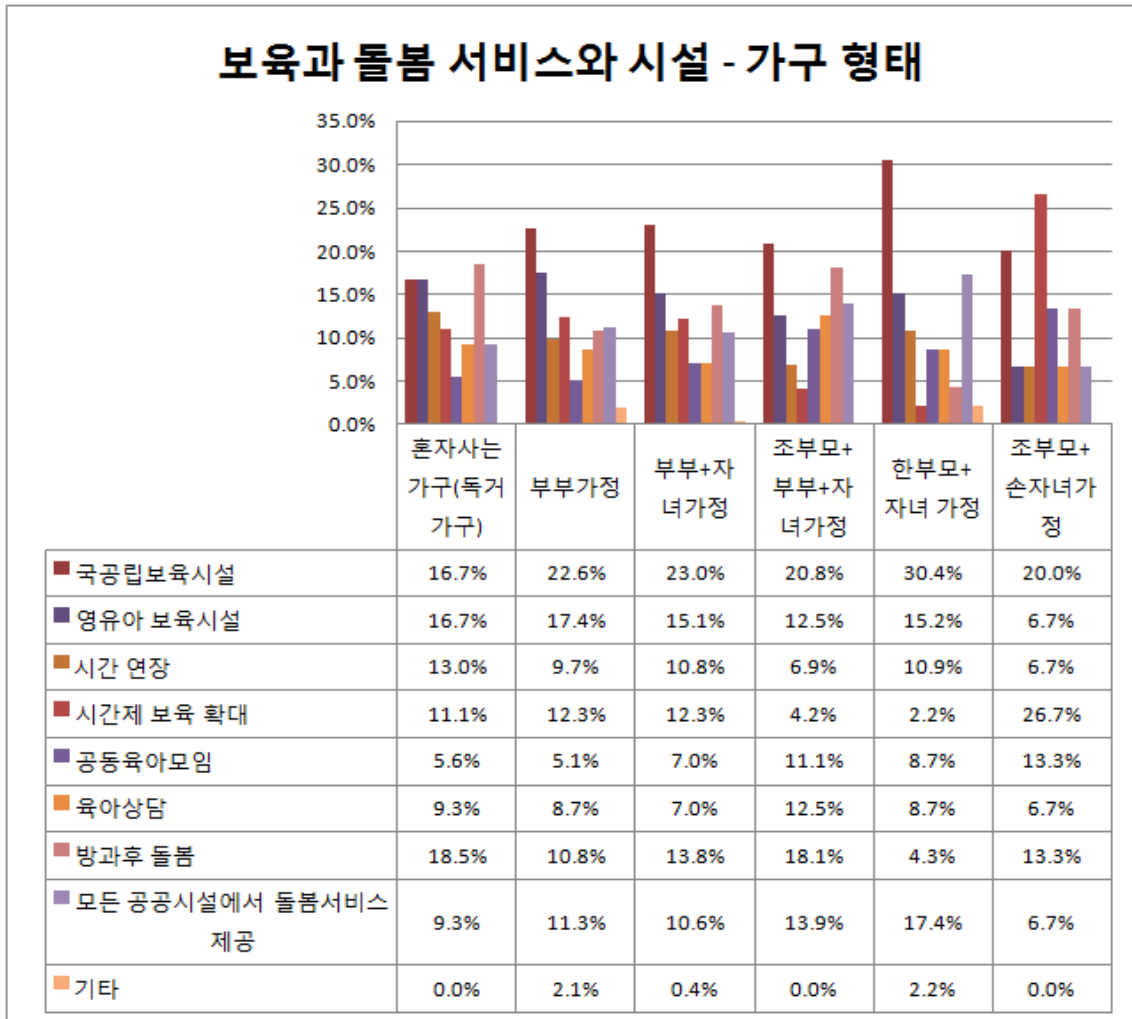
④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필요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22.4%)’, ‘영유아 보육시설(16.0%)’, ‘방과후 돌봄(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국공립보육시설	259	22.4%
영유아 보육시설	185	16.0%
보육시설 시간 연장	126	10.9%
시간제 보육 확대	133	11.5%
공동육아모임	81	7.0%
보육과 육아상담	87	7.5%
방과후 돌봄	151	13.1%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24	10.7%
기타	9	0.8%
합계	1155	100.0%

가구형태별로 보면, 혼자사는 가구는 방과후 돌봄,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부부가정,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 한부모+자녀가정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시간제 보육확대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 가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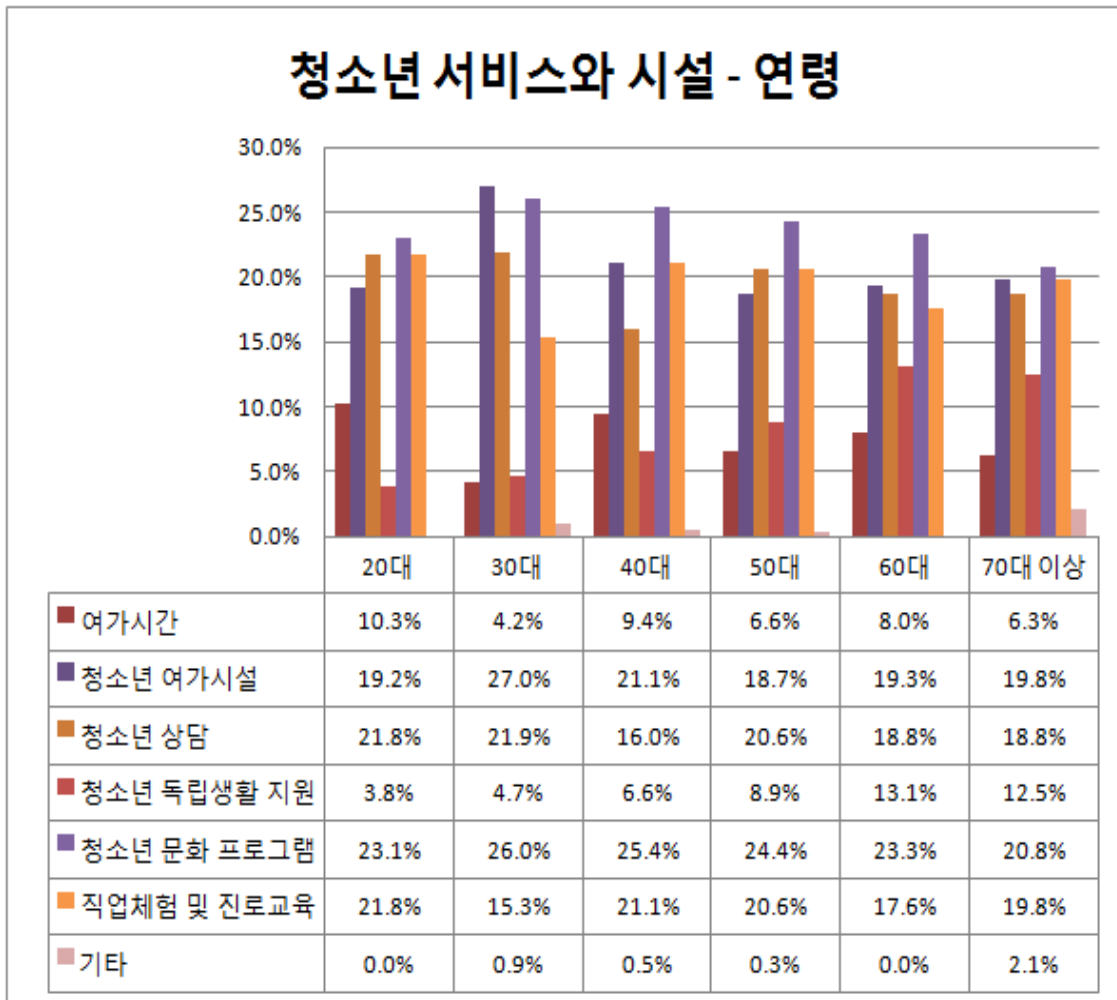
⑤ 청소년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24.1%), 청소년 여가시설(21.4%),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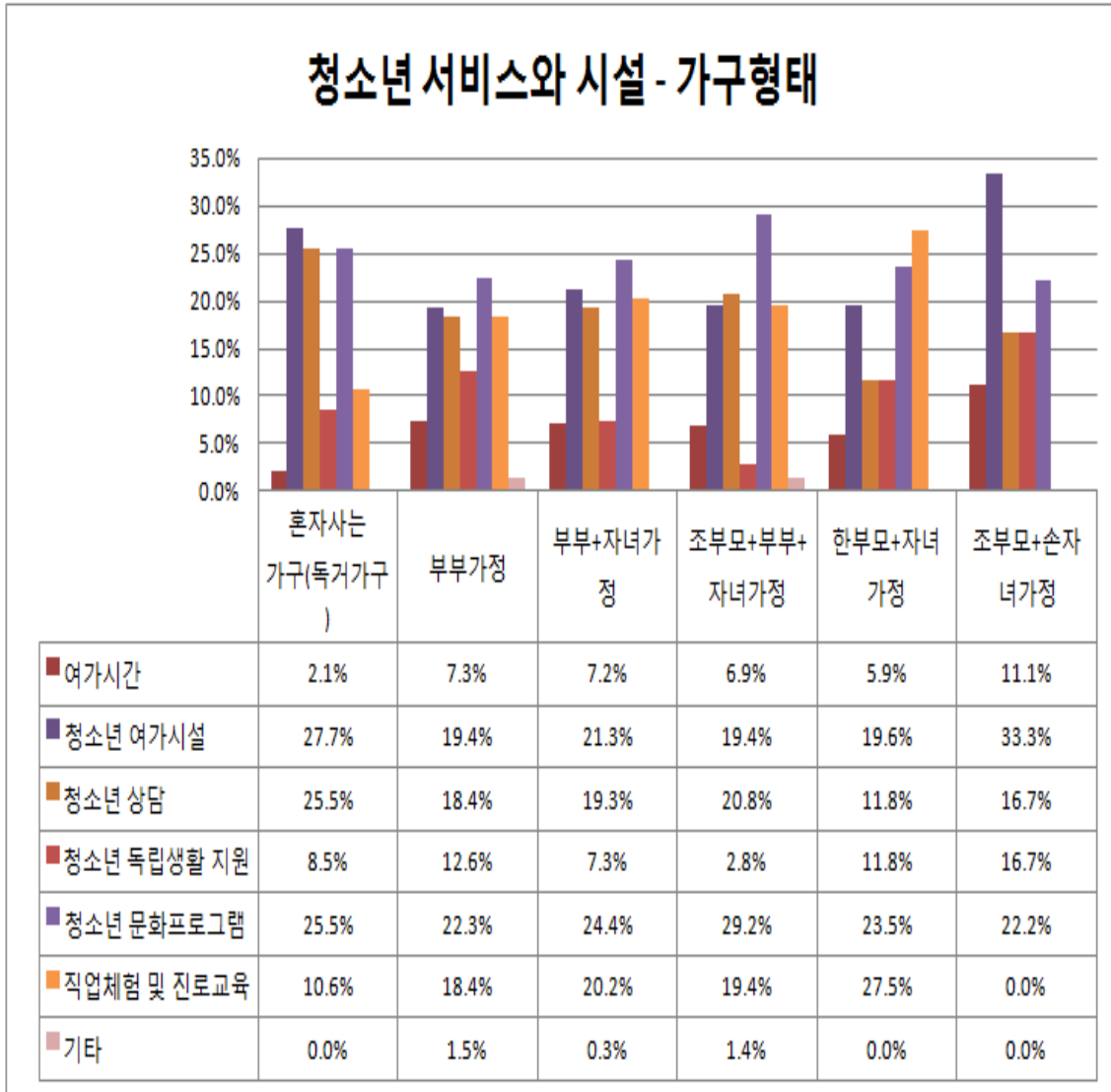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여가시간	91	7.4%
청소년 여가시설	262	21.4%
청소년 상담	237	19.4%
청소년 독립생활 지원	102	8.3%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294	24.1%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230	18.8%
기타	6	0.5%
합계	1222	100.0%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청소년 상담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30대는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체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60대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상담, 70대 이상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부부+자녀가정, 한부모+자녀가정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과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청소년 여가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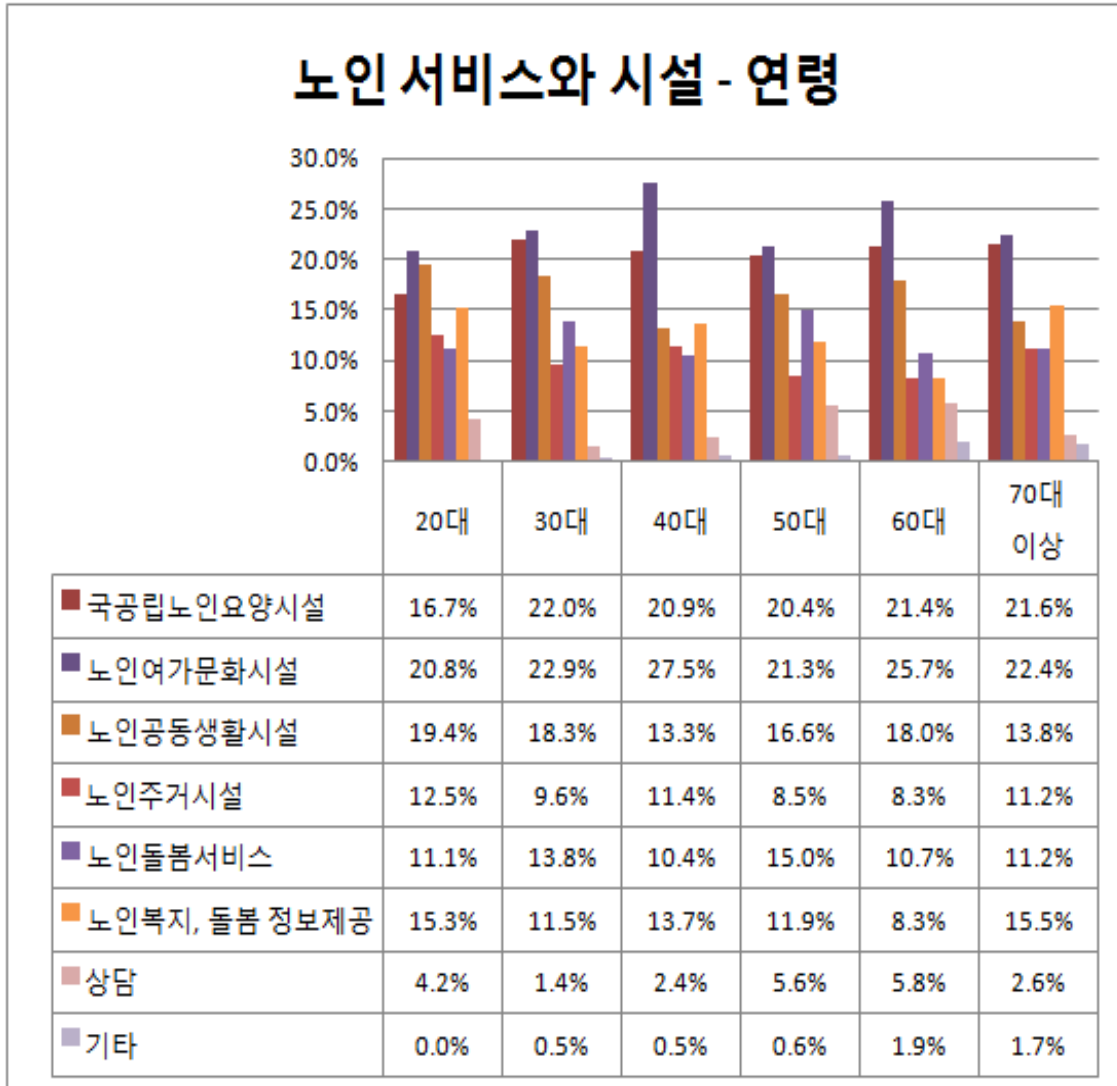
⑦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노인여가문화시설(23.6%), 국공립노인요양시설(20.4%), 노인공동생활시설(1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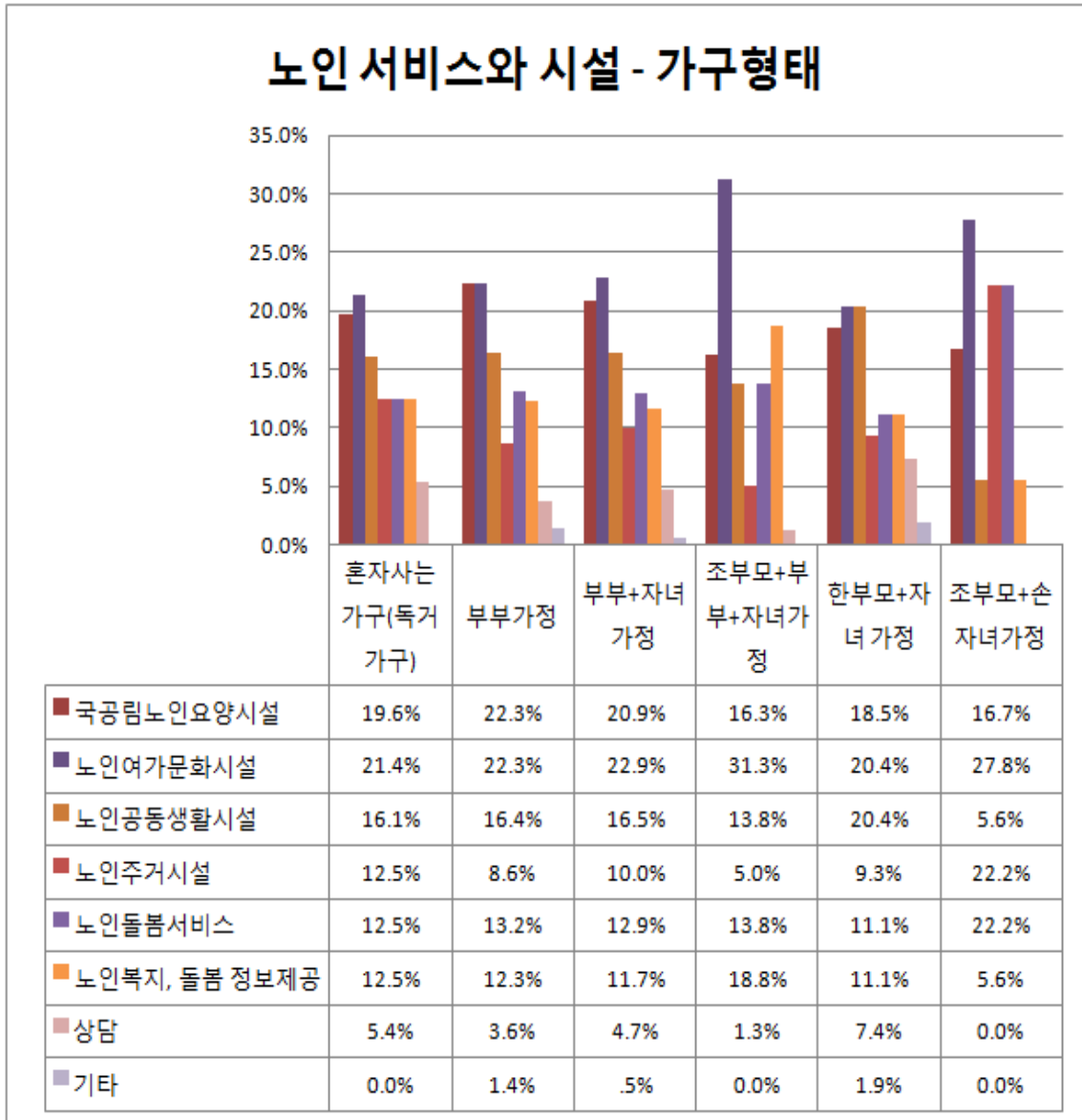
노인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국공립노인요양시설	258	20.4%
노인여가문화시설	299	23.6%
노인공동생활시설	211	16.7%
노인주거시설	127	10.0%
노인돌봄서비스	161	12.7%
노인복지, 돌봄 정보제공	150	11.8%
상담	51	4.0%
기타	10	0.8%

합계	1267	100.0%
----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노인여가문화시설, 국공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사는 가구, 부부가정,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은 노인여가문화시설, 국공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은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주거시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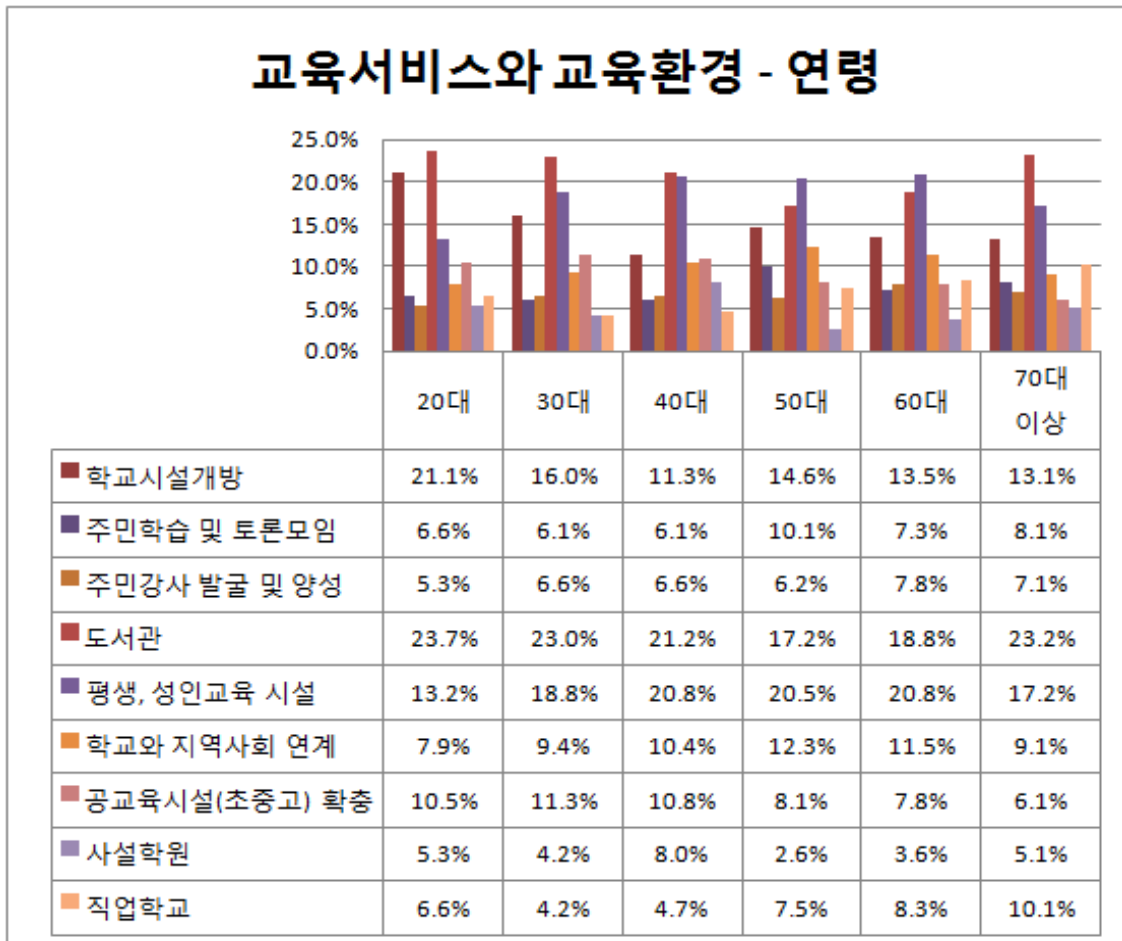
⑧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도서관(20.2%), 평생 및 성인교육시설(19.1%), 학교시설개방(14.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	
	응답
	퍼센트
N	

학교시설 개방	180	14.7%
주민학습 및 토론 모임	97	7.9%
주민강사 발굴 및 양성	83	6.8%
도서관	248	20.2%
평생, 성인교육시설	235	19.1%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132	10.7%
공교육시설(초중고) 확충	111	9.0%
사설학원	55	4.5%
직업학교	81	6.6%
무응답	6	0.5%
합계	1228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도서관, 평생·성인교육시설,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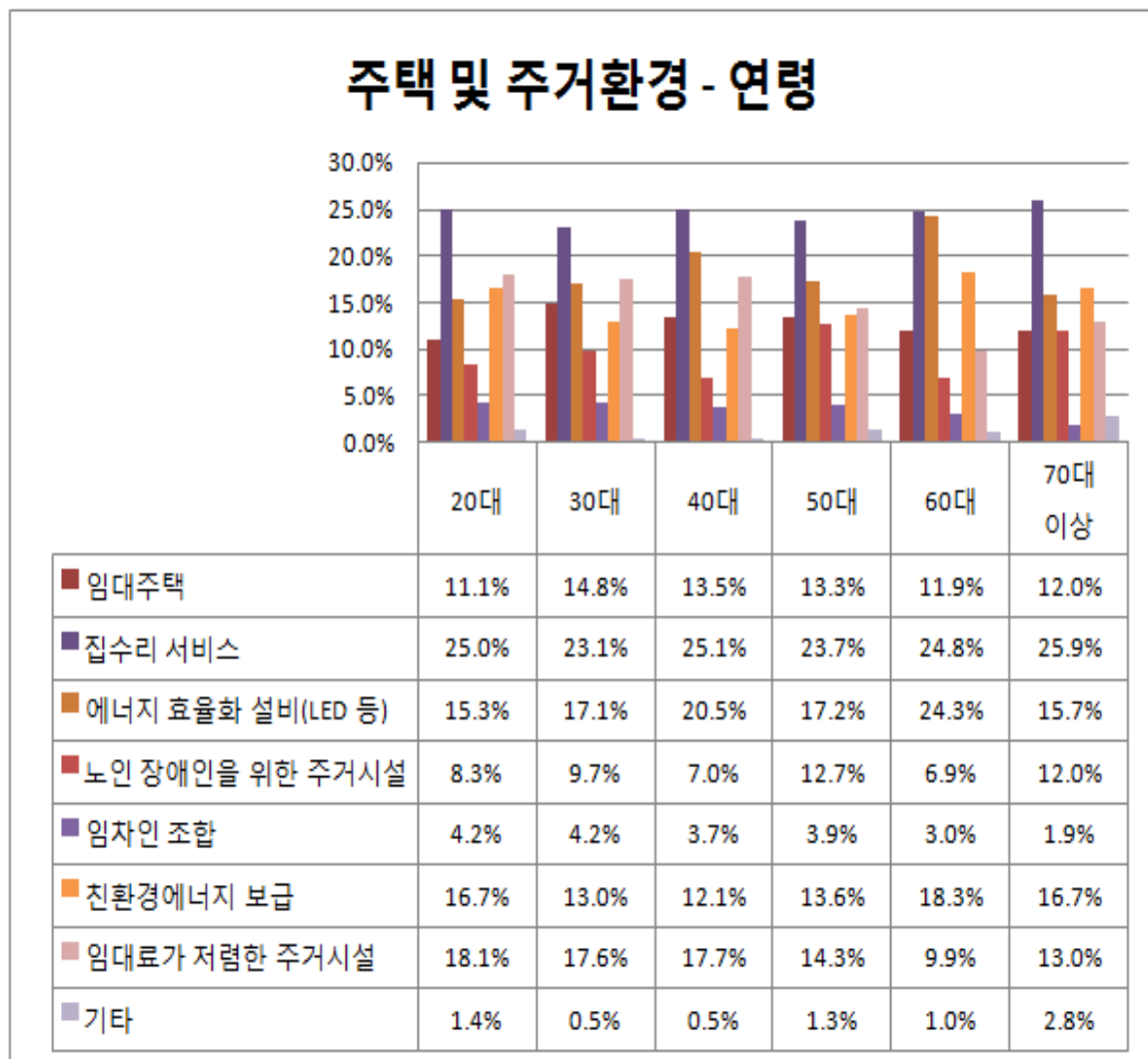


⑨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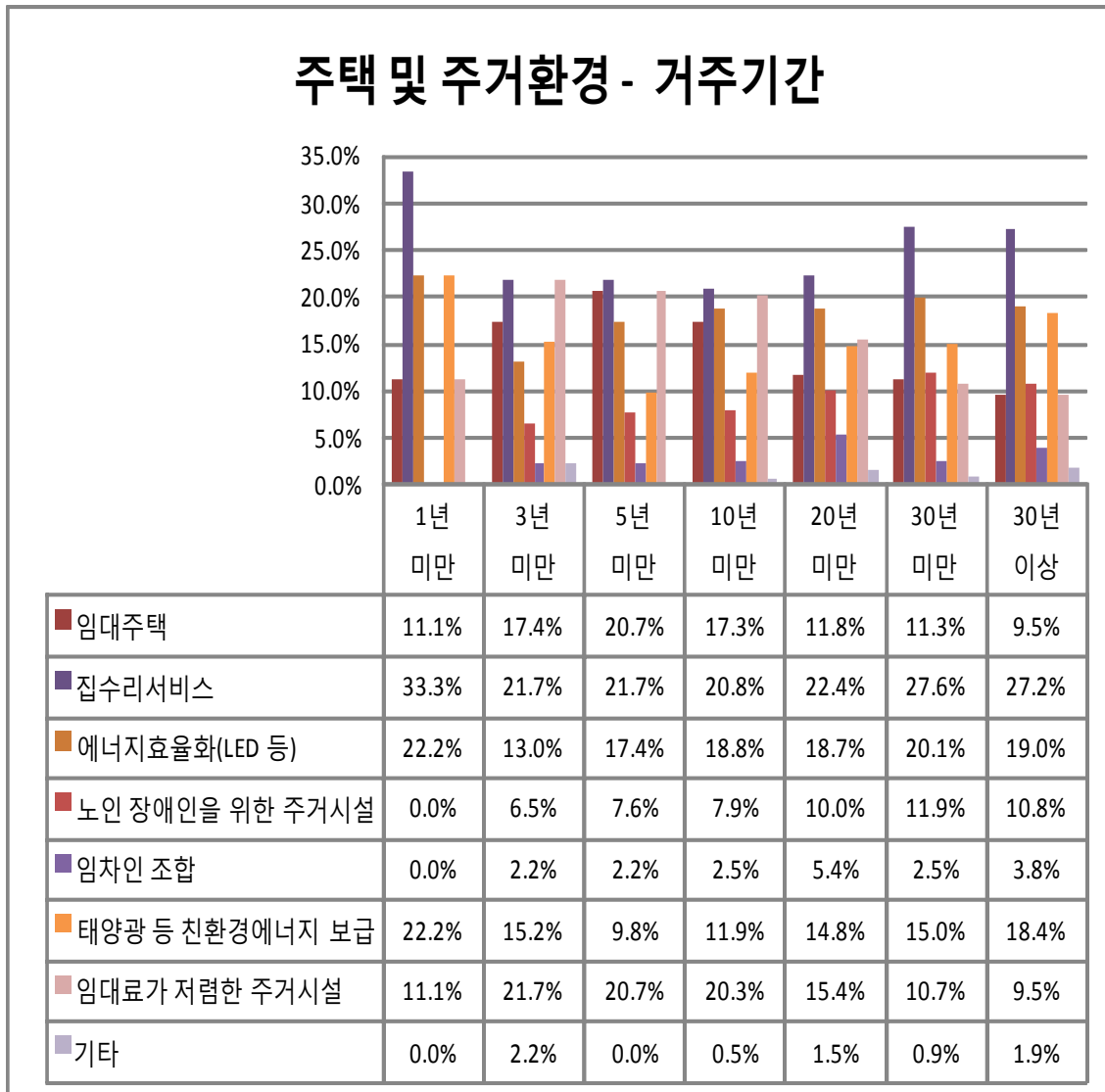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집수리서비스(24.3%),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18.7%),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15.0%)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	
	N	퍼센트
임대주택	164	13.2%
집수리서비스	302	24.3%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232	18.7%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122	9.8%
임차인 조합	42	3.4%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181	14.6%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187	15.0%
기타	13	1.0%
합계	12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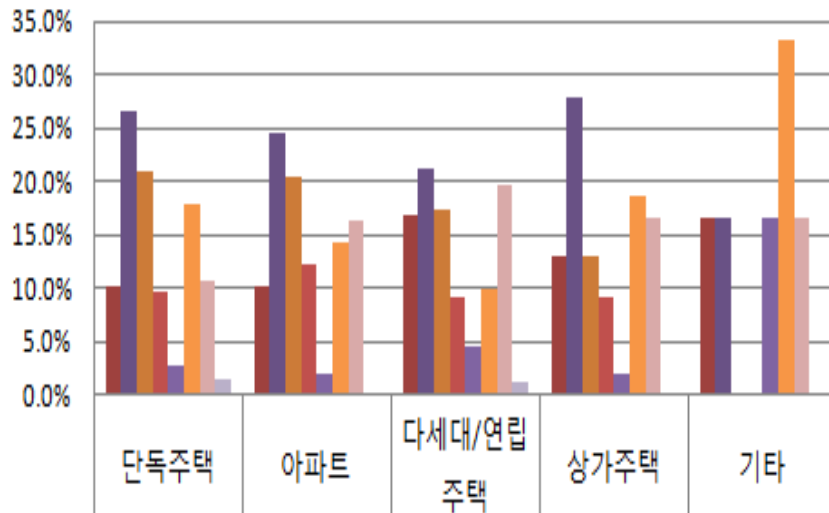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30대 집수리서비스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40대, 50대, 60대는 집수리서비스와 에너지 효율화 설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70대 이상은 집수리서비스와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거주자,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와 에너지효율화 설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임대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년도가 짧을수록 임대주택과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은, 거주년도가 짧을수록 자가보다는 주택을 임대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택 및 주거환경 -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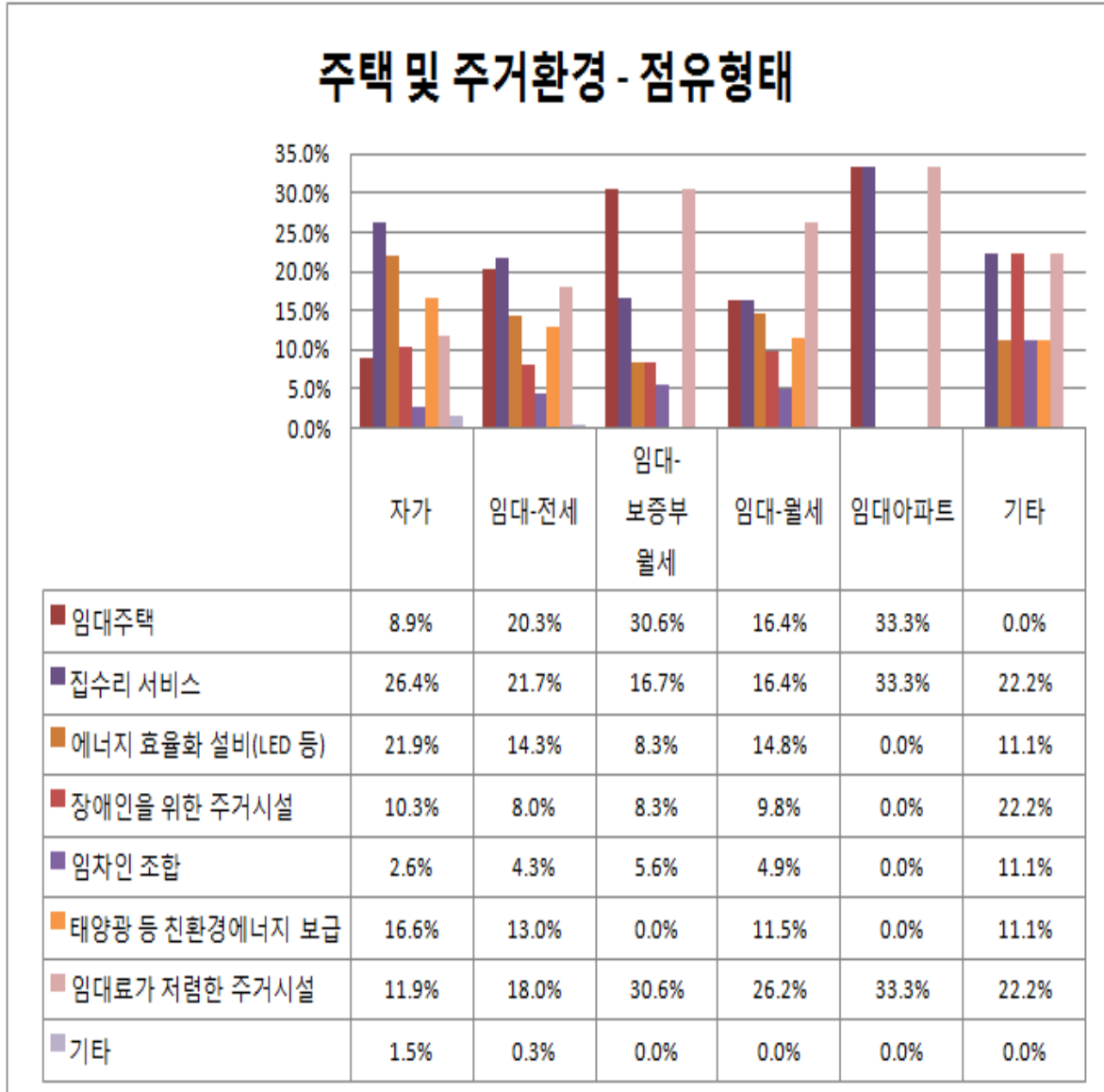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상가주택	기타
■ 임대주택	10.2%	10.2%	17.0%	13.0%	16.7%
■ 집수리 서비스	26.7%	24.5%	21.3%	27.8%	16.7%
■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20.8%	20.4%	17.4%	13.0%	0.0%
■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9.7%	12.2%	9.1%	9.3%	0.0%
■ 임차인 조합	2.8%	2.0%	4.6%	1.9%	16.7%
■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17.8%	14.3%	10.0%	18.5%	33.3%
■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10.7%	16.3%	19.6%	16.7%	16.7%
■ 기타	1.3%	0.0%	1.1%	0.0%	0.0%

주택

형태별로 보면 모든 주택형태에서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 외,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설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보급, 아파트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설비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다세대/연립주택거주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에너지 효율화설비, 임대주택, 상가주택 거주자들은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주택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거주자는 집수리서비스, 에너지 효율화 설비, 태양광 등 친환경에 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임대주택거주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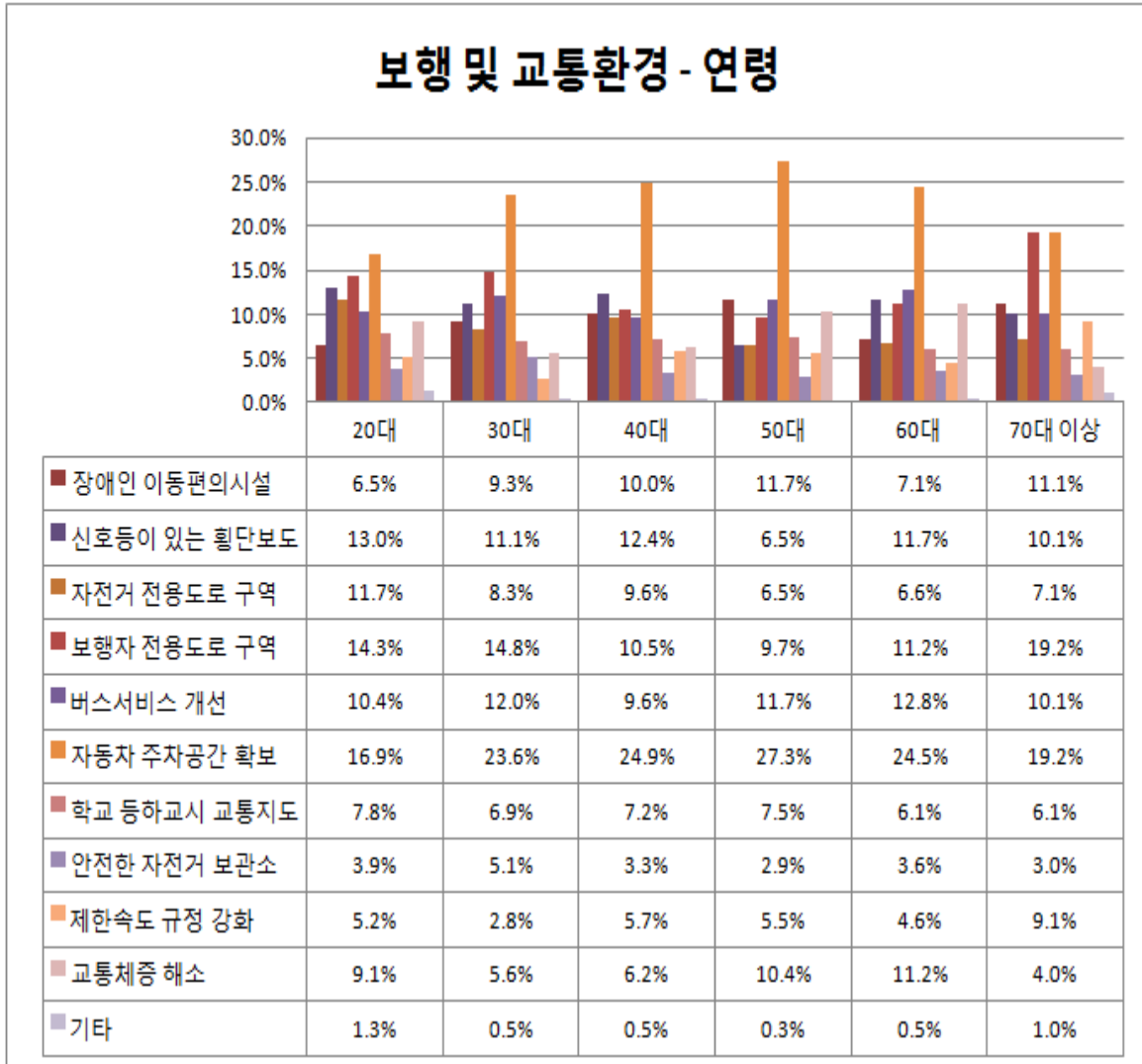
⑩ 보행 및 교통 환경

보행 및 교통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23.9%), 보행자전용도로구역(12.7%), 버스서비스 개선 (10.9%),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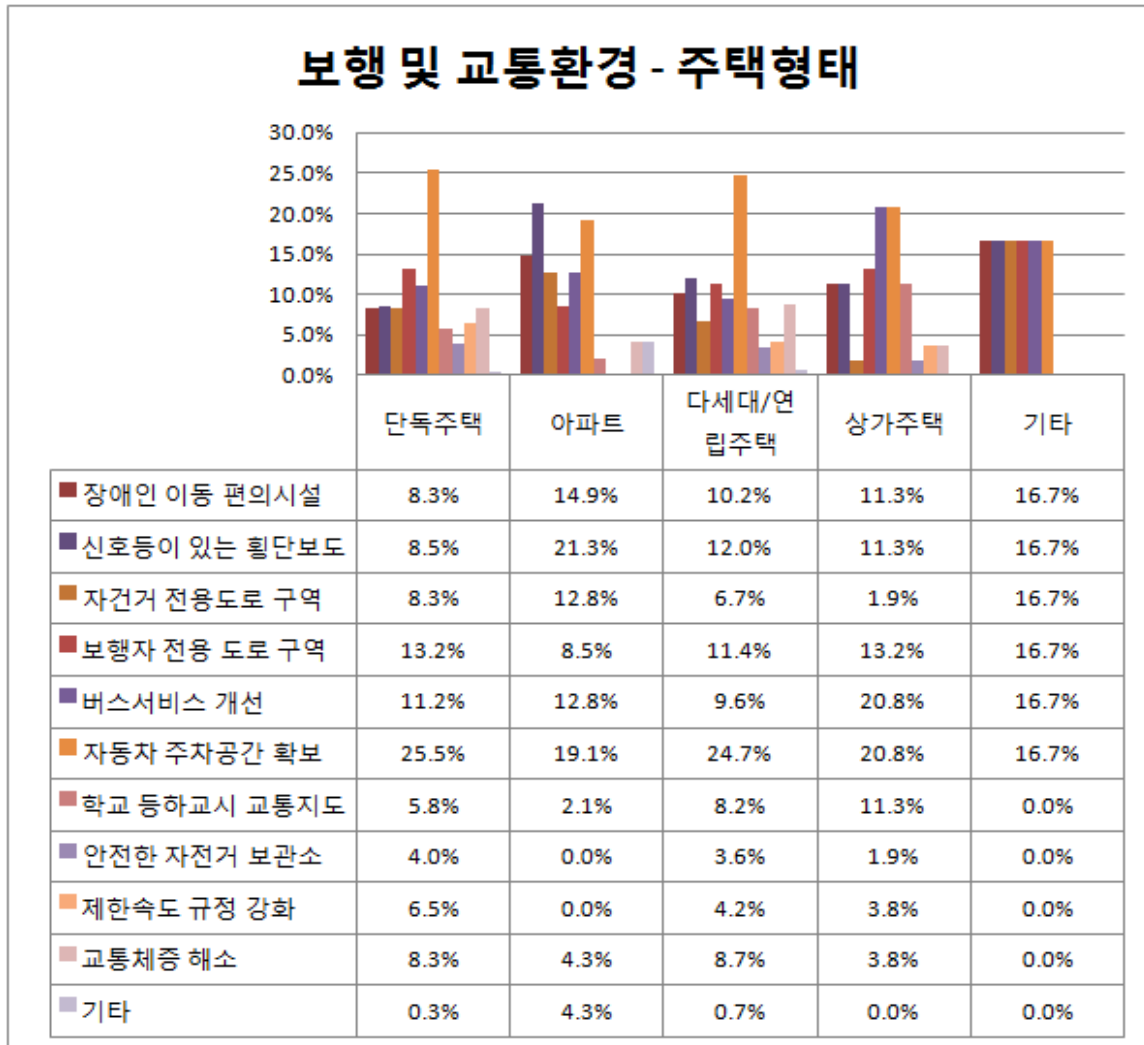
보행 및 교통환경		
	응답	
	N	퍼센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113	9.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131	10.7%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	99	8.1%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156	12.7%
버스서비스 개선	134	10.9%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	294	23.9%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	84	6.8%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	47	3.8%
제한속도 규정강화	63	5.1%
교통체증 해소	100	8.1%
기타	7	0.6%
합계	1228	100.0%

연령대별 보행 및 교통환경에 욕구를 살펴보면,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 외, 20대, 40대는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0대는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버스서비스 개선, 50대는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버스서비스 개선, 60대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교통체증 해소, 70대 이상은 보행자전용도로구역,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를 제외하고, 모든 주택 유형에서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 외, 단독주택 거주자는 보행자 전용도로구역, 버스서비스 개선, 아파트 거주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구역, 상가주택은 버스서비스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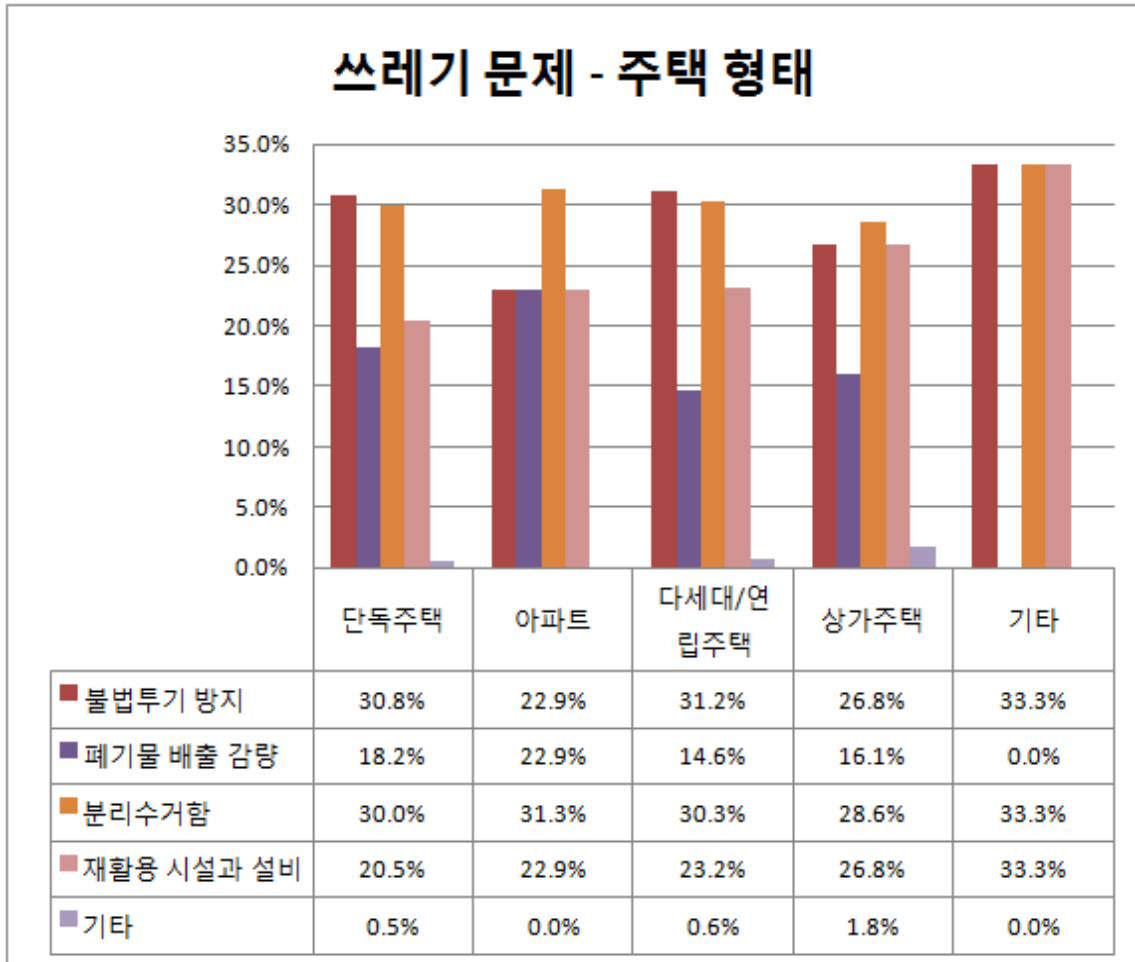


⑪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30.5%), 분리수거함 설치(30.4%), 재활용시설과 설비(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문제		
	응답	
	N	퍼센트
불법투기 방지	384	30.5%
폐기물 배출 감량	211	16.8%
분리수거함	382	30.4%
재활용 시설과 설비	274	21.8%
기타	7	0.6%
합계	1258	100.0%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불법투기방지와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가 높았으며, 아파트 거주자들은 분리수거함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고, 폐기물 배출 감량, 재활용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타 주택형태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가주택거주자는 분리수거함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불법투기 방자, 재활용 시설과 설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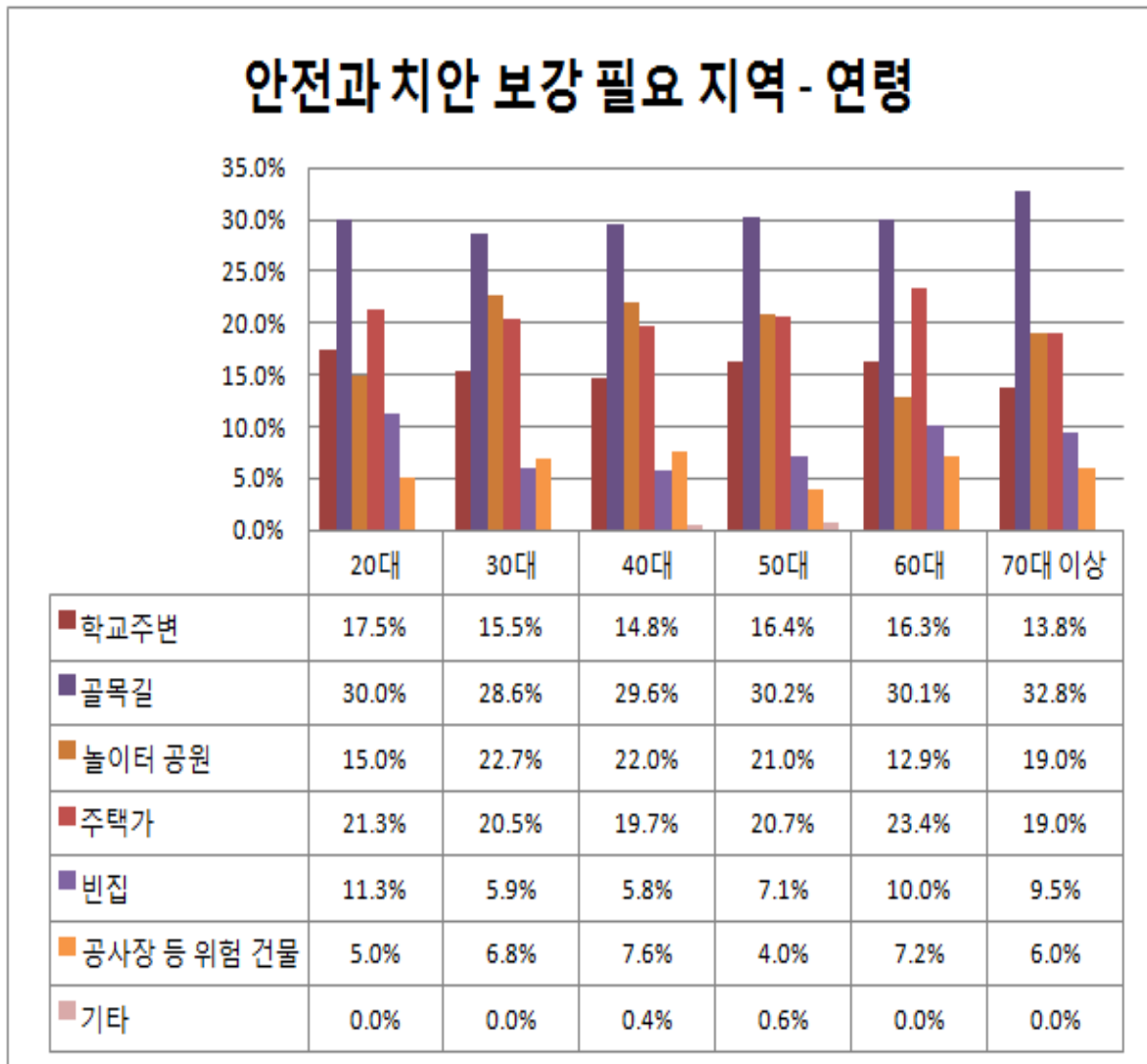
⑫ 안전과 치안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29.8%), 주택가(21.0%), 놀이터 공원(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치안관련 순찰 보강 필요 지역		
	응답	
	N	퍼센트
학교주변	199	15.5%
골목길	383	29.8%
놀이터 공원	252	19.6%
주택가	270	21.0%
빈집	98	7.6%
공사장 등 위험건물	79	6.2%
기타	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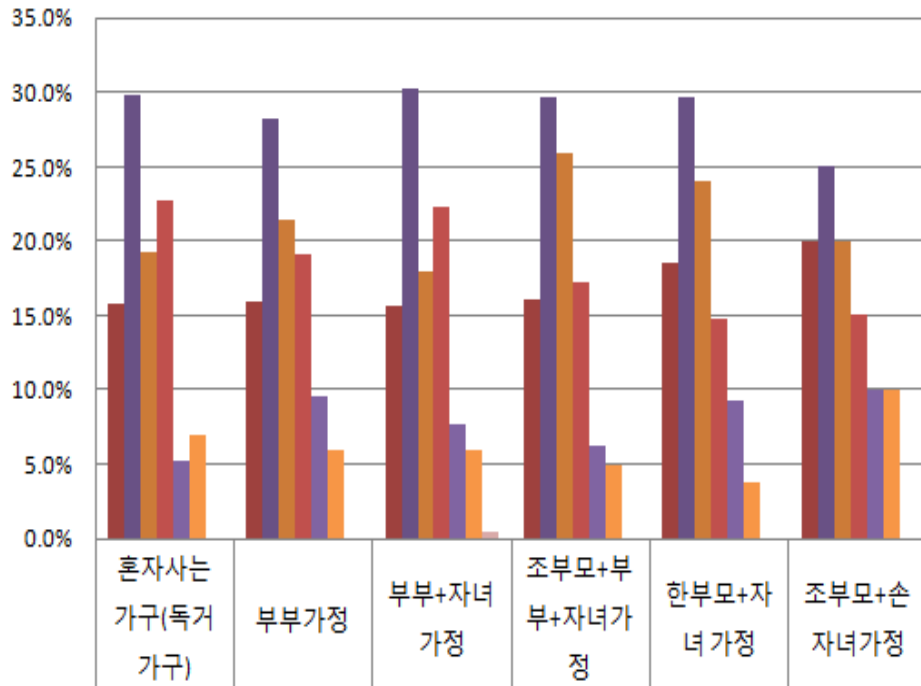
합계	1284	100.0%
----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골목길은 모든 연령대에서 안전과 치안관련 보강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외, 20대와 60대는 주택가와 학교주변, 30대, 40대, 50대, 70대 이상은 놀이터 공원, 주택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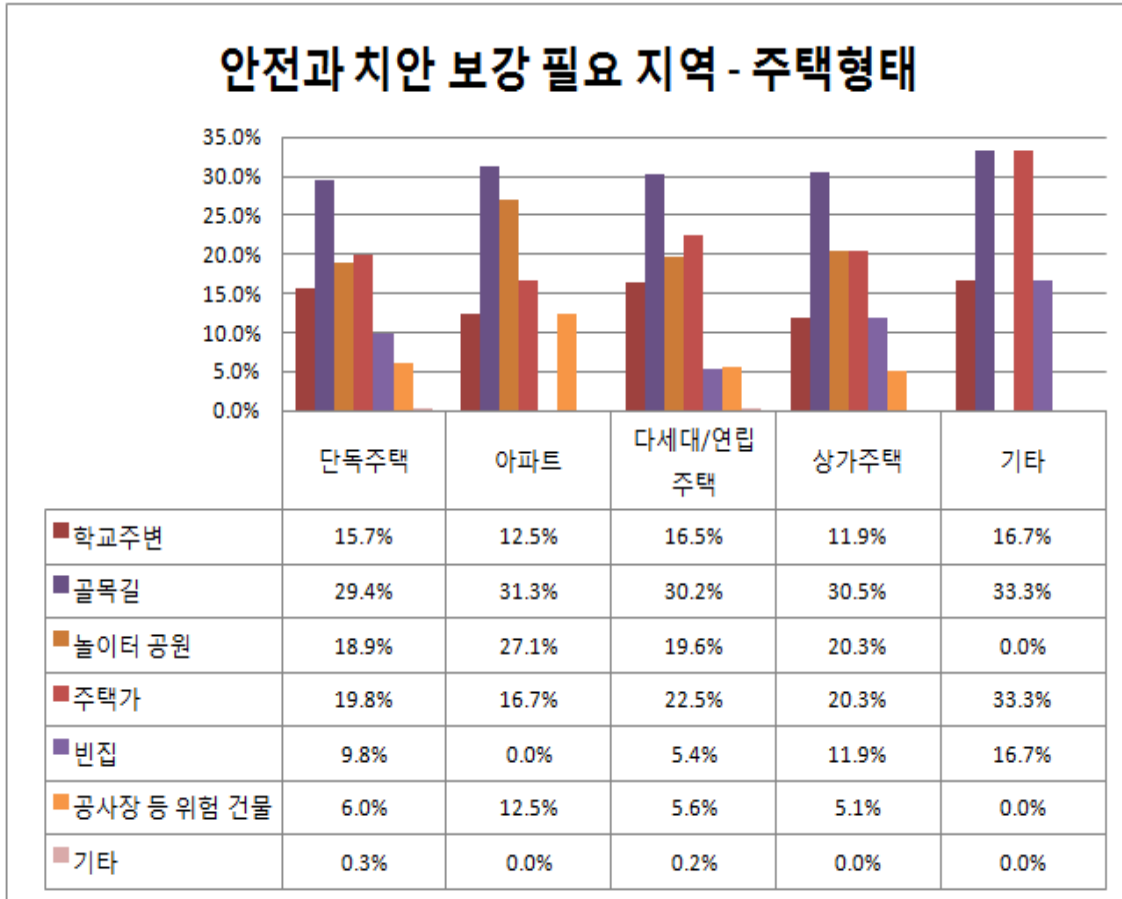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 사는 가구, 부부+자녀가정은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부모+자녀가정,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과 치안 보강 필요 지역 - 가구형태



주택형태별로 보면 모든 주택형태에서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공원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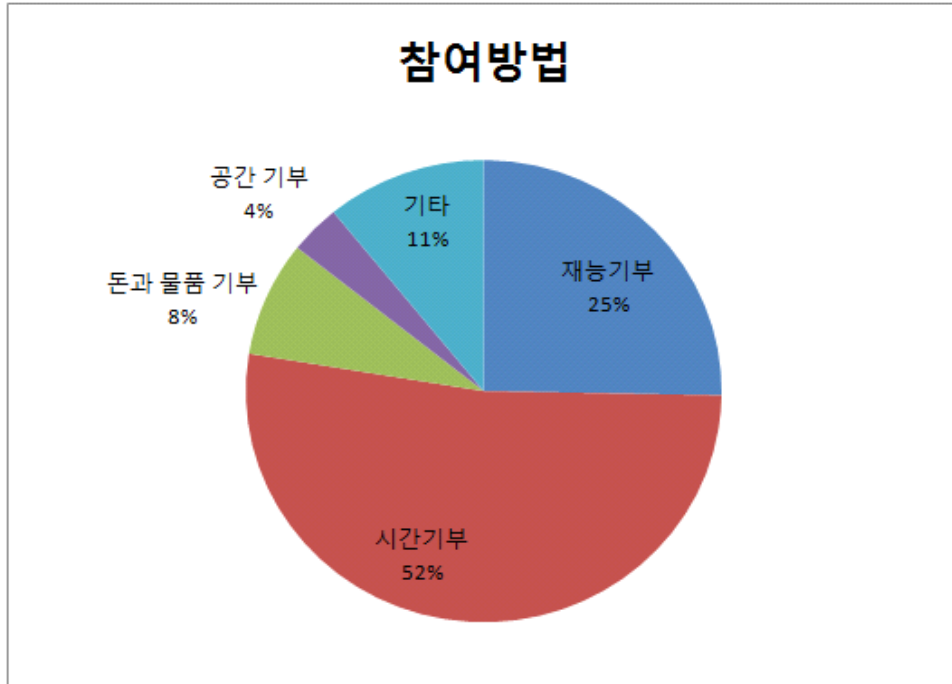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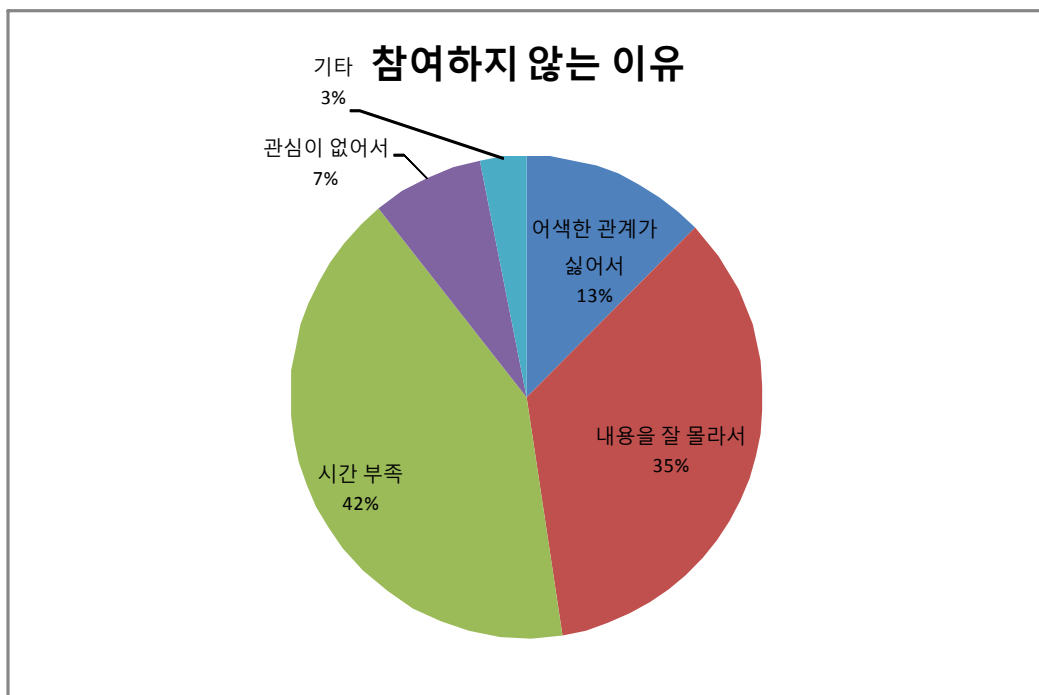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하겠다 (50.3%), 참여하지 않겠다(13.7%), 잘 모르겠다(32.5%)로 응답하였다.

참여여부		
	빈도	퍼센트
참여하겠다	243	50.3
참여하지 않겠다	66	13.7
잘모르겠다	157	32.5
무응답	17	3.5
합계	4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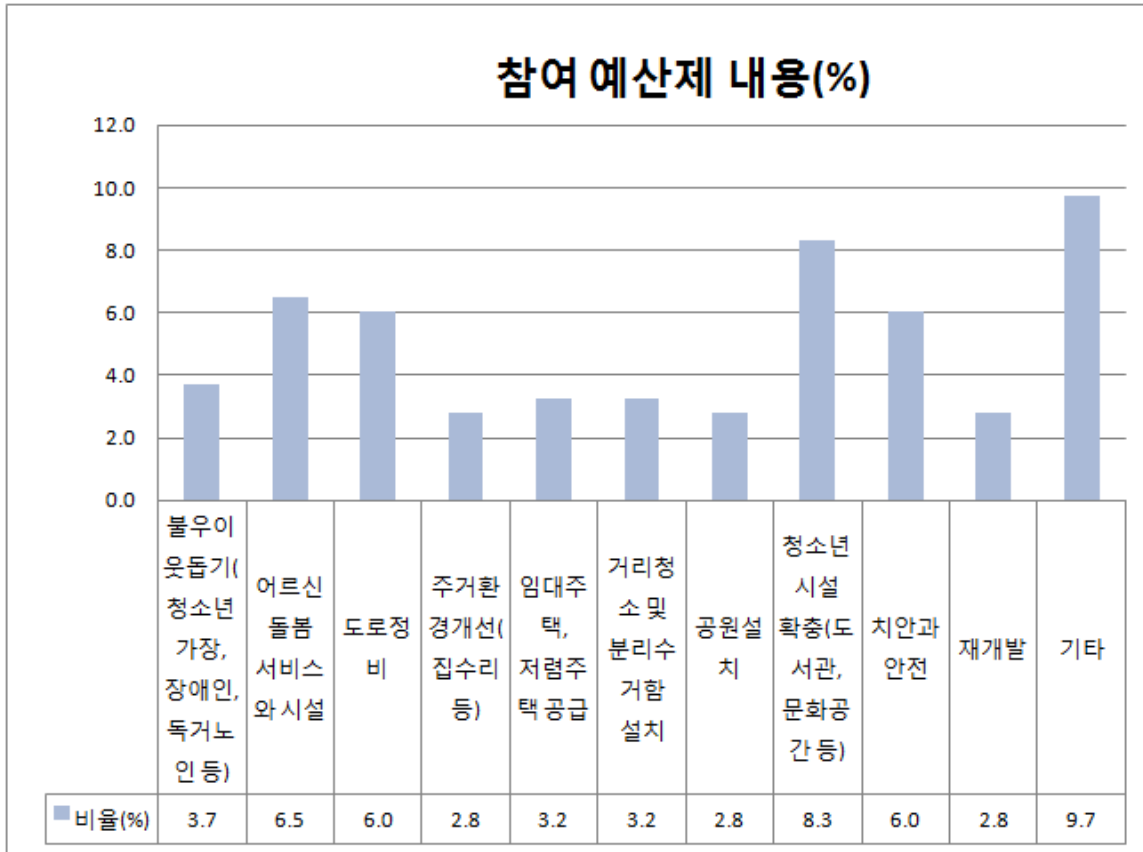
참여방법으로는 시간기부(52%), 재능기부(25%), 돈과 물품 기부(8%), 공간기부(4%)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42%), 내용을 잘 몰라서(35%),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설 확충(도서관, 문화공간 등)이 8.3%로 가장 많았으며,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시설(6.5%), 도로 정비(6.0%), 안전과 치안(6.0%)로 나타났다.



4) 소결 : 조사결과 및 시사점

① 장위1동 주민들은 거주지선택 이유로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 ‘경제적 형편’, ‘직장과 사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위1동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형편이 19.9%, 직장과 사업이 11.0%로 나타났다. 자녀육아와 양육은 2.1%, 교육환경은 0.4%로 낮게 나타났다. 장위1동 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에 오래 살아온 지역이라는 것과 직장과 사업, 경제적 형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② 생활상의 어려움은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및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 보행 및 교통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 생활상의 어려움은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보통 정도의 심각함’으로 생활상의 어려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다고 나타났다. 그 외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생활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3.38로 ‘보통 보다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및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 보행 및 교통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30대, 40대, 50대는 쓰레기문제와 청소년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쓰레기문제와 노인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③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욕구와 필요는 다음과 같다.

○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체육시설, 건강 및 의료정보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자녀가정은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체육시설,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체육시설, 건강상담,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방과후 돌봄’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60대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청소년 여가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노인여가문화시설,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로 나타났다. 20대는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노인여가문화시설, 국공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은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주거시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도서관, 평생 및 성인교육시설, 학교시설개방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도서관, 평생·성인교육시설, 학교시설개방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집수리서비스,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20대, 30대 집수리서비스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40대, 50대, 60대는 집수리서비스와 에너지 효율화 설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70대 이상은 집수리서비스와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모든 주택형태에서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 외,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설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보급, 아파트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설비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다세대/연립주택거주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에너지 효율화설비, 임대주택, 상가주택 거주자들은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보행 및 교통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보행자전용도로구역, 버스서비스 개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아파트 거주자를 제외하고, 모든 주택 유형에서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 외, 단독주택 거주자는 보행자 전용도로구역, 버스서비스 개선, 아파트 거주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구역, 상가주택은 버스서비스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시설과 설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불법투기방지와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가 높았으며, 아파트 거주자들은 분리수거함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고, 폐기물 배출 감량, 재활용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타 주택형태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가주택거주자는 분리수거함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불법투기 방자, 재활용 시설과 설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골목길은 모든 연령대에서 안전과 치안관련 보강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외, 20대와 60대는 주택가와 학교주변, 30대, 40대, 50대, 70대 이상은 놀이터 공원, 주택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 사는 가구, 부부+자녀가정은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부모+자녀가정,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④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의지(50.3%)로 매우 높으며,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문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개발이 필요하다.

○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하겠다 (50.3%), 참여하지 않겠다(13.7%), 잘 모르겠다(32.5%)로 응답하였다. 참여방법으로는 시간기부(52%), 재능기부(25%), 돈과 물품 기부(8%), 공간기부(4%)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42%), 내용을 잘 몰라서(35%),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1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설 확충(도서관, 문화공간 등)이 가장 많았으며,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시설, 도로정비, 안전과 치안 순으로 나타났다.

5. 장위2동 설문 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69)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83	39.0	혼인여부	비혼	52	11.1
	여성	261	55.7		기혼	378	80.6
	무응답	12	2.6		무응답	26	5.5
	시스템 결측값	13	2.8		시스템 결측값	13	2.8
연령	20대	27	5.8	가구원수	1	18	3.8
	30대	68	14.5		2	84	17.9
	40대	102	21.7		3	113	24.1
	50대	99	21.1		4	164	35.0
	60대	82	17.5		5	32	6.8
	70대 이상	52	20.0		6인 이상	13	2.7
	무응답	19	4.1		무응답	45	9.6
	시스템 결측값	20	4.3		혼자사는 가구(독거가구)	18	3.8
학력	무학	3	.6	가구형태	부부가정	89	19.0
	초졸	22	4.7		부부+자녀가정	271	57.8
	중졸	59	12.6		조부모+부부+자녀가정	22	4.7
	고졸	198	42.2		한부모+자녀 가정	20	4.3
	전문대(중퇴)졸	69	14.7		조부모+손자녀 가정	6	1.3
	대학(중퇴)졸	72	15.4		기타	6	1.3
	대학원이상	7	1.5		무응답	24	5.1
	무응답	26	5.5		시스템 결측값	13	2.8
	시스템 결측값	13	2.8				

2) 주거 및 거주 특성

(1)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전체 응답자수 133명,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수의 47.5%로 나타났다.

거주기간		
구 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5	1.1
3년 미만	20	4.3
5년 미만	39	8.3
10년 미만	87	18.6
20년 미만	133	28.4

30년 미만	79	16.8
30년 이상	76	16.2
무응답	11	2.3
시스템 결측값	19	4.1
	469	100.0

(2) 주택형태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가 38.6%를 나타냈다. 그 외 상가주택 6.8%, 아파트 3.8%이다. 전체 응답자 중 자가 주택 거주자가 55.9%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주택 형태	단독주택	203	43.3	점유 형태	자가	262	55.9
	아파트	18	3.8		임대-전세	127	27.1
	다세대/연립주택	181	38.6		임대-보증부 월세	9	1.9
	상가주택	32	6.8		임대-월세	27	5.8
	기타	6	1.3		임대아파트	1	0.2
	무응답	16	3.4		기타	4	0.9
	시스템 결측값	13	2.8		무응답	26	5.5
					시스템 결측값	13	2.8
	합계	469	100.0		합계	469	100.0

3) 거주지 선택과 이사 계획

(1) 거주지 선택 이유

장위2동을 거주지고 선택한 이유로는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이 41.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경제적 형편(17.7%), 직장·사업(11.9%), 가족·친지(10.9%)로 응답하였다.

<표> 거주지 선택 이유

거주지 선택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므로	194	41.4
경제적 형편에 적합하므로	83	17.7
임시거주지이므로	10	2.1
직장 또는 사업때문에	56	11.9
가족, 친지들이 있어서	51	10.9
교통이 편리해서	18	3.8
자녀육아, 양육때문에	11	2.3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22	4.7

자연환경이 좋아서	4	0.9
교육환경이 좋아서	3	0.6
생활시설(쇼핑/문화/의료시설)이 편리해서	1	0.2
기타	12	2.6
무응답	4	0.9
합계	469	100.0

(2) 타지역 이사계획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수가 297명으로 59.5%로 나타났다.

	빈도	퍼센트
없다	187	39.9
있다	279	59.5
무응답	3	0.6
합계	469	100.0

이사계획이 있는 이유로 경제적 형편(17.35), 사업장·직장(13.6%), 생활편의시설(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장·직장(13.9%), 가족·친지(9.4%), 생활편의시설(5.3%)로 응답하였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이사 계획 이 있는 이유	경제적 형편	81	17.3	이사 계획 이 없는 이유	경제적 형편	146	31.1
	생활편의 시설	50	10.7		생활편의 시설	25	5.3
	사업상 또는 직장	64	13.6		사업상 또는 직장	65	13.9
	의료시설	5	1.1		의료시설	4	0.9
	자녀 육아, 양육	17	3.6		자녀 육아, 양육	15	3.2
	교육환경	25	5.3		자연환경	9	1.9
	자연환경	21	4.5		교통 및 이동	20	4.3
	교통 및 이동	9	1.9		가족, 친지	44	9.4
	가족, 친지	23	4.9		경제적 이익	17	3.6
	경제적 이익	8	1.7		기타	12	2.6
	기타	22	4.7		무응답	112	23.9
	무응답	144	30.7		합계	469	100.0
	합계	4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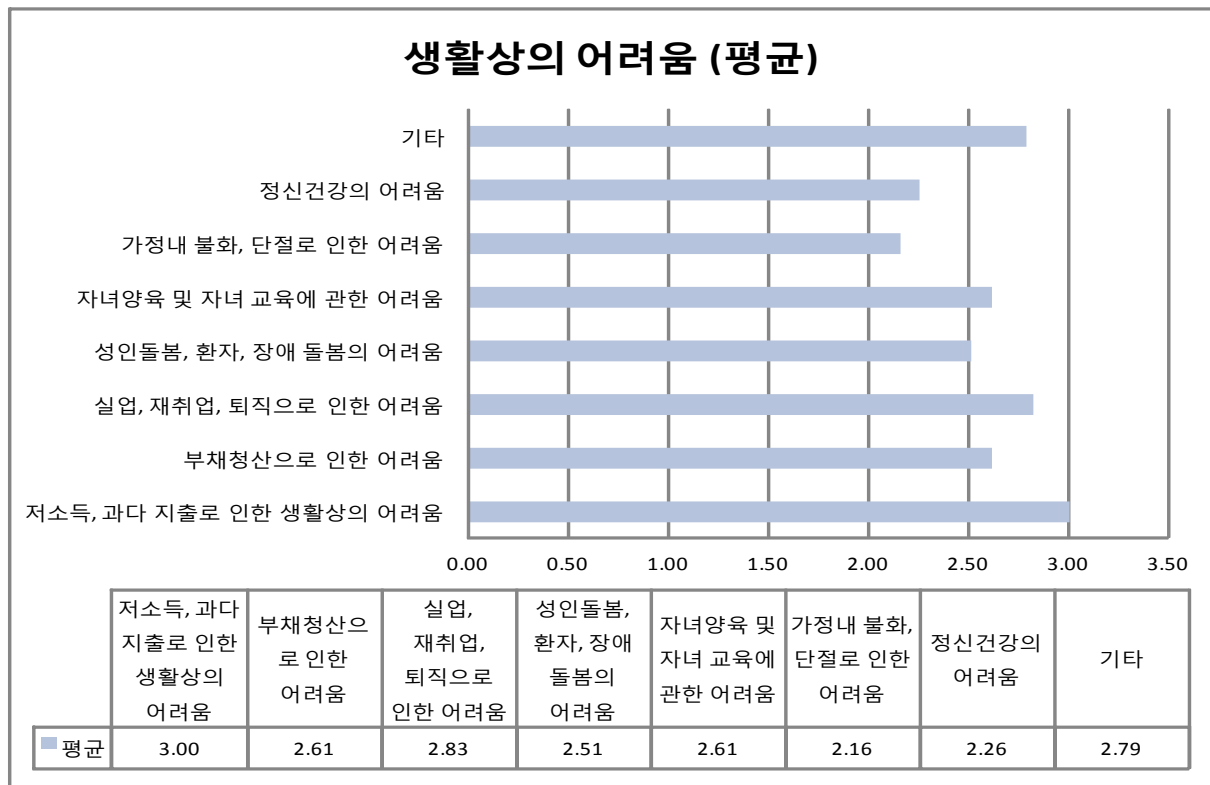
4)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필요

(1) 생활상의 어려움

생활상의 어려움은 평균 2.60으로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보면,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보통’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생활상의 어려움

	N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449	3.00	1.081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434	2.61	1.107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435	2.83	3.124
성인돌봄, 환자, 장애 돌봄의 어려움	430	2.51	1.148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432	2.61	1.107
가정내 불화, 단절로 인한 어려움	437	2.16	1.030
정신건강의 어려움	435	2.26	1.072
기타	53	2.79	1.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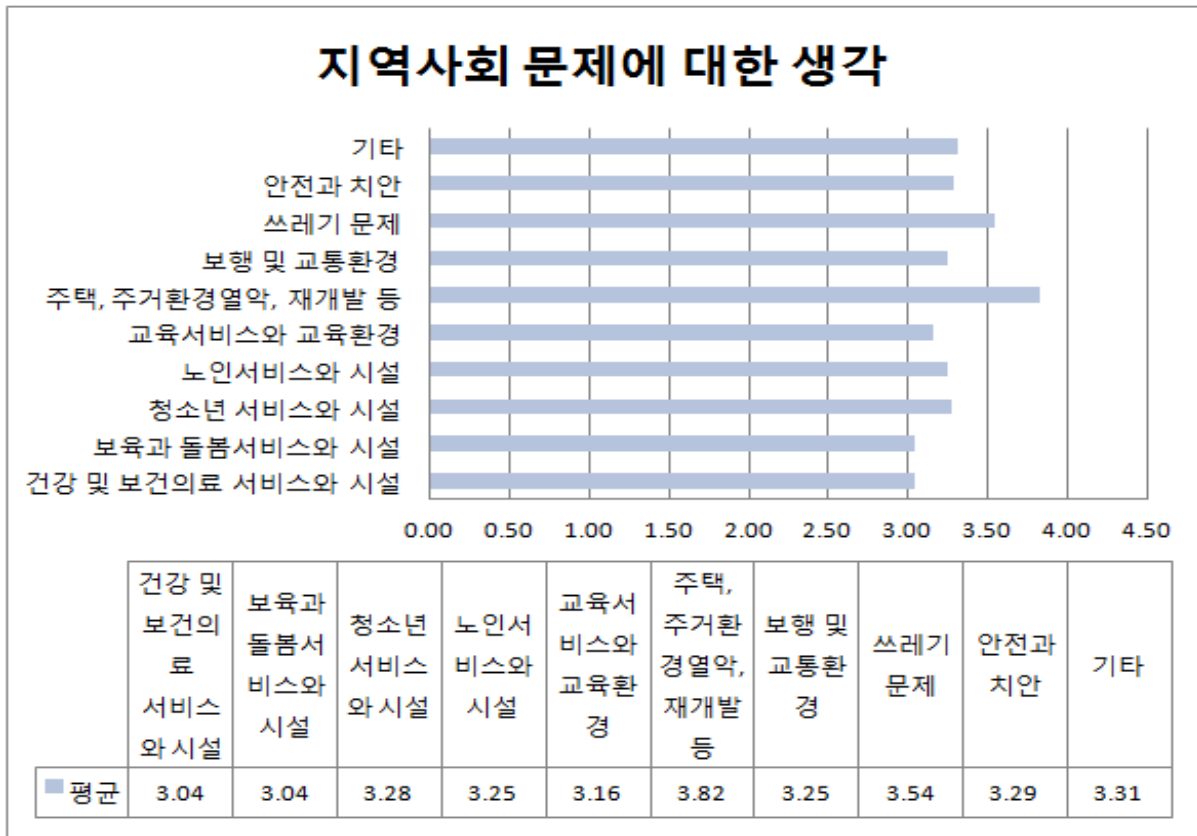


(2)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3.30으로 ‘보통 보다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쓰레기 문제, 안전과 치안,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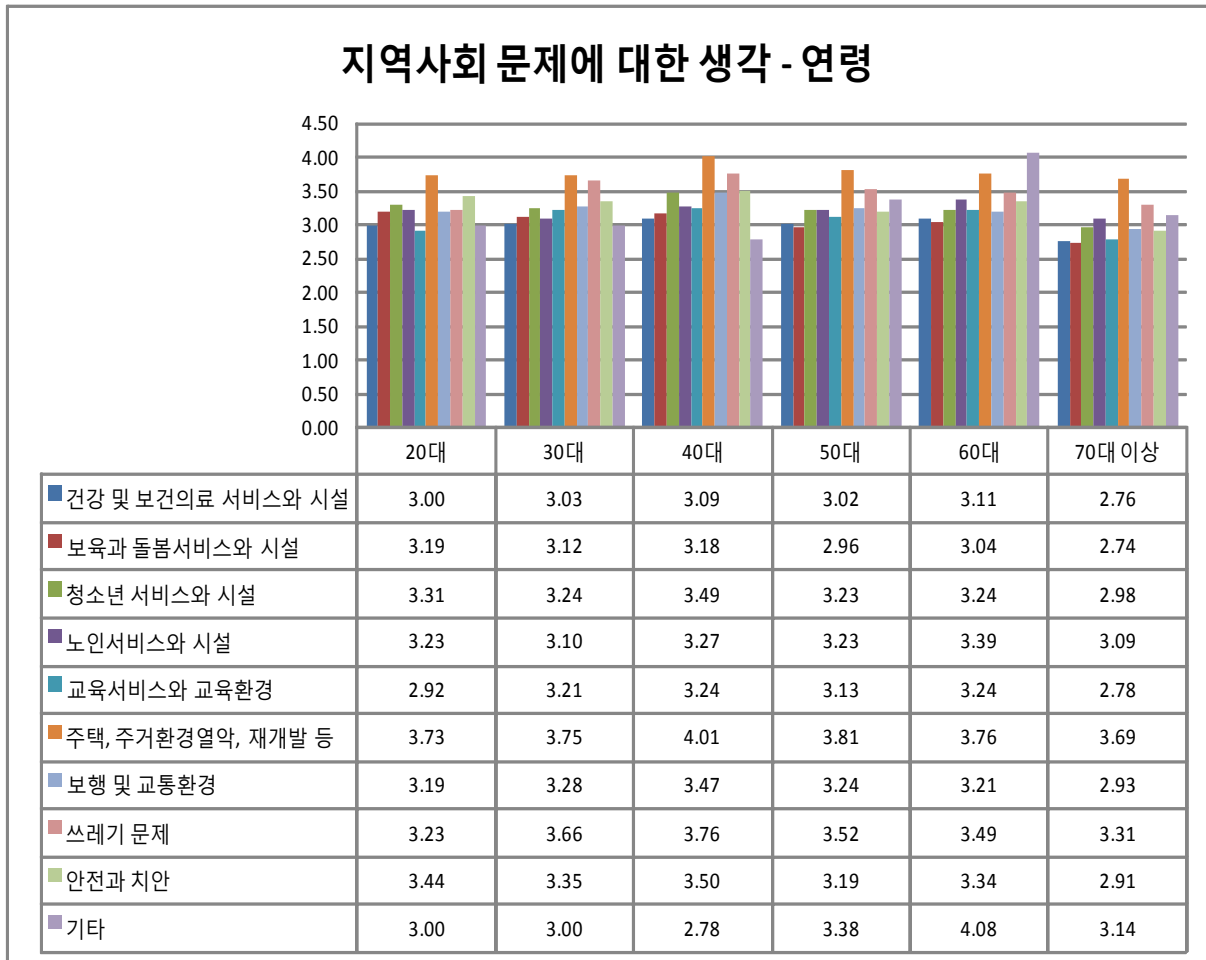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445	3.04	0.892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430	3.04	0.939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437	3.28	1.004
노인서비스와 시설	434	3.25	0.916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432	3.16	0.907
주택, 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등	443	3.82	1.118
보행 및 교통환경	434	3.25	1.032
쓰레기 문제	448	3.54	1.059
안전과 치안	444	3.29	0.953
기타	49	3.31	1.262

<그림>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① 연령대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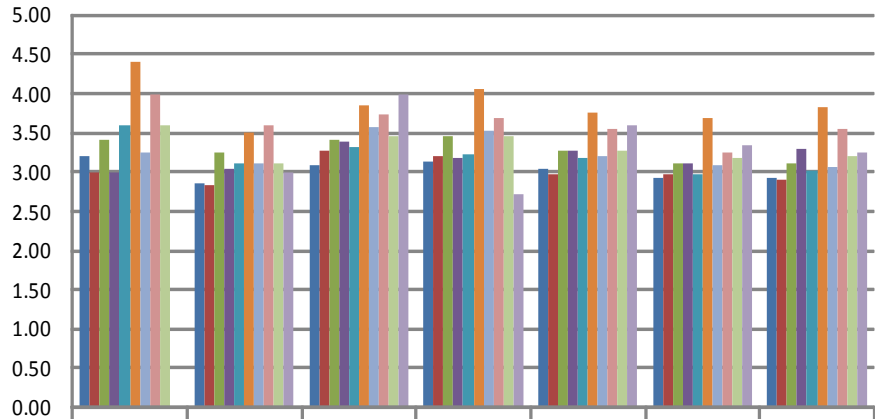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20대는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을 제외하고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30대와 40대, 60대는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40대는 ‘주택 및 주거환경’관련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50대는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70대 이상은 ‘노인서비스와 시설’, ‘주택 및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가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② 거주기간별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거주기간별로 살펴봤을 때, 1년 미만 거주자는 ‘주택 및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5년 미만, 10년 미만 거주자들은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으며, 10년 미만 거주자들은 ‘주택 및 주거환경’관련 ‘대체로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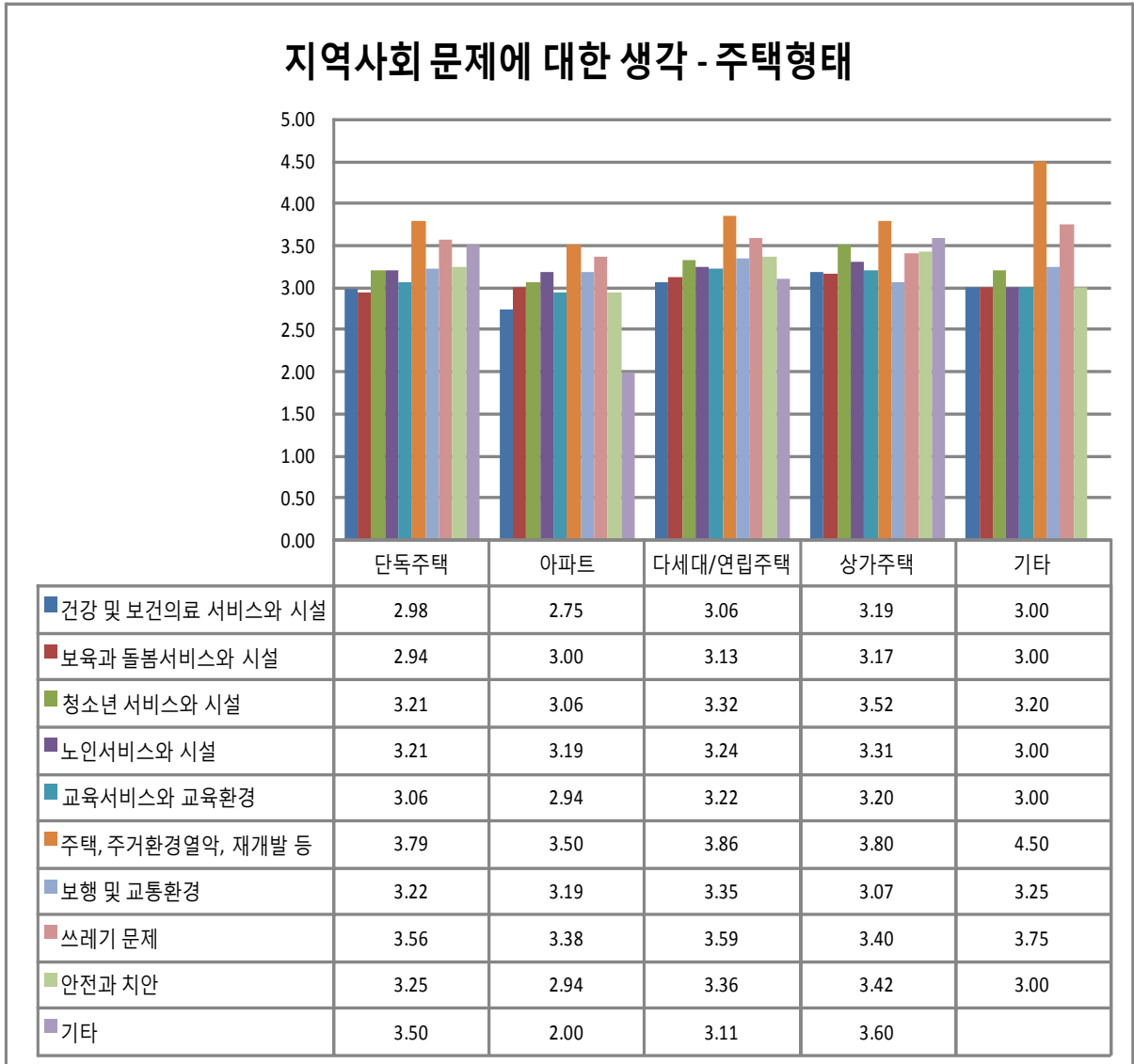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 거주기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3.20	2.85	3.08	3.14	3.04	2.94	2.92
■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3.00	2.84	3.27	3.21	2.98	2.97	2.91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3.40	3.25	3.42	3.46	3.28	3.12	3.10
■ 노인서비스와 시설	3.00	3.05	3.39	3.17	3.26	3.11	3.30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3.60	3.10	3.32	3.22	3.18	2.97	3.03
■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 등	4.40	3.50	3.84	4.05	3.76	3.69	3.82
■ 보행 및 교통환경	3.25	3.10	3.58	3.54	3.21	3.08	3.07
■ 쓰레기 문제	4.00	3.60	3.74	3.69	3.55	3.26	3.55
■ 안전과 치안	3.60	3.11	3.45	3.46	3.28	3.17	3.21
■ 기타		3.00	4.00	2.73	3.60	3.33	3.25

③ 주택형태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주택 및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 ‘안전과 치안’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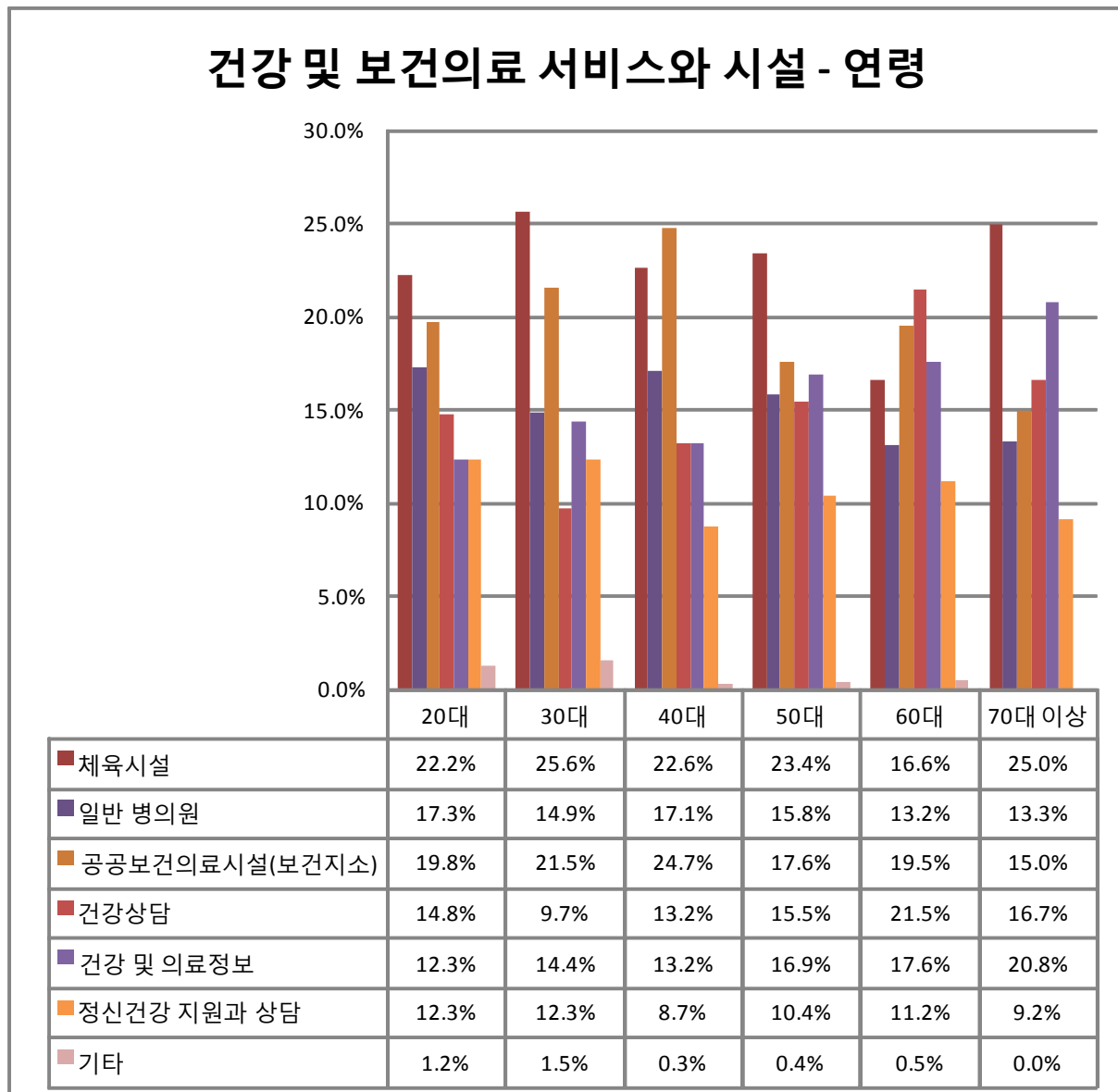
③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2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20.2%),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위 2동 주민들은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필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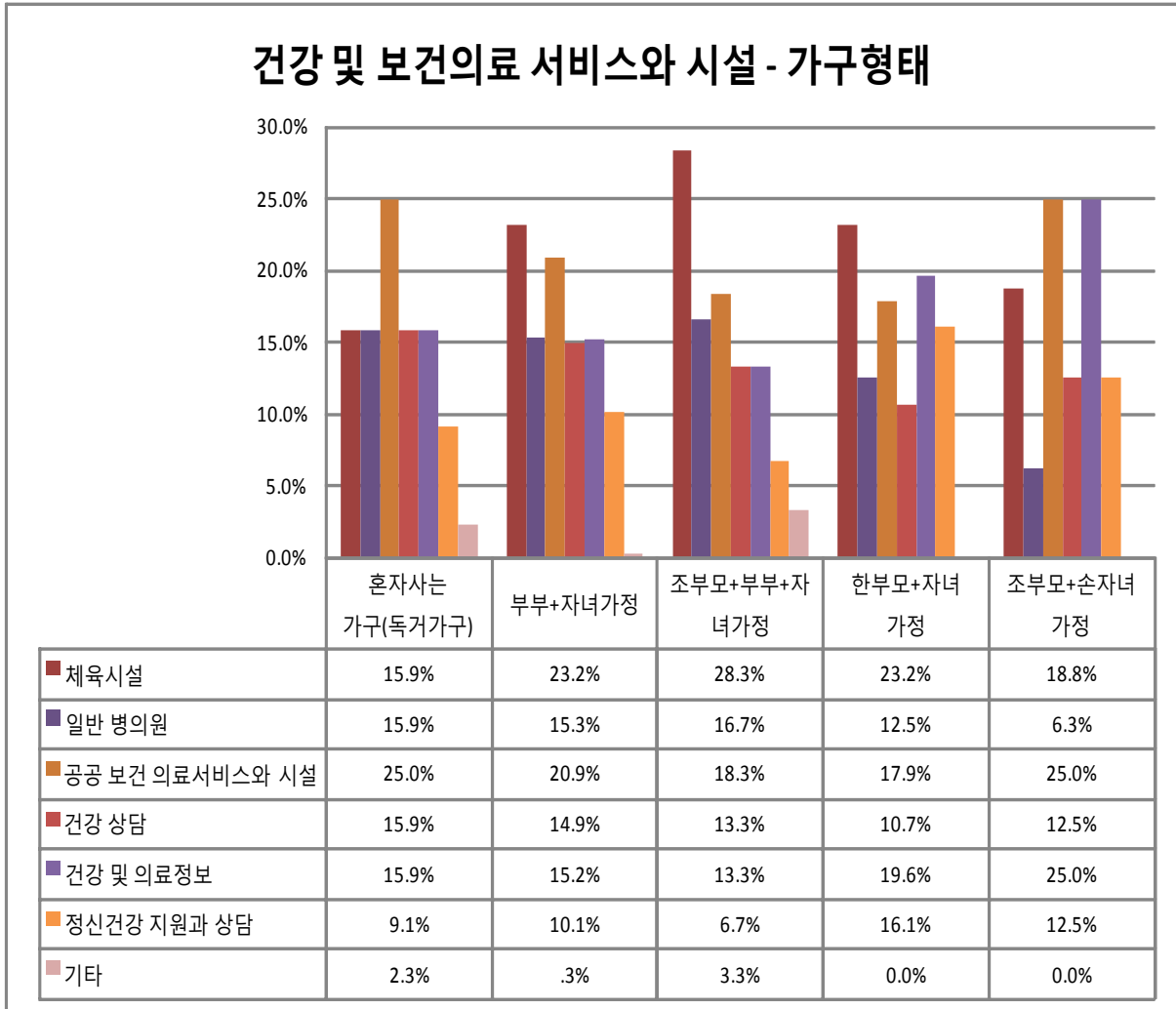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체육시설	289	22.6%
일반 병의원	199	15.5%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258	20.2%
건강 상담	192	15.0%

건강 및 의료정보	202	15.8%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	133	10.4%
기타	7	0.5%
합계	1280	100.0%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건강상담과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70대 이상은 체육시설과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혼자사는 가구는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와 시설(보건지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 한부모 가정은 체육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한부모가정과 조부모+손자녀가정은 건강 및 의료정보 제공 관련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④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필요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25.7%)’, ‘영유아 보육시설(17.3%)’,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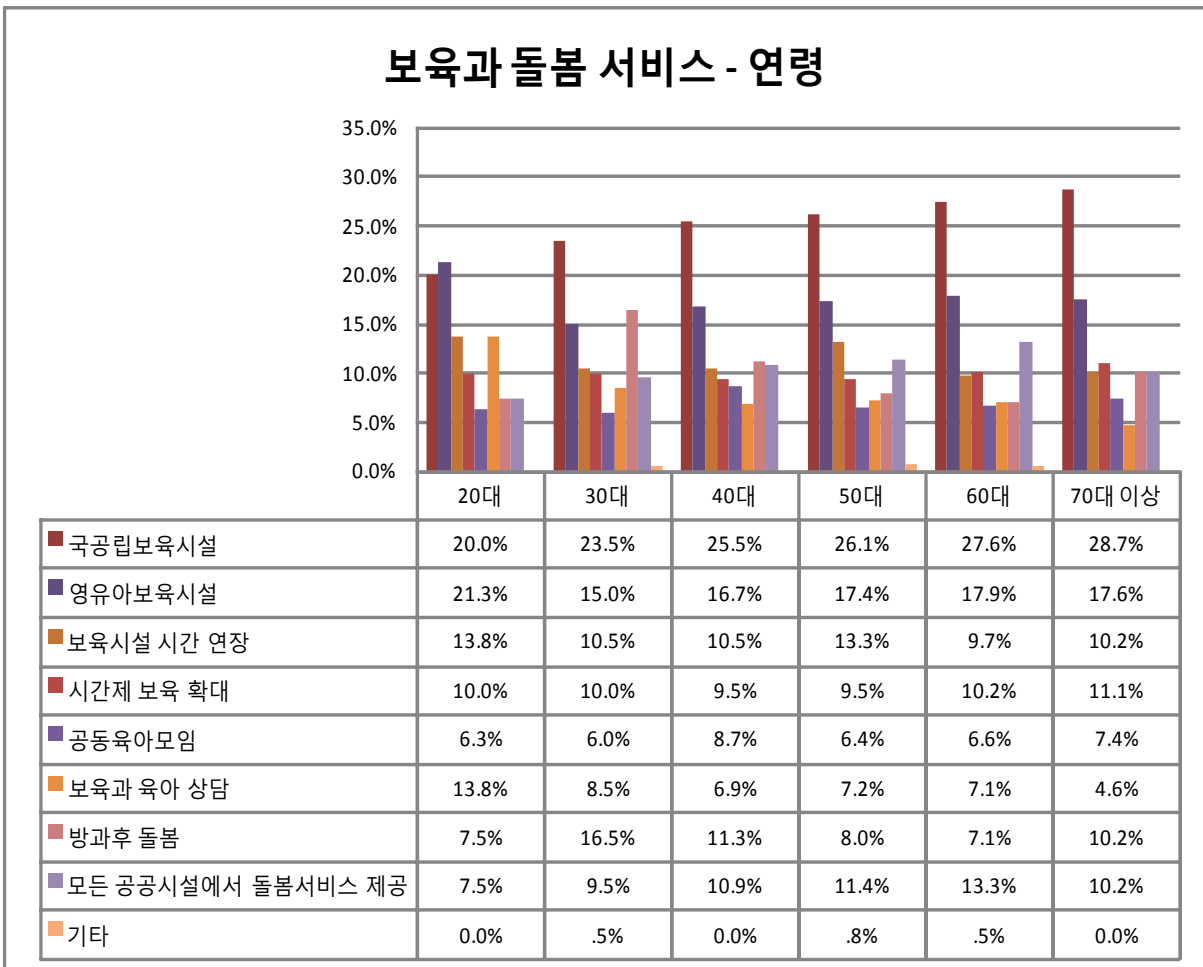
<표>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보육과 돌봄 빈도	
	N	퍼센트
국공립보육시설	312	25.7%
영유아 보육시설	210	17.3%
보육시설 시간 연장	133	10.9%
시간제 보육 확대	117	9.6%
공동육아모임	82	6.7%
보육과 육아상담	87	7.2%
방과후 돌봄	128	10.5%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38	11.4%
기타	8	0.7%
합계	12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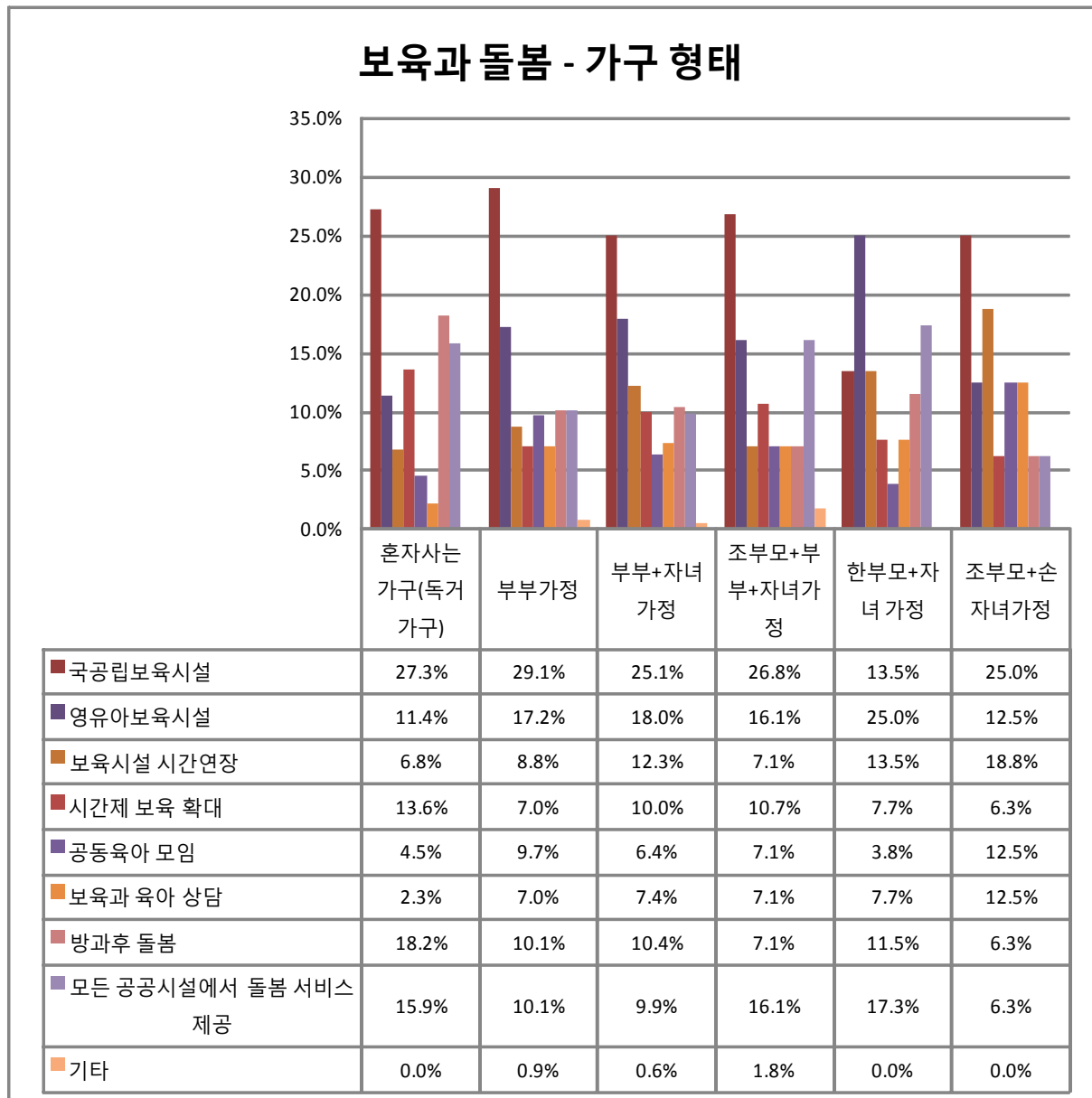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영유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과 육아상담, 30대, 40대 국공립보육시설, 방과후 돌봄, 영유아보육시설, 50대는 국공립 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시설 시간연장, 60대는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70대 이상은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시간제보육확대에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 연령



가구형태별로 보면, 부부+자녀 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은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시설시간연장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한부모가정은 영유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시설시간연장, 보육과 육아상담, 영유아보육시설, 공동육아모임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게 나타났다.

<그림>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 가구 형태



⑤ 청소년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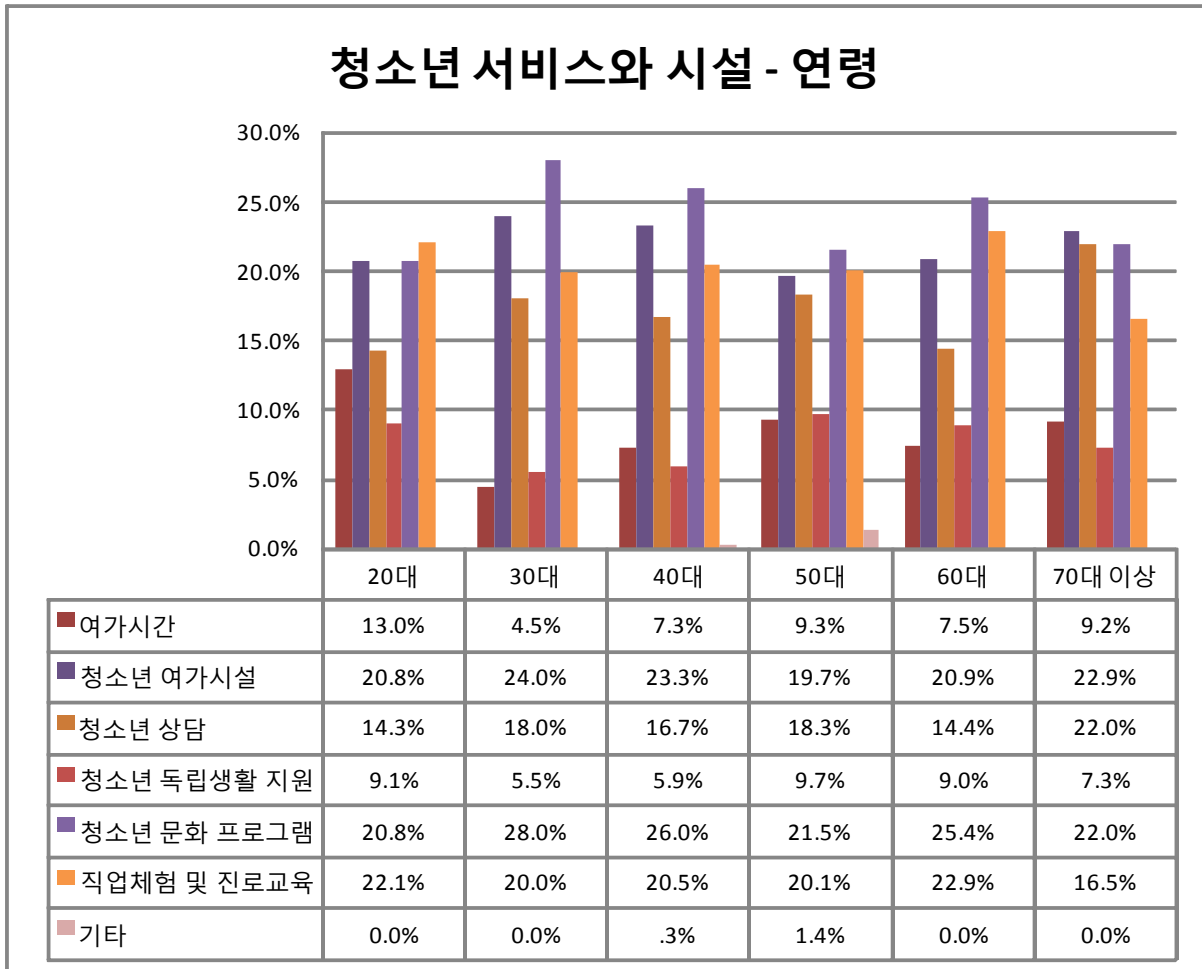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프로그램(24.4%), 청소년 여가시설(21.6%),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여가시간	93	7.5%
청소년 여가시설	270	21.6%
청소년 상담	215	17.2%
청소년 독립생활 지원	101	8.1%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305	24.4%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256	20.5%
기타	8	0.6%
합계	1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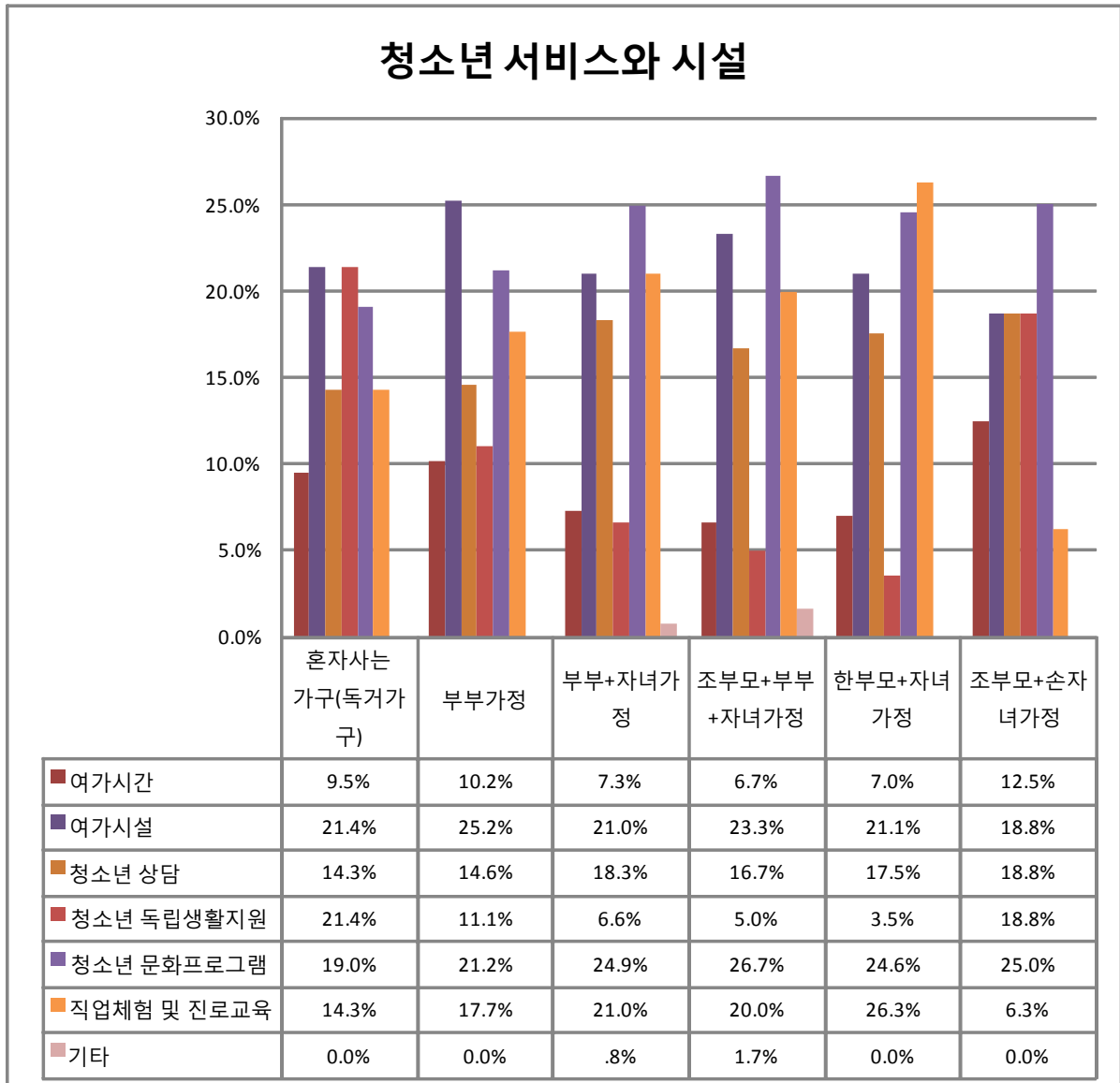
청소년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는 2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경우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상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청소년 시설과 서비스 - 연령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사는 가구는 여가시설, 청소년 독립생활지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부부가정,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 한부모가정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상담, 청소년 독립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독립생활지원에 대한 필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청소년 시설과 서비스 -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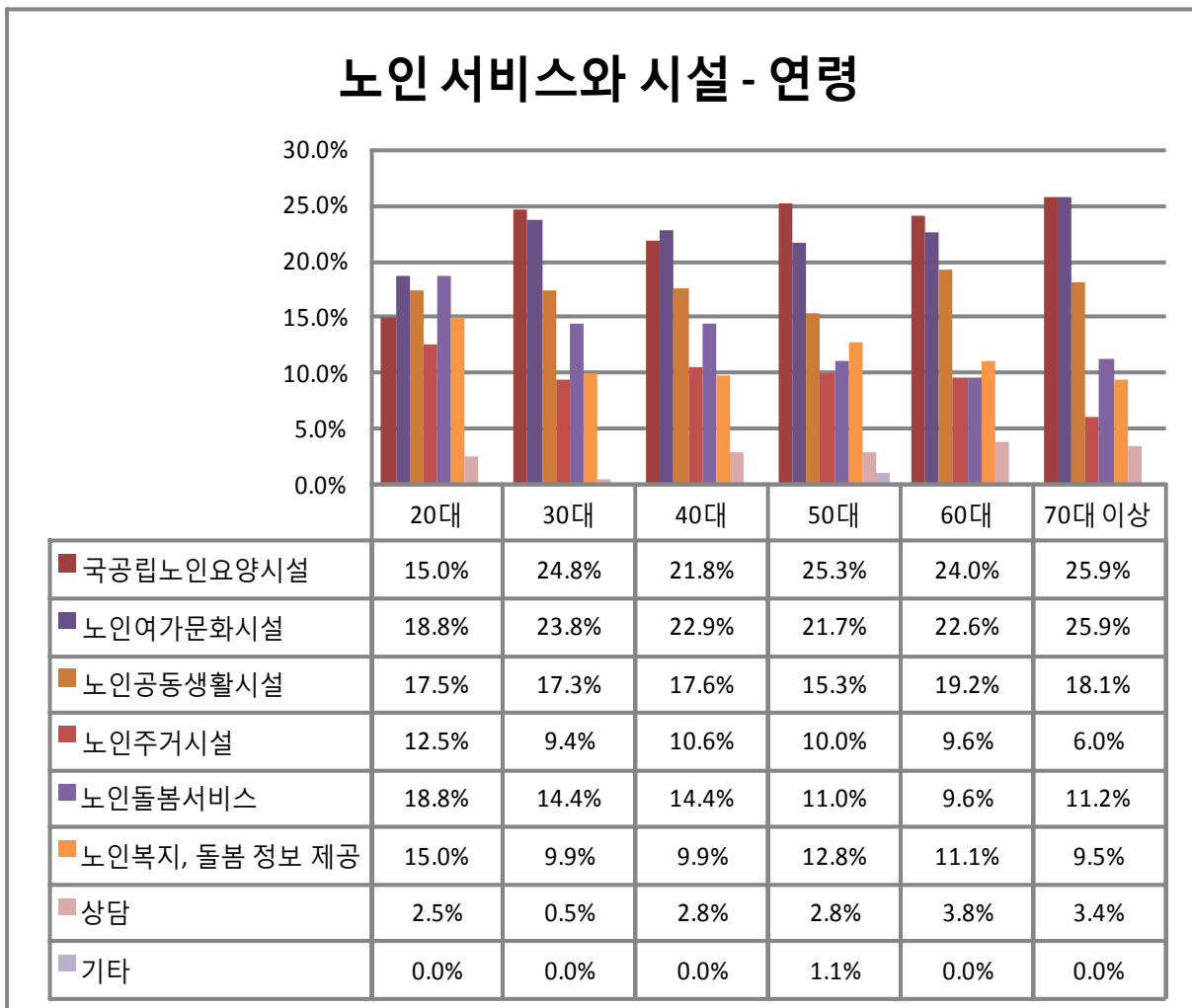
⑦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국공립노인요양시설(23.2%), 노인여가문화시설(22.4%), 노인공동생활시설(17.2%)로 나타났다.

노인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국공립노인요양시설	298	23.2%
노인여가문화시설	287	22.4%
노인공동생활시설	220	17.2%
노인주거시설	129	10.1%
노인돌봄서비스	165	12.9%
노인복지, 돌봄 정보제공	143	11.2%

상담	35	2.7%
기타	5	0.4%
합계	12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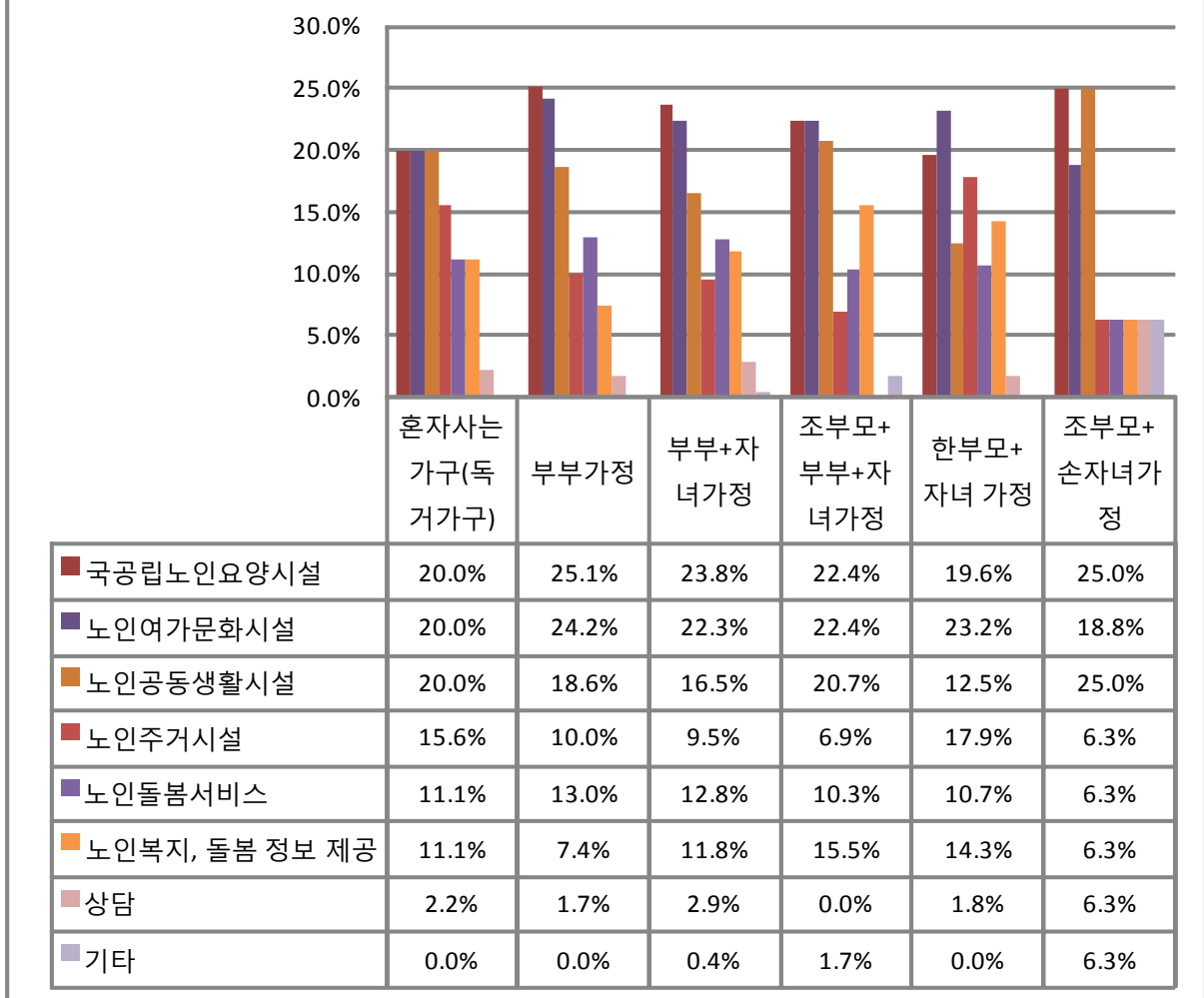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은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사는 가구, 부부가정,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 조부모+손자녀가정은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한부모가정은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노인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노인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⑧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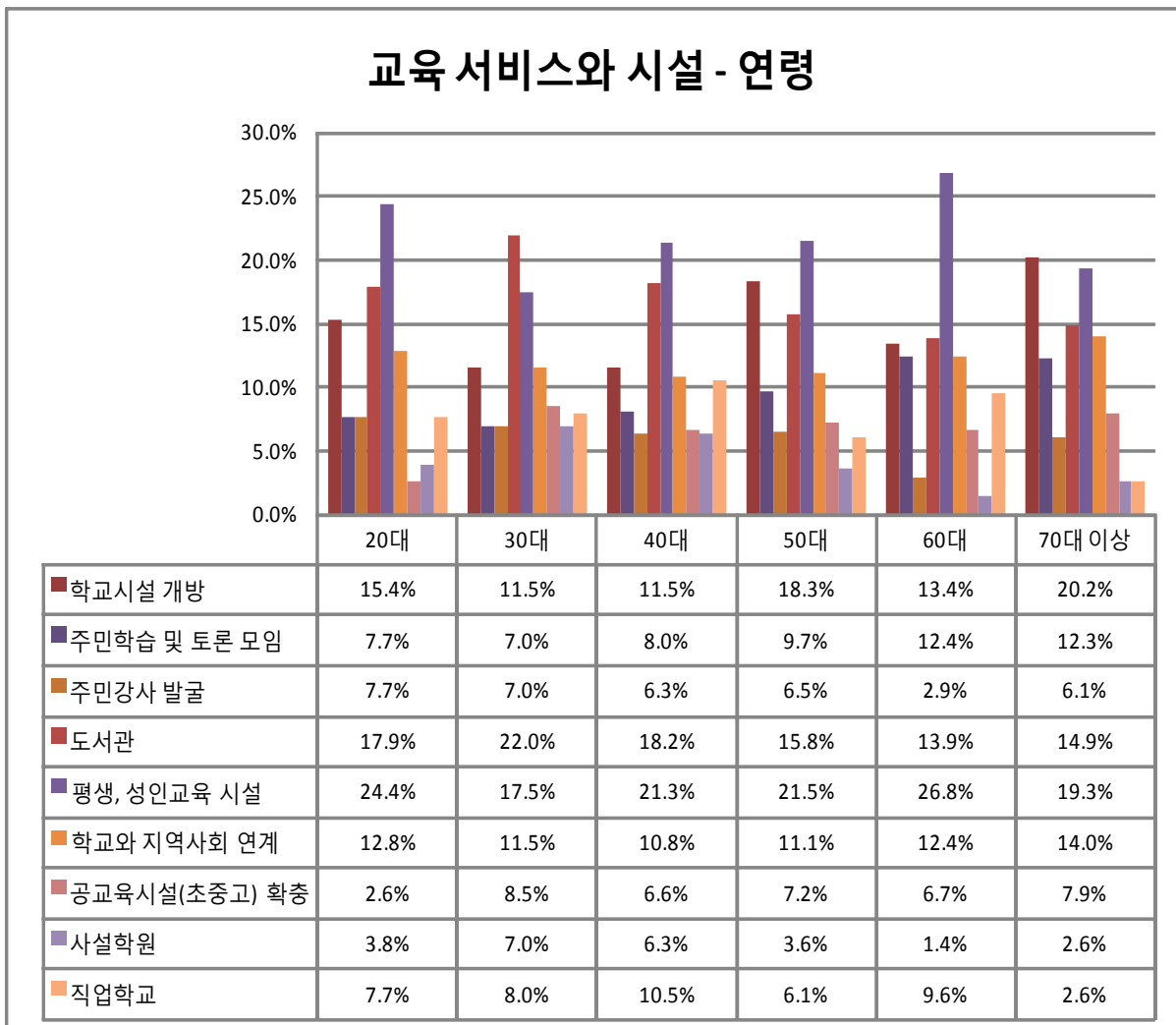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평생 및 성인교육시설(21.4%), 도서관(16.9%), 학교시설개방(14.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학교시설 개방	183	14.5%
주민학습 및 토론 모임	119	9.4%
주민강사 발굴 및 양성	77	6.1%
도서관	214	16.9%
평생, 성인교육시설	271	21.4%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151	11.9%
공교육시설(초중고) 확충	87	6.9%
사설학원	53	4.2%
직업학교	103	8.1%

기타	6	0.5%
합계	1264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도서관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다. 20대, 40대, 50대, 60대는 평생·성인교육시설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평생·성인교육시설, 도서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 연령



⑨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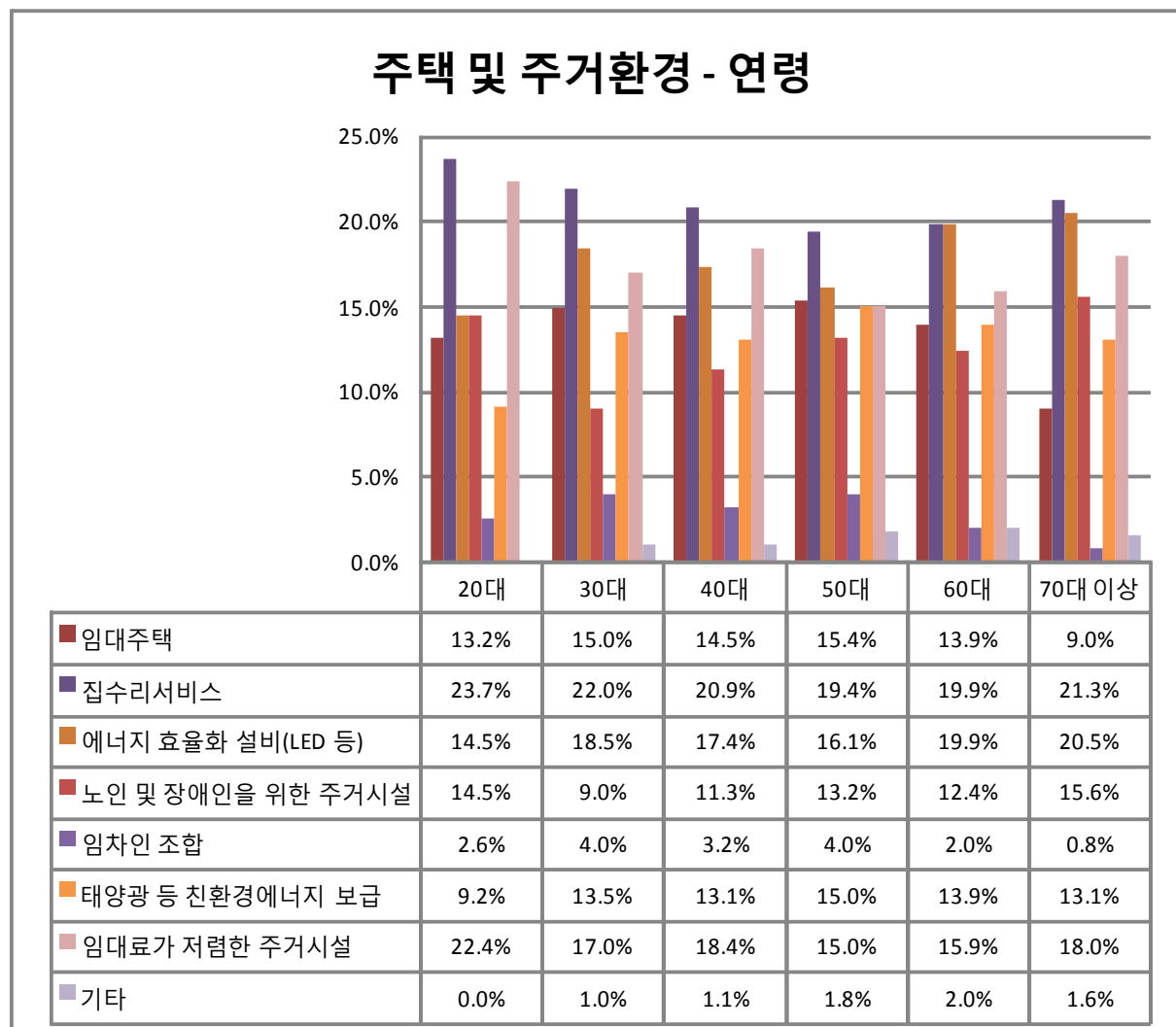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집수리서비스(20.8%), 에너지효율화설비(LED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책(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응답
-----------	----

	N	퍼센트
임대주택	176	13.9%
집수리서비스	263	20.8%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224	17.7%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157	12.4%
임차인 조합	36	2.9%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173	13.7%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213	16.9%
기타	20	1.6%
합계	12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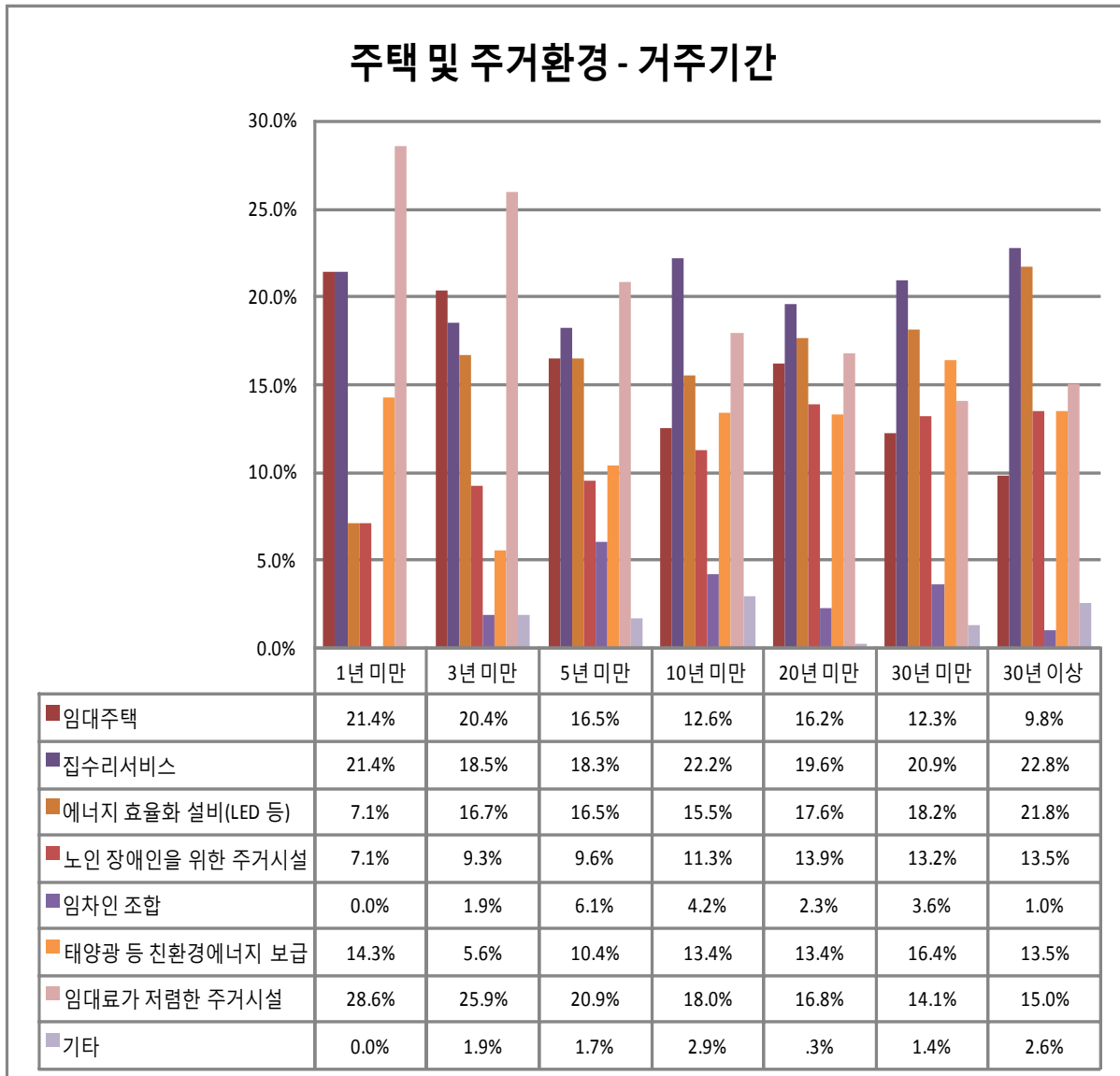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집수리서비스,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에너지효율화설비,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30대, 40대, 60대, 70대 이상은 집수리서비스,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50대는 집수리서비스,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주택 및 주거환경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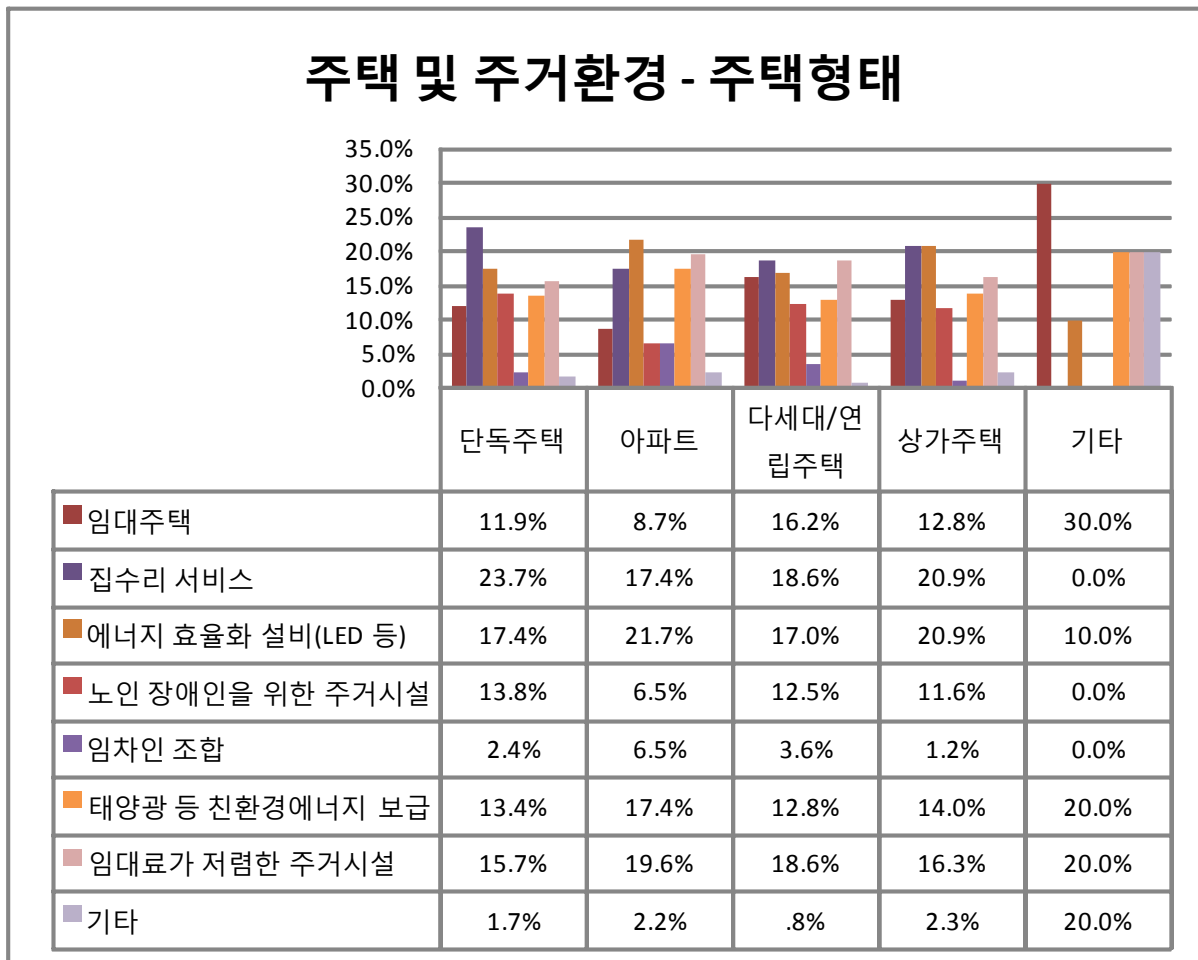
거주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의 거주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임대주택,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거주자와 20년 미만 거주자, 30년 이상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 에너지효율화설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주택 및 주거환경 - 거주기간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 설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집수리서비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순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상가주택은 집수리서비스와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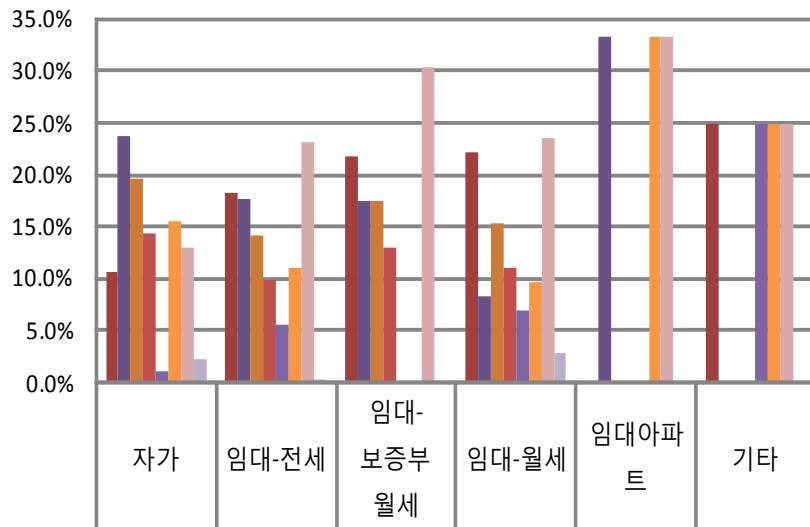
<그림> 주택 및 주거환경 - 주택형태



자가거주자는 집수리서비스, 에너지 효율화 설비,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임대주택거주자는 집수리서비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보급,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 외 임대거주자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주택 및 주거환경 - 점유형태

주택 및 주거환경 - 점유형태



■ 임대주택	10.6%	18.3%	21.7%	22.2%	0.0%	25.0%
■ 집수리서비스	23.7%	17.7%	17.4%	8.3%	33.3%	0.0%
■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19.7%	14.1%	17.4%	15.3%	0.0%	0.0%
■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14.3%	9.9%	13.0%	11.1%	0.0%	0.0%
■ 임차인 조합	1.1%	5.6%	0.0%	6.9%	0.0%	25.0%
■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15.5%	11.0%	0.0%	9.7%	33.3%	25.0%
■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12.9%	23.1%	30.4%	23.6%	33.3%	25.0%
■ 기타	2.2%	0.3%	0.0%	2.8%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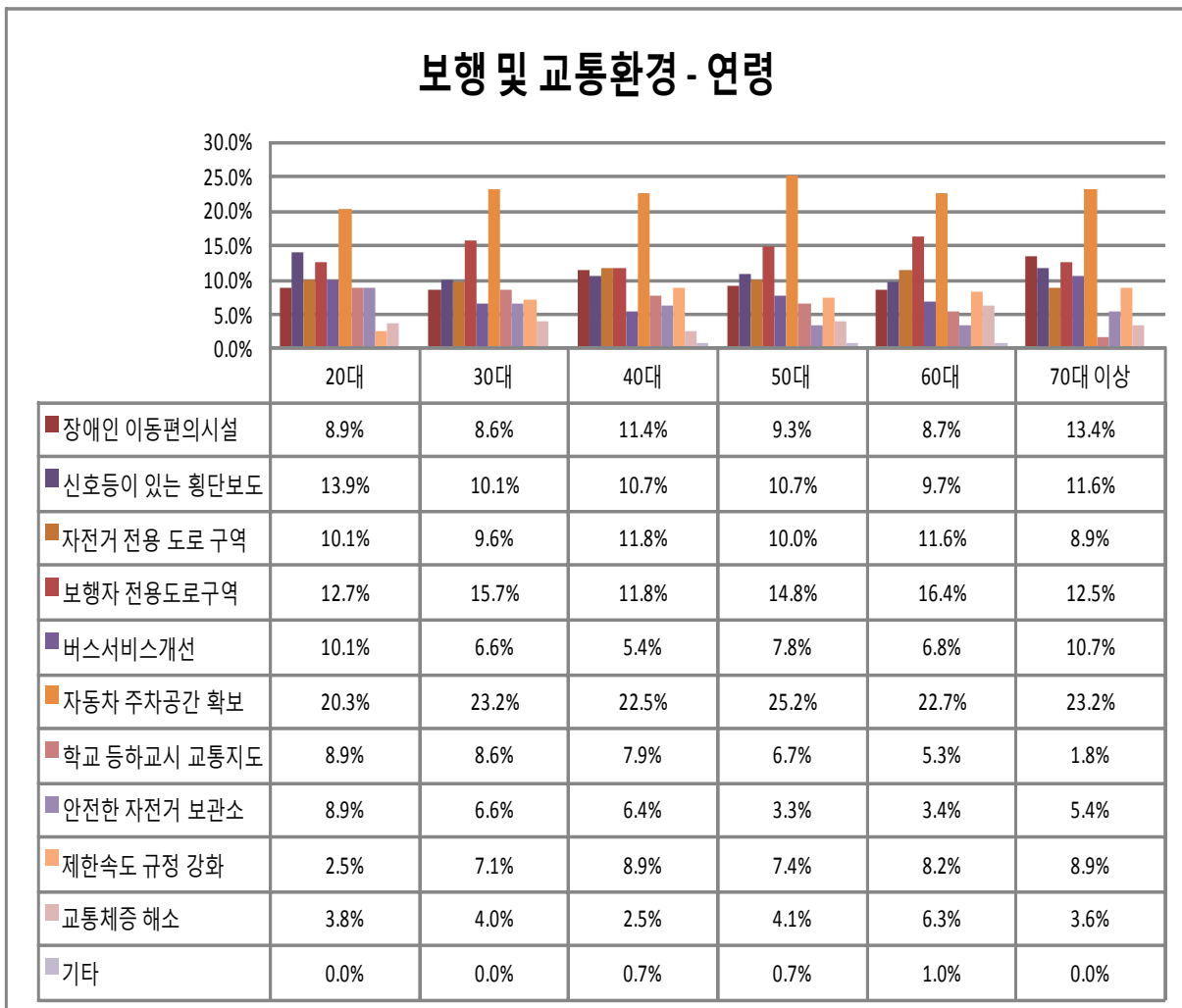
⑩ 보행 및 교통 환경

보행 및 교통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23.4%), 보행자전용도로구역(13.8%),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10.4%),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10.4%), 장애인 이동편의시설(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 및 교통 환경		
	응답	
	N	퍼센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127	10.1%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131	10.4%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	131	10.4%
보행자전용도로구역	173	13.8%
버스서비스 개선	95	7.6%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294	23.4%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	86	6.8%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	70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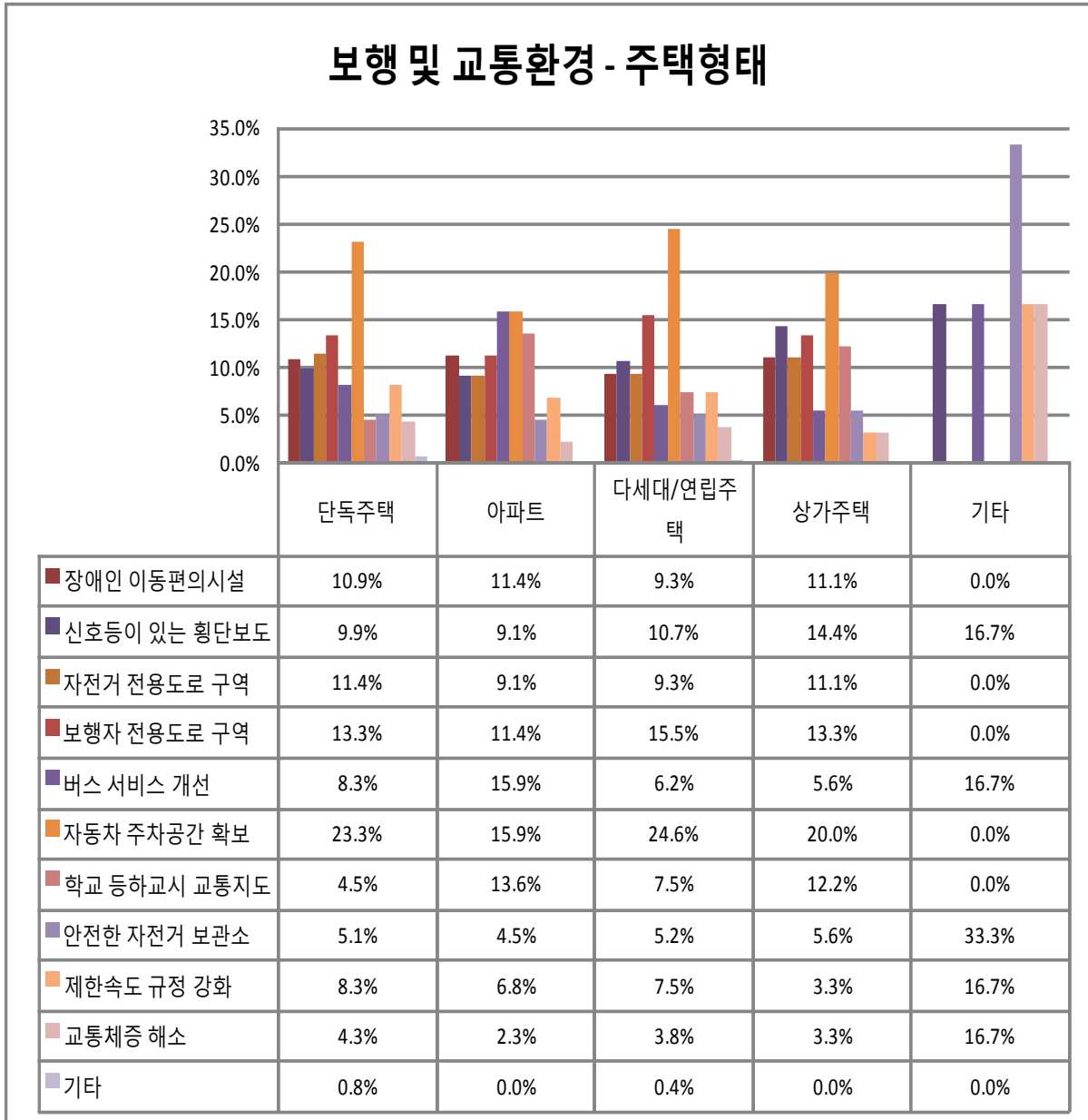
제한속도 규정강화	92	7.3%
교통체증 해소	53	4.2%
기타	6	0.5%
합계	1258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 외, 20대, 30대, 50대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40대, 60대는 자전거 전용도로구역과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응답률이 높았다. 70대 이상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과 보행자 전용 도로 구역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주택형태에서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버스서비스 개선,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들은 보행자 전용도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가주택거주자들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 및 교통환경 -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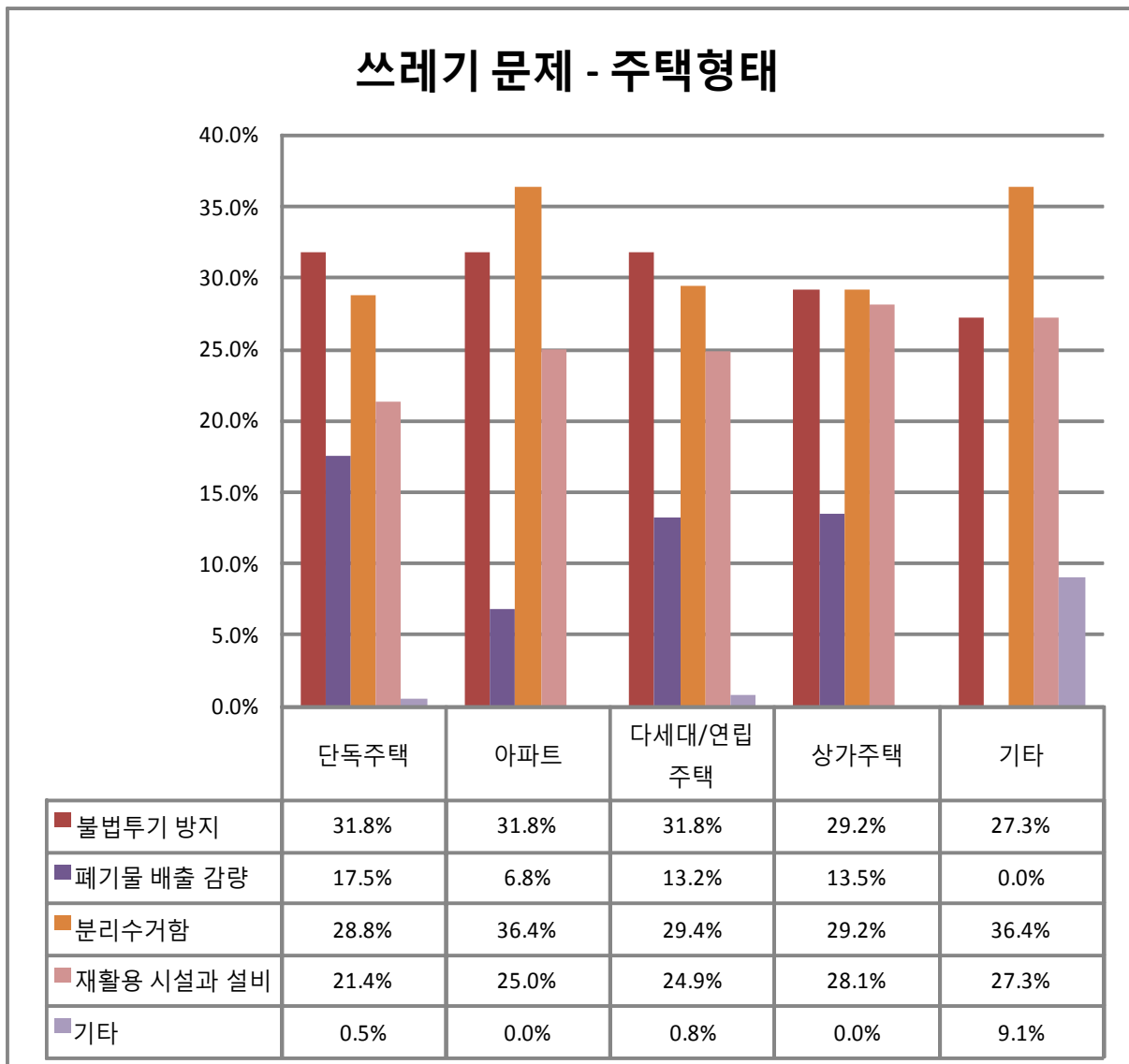
⑪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31.5%), 분리수거함(29.5%), 재활용 시설과 설비(23.9%) 순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문제		
	응답	
	N	퍼센트
불법투기 방지	403	31.5%
폐기물 배출 감량	184	14.4%
분리수거함	377	29.5%
재활용 시설과 설비	306	23.9%

기타	10	0.8%
합계	1280	100.0%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은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아파트의 경우 분리수거함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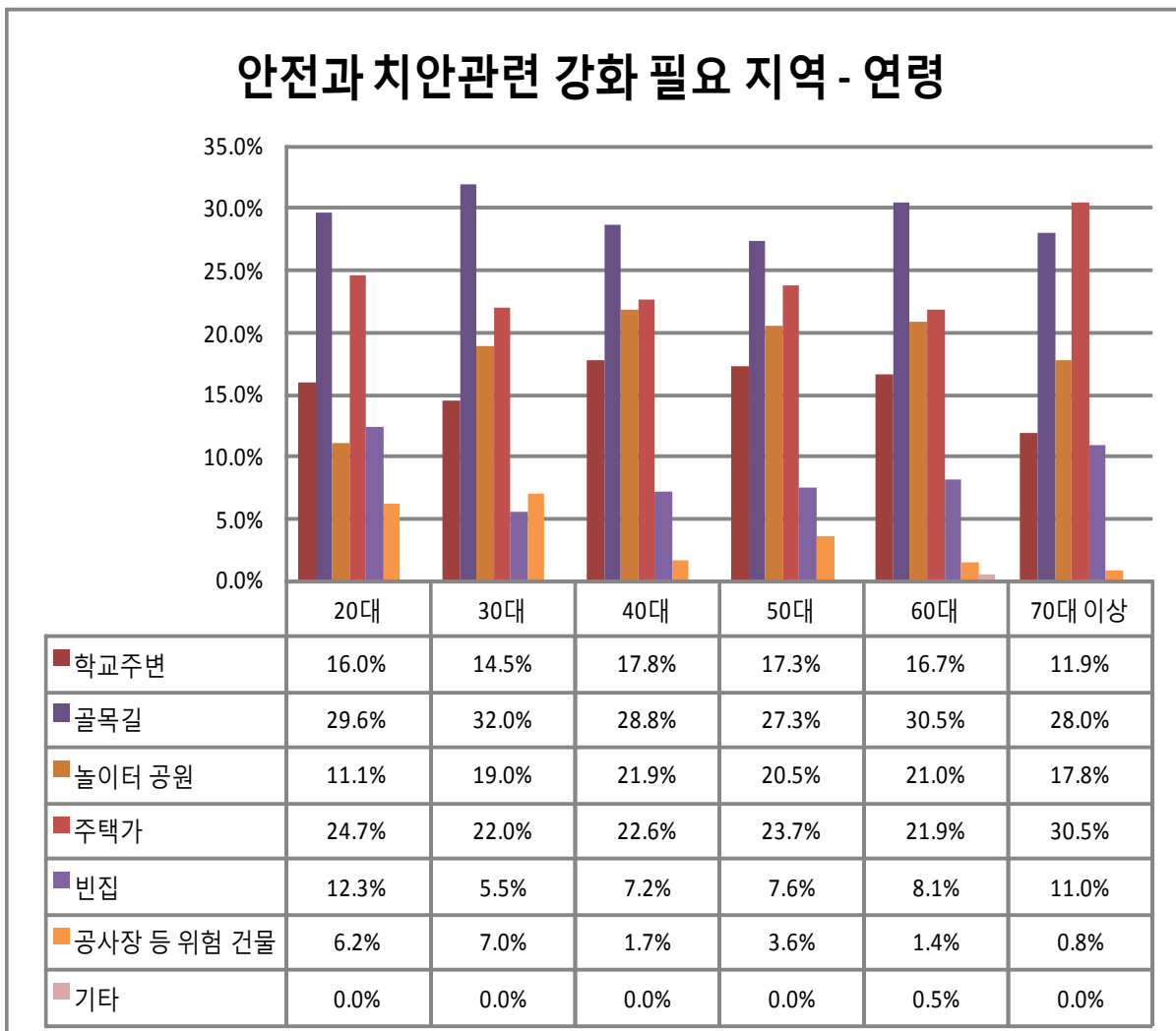


⑫ 안전과 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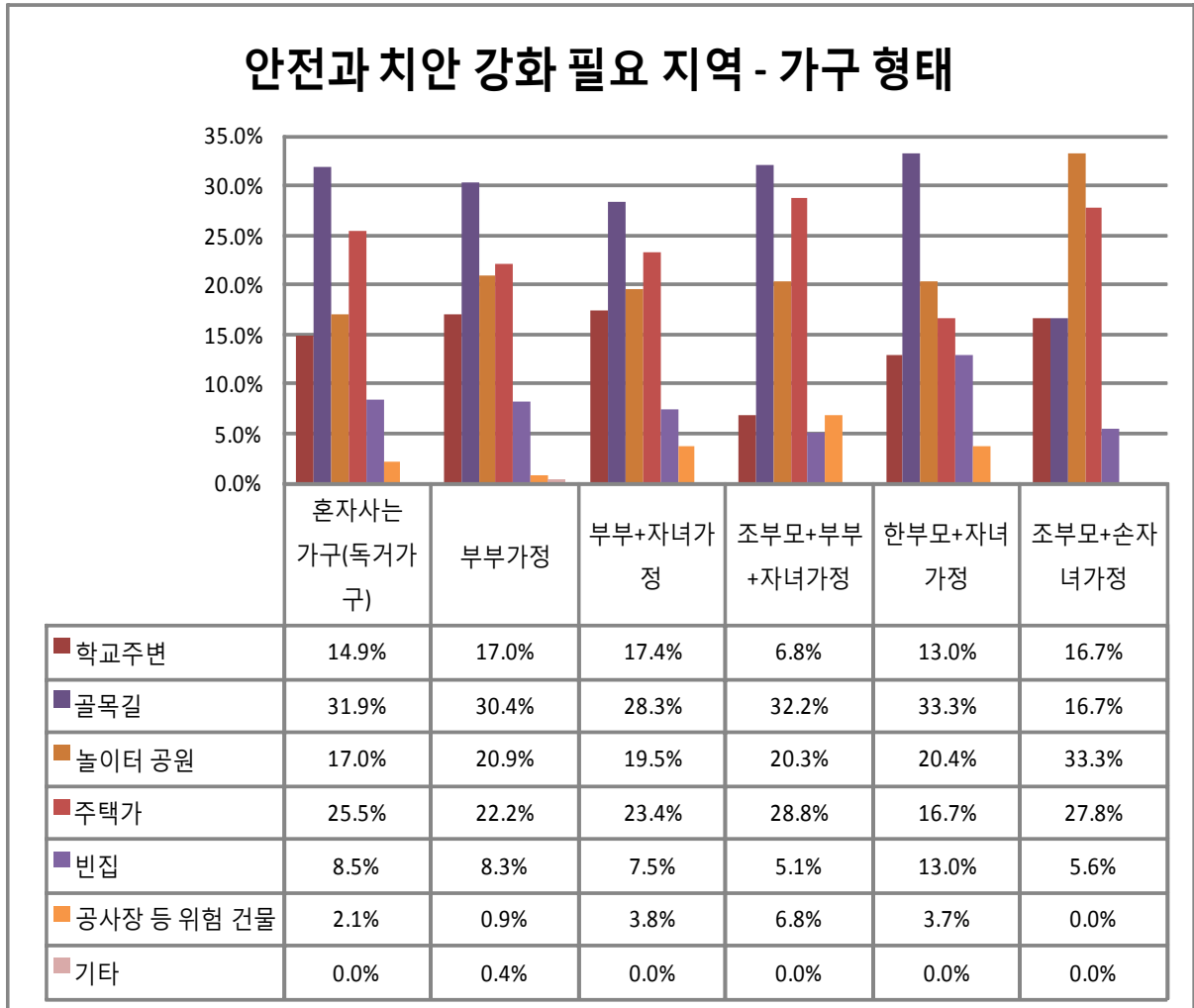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29.2%), 주택가(23.5%), 놀이터 공원(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치안관련 순찰 강화 필요 지역		
	응답	
	N	퍼센트
학교주변	201	16.1%
골목길	364	29.2%
놀이터 공원	250	20.1%
주택가	292	23.5%
빈집	98	7.9%
공사장 등 위험건물	39	3.1%
기타	1	0.1%
합계	1245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골목길, 주택가,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은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이 안전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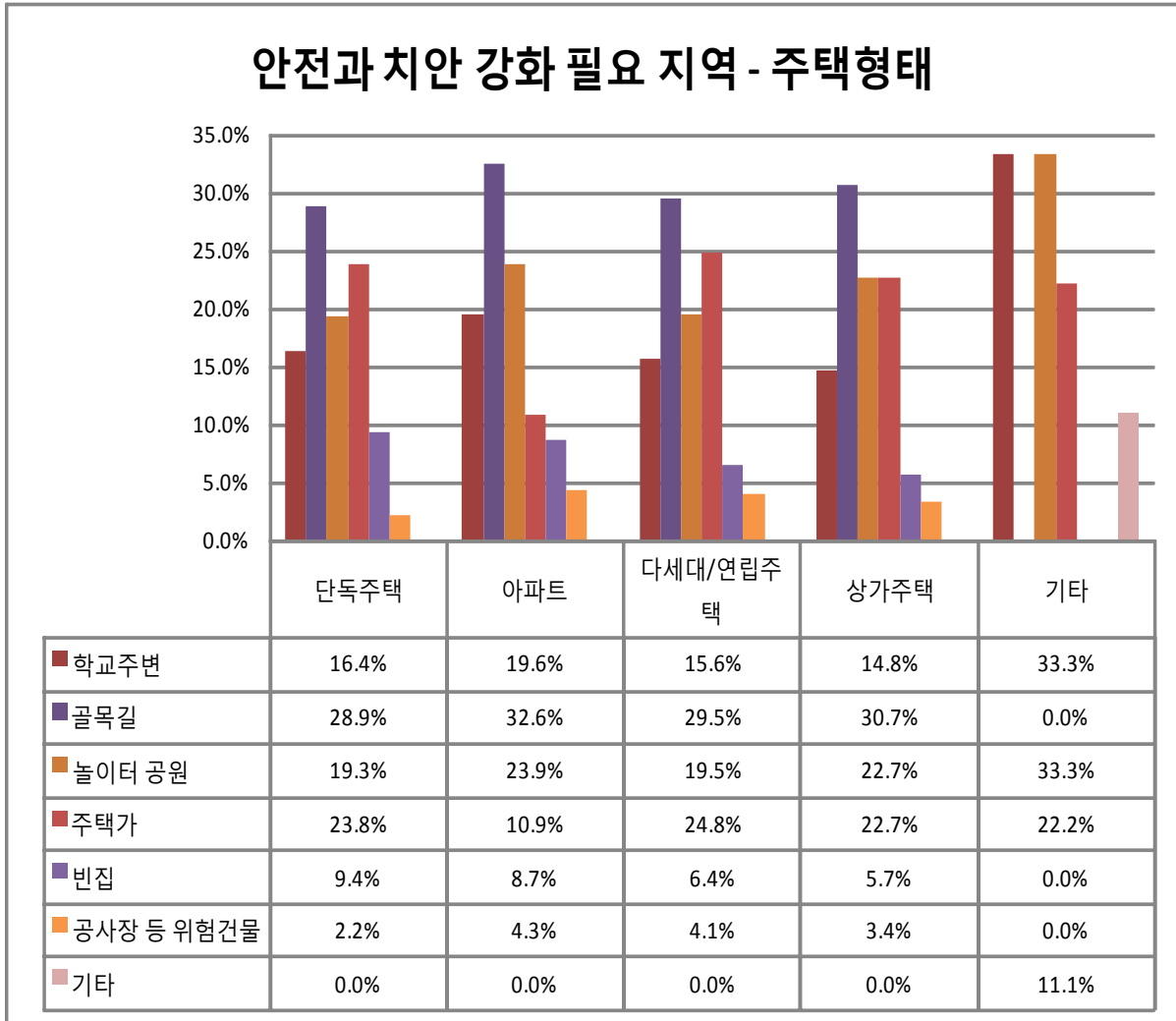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가구형태에서 골목길, 놀이터 공원, 주택가에 대해 안전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 거주자들은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에 대해 안전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아파트 거주자들은 골목길,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에 대해 안전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안전과 치안 강화 필요 지역 -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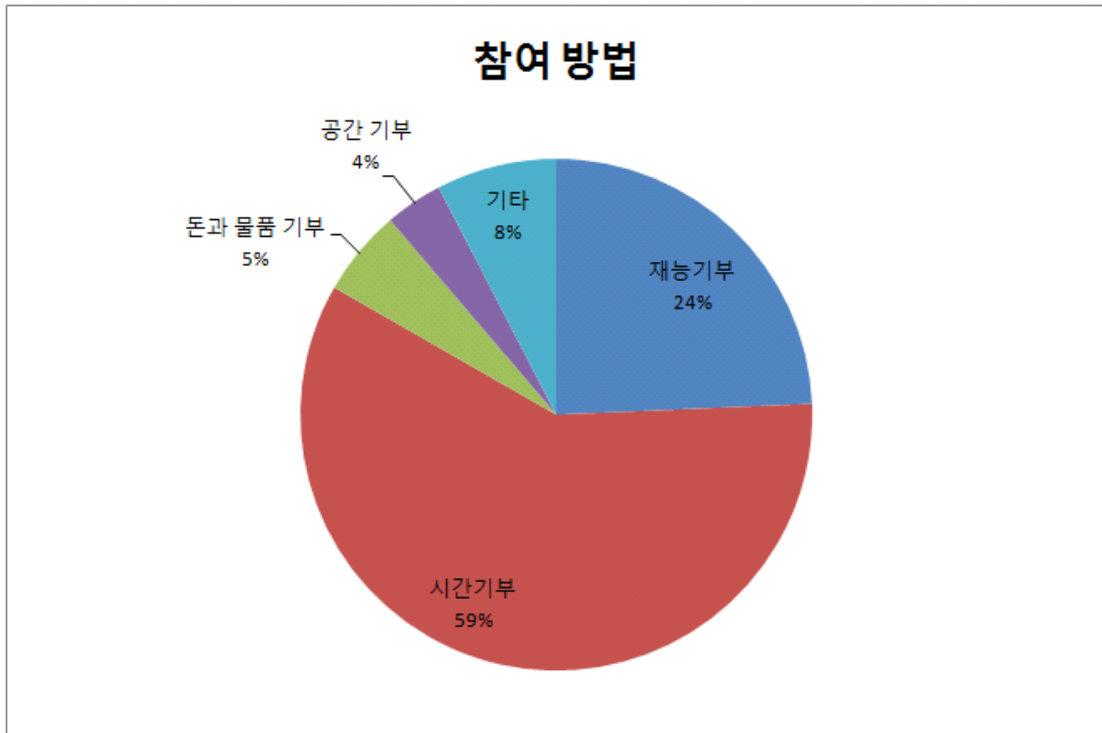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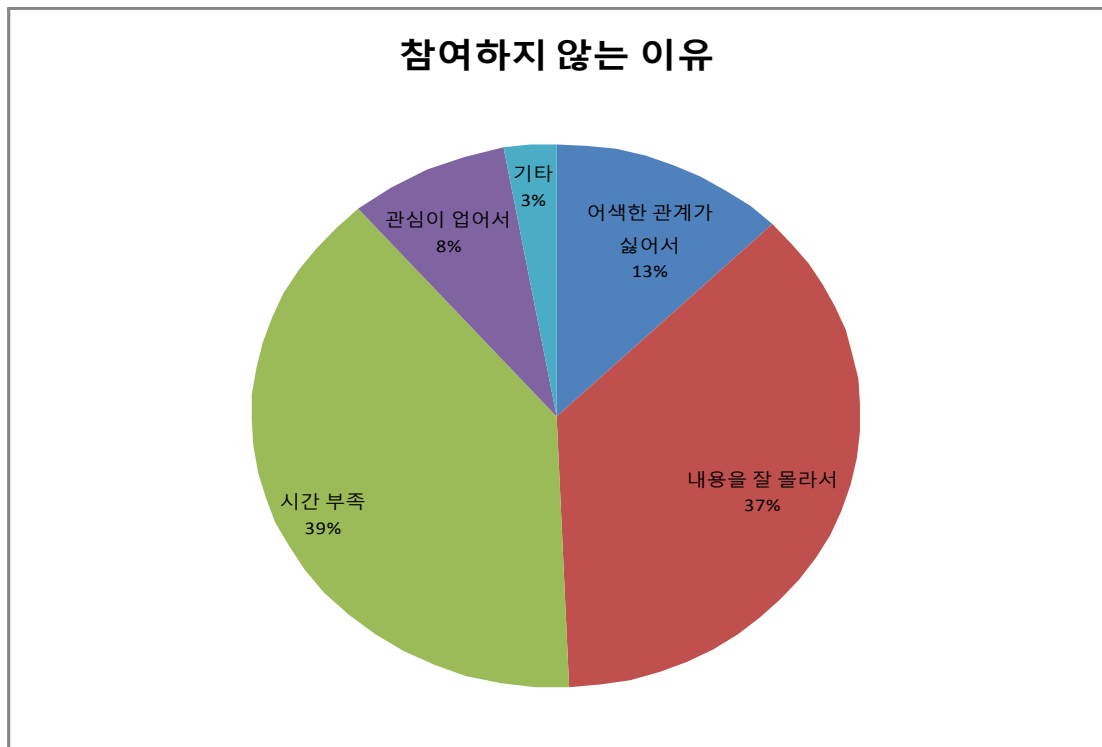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하겠다 (45.4%), 참여하지 않겠다(9.6%), 잘 모르겠다(39.0%)로 응답하였다.

참여여부	
구 분	퍼센트
참여하겠다	45.4
참여하지 않겠다	9.6
잘모르겠다	39.0
무응답	3.2
시스템 결측값	2.8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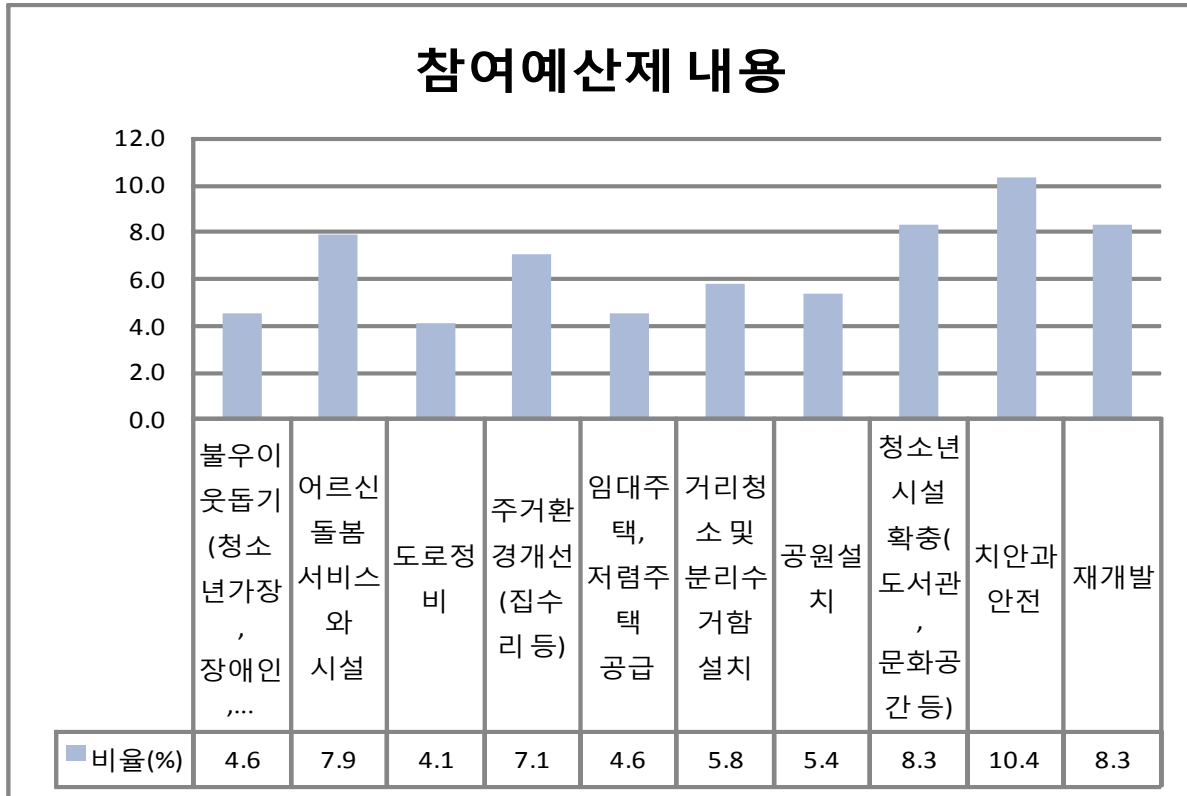
참여방법으로는 시간기부(59%), 재능기부(24%), 돈과 물품 기부(5%), 공간기부(4%)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39%), 내용을 잘 몰라서(37%),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치안과 안전(10.4%), 청소년 시설 확충(도서관, 문화공간 등)이 8.3%,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시설 7.9%, 주거환경개선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소결 : 조사결과 및 시사점

① 장위 2동 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이유로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 ‘경제적형편’, ‘직장·사업’, ‘가족·친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장위2동을 거주지고 선택한 이유로는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경제적 형편, 직장·사업, 가족·친지로 응답하였다.

② 생활상의 어려움은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보다 심각함’으로 느끼고 있다.

○ 생활상의 어려움은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보면,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보통’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보다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

는 지역사회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쓰레기 문제, 안전과 치안,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20대는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을 제외하고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30대와 40대, 60대는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40대는 ‘주택 및 주거환경’관련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50대는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70대 이상은 ‘노인서비스와 시설’, ‘주택 및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가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③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욕구와 필요는 다음과 같다.

○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건강상담과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70대 이상은 체육시설과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영유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과 육아상담, 30대, 40대 국공립보육시설, 방과후 돌봄, 영유아보육시설, 50대는 국공립 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보육 시설 시간 연장, 60대는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70대 이상은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시간제보육확대에 응답률이 높았다.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경우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상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상담, 청소년 독립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독립생활지원에 대한 필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로 나타났다. 혼자사는 가구, 부부가정,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 조부모+손자녀가정은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한부모가정은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평생 및 성인교육시설, 도서관, 학교시설개방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도서관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다. 20대, 40대, 50대, 60대는 평생·성인교육시설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다.

○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집수리서비스, 에너지효율화설비(LED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집수리서비스,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에너지효율화설비, 노

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30대, 40대, 60대, 70대 이상은 집수리서비스,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 설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집수리서비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순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와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상가주택은 집수리서비스와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 보행 및 교통 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보행자전용도로구역,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 외, 20대, 30대, 50대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40대, 60대는 자전거 전용도로구역과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응답률이 높았다. 70대 이상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과 보행자 전용 도로 구역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주택형태에서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버스서비스 개선,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들은 보행자 전용도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가주택거주자들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순으로 나타났다.

○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 분리수거함, 재활용 시설과 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은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아파트의 경우 분리수거함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골목길, 주택가,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은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이 안전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손자녀 가정에서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④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의지(45.5%)로 매우 높으며,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문제에 대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하겠다(45.4%), 참여하지 않겠다(9.6%), 잘 모르겠다(39.0%)로 응답하였다. 참여 방법으로는 시간기부, 재능기부, 돈과 물품 기부, 공간기부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치안과 안전, 청소년 시설 확충(도서관, 문화공간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시설, 주거환경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석관동 설문 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526)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23	42.4	혼인	비혼	62	11.8		
	여성	284	54.0		기혼	434	82.5		
	무응답	19	3.6		무응답	30	5.7		
연령	20대	19	3.6	가구원 수	1인	25	4.8		
	30대	84	16.0		2인	106	20.2		
	40대	93	17.7		3인	127	24.1		
	50대	117	22.2		4인	162	30.8		
	60대	119	22.6		5인	43	8.2		
	70대 이상	57	10.8		6인 이상	9	1.8		
	무응답	25	4.8		무응답	54	10.2		
	시스템 결측값	12	2.3						
	학력	무학	5		1.0	가구형태	혼자사는 가구(독거가구)	22	4.2
		초졸	33		6.3		부부가정	138	26.2
중졸		84	16.0	부부+자녀가정	287		54.6		
고졸		215	40.9	조부모+부부+자녀가정	25		4.8		
전문대(중퇴)졸		59	11.2	한부모+자녀 가정	17		3.2		
대학(중퇴)졸		84	16.0	조부모+손자녀가정	5		1.0		
대학원이상		17	3.2	기타	5		1.0		
무응답		29	5.5	무응답	27		5.1		

2) 주거 및 거주 특성

(1)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자가 169명이 응답하였으며, 32.1%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61.8%이다.

거주기간		
구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4	0.8
3년 미만	20	3.8
5년 미만	46	8.7
10년 미만	85	16.2
20년 미만	169	32.1
30년 미만	74	14.1

30년 이상	82	15.6
무응답	31	5.9
시스템 결측값	15	2.9
합계	1,2%526	100.0

(2) 주택형태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30.2%, 다세대/연립주택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자가 전체응답자의 61.2%이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주택형태	단독주택	220	41.8	점유형태	자가	322	61.2
	아파트	159	30.2		임대-전세	121	23.0
	다세대/연립주택	91	17.3		임대-보증부 월세	12	2.3
	상가주택	30	5.7		임대-월세	26	4.9
	기타	2	0.4		임대아파트	15	2.9
	무응답	24	4.6		기타	6	1.1
	합계	526	100.0		무응답	24	4.6
			합계	526	100.0		

3) 거주지 선택과 이사 계획

(1) 거주지 선택 이유

석관동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는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이 48.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경제적 형편(18.4%), 가족·친지(10.6%), 직장·사업(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선택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므로	254	48.3
경제적 형편에 적합하므로	97	18.4
임시거주지이므로	4	0.8
직장 또는 사업때문에	55	10.5
가족, 친지들이 있어서	56	10.6
교통이 편리해서	29	5.5
자녀육아, 양육때문에	6	1.1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3	0.6
자연환경이 좋아서	3	0.6
생활시설(쇼핑/문화/의료시설)이 편리해서	5	1.0
기타	5	1.0
무응답	9	1.7
합계	526	100.0

(2) 타지역 이사 계획

타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수가 378명으로 71.9%로 나타났다.

타지역 이사 계획		
구분	빈도	퍼센트
없다	140	26.6
있다	378	71.9
무응답	8	1.5
합계	526	100.0

이사계획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21.7%), 사업·직장(13.1%), 생활편의시설(7.2%)로 나타났다. 이사 계획이 없는 이유로 경제적 형편(31.7%), 가족·친지(11.2%), 사업·직장 (10.5%)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이사계획이 있는 이유	경제적 형편	114	21.7	이사계획이 없는 이유	경제적 형편	167	31.7
	생활편의 시설	38	7.2		생활편의 시설	47	8.9
	사업상 또는 직장	69	13.1		사업상 또는 직장	55	10.5
	의료시설	5	1.0		의료시설	2	0.4
	자녀 육아, 양육	22	4.2		자녀 육아, 양육	8	1.5
	교육환경	26	4.9		교육환경	7	1.3
	자연환경	34	6.5		자연환경	15	2.9
	교통 및 이동	4	0.8		교통 및 이동	44	8.4
	가족, 친지	13	2.5		가족, 친지	59	11.2
	경제적 이익	22	4.2		경제적 이익	15	2.9
	기타	28	5.3		기타	15	2.9
	합계	375	71.3		무응답	92	17.5
	무응답	151	28.7		합계	526	100.0
합계	526	100.0					

4) 생활상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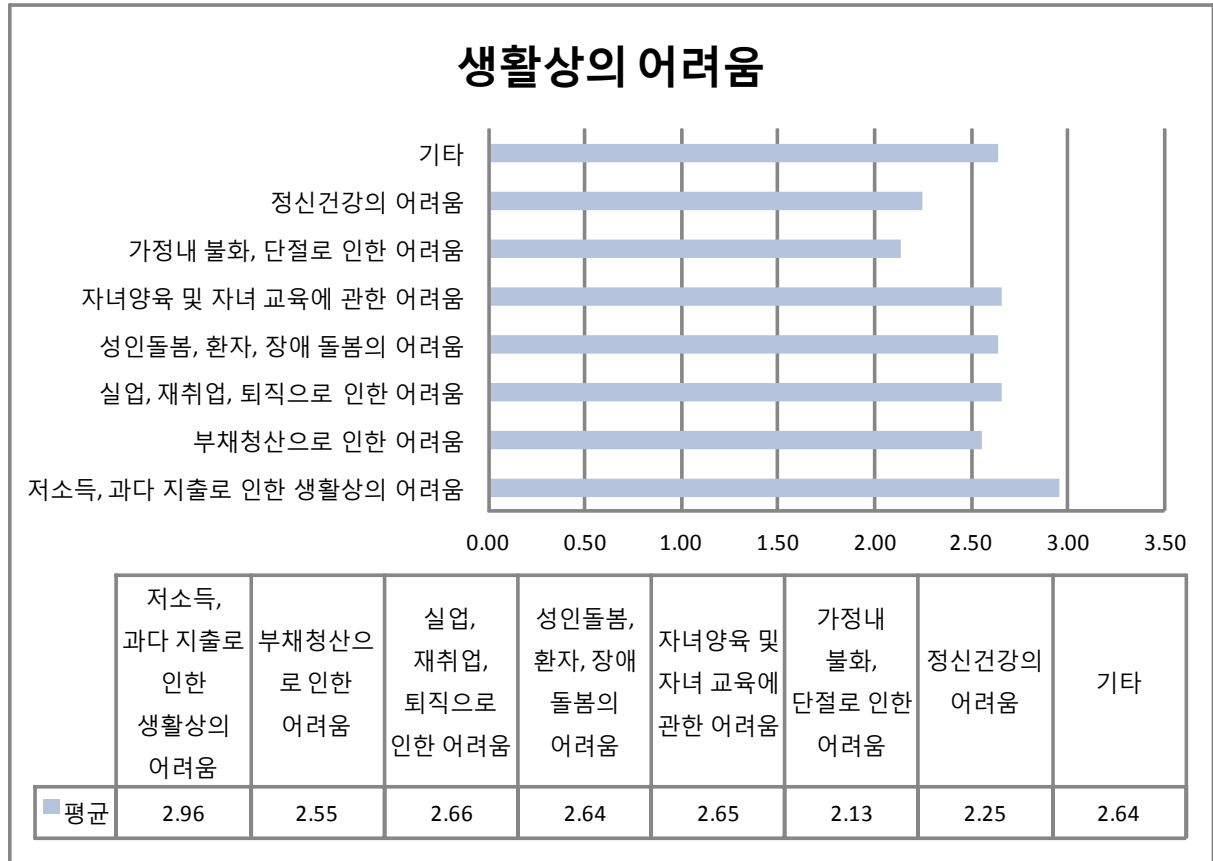
(1) 생활상의 어려움

생활상의 어려움은 평균 2.56으로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하며,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생활상의 어려움

	N	평균	표준편차
저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505	2.96	0.890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497	2.55	1.042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485	2.66	1.164
성인돌봄, 환자, 장애 돌봄의 어려움	482	2.64	1.167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	482	2.65	1.135
가정내 불화, 단절로 인한 어려움	482	2.13	1.022
정신건강의 어려움	490	2.25	1.086
기타	64	2.64	1.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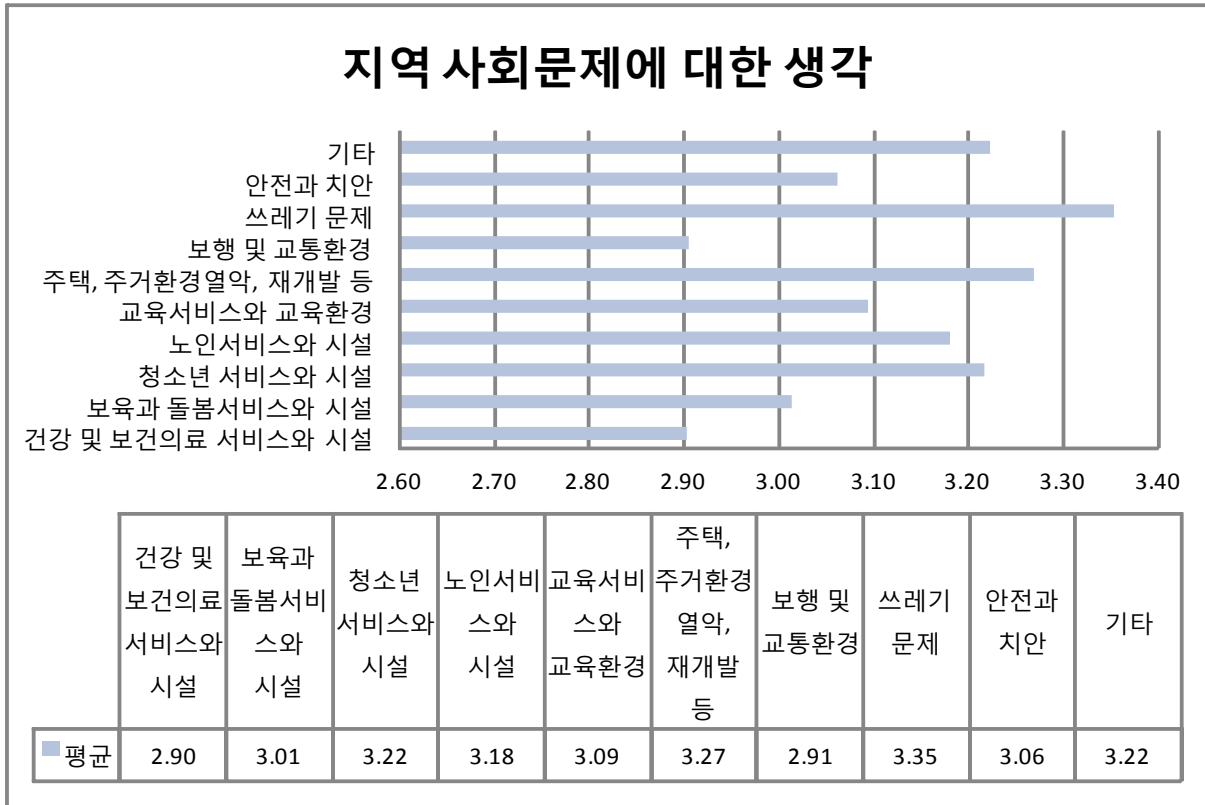
(2)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3.12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쓰레기문제, 주택 및 주거 환경,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보행 및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표>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N	평균	표준편차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496	2.90	0.811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481	3.01	0.861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485	3.22	0.882
노인서비스와 시설	489	3.18	0.950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482	3.09	0.940
주택, 주거 환경 열악, 재개발 등	492	3.27	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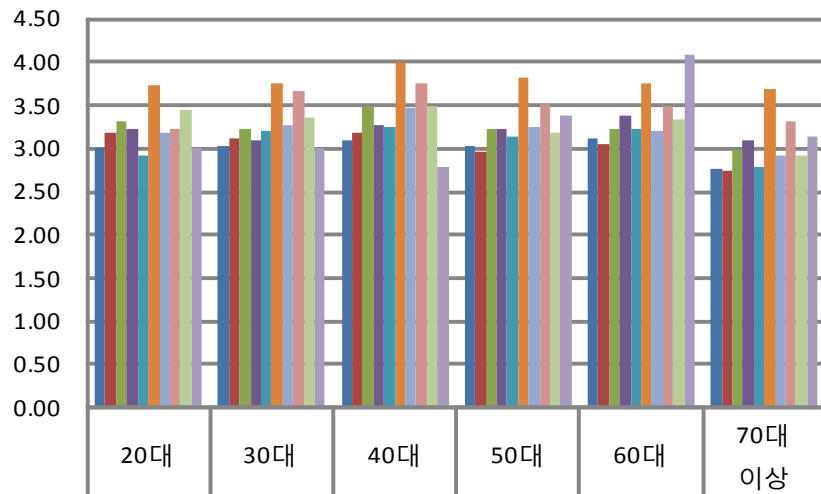
보행 및 교통환경	495	2.91	0.845
쓰레기 문제	496	3.35	1.026
안전과 치안	486	3.06	0.835
기타	54	3.22	0.904



① 연령대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40대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대체로 심각함’이라고 응답했다. 20대는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30대와 40대는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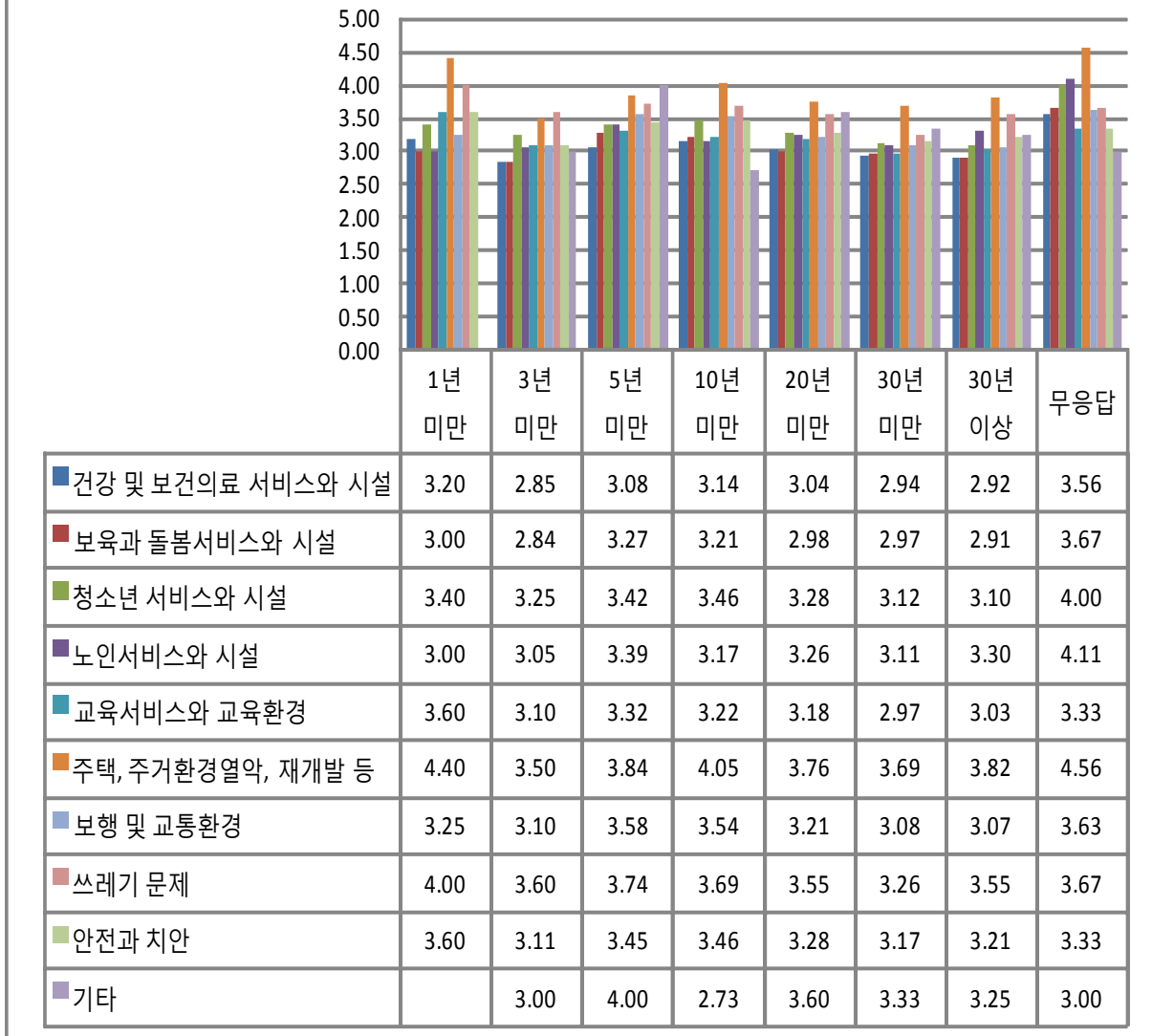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3.00	3.03	3.09	3.02	3.11	2.76
■ 보육과 돌봄서비스와 시설	3.19	3.12	3.18	2.96	3.04	2.74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3.31	3.24	3.49	3.23	3.24	2.98
■ 노인서비스와 시설	3.23	3.10	3.27	3.23	3.39	3.09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	2.92	3.21	3.24	3.13	3.24	2.78
■ 주택, 주거환경열악, 재개발 등	3.73	3.75	4.01	3.81	3.76	3.69
■ 보행 및 교통환경	3.19	3.28	3.47	3.24	3.21	2.93
■ 쓰레기 문제	3.23	3.66	3.76	3.52	3.49	3.31
■ 안전과 치안	3.44	3.35	3.50	3.19	3.34	2.91
■ 기타	3.00	3.00	2.78	3.38	4.08	3.14

② 거주기간별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거주기간별로 살펴봤을 때, 1년 미만 거주자는 주택 및 주거환경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체로 심각함’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 안전과 치안,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이라고 응답했다. 3년 미만 거주자는 쓰레기문제와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와 5년 미만 거주자와 10년 미만 거주자는 주택 및 주거환경, 보행 및 교통환경,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나타났다. 1년 미만의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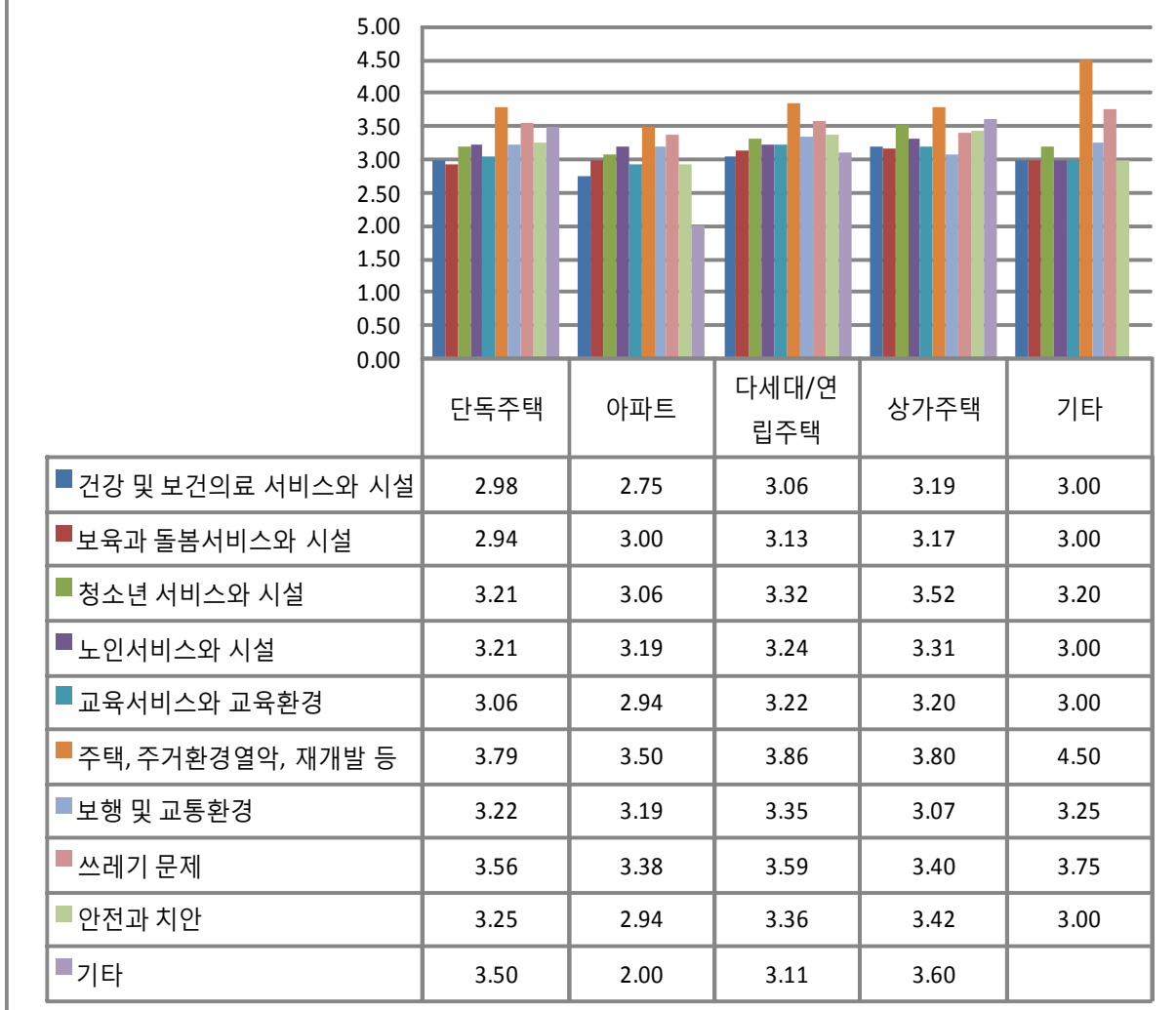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 거주기간



③ 주택형태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주택형태별로 보면 다세대/연립주택과 상가주택 거주자들이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한 반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주택 및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 보육 및 교통환경, 노인서비스와 시설,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단독주택거주자들은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 주택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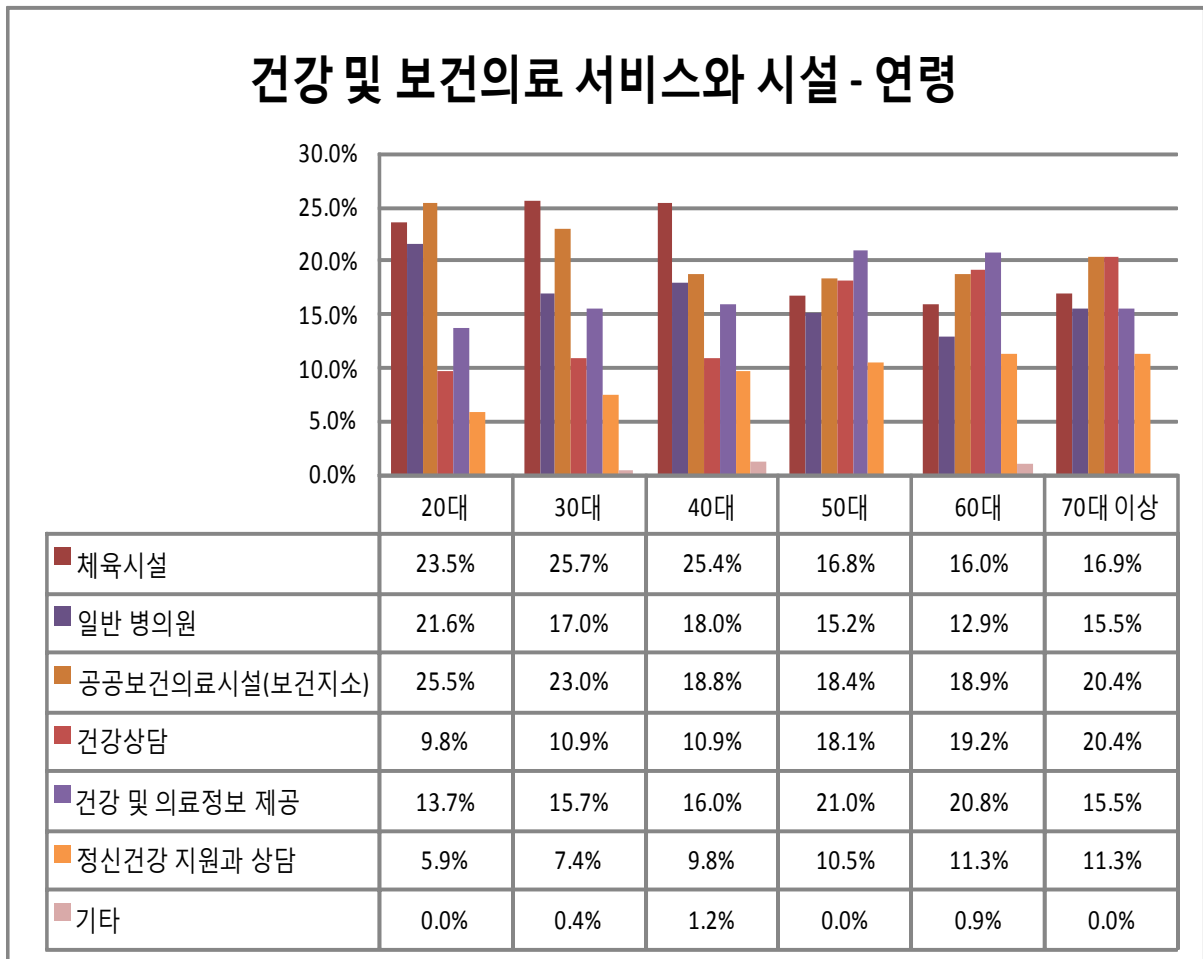
③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20.1%), 체육시설 (20.0%), 건강 및 의료정보(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체육시설	277	20.0%
일반 병원	215	15.5%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279	20.1%
건강 상담	219	15.8%
건강 및 의료정보	249	18.0%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	1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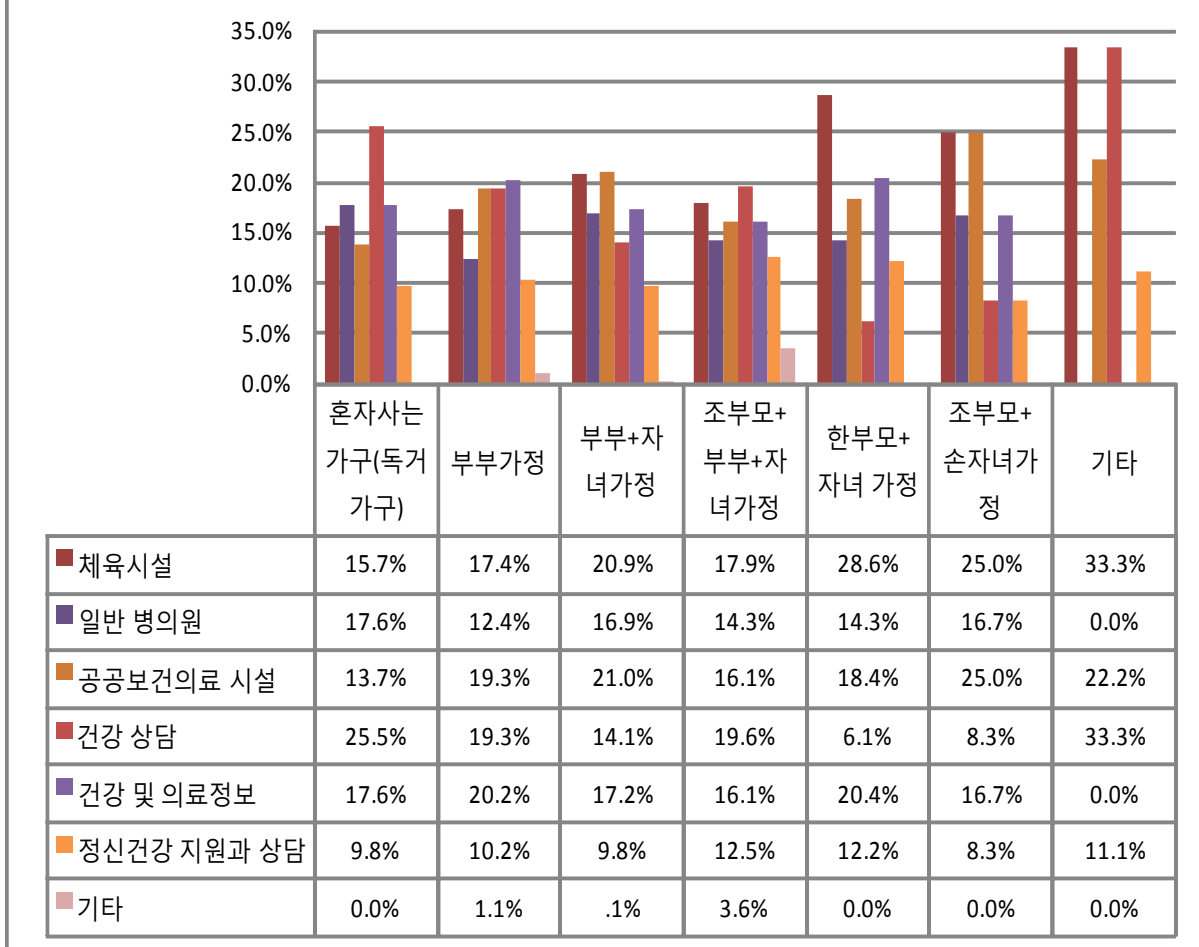
기타	7	0.5%
합계	1385	100.0%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기외, 체육시설, 일반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일반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는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담,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70대 이상은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 건강상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담과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필요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든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사는 가구는 건강상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부부가정은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부부+자녀가정은 공공보건의료시설(보건지소)와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조부모+부부+자녀 가정은 건강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은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건강 및 의료정보 순을 나타냈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체육시설과 공공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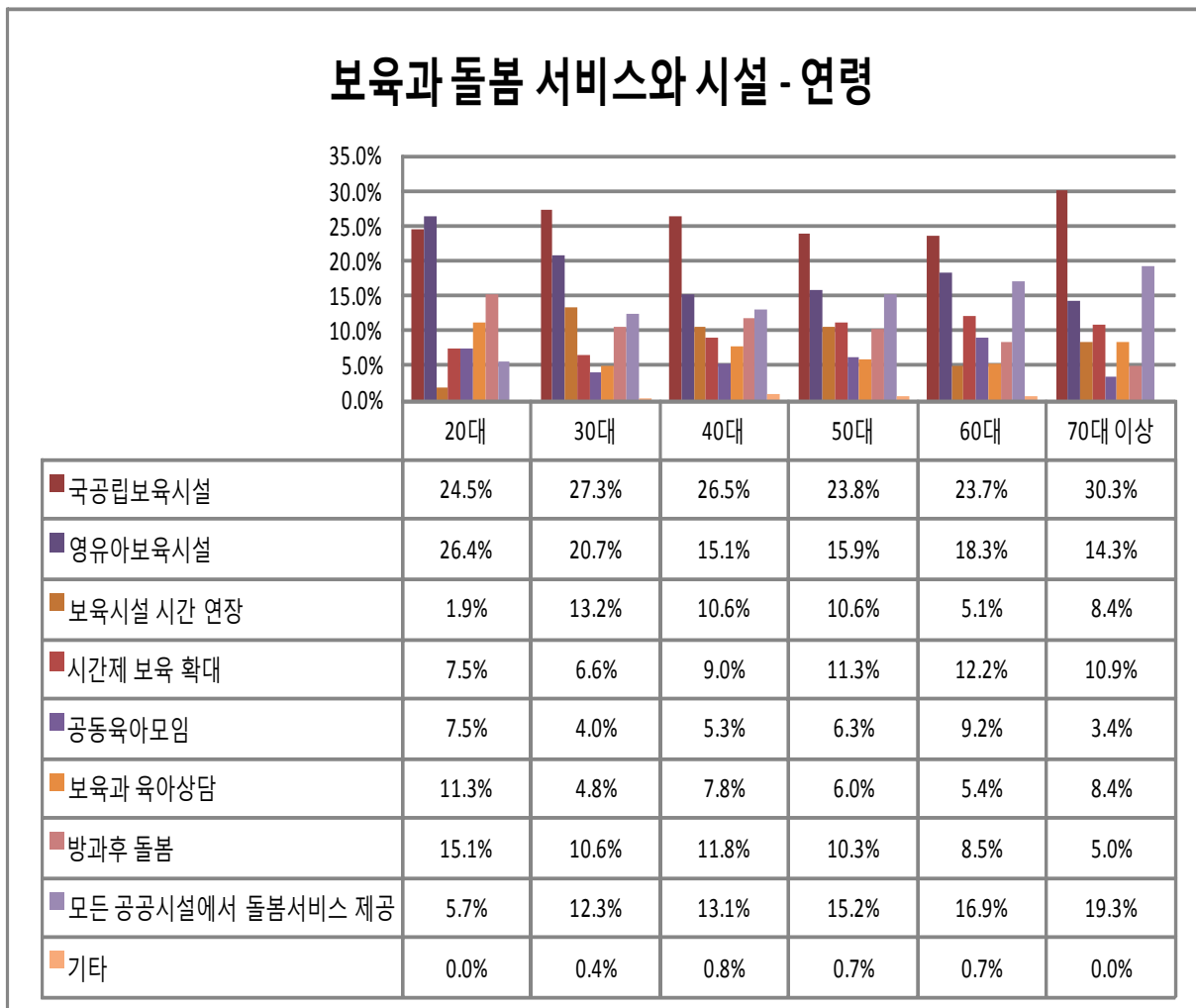
④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필요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25.8%)’, ‘영유아 보육시설(17.4%)’,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국공립보육시설	335	25.8%
영유아 보육시설	226	17.4%
보육시설 시간 연장	120	9.2%
시간제 보육 확대	130	10.0%
공동육아모임	79	6.1%
보육과 육아상담	84	6.5%
방과후 돌봄	127	9.8%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92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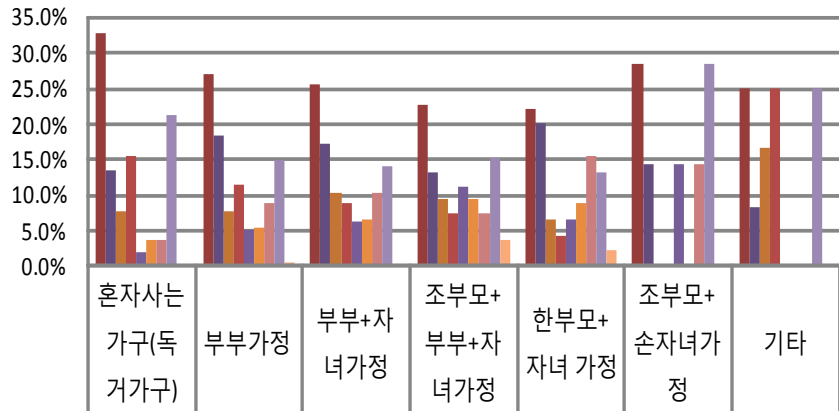
기타	7	0.5%
합계	1300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30대는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시설 시간 연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은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혼자사는 가구는 국공립보육시설,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제 보육확대 순으로 응답했다. 부부가정,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은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며, 한부모 가정은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나타냈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국공립보육시설과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그 외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시설 시간연장,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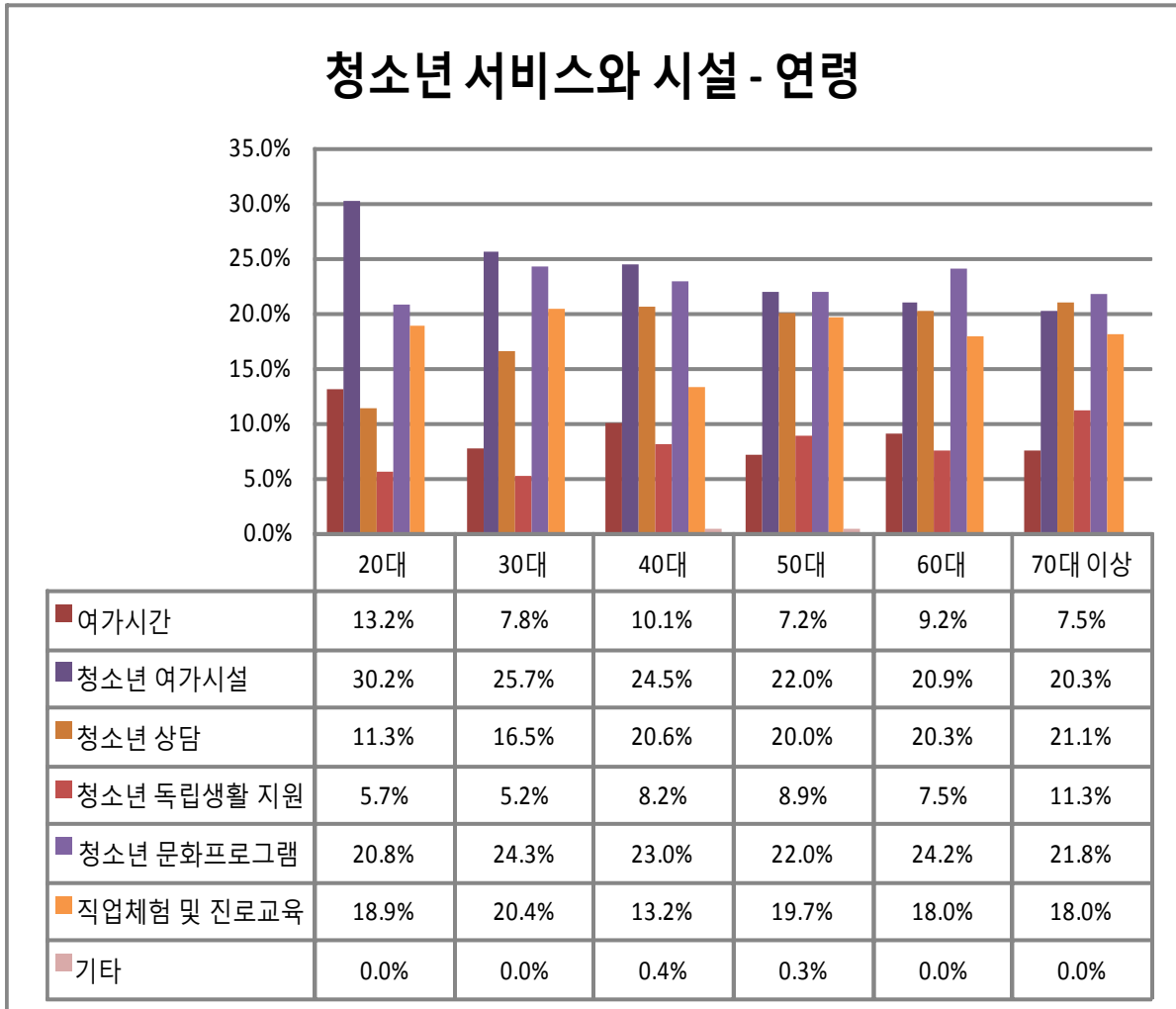
	혼자사는 가구(독 거가구)	부부가정	부부+자 녀가정	조부모+ 부부+자 녀가정	한부모+ 자녀 가정	조부모+ 손자녀가 정	기타
■ 국공립보육시설	32.7%	27.1%	25.6%	22.6%	22.2%	28.6%	25.0%
■ 영유아 보육시설	13.5%	18.5%	17.3%	13.2%	20.0%	14.3%	8.3%
■ 보육시설 시간연장	7.7%	7.7%	10.3%	9.4%	6.7%	0.0%	16.7%
■ 시간제 보육확대	15.4%	11.4%	9.0%	7.5%	4.4%	0.0%	25.0%
■ 공동육아모임	1.9%	5.2%	6.5%	11.3%	6.7%	14.3%	0.0%
■ 보육과 육아상담	3.8%	5.5%	6.7%	9.4%	8.9%	0.0%	0.0%
■ 방과후 돌봄	3.8%	8.9%	10.4%	7.5%	15.6%	14.3%	0.0%
■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21.2%	15.1%	14.1%	15.1%	13.3%	28.6%	25.0%
■ 기타	0.0%	0.6%	0.3%	3.8%	2.2%	0.0%	0.0%

⑤ 청소년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

청소년 여가시설(23.1%), 청소년 문화프로그램(22.9%), 청소년 상담(19.0%),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17.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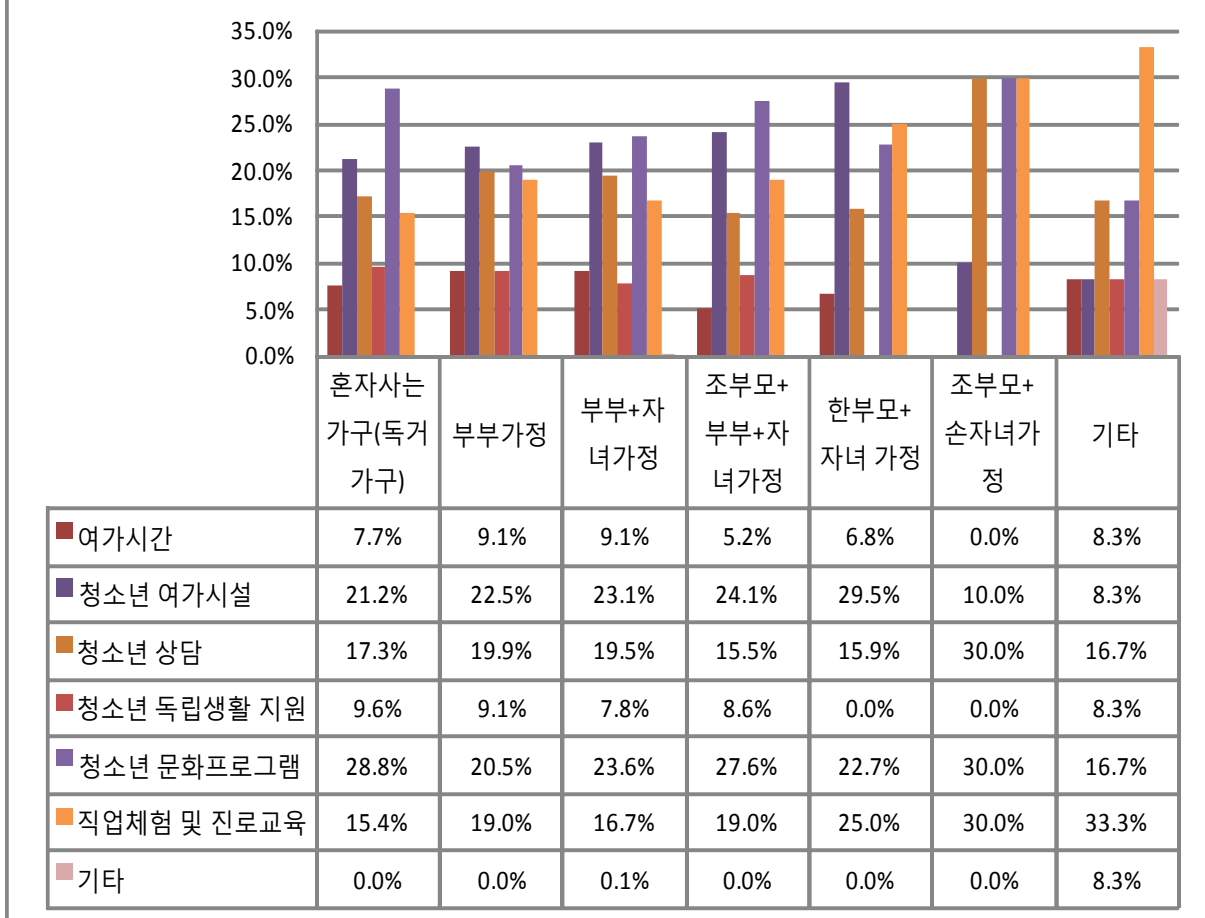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여가시간	121	8.9%
청소년 여가시설	314	23.1%
청소년 상담	259	19.0%
청소년 독립생활 지원	110	8.1%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311	22.9%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243	17.9%
기타	2	0.1%
합계	1360	100.0%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30대는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외에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사는 가구, 부부가정, 부부+자녀가정은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부부+자녀가정, 한부모 가정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여가시설,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청소년 상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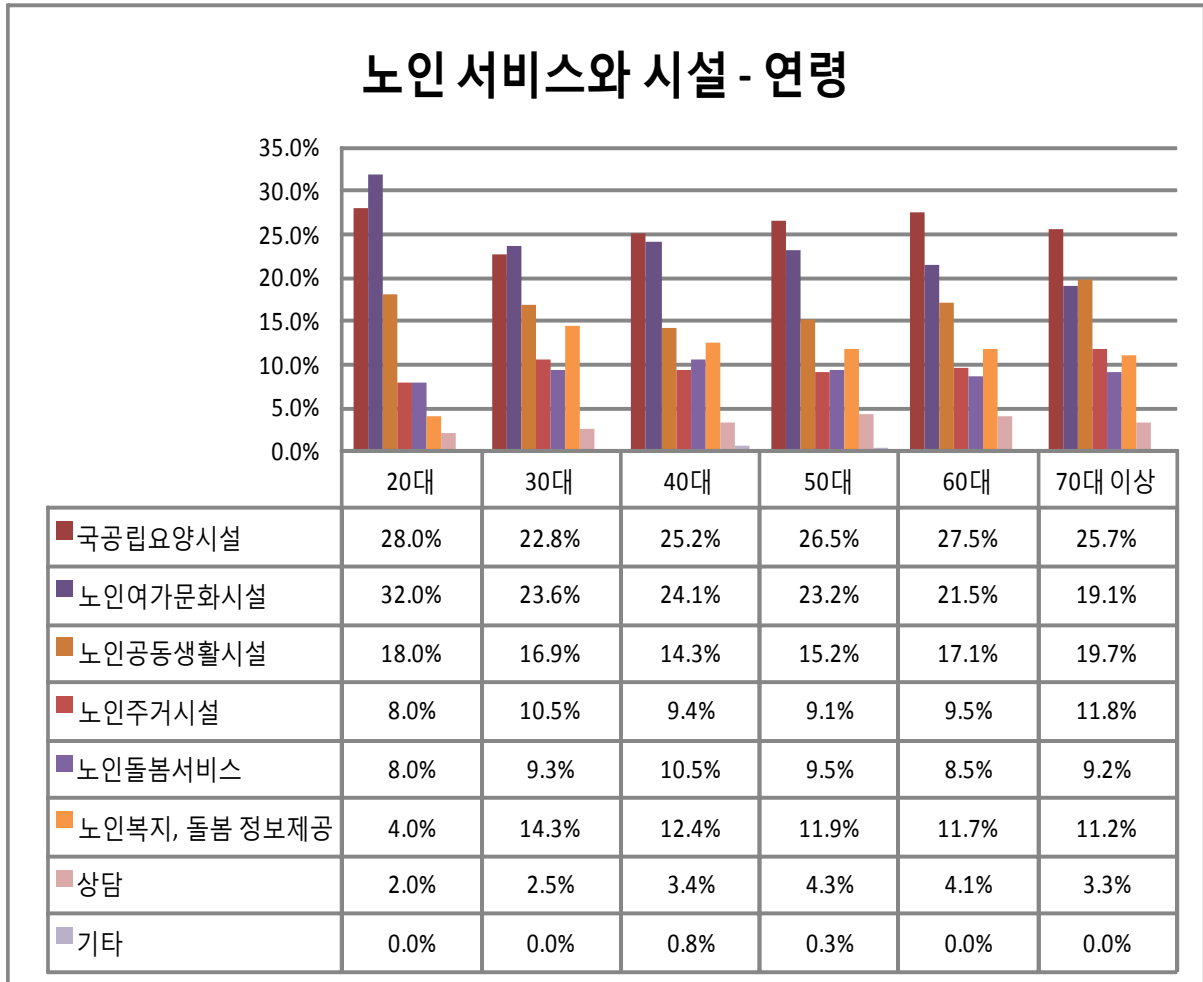


⑦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국공립노인요양시설(25.6%), 노인여가문화시설(23.0%), 노인공동생활시설(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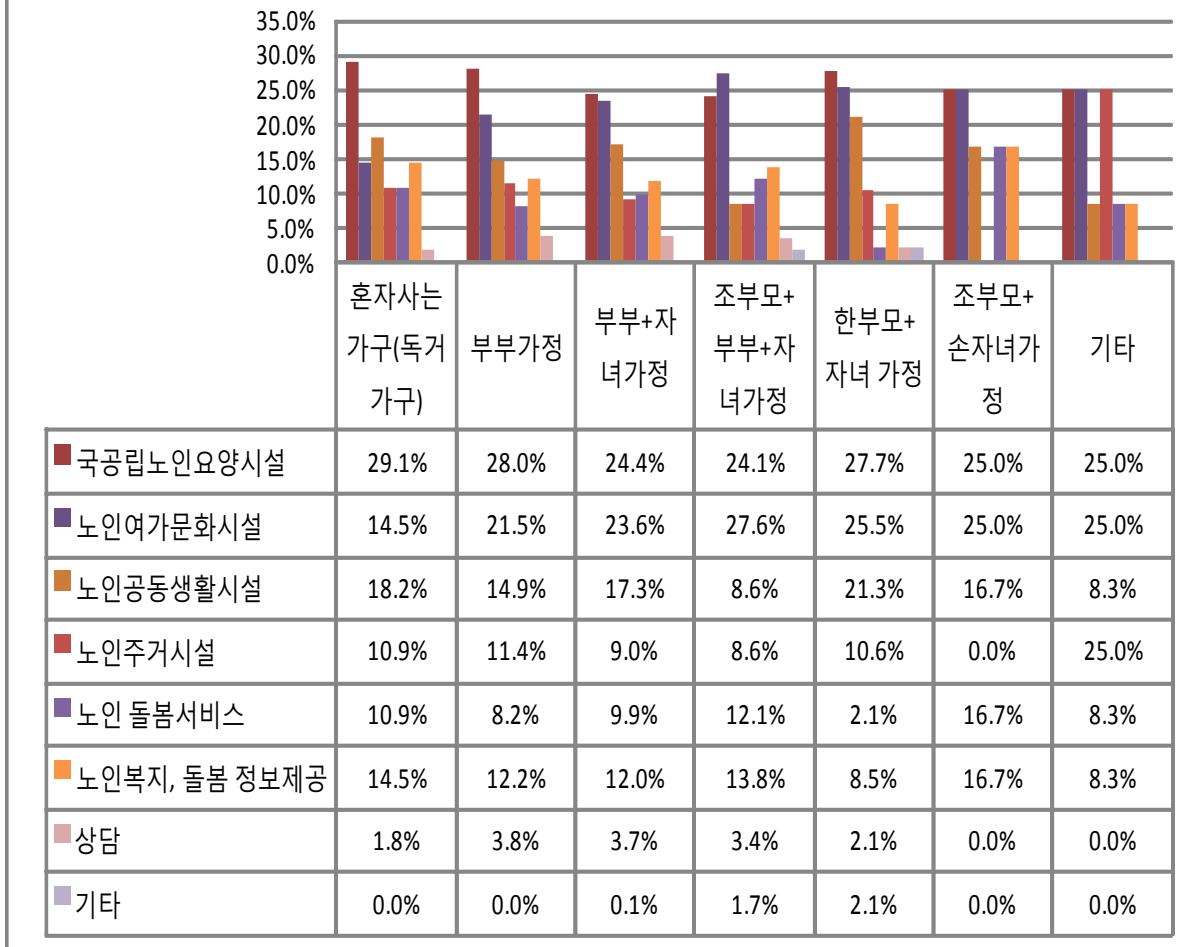
노인 서비스와 시설		
	응답	
	N	퍼센트
국공립노인요양시설	366	25.6%
노인여가문화시설	328	23.0%
노인공동생활시설	233	16.3%
노인주거시설	144	10.1%
노인돌봄서비스	132	9.3%
노인복지, 돌봄 정보제공	169	11.8%
상담	52	3.6%
기타	3	0.2%
합계	1427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노인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국공립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국공립요양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사는 가구는 국공립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부부가정과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 한부모+자녀가정, 조부모+손자녀가정은 국공립노인요양시설과 노인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노인 서비스와 시설 -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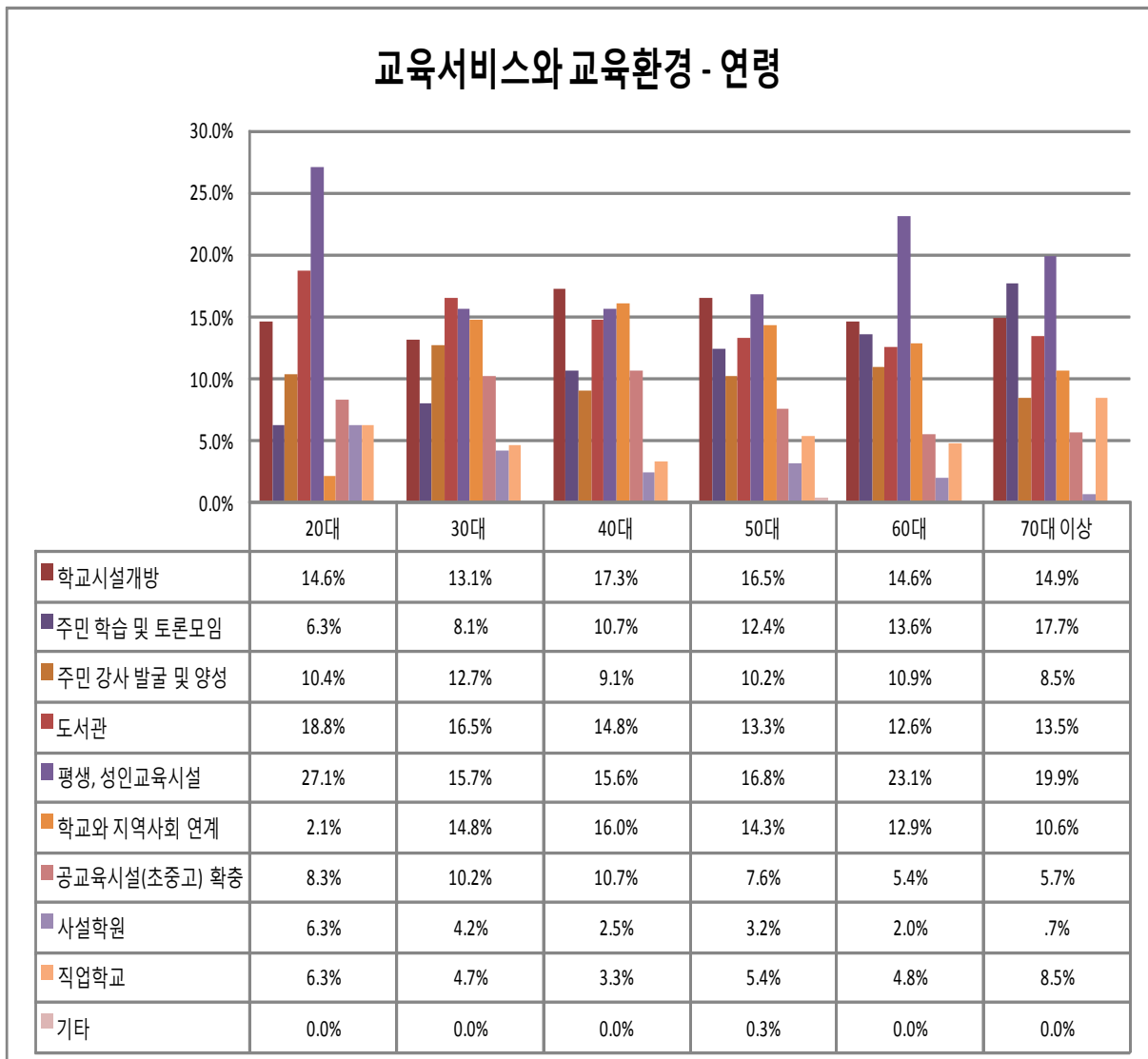
⑧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평생 및 성인교육시설(18.5%), 학교시설개방(15.5%), 도서관(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와 교육 환경		
	응답	
	N	퍼센트
학교시설 개방	209	15.5%
주민학습 및 토론 모임	166	12.3%
주민강사 발굴 및 양성	139	10.3%
도서관	188	14.0%
평생, 성인교육시설	249	18.5%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183	13.6%
공교육시설(초중고) 확충	107	7.9%
사설학원	38	2.8%
직업학교	66	4.9%

기타	2	0.1%
합계	1347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평생·성인교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도서관, 학교시설 개방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도서관, 평생·성인교육시설, 학교시설개방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50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연계, 평생·성인교육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와 70대 이상은 주민학습 및 토론 모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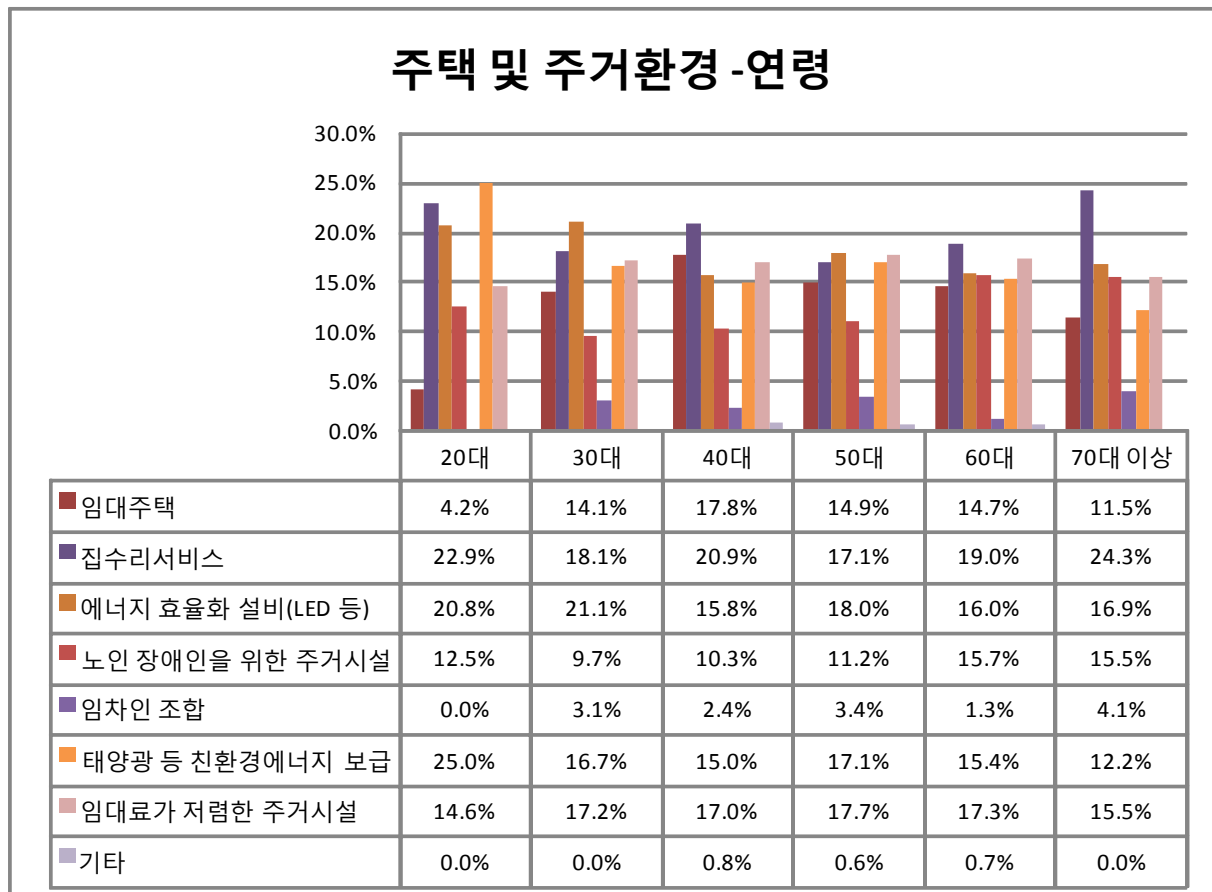


⑨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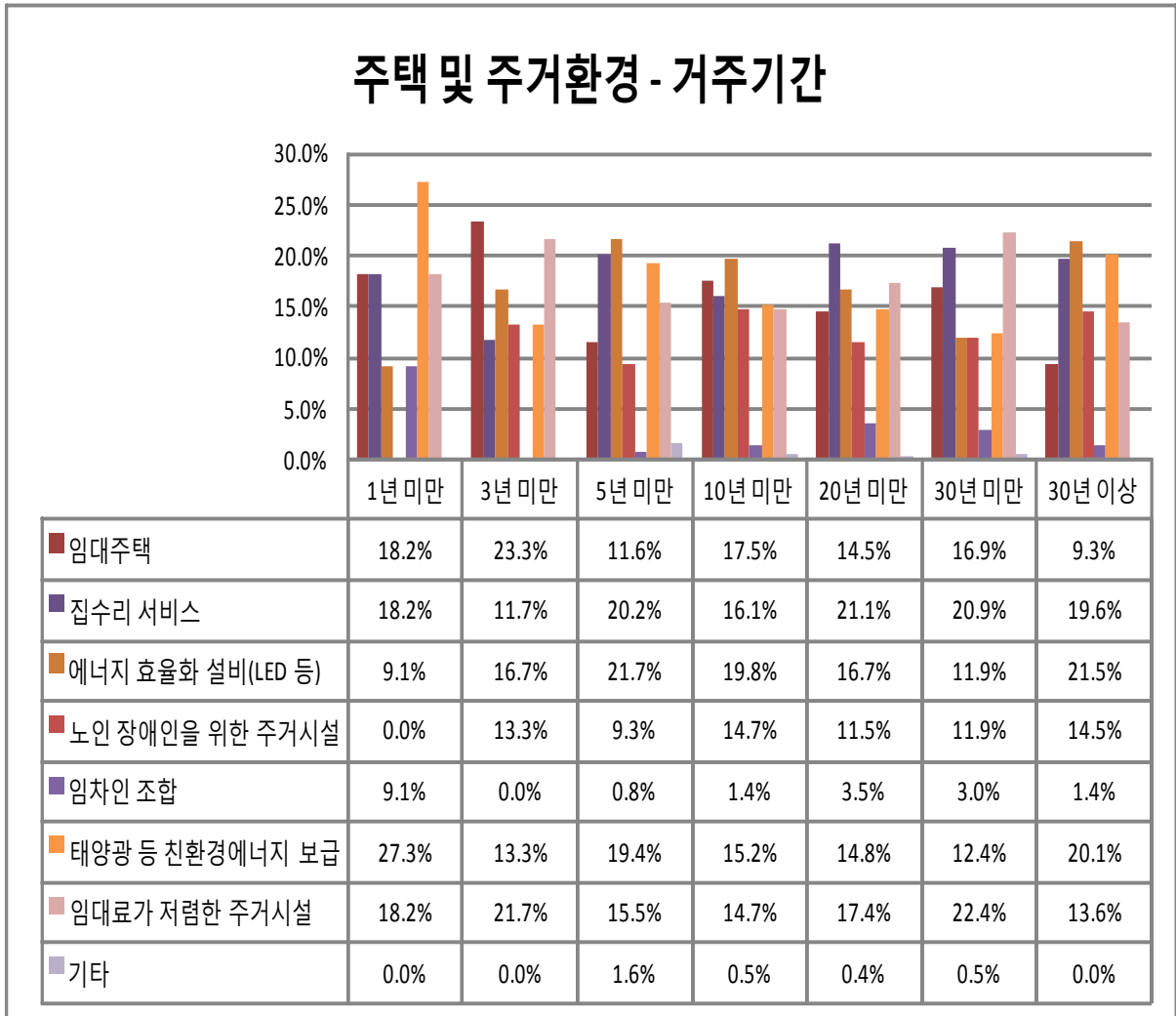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집수리서비스(19.3%), 에너지효율화설비(17.5%),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 환경		
	응답	
	N	퍼센트
임대주택	202	14.7%
집수리서비스	266	19.3%
에너지 효율화 설비(LED 등)	241	17.5%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173	12.6%
임차인 조합	37	2.7%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215	15.6%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235	17.1%
기타	6	0.4%
합계	1375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관련되어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외 집수리서비스, 에너지효율화 설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0대는 에너지효율화설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집수리서비스,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그 외 임대주택과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50대는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은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효율화 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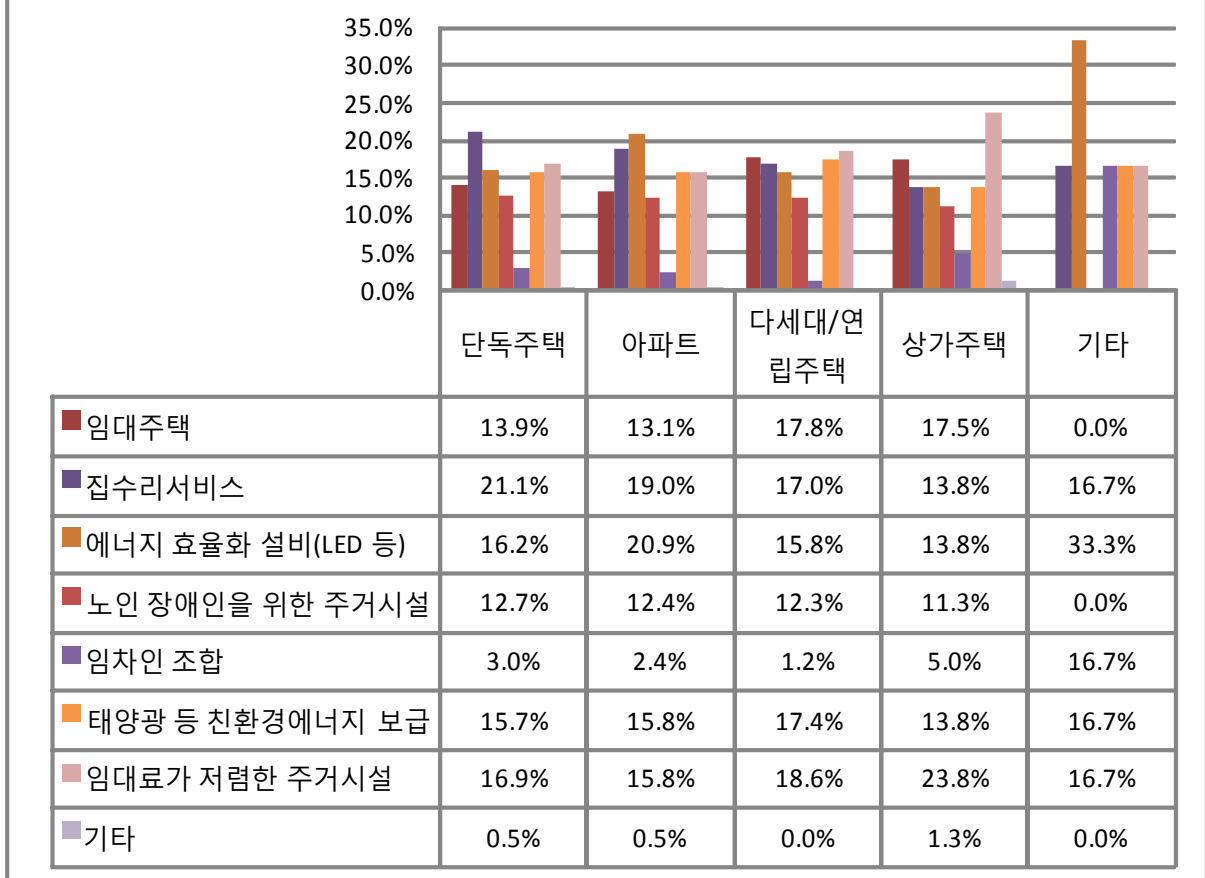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거주자들은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3년 미만 거주자들은 임대주택과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5년 미만, 10년 미만 거주자들은 에너지효율화설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20년 미만 거주자들은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30년 미만 거주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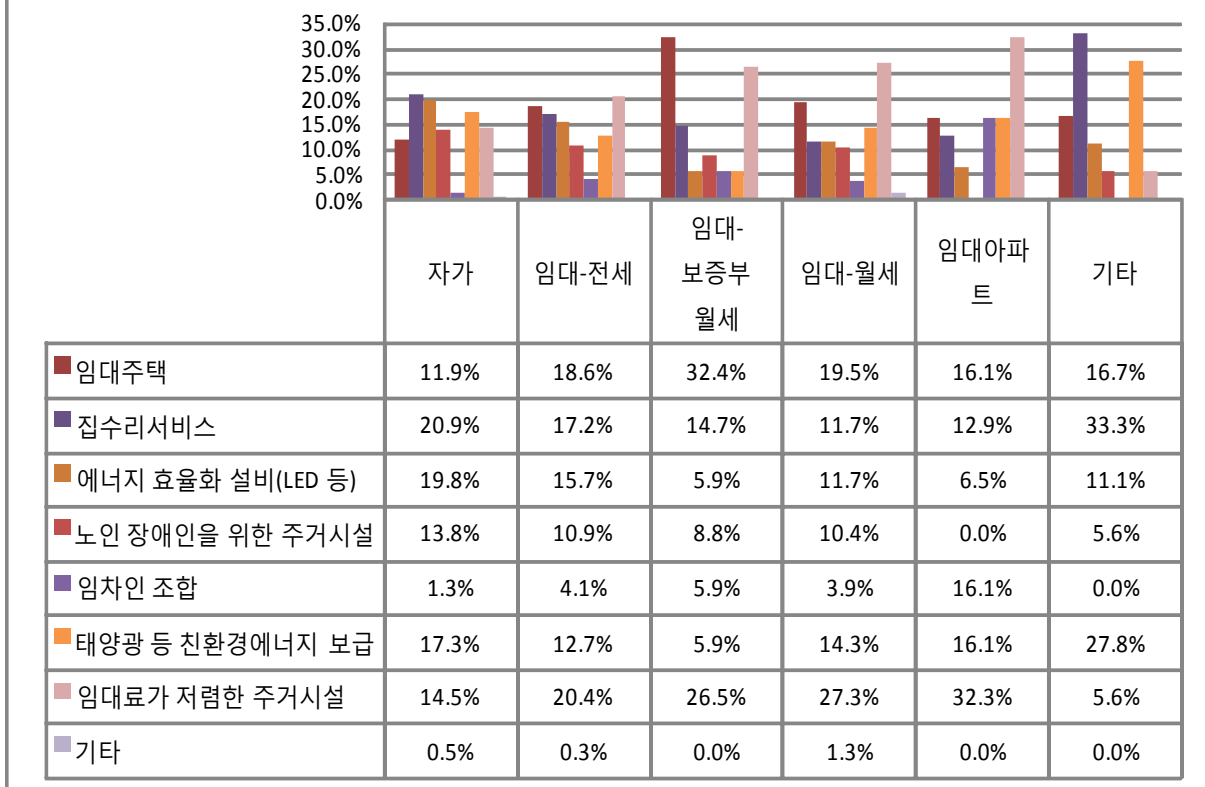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들이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세대/연립주택과 상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 주택형태



자가거주자는 집수리서비스와 에너지효율화설비,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나, 임대거주자들은 임대주택과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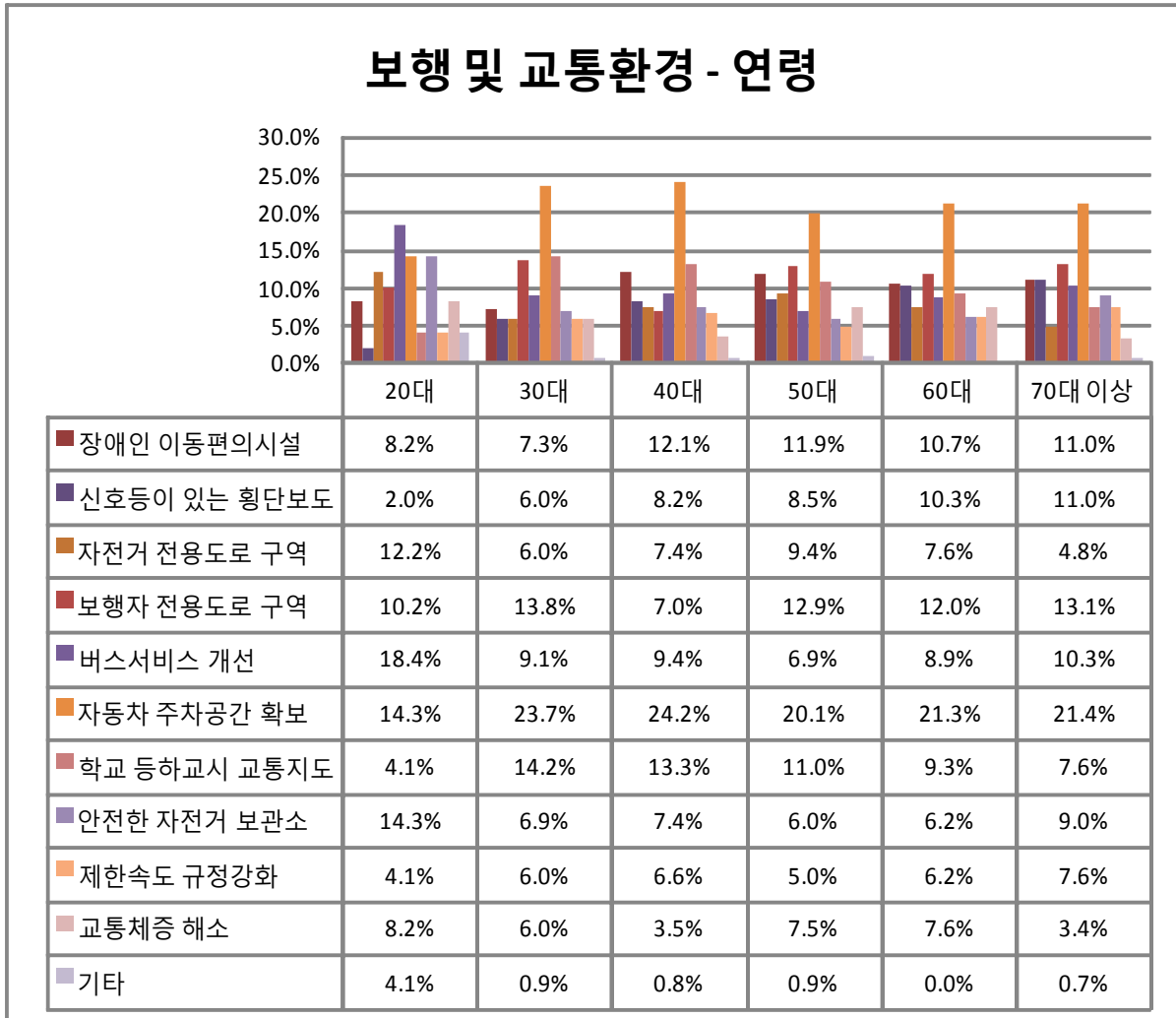


⑩ 보행 및 교통 환경

보행 및 교통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21.7%), 보행자전용도로구역(11.5%),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11.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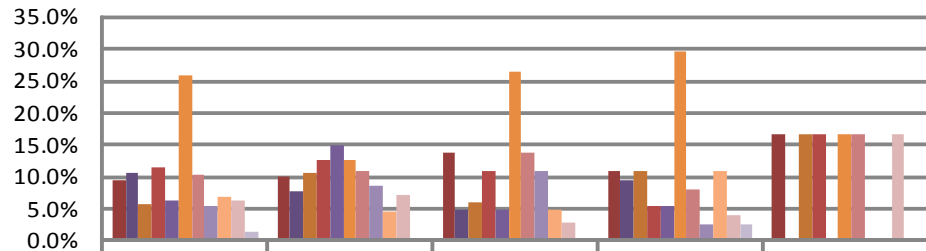
보행 및 교통 환경		
	응답	
	N	퍼센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145	10.6%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118	8.7%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	105	7.7%
보행자전용도로구역	156	11.5%
버스서비스 개선	119	8.7%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295	21.7%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	150	11.0%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	98	7.2%
제한속도 규정강화	83	6.1%
교통체증 해소	83	6.1%
기타	10	0.7%
합계	1362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버스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자동차 주차공간확보,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대, 보행자 전용구역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40대 이상 연령은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자동차주차공간 확대, 보행자전용도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버스서비스 개선,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 및 교통환경 -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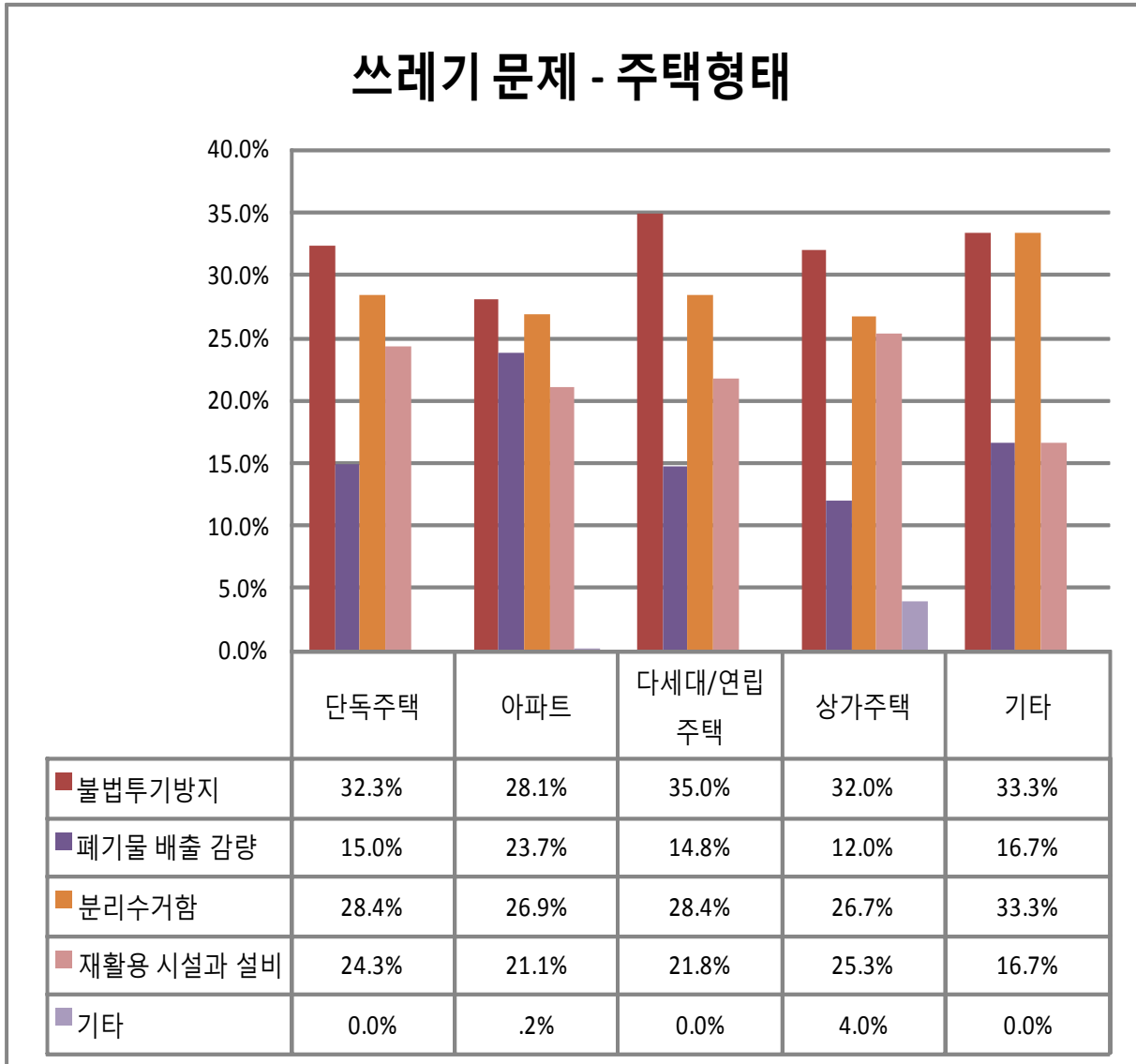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	기타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9.4%	10.1%	13.9%	10.8%	16.7%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10.7%	7.8%	4.9%	9.5%	0.0%
■ 자전거 전용도로 구역	5.9%	10.6%	6.1%	10.8%	16.7%
■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11.5%	12.7%	11.0%	5.4%	16.7%
■ 버스 서비스 개선	6.4%	15.1%	4.9%	5.4%	0.0%
■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	25.8%	12.7%	26.5%	29.7%	16.7%
■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	10.3%	10.8%	13.9%	8.1%	16.7%
■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	5.3%	8.5%	11.0%	2.7%	0.0%
■ 제한속도 규정강화	6.9%	4.7%	4.9%	10.8%	0.0%
■ 교통체증 해소	6.4%	7.1%	2.9%	4.1%	16.7%
■ 기타	1.4%	0.0%	0.0%	2.7%	0.0%

⑪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31.4%), 분리수거함 설치(28.0%), 재활용시설과 설비(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문제	
	N	퍼센트
불법투기 방지	433	31.4%
폐기물 배출 감량	244	17.7%
분리수거함	386	28.0%
재활용 시설과 설비	310	22.5%
기타	4	0.3%
합계	1377	100.0%

모든 주택형태에서 불법투기방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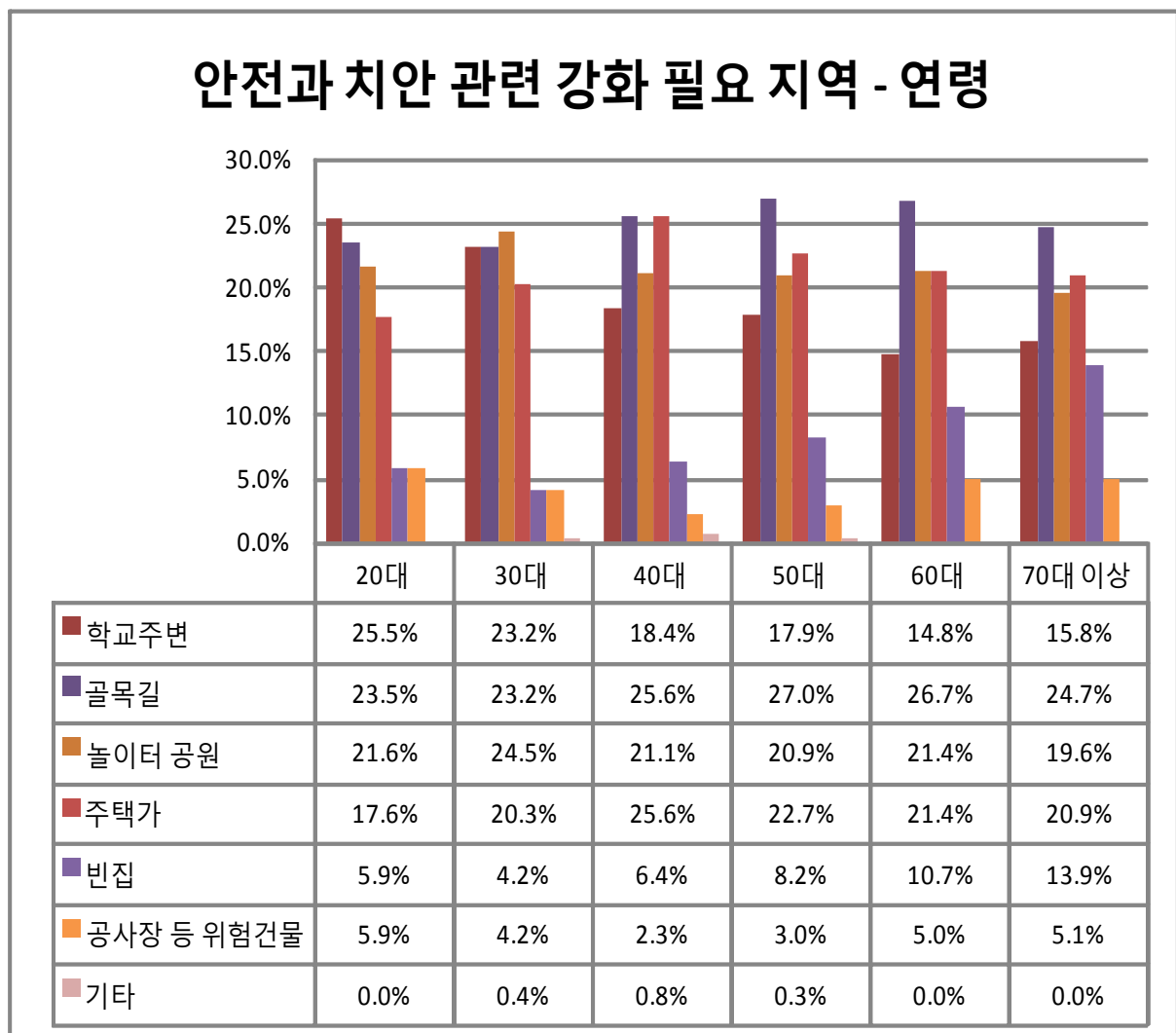
⑫ 안전과 치안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26.0%), 놀이터 공원(22.1%), 주택가(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치안 강화 필요 지역		
구분	N	퍼센트
학교주변	254	17.9%
골목길	370	26.0%
놀이터 공원	304	21.4%
주택가	314	22.1%
빈집	118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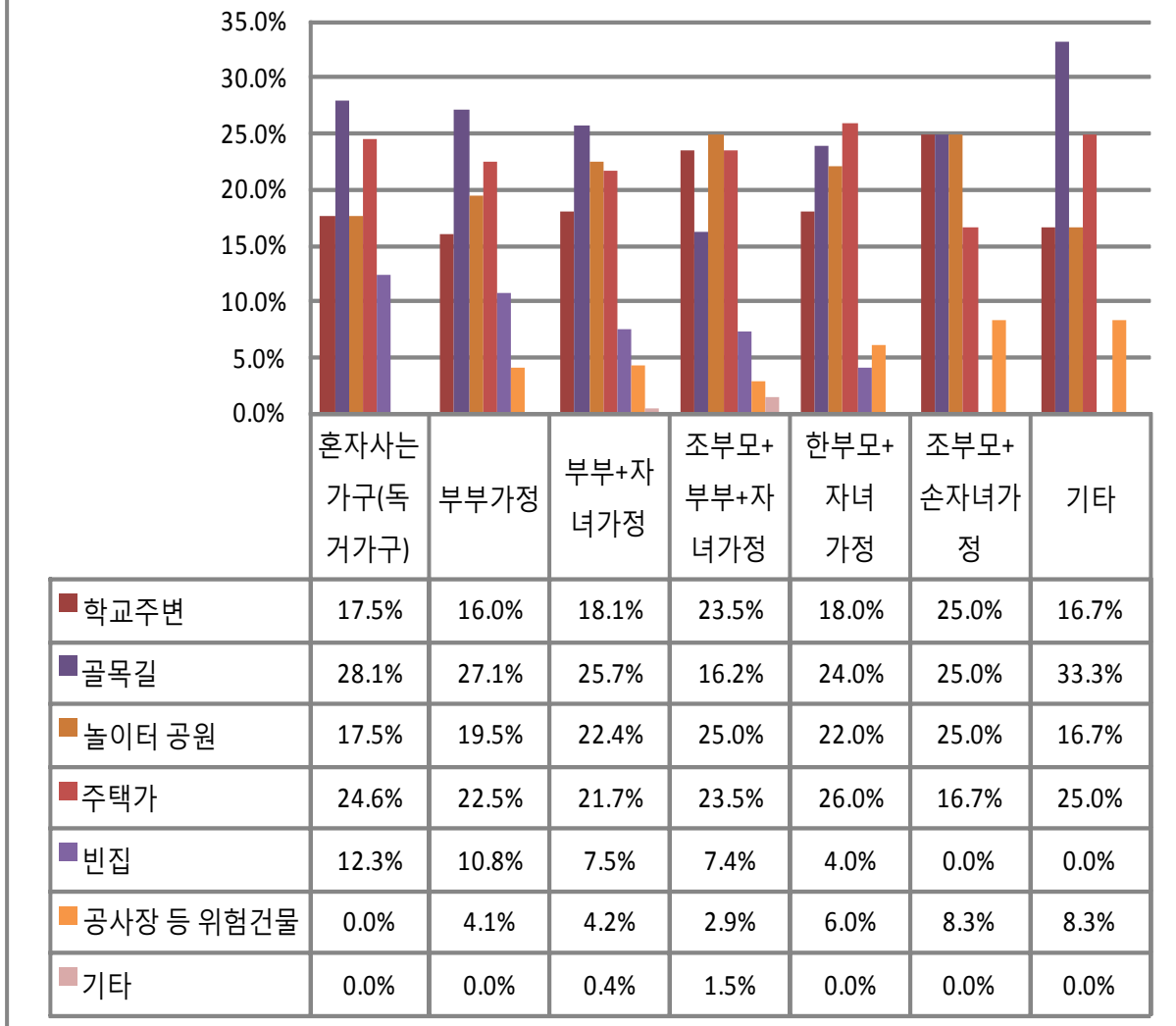
공사장 등 위험건물	58	4.1%
기타	4	0.3%
합계	1422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학교주변, 골목길, 놀이터 공원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에서는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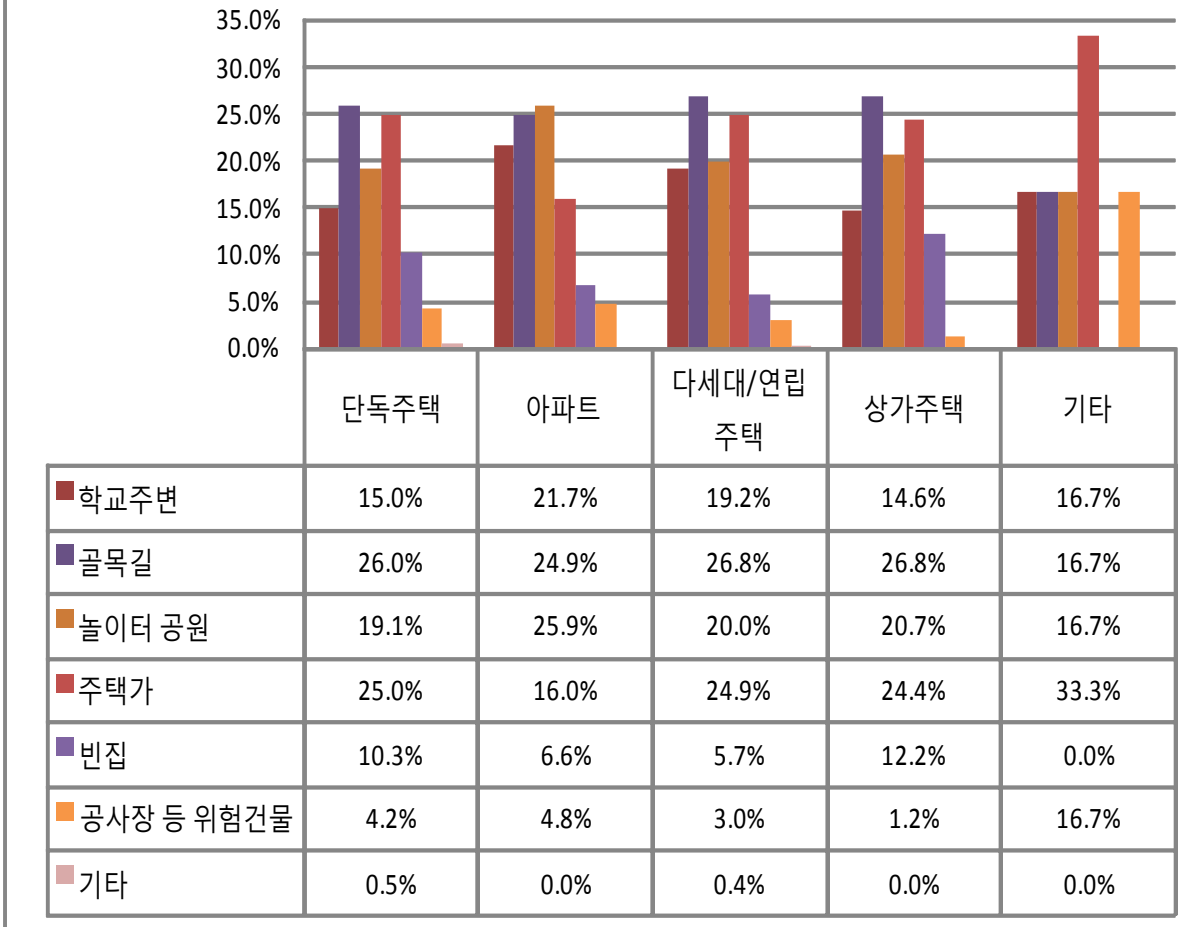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자사는 가구와 부부가정은 골목길, 주택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부부+자녀가정은 골목길과 놀이터공원, 주택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조부모+부부+자녀 가정은 학교주변, 놀이터 공원, 주택가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은 주택가와 골목길, 놀이터 공원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조부모+손자녀가정은 학교주변, 골목길, 놀이터 공원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과 치안 관련 강화 필요 지역 - 가구형태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은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놀이터 공원, 골목길, 학교주변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안전과 치안 관련 강화 필요 지역 -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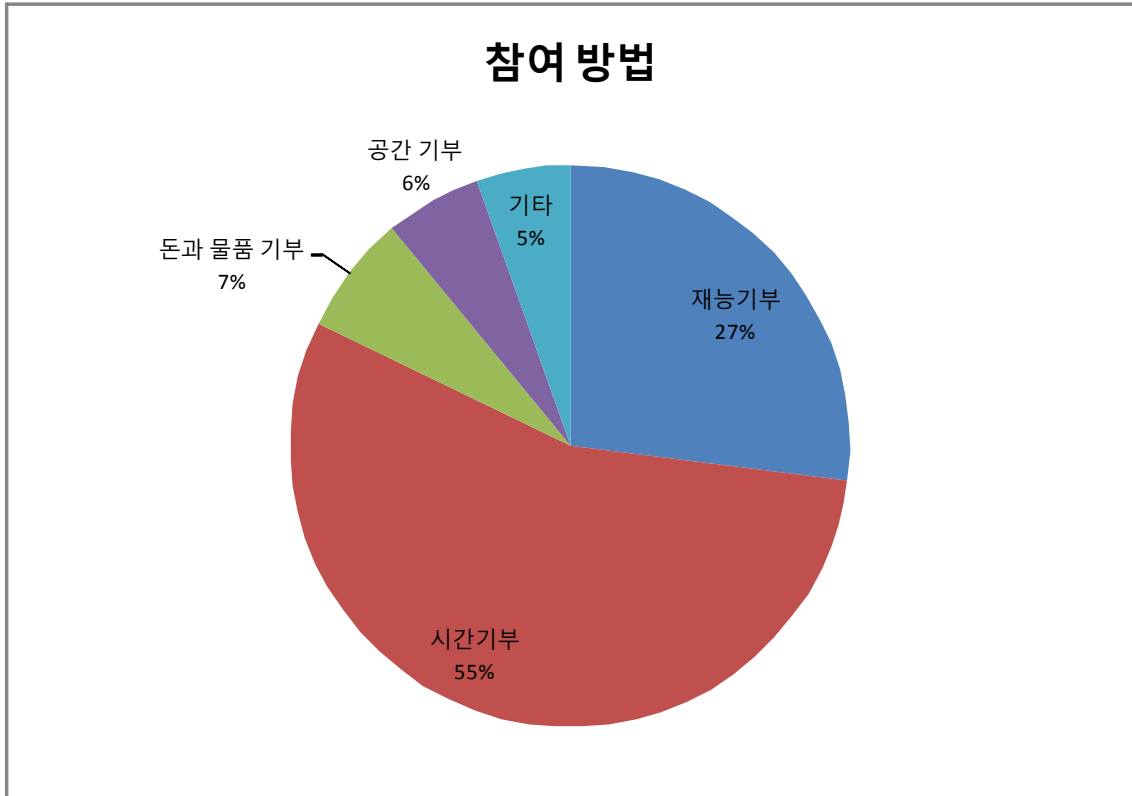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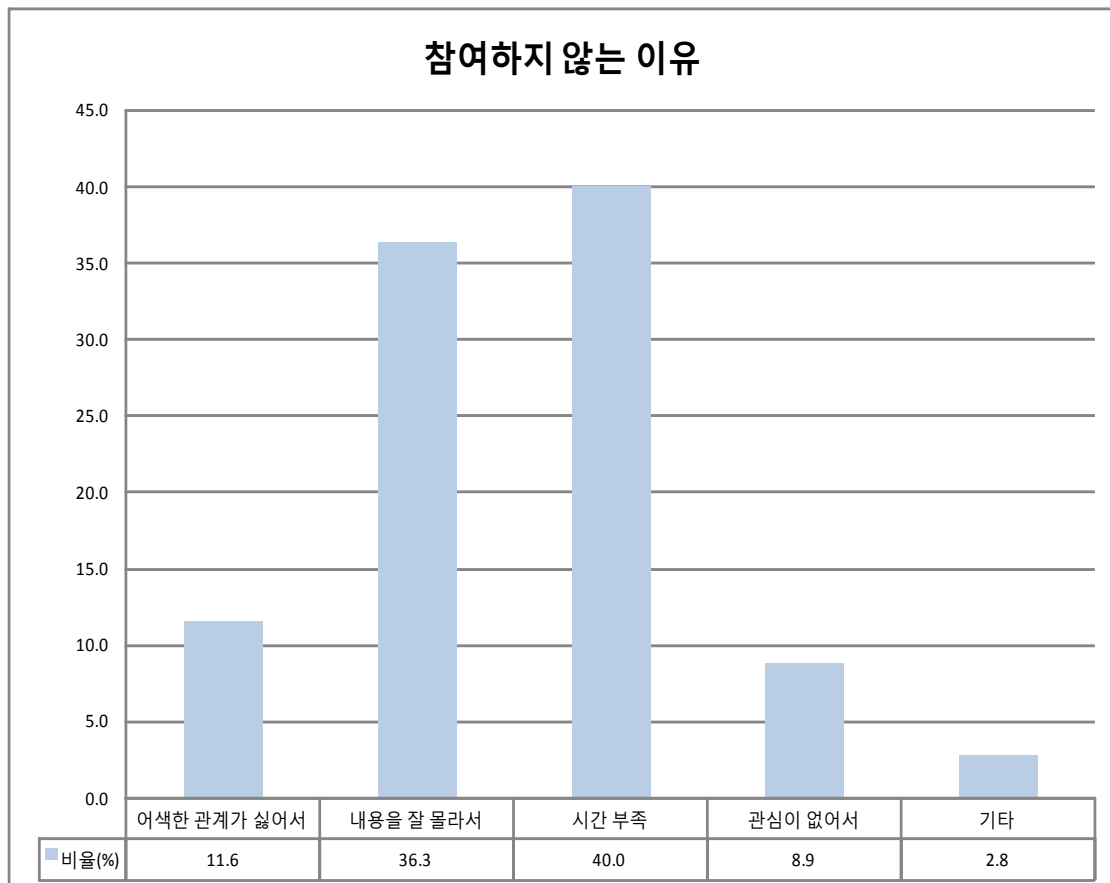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 하겠다 (49.2), 참여하지 않겠다(16.0%), 잘 모르겠다(31.9%)로 응답하였다.

참여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참여 하겠다	259	49.2
참여하지 않겠다	84	16.0
잘 모르겠다	168	31.9
무응답	15	2.9
합계	5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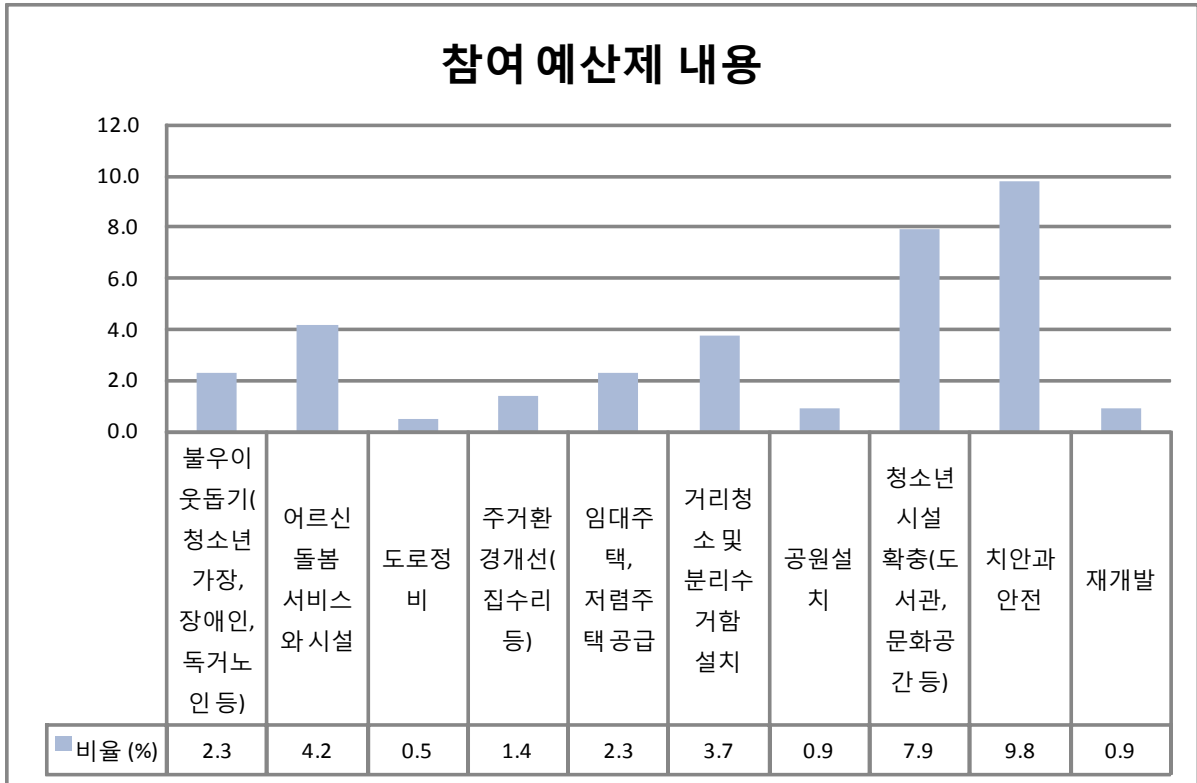
참여방법으로는 시간기부(55%), 재능기부(27%), 돈과 물품 기부(7%), 공간기부(6%)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40%), 내용을 잘 몰라서(36%),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치안과 안전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 7.9%,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시설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소결 : 조사결과와 시사점

① 석관동 주민들은 거주지선택 이유로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 ‘경제적 형편’, ‘가족·친지’, ‘직장과 사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석관동을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는 예전부터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이 48.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경제적 형편(18.4%), 가족·친지(10.6%), 직장·사업(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생활상의 어려움은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문제, 주택 및 주거환경,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 생활상의 어려움은 평균 2.56으로 ‘보통 이하의 심각함’로 나타났다. ‘저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하며, ‘실업,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3.12로 ‘보통보다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문제, 주택 및 주거환경,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 및

보건의로 서비스와 시설, 보행 및 교통 환경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심각함’으로 나타났다.

③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욕구와 필요는 다음과 같다.

○ 건강 및 보건의로 서비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로시설(보건지소), 체육시설, 건강 및 의료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가 공공보건의로시설(보건지소)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40대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으며, 그 외, 공공보건의로시설(보건지소), 일반 병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는 건강 및 보건의로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담, 공공보건의로시설(보건지소)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70대 이상은 공공보건의로시설(보건지소), 건강상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담과 건강 및 의료정보에 대한 필요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보육과 돌봄 서비스와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30대는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시설 시간 연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은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모든 공공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서비스와 시설은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30대는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청소년 여가시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외에 청소년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청소년 상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노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필요는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문화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사는 가구는 국공립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부부가정과 부부+자녀가정, 조부모+부부+자녀가정, 한부모+자녀가정, 조부모+손자녀가정은 국공립노인요양시설과 노인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는 평생 및 성인교육시설, 학교시설개방, 도서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평생·성인교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40대, 50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연계, 평생·성인 교육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와 70대 이상은 주민학습 및 토론 모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한 필요는 집수리서비스, 에너지효율화설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관련되어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30대, 50대는 에너지효율화설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40대는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은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효율화 설

비,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들이 집수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세대/연립주택과 상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 보행 및 교통환경은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보행자전용도로구역,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버스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40대는 자동차 주차공간확보,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40대 이상 연령은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자동차주차공간 확대, 보행자전용도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버스서비스 개선,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학교 등하교시 교통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쓰레기 문제는 불법투기방지,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시설과 설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택형태에서 불법투기방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 안전과 치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곳은 골목길, 놀이터 공원, 주택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상가주택은 골목길, 주택가, 놀이터 공원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놀이터 공원, 골목길, 학교주변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④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의지(49.2%)로 매우 높으며,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문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부분을 이웃과 함께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 하겠다 (49.2), 참여하지 않겠다(16.0%), 잘 모르겠다(31.9%)로 응답하였다. 참여방법으로는 시간기부(55%), 재능기부(27%), 돈과 물품 기부(7%), 공간기부(6%)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40%), 내용을 잘 몰라서(36%), 어색한 관계가 싫어서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는 치안과 안전, 청소년 시설 확충, 어르신 돌봄서비스와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